서울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고관여자(교육수혜자, 중간매개자) 분석연구

2022.12

제 출 문

서울문화재단 귀하

본 보고서를 「서울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고관여자(교육수혜자, 중간매개자) 분석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주 관 기 관 : 서울문화재단
연구 책임자 : 설동준 (주식회사 알프스)
참여 연구원 : 김유진 (주식회사 알프스)
보조 연구원 : 김세연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본 연구의 내용은 서울문화재단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 요약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연구의 배경

○ 재정분권 기조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수립과 실행 권한이 중앙 정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그간 서울문화재단이 추진해온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성과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2027년 기간 중 서울형 예술교육의 핵심이 될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임.

○ 이에 정책 수립을 위한 타당한 근거 확인이 필요한데, 그간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공급자 관점에 치우친 측면이 있어 지방이양과 함께 새롭게 설정하는 정책 방향은 수요자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음.

○ 동시에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정책 실행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는 거점 공간의 기능과 역할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에서 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 기간 중 서울문화재단이 추진해야 할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①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흐름과 서울문화재단 대내외 환경 분석

② 수요자 중심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고관여자 분석 및 관여도 모델(engagement model) 제안

③ 수요자 중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및 현장 분석

④ 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 기간 중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및 과제 제안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2018~2022년을 중심으로 하며, 필요시 '04년~'17년 자료도 포함

○ 공간적 범위: 서울

○ 대상 범위: 각종 문헌자료,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참여자(수요자), 예술교육가 등 매개자

■ 연구의 방법과 내용

○ 본 연구는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수요자의 관여도 양상과 특징을 분석한 고관여자 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수요자 기반 정책 실행의 영향 요인인 정책 환경 분석, 사회변화 분석, 매개자 분석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음.
○ 최종적으로 분석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요 기반 정책의 관점에서 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기간 중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음.

3. 문화예술교육 정책 흐름 및 대내외 환경 분석

■ 지방이양 시점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제언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 사회변화, 광역-기초 단위 협력체계 현황,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변화를 관련 문헌에 대한 메타분석으로 검토하였으며, 세부 분석내용과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 문화예술교육 정책 동향 분석 세부 내용
○ 제1차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이행결과 분석 및 시사점 검토
○ 제2차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논의 방향 검토
○ 제1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 성과 분석
○ 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 주요 이슈

■ 사회변화 분석 세부 내용
○ 문화예술 트랜드 분석 및 전망 검토
○ 서울의 도시경쟁력 평가 자료 검토

■ 서울시, 자치구, 서울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협력체계 관련 제도 및 실태 분석

■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현황 분석 세부 내용
○ 1차 기본계획 기간(2018~2022) 중 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현황 검토
○ 재단 예술교육실 등 조직체계 및 관련 예산 변화 추이 검토
○ 재단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변화 추이 검토
○ 서울문화재단의 기 조성 예술교육센터 및 신규 조성 예정 예술교육센터 관련 이슈 검토

■ 위와 같은 분석을 위해 정책자료 및 각종 문헌에 대한 메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서울시 및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대내외 환경에 관해 다음과 같은 주요 시사점을 확인함.
○ 지방이양에 따라 커진 권한 및 책임과 달리 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 재단의 가용 자원은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에 우선순위와 정책효과를 기준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정책/사업 간 연계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단위공모 지원사업에서 포괄형 공모지원으로의 변화는 지원사업에서의 유연성, 자율성 제고의 기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서울문화재단의 공모사업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화 방향임.

○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모두 문화예술교육 전용/전문 공간에 대한 이슈와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요자의 교육 경험의 질 제고와 관련하여 전용 공간 기반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수립이 필요함.

○ 전국 및 서울시 모두 문화예술교육 외연 확대가 중요한 과제인데, 시민의 높아진 교육 수준과 문화 경험을 고려하여 단순 보급 중심 정책이 아닌 다양성 충족의 관점에서 외연 확대를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함.

○ 또, 지역화의 방향은 1차 종합/기본계획에 이어 2차 계획 기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며, 지역 협력체계의 불분명한 제도적 기반과 실태를 고려한 대응책이 필요함. 특히 제도적, 행정적 기반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협력 또는 거버넌스가 자칫 협력 쌍방의 피로감 증가 및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지역협력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범사회적 변화와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생존'과 '디지털 전환 가속'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한 생존은 기후위기, 혐오와 차별, 주기적 감염병 이슈 등이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효율성과 성장 담론이 안전사회 담론으로 전환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런 패러다임 전환 맥락에서 예술 및 예술교육의 역할과 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첨단 기술의 일상화 환경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외에도 디지털 양극화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시각이 요구됨.

4. 문화예술교육 고관여자 분석

■ 고관여자 분석은 수요 기반 정책 실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는 내용이며, 특히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수요 기반 모델이 생애주기형 모델 외 달리 없는 상황에서 정책 수립을 위한 수요 모델 다각화라는 측면과 인구통계 기반이 아닌 교육경험 기반 모델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사업 참여자(수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수요자의 관여도 관련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조사 개요

○ 조사 방법 : 온라인조사 중심 + 시니어를 위한 큰 글씨 서면조사 병행

○ 조사 기간 : 2022년 11월 16일~11월 28일

○ 시간적 범위 :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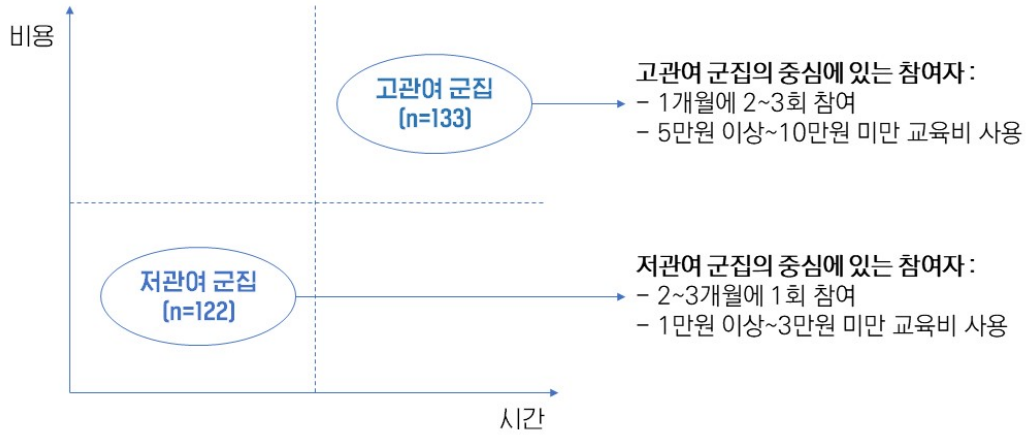
○ 공간적 범위 : 서울 (응답자의 거주지 또는 활동지)

○ 대상적 범위 : 총 표본수 255개 (재단 기획·공모 사업 참여자, 예술교육센터 방문자)

- 설문배포 사업 : 〈서울예술학교, 오늘〉,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서울시민예술대학〉
- 설문배포 교육센터 :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저관여/고관여 1차 군집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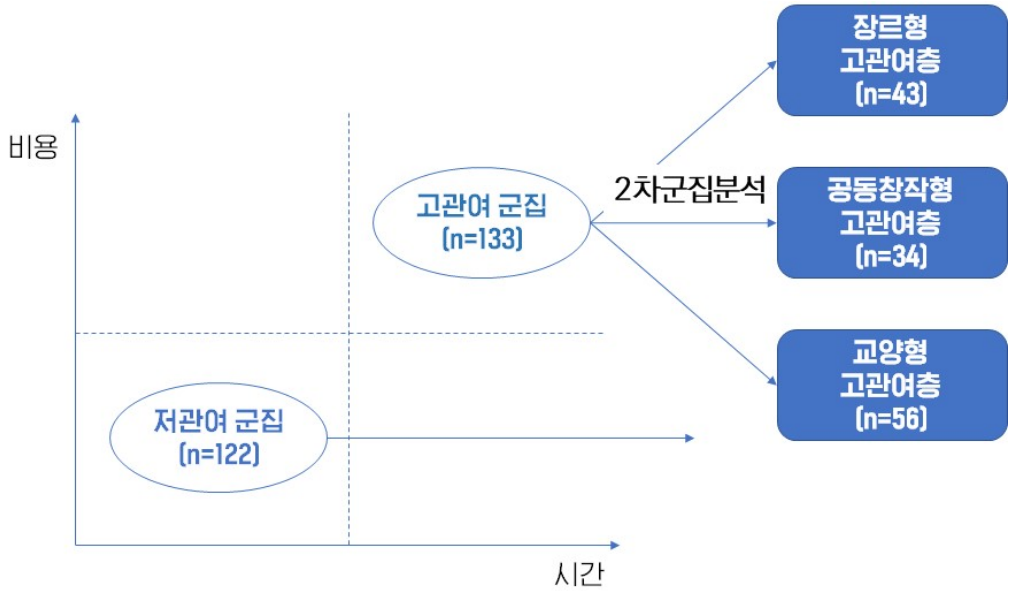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시간 및 비용 투입을 기준으로 1차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저관여자/고관여자 그룹을 구분함.



■ 고관여자 세부 유형 확인을 위한 2차 군집분석

○ 투입 시간과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2개 군집으로 분류한 다음, 고관여자 그룹이 단일한 균질 집단이 아닐 것이라고 가정하고 고관여자 그룹을 대상으로 2차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음.

○ 2차 군집분석은 고관여자가 경험한 문화예술교육 유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의 고관여자 세부 유형을 확인하였음.



■ 군집별 세부 분석내용

○ 세부 분석내용으로는 저관여층, 고관여층, 고관여층 내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징, 응답자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환경 요인, 교육 경험, 참여 동기 및 제약 요인, 교육공간 수요 및 교육 내용/유형 수요,

교육 참여 효과 등을 분석함.

■ 분석 주요 결과

○ 이를 통해 저관여층과 고관여층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음.

	저관여층	고관여층
차이점	• 생애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교육 경험 상대적으로 적음 • 정보 접근성이 낮고 친구가 권한 프로그램 참여 • 생활권 내에서 여가시간 보내기, 사람들 만나기 • 단일장르 기반의 공동학습, 지식전달 및 반복연습 교육경험이 많은 편	• 생애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교육 경험 더 많음 • 정보공유 활동 활발하고 유료 프로그램 구매 더 많음 • 자기실현 욕구와 예술에 대한 수월성 추구 • 저관여층보다 창작 교육 경험이 많은 편
공통점	• 향후 문화예술 전문성이 높은 공간에서의 교육이 증가하길 바람 •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 체험, 보급형 강의 및 행사로부터 장기적이고 참여적/전문적 교육 경험으로 이동하는 경향성이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에서 사회이슈와 커뮤니티 형성 과정을 다루는 것에 대해 긍정적임 • 미술, 음악, 연극은 과거 경험과 미래 수요를 통틀어 수요가 가장 많은 장르임. • 그러나 미술, 음악, 연극 장르와 타 장르 간 관심 격차는 줄어들고 있으며 통합(융합), 미디어아트처럼 최신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통념적으로 갖고 있던 예술에 관한 고정관념이 변하게 된 비율이 과반이 넘음.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대인관계 갈등관리, 지역사회 공동 관심사,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문화격차에 대한 관심이 많음.	

○ 또, 고관여층 내 세부 유형별 특징은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음.

유형	특징
장르형 (개인 창작형)	• 단일장르의 개인창작 교육을 많이 경험한 군집으로 시각 장르 비중이 높은 점이 특징임. • 향후에도 무용, 연극 등 공동협업이 필요한 장르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음. • 서울 서북권-서남권에 많이 거주하고 40대 비중이 높음. • 예술가 공간(공방, 작업실, 연습실) 수요가 가장 높으며, 문화예술교육센터 및 문화복합공간과 전문 예술공간(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수요가 그 뒤를 잇고 있음.
교양형 (공동 놀이형)	• 지금까지 감상·관람·체험 위주의 전형적인 보급형 교육을 받아 왔으나 향후에는 자기주도 가능한 공동학습을 원하며, 특히 창작 경험은 현재보다 많이 강화되길 원함. • 서울 동북권-서북권에 많이 거주하고, 30대와 50대의 비중이 매우 낮음. • 문화예술교육센터 및 문화복합공간 수요가 가장 높으며, 다른 고관여층과 달리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시각 장르(미술, 공예, 영상)에 관한 관심이 줄고 있으며, 공연형 교육(음악, 무용, 전통예술, 뮤지컬)의 향후 수요가 증가함.
공동창작형 (통합형)	• 공동협업하는 창작 교육을 많이 받은 군집으로 공동학습과 창작 교육 비중은 일부 감소하고, 통합(융합) 및 자기주도형 교육 비중은 늘어서 최종적으로는 4가지 차원이 균형을 이루길 바람. • 다른 고관여층보다 연극 교육 경험이 많고, 뮤지컬, 무용 등 향후 공연형 프로그램 수요 증가. • 동일하게 공연형 프로그램을 원하는 교양형에 비해 현대적 장르를 선호함. (뮤지컬↑ 전통예술↓) • 50대 비중이 높고, 서울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에 거주자가 고루 분포함. • 문화예술교육센터 및 문화복합공간, 예술가 공간(공방, 작업실, 연습실)에 대한 수요가 비등하게 가장 높고, 그 뒤를 전문 예술공간(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이 잇고 있음.

5.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분석

■ 수요 기반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과 수요자가 만나는 가교로서의 매개 기능을 담당하는 예술교육가/예술교육단체, 문화예술교육 공간, 기초문화재단 내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함.

■ 특히 본 연구에서는 크게 3가지 방향에서 매개자 분석을 진행하였음.

○ 그간 서울문화재단이 추구해온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이라는 철학/지향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하는 예술교육가 및 현장에서 이해되고 구현되는 양상

○ 지역화라는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현재 서울문화재단 중심의 공모사업 운영 체계가 기초문화재단 및 자치구 단위로 무게 중심을 이동한다고 가정할 때, 문화예술교육 현장 당사자의 기대와 우려

○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센터의 운영 현황 및 향후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

■ 이를 위해 4개 범주로 FGI 대상자를 나누고, 총 13회, 27명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음. 현장의 예술교육가 외 정책 전문가 의견도 참고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하였음. 세부 FGI 대상 및 진행 규모는 아래와 같음.

범주	세부 범주	조사 규모	조사 방법
[A그룹] 거점 공간 담당자	• 해당 없음	2회 3명	FGI (온라인으로 진행)
[B그룹] 예술교육가	• 학교예술교육TA(PL)[1], 지역예술교육TA(PL) 참여자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및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사업 참여자 (다년간 연속 참여한 기획공모 선정 단체 사례)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및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사업 참여자 (단년 사업 또는 2022년 신규 진입 단체 사례) • 서울시민예술대학 심화과정, 일반과정, 단년과정 참여자	9회 18명	FGI (온라인으로 진행)
[C그룹] 기초문화재단 담당자	• 해당 없음	1회 3명	FGI (온라인으로 진행)
[D그룹] 정책 전문가 그룹	• 해당 없음	1회 3명	FGI (온라인으로 진행)

■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분석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문화예술교육 사업 간, 주체 간 연결 등 다양한 연결을 위한 허브 기능 및 전문/전용 예술교육 시설로서의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센터

1) TA: Teaching Artist / PL: TA사업에서 다년간의 TA 경험을 바탕으로 TA그룹을 이끄는 Project Leader

- 설문을 통한 고관여자 분석, 현장의 예술교육가 FGI 결과 분석, 예술교육센터 현장 방문 분석 등을 통해 볼 때, 제2차 기본계획 기간 중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센터는 전문화된 문화예술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특화된 내용 기반의 연결/매개 플랫폼이 될 필요가 있음.
- 또, 이를 위해서는 예술교육센터 운영을 중심에 두고 재단 내 여러 사업 부서가 함께 하는 통합사업, 부서 범주를 뛰어넘는 연계 사업 등 정보 공유와 협력에 기반한 사업 운영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생활권 문화예술교육을 매개하는 기초문화재단 지원 필요성
- 서울은 예술 자원의 초집중 도시라는 점이 특징이며, 이런 맥락에서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정책도 예술(가)적 경험을 중심에 두고 교육적 경험으로 확장/전이를 추구하는 입장임.
- 동시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방향은 지역화를 지향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서울형 예술교육의 핵심 자원인 예술가/예술교육가와 지역화의 주요 현장인 기초 자치구 사이의 접점 형성은 중요한 이슈임.
- 하지만 FGI를 통해 만난 예술교육가 중 다수는 자치구/기초문화재단을 불투명함, 비전문성 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영역의 취약한 토대와 무관하지 않음.
- 즉, 지역화라는 정책 방향 실현을 위해서는 기초문화재단이 생활권에서의 문화예술교육 공급망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예술가와 함께 개발·실행하는 핵심 매개자가 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서울문화재단이 자치구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측면 지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의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의 확산을 위한 R&D 기능 강화
- 고관여자 분석 및 각종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는 통합예술교육의 지향이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는 것임. 즉, 서울문화재단이 그간 지향해온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의 방향은 더 강화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예술교육 실천 현장에서 인식하는 통합예술교육은 일종의 정책 슬로건 수준으로 모호한 상태였음. 재단 내 사업의 성과를 보더라도 학교예술교육TA 사업을 통해서만 통합예술교육 지향이 집중적으로 구현된 측면이 있음.
- 하지만 학교예술교육TA 예산이 없어지고 상대적으로 예술교육센터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산이 확대되는 2023년 재단의 예산 편성안과 다양한 사회적 아젠다 및 주체를 수용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확대 방향 등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통합예술교육 기조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 내에서의 실현이 재단의 정책 과제 중 비중 있는 영역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의 통합예술교육 실현을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간 재단이 학교예술교육 영역에서 축적한 경험과 레거시를 바탕으로 확산/전이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함.

6. 결론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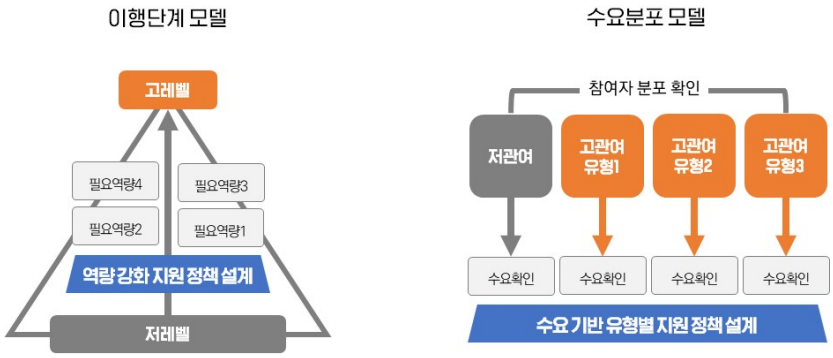
가. 수요자 기반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고관여 참여유형 모델

■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대표적인 수요 정책에 해당하며,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의 최종 수요자 단위에서 정책 목적이 구현되는 양상에 관한 종단 데이터 수집, 분석, 검토가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그 결과가 정책으로 환류되는 것이 필요함. 즉, 정책 수혜자를 중심축으로 하여 정책 실행과 검토, 조정 및 재실행을 하는 것이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접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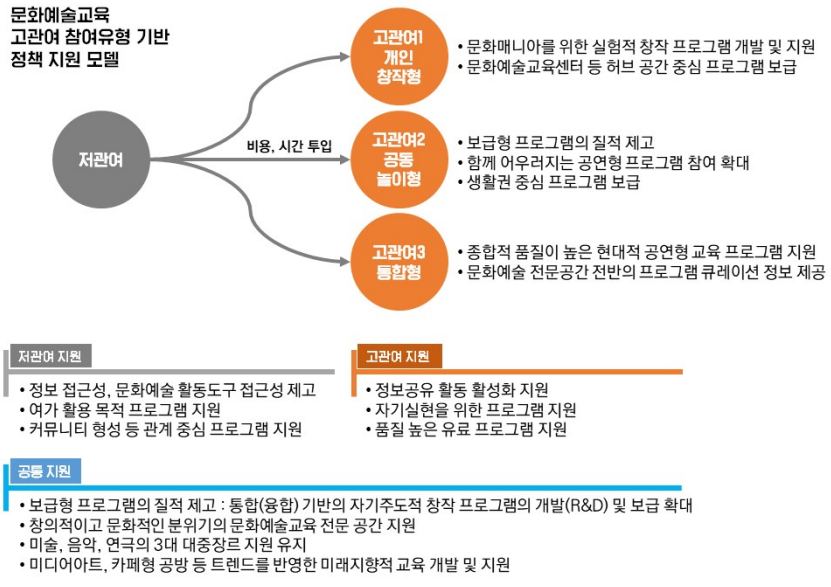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는 수요분포 모델로서 고관여 참여유형 기반 모델을 제안하는데, 해당 모델은 저관여자에서 고관여자로 성숙해가는 이행단계 모델이 아니라 저관여에서부터 고관여까지 다양한 수요의 양상이 존재하며, 정책은 그렇게 분화되어 존재하는 수요분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함.

○ 같은 관점에서 고관여자 역시 최종 도달 목표로서 단일한 특징을 가지는 집단이 아니라, 그간의 교육 경험 및 취향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화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 수요분포 모델로서 고관여 참여유형 모델의 특징임.

○ 이행단계 모델과 수요분포 모델의 차이는 아래 그림과 같음.



■ 고관여 참여유형 기반 정책지원 모델



○ 저관여자 및 고관여자 세부 유형에 대한 특징 분석을 통해 위 그림과 같은 관여도 유형별 활동 양상과 수요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지원 내용을 저관여자 그룹, 고관여자 그룹, 공통 지원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확인하였음.

나. 실행 과제 제안

■ 수요 기반 정책 실행의 여건 확인

○ 고관여 참여유형 모델을 근거로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정책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함께 고려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전반적 차원] 중앙정부 주도에서 광역 단위로의 지방 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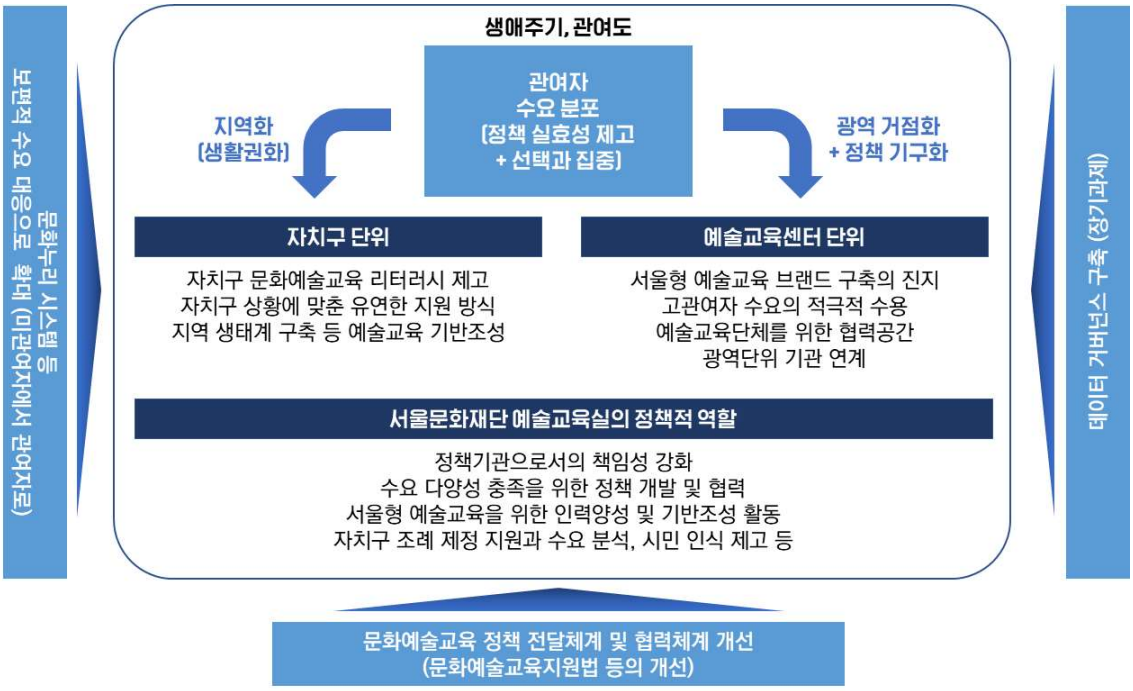
- 세부적으로 예산 상황(총액 및 구성비)의 변화 및 수탁 사업 예산 사용의 자율성 증대

○ [서울문화재단 차원] 예술교육센터 추가 조성에 따른 상황 변화

○ [자치구 차원] 법적 기반 등 행정체계 부재 상황에서의 정책 실효성 고려

■ 위와 같은 대내외 변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수요 기반 정책 실효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위한 과제를 선별하였고, 이를 과제별 이해관계자에 따라 자치구 단위(지역화 과제), 예술교육센터 단위(광역 거점화 과제), 서울문화재단 단위(정책적 역할 과제)로 범주화하였음.

○ 전체 과제 제안의 개념 및 대내외 변수를 종합한 도식은 아래 그림과 같음.



■ 단위별 세부 실행 과제

구분	세부 과제
자치구 단위 (지역화/생활권화)	**[자치구 문화예술교육 리터러시 제고]** • 동시대의 예술적 가치와 지역 내 일상의 삶이 별개의 것으로 분리되어 갈등할 수 있는 상황의 완화 및 해소 • 자치구 이해관계자의 문화예술교육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지원 1 : 지식정보 접근성 지원(온/오프) - (온라인) 서울+예술교육을 주제로 한 별도의 웹 자료실 구축 - (오프라인) 문화예술교육 미래 아젠다 기획포럼 시리즈 개최 • 자치구 이해관계자의 문화예술교육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지원 2 : 자치구 방문 교육 지원
	[자치구 상황 맞춤 예술교육 공모와 기반 조성 지원] •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장기적 과제 실현까지의 공백 기간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 대응으로서의 자치구 상황 맞춤, 유연성 높은 지원사업 진행 - 특히 자치구 문화재단과 상위 정책/제도/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작업을 자치구 문화재단과 함께 진행할 전문가 지원 제안 (ex. 자치구 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 제정 작업 지원 등) • 자치구 예술교육 기반조성 지원사업 성격의 예산 및 사업 안정성 확보
	[미-저관여자를 위한 자치구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복지체계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보편적 지원과 구별되는 통합예술, 자기주도형 예술교육의 생활권 단위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지원
예술교육센터 단위 (광역 거점화)	**[서울형 예술교육 브랜드 구축의 진지]** • 학교예술교육TA에서 예술교육센터로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레거시 이동을 반영 • 동시대 예술교육을 선도하는 사례와 방법론이 예술교육센터에서 만들어지고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 • 예술교육센터 예산에서 시설 운영 예산 외 브랜드화를 위한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예산의 적극 반영 필요
	[아젠다 기반의 전문 문화예술교육 정체성] • 장르 간 경계를 횡단하면서 다양하고 주체적인 경험이 가능한 복합적 문화작업장의 형태로 정체성 개발 및 공간 개발 권고 • 고려 가능 아젠다1 : 지역사회 공동 관심사 (ex. 예술적 지역리서치) • 고려 가능 아젠다2 : 대인관계 갈등관리 (ex. 다양한 대상과 건강한 거리두기 / 사회적 고립의 해소 등) • 고려 가능 아젠다3 : 디지털 전환 가속화 환경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 고려 가능 아젠다4 : 고령화 이슈와 연계한 노년문화예술교육 (신중년, 신노년 포괄)
	[예술교육센터와 지역 기관 간 연계] • 지역기반 공간들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전문 문화예술교육 파트너
	[예술교육단체를 위한 실험적-전문적 협력 공간] • 공공극장의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민간단체와의 기획초청, 공동제작 등의 시스템과 같이 완성도와 실험성 높은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는 예술교육단체와 공간 협력
	[고관여자 수요의 적극적 수용] • 예술교육센터를 '프로그램'이 아닌 '공간' 측면에서 상시 활용하는 접근 필요 • 예술교육센터 공간견학 시민 도슨트 프로그램 (고관여자 연계)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정 참여기회 제공 • 문화예술교육 자율 모임 기획 및 실행 지원
	[서울형 예술교육센터의 공통 기능 모듈 및 아젠다 확산 프로세스] • R&D ⇒ 프로그램 테스트베드 ⇒ 지역협력 거점 & 프로그램 보급 • 각 예술교육센터의 정체성 다양화 외 위의 기능을 공통 프로세스로 탑재

구분	세부 과제
서울문화재단 단위	**[강화된 독립적 정책기관으로서 책임성을 담당할 조직체계 구축]** • 광역 단위 지역 분권화 과정에서 책임, 권한 모두 강화되는 서울문화재단 •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개발
	[수요 다양성 충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협력] •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와 다양한 수요 반영의 긴밀한 관계 고려 • 다양한 사회 기능 및 주체와의 협력 기반 강화
	[서울형 예술교육을 위한 인력양성 및 기반조성 활동] • 더 중요해진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철학과 이를 확산/공유하기 위한 기반조성 활동의 필요성 • 전공예술교육 영역에서의 변화와 예술교육 현장 종사자의 재교육 필요성
	[자치구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과 시민 인식 제고] • 자치구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 제정 지원 • 주기적인 최종 수요자 및 중간 매개자 분석 • 국제교류 및 시민 대상 캠페인 등 사회적 지지 조성 활동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수요 기반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토대 작업으로서의 데이터 거버넌스]** • 서울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데이터 구조, 데이터 수집 인프라, 환류 방식, 추진 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개발되어야 함. • 단, 2기 기본계획 기간(2023~2027) 중 일차적 실행 과제로는 공모사업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함. - 현재 공모사업 접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SCAS 시스템을 개선하여, 사업의 내용 정보에 대한 수집, 사업의 운영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의 수집을 웹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적인 추진 내용임. - 실행 과정의 핵심적인 유의사항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주 이용자가 될 예술교육가/단체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초기 설계 단계부터 공동으로 논의하는 거버넌스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점

다. 공모 지원사업 개편 방향성 제언

■ 이상과 같은 실행 과제를 토대로 서울시 제2차 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 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공모 지원사업의 주요 방향 및 사업 제안을 도출하였음.

■ 공모 지원사업의 주요 방향

○ 미래 아젠다에 기반한 공모 지원사업 체계 전환

- 대한민국은 인구 구조 변화, 기술사회 가속화, 포스트 코로나, 양극화 심화, 기후위기 대응 등 본격적인 전환기에 놓여있음. 그 때문에 2023~2027년 재단의 공모사업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사회 변화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가치를 탐색하는 포석이자 실험의 과정이 될 필요가 있음.
- 다만 미래 아젠다를 사업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내 적응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접근이 취해져야 함.

○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주도적 탐색과 변화/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유연성과 자율성 제고

- 특히 공급 측면에서의 관리 용이성보다는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실현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함.
- 또, 자치구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을 공모사업의 의존하는 상황인데, 자치구별 여건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목적 지정 공모사업보다는 자치구 자율 기획이 가능한 형태의 사업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음

○ 교육 대상의 확대 및 교육대상에 대한 학습의 병행
- 사회의 다양성이 커짐에 따라 교육 대상 확대가 동일 접근의 양적 확대가 아닌 다양성 수용 방식으로서의 확대가 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다양성 수용 접근은 생애주기 접근인데, 세대별 접근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세대 내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
- 이러한 대상 다양화에 따른 교육모델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예술교육가 스스로 다양해진 교육 대상과 관계를 맺고, 이들을 이해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임.

○ 예술교육가의 지원을 통한 성장이 곧 서울형 예술교육의 성장
- 서울은 세계적으로도 예술가 밀집도가 높은 도시라는 것이 특징이며, 이들 예술가의 성장과 적절한 협업은 서울형 예술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음.
- 특히 학교예술교육TA가 일몰된 상에서 다양한 사회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여러 유형의 TA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용해보고 효과적인 분야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방향을 권유함.

○ 문화예술교육 미관여자 및 고관여자 모두를 고려한 자치구 공모 지원사업
- 생활권 내 보다 많은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발생할 수 있도록 미관여자 쉽게 접근/입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지원
- 경험치가 쌓인 관여자들의 통합예술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 2023~2027 주요 공모 지원사업 세부 내용 제안

○ 위에서 제시한 공모 지원사업 방향에 따라 공모 지원사업의 세부 실행 내용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여 제안함.

목적	사업 영역	참여 대상	주요 내용
아젠다 기반 서울형 예술교육 탐색	자율기획형1 (세미나+실행 통합형 공모)	예술교육가 (개인), 기초문화재단 담당자 등	• 연구와 실행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미래 아젠다를 학습하고 교육 방법론을 개발하는 사업 • 공모 참여자들로 구성된 주기적 세미나 참가 필수 • 세미나를 통해 교육 기획 및 실행 과정을 주기적으로 peer 리뷰 • 교육 프로그램 실행 중에도 주기적으로 peer 리뷰를 진행하여 교육 현장 관찰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즉각 환류 • 세미나 구성원들이 보완하길 원하는 교육 내용에 관해 특강 등 지원
	자율기획형2 (R&D→실행 단계별 지원)	예술교육단체	• 예술교육단체의 자율 연구 기반 미래 아젠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사업 • 전형적인 장르 기반 등 기존 문화예술교육의 형식과 틀을 뛰어넘는 프로젝트 제안형 • 기후변화 등 동시대 의제에 가산점 부여 • 교육사업 제안을 심사하여 단체를 선정하되, 제출한 교육사업 제안의 현실성을 검증하는 연구 과정을 일정기간 진행 • 프로젝트 리서치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장기간이 필요함. 연차별 연속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 있음. • 1차 심사 후 2차 심사까지 적합한 연구방법의 설계와 연구진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

목적	사업 영역	참여 대상	주요 내용
수요 다양화	교육대상 이해를 위한 아카이빙 프로젝트 공모	TA, 예술교육가 (개인), 예술교육단체	• 다변화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대상에 관해 발굴-리서치-아카이빙하는 프로젝트 공모 • 다양한 교육 대상에 관한 선행 연구자료의 분석 및 인터뷰 내용, 선행 교육 프로그램 사례의 수집 및 분석 내용을 아카이빙하고 배포하는 프로젝트
	생애주기 교육 프로그램 지원	예술교육단체	• 세대별 수요 충족을 위한 교육 실행 프로그램 공모 • 유아,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전연령층 대상의 자유 공모 • 세대별 분리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가, 세대에 따른 생애 과업을 적절하게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섞여 생애 과업 해결이 더 원활해진다면 세대 혼합 교육 역시 가능함
	교육대상 다변화 프로그램 지원	예술교육가 (개인), 예술교육단체	• 생애주기 프로그램에 포함되기 어려운 다변화된 수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공모 • 직장인, 청년, 여성, 이주민, 장애인 등 정체성 기반의 교육 대상 • 1인가구 등 달라지는 사회환경으로 부각되고 있는 교육대상 • 포스트코로나 및 메트로폴리탄 서울의 생활양식 포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예술교육센터 위상 안정화 및 지역 협력 연계	예술교육센터 공간활용 지원 공모	예술교육단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과 유사하게 실험적인 사회문화예술교육 개발의 의지를 가진 단체를 상주하게 하는 방안 • 예술교육단체 수요 충족과 동시에 협력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함. • 개인 지원인 상주형 TA와는 다르게 단체와 연계함
	기관 대상 서울형 예술교육 개발·운영 공모	예술교육단체	• 광역 범위에서 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기관이 서울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공모 개발 및 운영 • 시민 개개인이 아닌 기관 단위 방문을 유도해 예술교육센터 활용률 및 위상 제고 • 장기적으로는 예술교육센터와 기관과의 협력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서울형 예술교육의 지역화	자치구 예술교육 기반조성 공모	자치구	• 거점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등 예술교육 기반강화 • 자치구 문화재단의 사업 편성 자율권 보장 • 예술교육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접근성 높은 교육 수단 제공 • 미-저관여자를 위한 일상권 통합예술교육 개발 및 운영은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성
	사회문화 예술교육TA 공모	예술교육가 (개인)	• 새로운 파트너십 발굴과 연계로 지역예술교육TA 외 다양한 사회문화예술교육TA 유형 개발 및 효과성 검증 • 학교예술교육TA 지원과 마찬가지로 예술교육가가 교육 기획과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연구 활동비, 프로그램 운영비, 전용 연구개발 공간,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 미관여자 대상 서울형 예술교육 경험 기회 확대는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성
기술사회 대응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혁신 프로젝트 공모	예술교육가 (개인), 예술교육단체	• 시민과 예술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 연구·개발 및 시범 운영 • 디지털 윤리의 이해,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목표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R&D 사업 • 기술과 생태 등의 문제를 다루는 아트앤테크 예술가들과의 연계 • 개발된 프로그램은 학교 등 기관 수요와 연계 가능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2
1. 연구 배경 ····· 2
2. 연구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 5
1. 연구 범위 ····· 5
2. 연구 방법 ····· 5

제2장 문화예술교육 정책흐름 및 대내외 환경 분석 ····· 8
제1절 문화예술교육정책 동향 ····· 9
1. 2023-2027 정책적 환경 변화 ····· 9
2. 사회적 환경 변화 ····· 17
3. 자치구 및 기초문화재단 문화예술 정책 환경 및 실태 ····· 23
제2절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현황 ····· 29
1. 2018-2022 문화예술교육정책 흐름 및 사업운영 현황 ····· 29
2. 재단 예술교육실의 주요 기능 및 업무 ····· 31
3.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현황 ····· 33
4. 신규 예술교육센터의 정체성 이슈 ····· 38
제3절 소결 ····· 40

제3장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고관여자(수혜자) 분석 ····· 43
제1절 조사계획 ····· 44
1. 조사 목적 ····· 44
2. 고관여 수준의 정의 ····· 44
3. 선행연구 참조 ····· 44
제2절 조사 결과 ····· 46
1. 조사 개요 ····· 46
2. 조사 결과 ····· 48
제3절 소결 ····· 80

제4장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분석 ····· 84
제1절 매개자 분석 개요 ····· 85
1. 매개자 분석의 목적 ····· 85
2. 매개자 조사 범위와 방법 ····· 85
제2절 인터뷰 및 FGI 주요 분석 결과 ····· 87
1.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센터 방문 및 인터뷰 분석 결과 ····· 87

2. 예술교육가 FGI 진행 개요 ····· 92
3. 기초문화재단 담당자 FGI 결과 ····· 106
4. 문화예술교육 정책 전문가 FGI 결과 ····· 110
제3절 소결 ····· 112

제5장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안 ····· 115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 116
1. 연구 진행 과정과 결과의 범주화 ····· 116
2. 수요자 기반 정책 실효성 제고 필요성 ····· 117
3. 정책 실행 여건 분석 요약 및 실행 과제 도출 ····· 120
제2절 정책방향 제안 ····· 123
1. 정책 과제 제안 ····· 123
2. 2023-2027 공모사업 방향성 제언 ····· 143

참고문헌 ····· 149
〈부록 1〉 시니어용 서면 설문지 ····· 151
〈부록 2〉 FGI 대상별 질문지 ····· 161

표 목차

[표 1] 연구 프로세스 ····· 6
[표 2] 제1차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추진과제의 미래 중요도 순위 ····· 10
[표 3] 제1차 서울시 문화예술기본계획 3대 전략 9개 핵심추진과제 ····· 14
[표 4] 2020년 문화예술 10대 트렌드 항목별 의미 ····· 18
[표 5] 2022-2024 10대 문화예술트렌드 ····· 19
[표 6] 행정기관 간 협력 필요 분야 ····· 27
[표 7]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흐름 ····· 29
[표 8]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실 주요 업무 유형 ····· 31
[표 9] 예술교육 분야별 예산 편성의 비중 및 변화(2017-2023) ····· 32
[표 10] 서울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사회적 가치추구 ····· 36
[표 11] 서울 활동 단체가 코로나19로 주로 받은 영향 ····· 36
[표 12] 서울 활동 단체의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사업 장르/분야 ····· 37
[표 13] 서울 활동 단체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애로사항 ····· 37
[표 14] 서울 활동 단체가 원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정책/사업 ····· 38
[표 15] 서울문화재단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향후 이슈 ····· 38
[표 16] 응답자 연령 및 성별 ····· 48
[표 17] 응답자 권역별 분포 ····· 49
[표 18] 응답자 거주지 분포 ····· 49
[표 19] 응답자의 직업 및 근무형태 ····· 50
[표 20] 생애주기별 교육경험 ····· 52
[표 21] 문화예술교육 참여로 인한 개인적 변화 설문문항 ····· 62
[표 22] 문화예술교육 참여로 인한 예술에 대한 인식변화 설문문항 ····· 63
[표 23] 문화예술교육 참여로 인한 예술에 대한 인식 변화 ····· 64
[표 24] 연령대별 향후 장르 수요 ····· 77
[표 25] 연령대별 새로운 관심 주제 ····· 79
[표 26] 저관여층-고관여층 비교 분석 요약 ····· 80
[표 27] 고관여층 유형별 특징 비교 ····· 81
[표 28] 매개자 조사 범위 ····· 86
[표 29] 문화예술교육자 FGI 대상자 명단 및 특성 ····· 93
[표 30] 서울형 예술교육센터 공통 기능 모듈 및 아젠다 확산 프로세스 ····· 135
[표 31] 2023-2027 주요 공모지원 사업 제안 ····· 146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방법론 ····· 5
[그림 2] 학생들이 선호하는 문화예술교육 방식 ····· 10
[그림 3]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참여자 - 미참여자의 정책 수요 비교 ····· 11
[그림 4] 종합대 예술전공 재학생 수(세계 도시 비교) ····· 16
[그림 5] 2020년 문화예술트렌드 발현도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응답 결과 ····· 17
[그림 6] 서울시 문화예술 분야 도시경쟁력 취약점 ····· 22
[그림 7] 서울시 권역별 문화향유 관련 예산(2020년) ····· 24
[그림 8] 예술교육 전담 부서 운영 자치구문화재단 ····· 25
[그림 9] 서울시-자치구 간 협력관계 인식 심층인터뷰 내용 ····· 26
[그림 10]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분야 전체 예산 규모 변화 추이(2004-2022) ····· 32
[그림 11]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변화 추이(2018-2022) ····· 34
[그림 12] 서울예술교육센터 조성 현황 개괄 ····· 39
[그림 13] 고관여자 정의 ····· 47
[그림 14] 교육시간과 비용에 따른 응답자 점도표 ····· 47
[그림 15] 고관여자 유형 분석 ····· 48
[그림 16] 응답자의 직업 및 근무형태 ····· 50
[그림 17] 응답자의 문화예술교육 관심도 ····· 51
[그림 18]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가족환경 ····· 51
[그림 19] 어릴 때 살던 집의 문화예술 활동도구 ····· 51
[그림 20] 생애주기별 교육경험 ····· 52
[그림 21] 교육 참여 주요 계기 ····· 52
[그림 22] 교육 지속 참여 이유 ····· 53
[그림 23] 교육 참여 제약 요인 ····· 53
[그림 24] 교육 공간 경험 ····· 54
[그림 25] 저관여층 교육 공간 수요 변화량 ····· 55
[그림 26] 고관여층 교육 공간 수요 변화량 ····· 55
[그림 27]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공간 방문 여부 ····· 55
[그림 28] 방문해 본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공간 ····· 56
[그림 29] 교육 유형 경험 ····· 56
[그림 30] 향후 교육 유형 수요 ····· 56
[그림 31] 저관여층 교육 유형 수요 변화량 ····· 57
[그림 32] 고관여층 교육 유형 수요 변화량 ····· 57
[그림 33] 2019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교육유형 경험 ····· 58
[그림 34] 교육 내용 경험(사회이슈, 커뮤니티) ····· 58
[그림 35] 향후 교육 내용 수요(사회이슈, 커뮤니티) ····· 59
[그림 36] 장르 참여 경험 분포 ····· 60

[그림 37] 저관여층 장르 참여 경험 순위 ····· 60
[그림 38] 고관여층 장르 참여 경험 순위 ····· 60
[그림 39] 2019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장르 참여 경험 순위 ····· 60
[그림 40] 저관여층 향후 장르 수요 순위 ····· 61
[그림 41] 고관여층 향후 장르 수요 순위 ····· 61
[그림 42] 2019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순위 ····· 62
[그림 43] 문화예술교육 참여로 인한 개인적 변화 ····· 63
[그림 44] 문화예술교육 참여로 인한 예술에 대한 인식 변화 ····· 63
[그림 45] 문화예술교육 참여로 인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변화 ····· 64
[그림 46] 저관여층 새로운 관심 주제 ····· 65
[그림 47] 고관여층 새로운 관심 주제 ····· 65
[그림 48] 교육 유형 경험에 따른 고관여층 유형 분류 ····· 66
[그림 49] 고관여층 유형별 연령대 분포 ····· 66
[그림 50] 고관여층 유형별 권역 분포 ····· 66
[그림 51] 고관여층 유형별 직업/근무형태 ····· 67
[그림 52] 고관여층 유형별 교육 공간 경험 ····· 67
[그림 53] 고관여층 유형별 향후 교육 공간 수요 ····· 68
[그림 54] 고관여층 유형별 향후 교육 유형 수요 ····· 68
[그림 55] 장르형 교육 유형 수요 변화량 ····· 69
[그림 56] 교양형 교육 유형 수요 변화량 ····· 69
[그림 57] 공동창작형 교육 유형 수요 변화량 ····· 70
[그림 58] 고관여층 유형별 향후 교육 내용 수요 ····· 70
[그림 59] 고관여층 유형별 장르 참여 경험 ····· 70
[그림 60] 장르형 장르 참여 경험 순위 ····· 71
[그림 61] 교양형 장르 참여 경험 순위 ····· 71
[그림 62] 공동창작형 장르 참여 경험 순위 ····· 71
[그림 63] 고관여층 유형별 향후 장르 수요 ····· 72
[그림 64] 장르형 향후 장르 수요 순위 ····· 72
[그림 65] 교양형 향후 장르 수요 순위 ····· 72
[그림 66] 공동창작형 향후 장르 수요 순위 ····· 73
[그림 67] 고관여층 유형별 새로운 관심 주제 ····· 73
[그림 68] 장르형 새로운 관심 주제 ····· 74
[그림 69] 교양형 새로운 관심 주제 ····· 74
[그림 70] 공동창작형 새로운 관심 주제 ····· 74
[그림 71] 연령대별 개인학습 - 공동학습 수요 ····· 75
[그림 72] 연령대별 단일장르 - 통합(융합) 교육 수요 ····· 75
[그림 73] 연령대별 감상·관람·체험 - 창작 교육 수요 ····· 76
[그림 74] 연령대별 지식전달 - 자기주도 교육 수요 ····· 76
[그림 75] 연령대별 향후 교육 내용 수요 ····· 76
[그림 76] 연령대별 향후 장르 수요 ····· 77

[그림 77] 연령대별 새로운 관심 주제 ····· 79
[그림 78] 고관여층 유형 명칭 변경 및 설명 ····· 82
[그림 79] 이행단계 모델과 수요분포 모델 비교 ····· 118
[그림 80] 문화예술교육 저-고관여 참여유형 기반 정책 지원 모델 ····· 120
[그림 81]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정책 실행 과제 구조화 ····· 122
[그림 82]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 123
[그림 83] 공공 영역의 데이터 거버넌스(OECD) ····· 138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지방이양

○ 재정분권 기조로 문체부 문화예술교육 국비매칭 보조사업의 점진적 서울시 이양, 「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2023-2027)」 수립 등 대외적으로 굵직한 문화예술교육 환경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문화재단도 지원사업 통합체계 구축 및 사업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생겨남.

○ 중앙 정부 중심의 수탁 사업은 각 지자체의 특성과 도시 지향을 반영하기 어려움. 이런 상황에서 서울은 한국 내에서 매우 독특한 특성과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을 고려한 서울형 문화예술교육의 도출이 필요함.

○ 또한, 지방이양은 행정적 권한이나 예산의 이양만을 뜻하지는 않음. 오히려, 중앙의 지침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을 설계해오던 방식에서는 요구되지 않던 자율성과 책임성까지 수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더 근본적일 수도 있음.

■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철학과 성과의 검토 시점

○ 지방이양 상황에서 재단이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간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이 지향해온 철학의 유효성 및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평가와 환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제1차 서울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된 지난 5년간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5개년(2023~2027) 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세워야 하는 시점임.

■ 공급자 관점에 치우진 문화예술교육 정책 현황

○ 문화예술교육이 대표적인 수요자 중심 정책임에도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된 이후 17년이 경과하는 동안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는 공급과 관련된 자원분석이 주요하였고 수혜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아르떼 라이브러리〉에서 '실태조사'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문화예술단체/예술가 및 학교 등 공급주체 실태조사, 지역 문화예술교육자원 실태조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지역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실태분석 등의 결과가 출력됨. 이는 모두 문화예술교육 공급 자원에 관한 것임.
- 문화예술교육 수혜자에 관한 양적 조사로는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前)문화향수실태조사)」가 있으나, 이는 대국민 조사로 문화예술교육 실태에 관해서는 개괄적으로만 다루고 있음.
- 2019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가 부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2019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를 최초로 실시함. 해당 연구의 목적은 현장과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실효

성 제고임.

○ 서울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놓고 보면 2004년 청소년문화벤처단 등 국내에서 선도적인 사례를 이끌면서 문화예술교육의 상징성을 만들어왔으나, 정책 연구 측면에서는 공급 및 매개의 관점이 지배적인 상황으로 전국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정책 실행에서 문화예술교육 거점 공간의 비중 확대

○ '10년 창작에 기반한 교육 공간인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와 서울예술치유허브를 개관하여 운영하였고, '16년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인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개관, '20년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를 개관하였으며, 이후에도 3개 예술교육센터가 추가 개관 예정으로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정책에서 거점형 교육 공간의 중요성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 최근 들어,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거점 공간에 대한 관심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거점 공간이 문화예술교육의 유산이 축적되고 통합되고 공유되는 예술교육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

○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17년간의 성과를 유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예로 '22년 그간 축적한 문화예술교육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모아서 시민들과 공유하는 서울예술교육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음. 이러한 맥락 위에서 거점 공간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음.

○ 그 때문에 수요자 연구에서도 프로그램 유효성 분석을 넘어 거점 공간 등 플랫폼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이에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흐름과 재단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23년~'27년 주안점이 될 이슈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서울의 문화예술교육 방향성을 가늠해보고, 정책 수립의 구체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고관여자의 수요 분석 및 매개자 연구를 실시하고자 함.

(1)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흐름과 재단 대내외 환경 분석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과 종합계획을 반영한 서울시 문화예술기본계획의 지난 5년의 성과와 향후 방향성을 점검하고자 함.

○ 지난 5년간 문화예술 정책에 영향을 주었고, 향후 5년간 영향을 주게 될 사회 환경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을 검토해 보고, 특히 서울시 환경 변화 분석을 위해 서울의 도시경쟁력 평가의 변화 양상을 검토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자치구 및 기초문화재단 문화예술 정책환경과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지방이양 기조 하의 실효적 정책 방향성을 알아보고자 함.

(2) 수요자 중심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고관여자 연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실시한 2021 문화예술교육조사[2]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11.4%였으며, 향후 참여 의향률은 기존 참여자가 76.5%, 미참여자가 32.8%로 개인이 가진 예술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향후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예술교육 참여자들의 충성도 증가가 예술교육의 중장기적 수요 개발·확산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가정하고 '충성도 높은 참여자'들의 특성, 참여 동기, 욕구 등을 파악하고자 함.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수요자 중심 문화예술교육 체계 수립 및 발전 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3) 수요자 중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연구

○ 예술교육 참여자로서의 고관여자와 직간접적으로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매개자에 대한 조사/분석을 병행하여 현장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관계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함.

○ 일차적으로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예술교육센터의 운영 현황과 가능성, 향후 역할과 기능을 확인하고자 함.

○ 현장 예술교육가 인터뷰를 통해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철학에 대한 현장의 이해 양상, 자치구 중심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에 관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함.

○ 광역재단, 기초재단, 자치구 사이의 문화예술교육 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확인하고 서울문화재단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함.

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 문화예술교육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2. 요약 인포그래픽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일차적으로 지난 5년(2018~2022)을 핵심 분석 대상 기간으로 함

○ 거시사회적 변화에 대한 분석자료 검토, 문화예술교육 정책 흐름 분석 등의 영역에서는 90년 후반 이후로 분석 기간을 확장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은 핵심 분석 대상은 아니며 주로 기존 자료를 토대로 한 메타분석 대상으로 간주함.

■ 공간적 범위 : 서울

○ 특별한 필요가 발견되지 않는 한 해외 사례는 공간적 연구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대상 범위

○ 서울의 문화예술교육 이해관계자 중 고관여자와 매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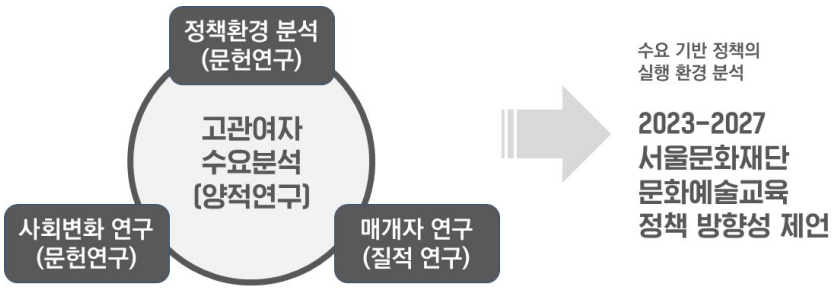
○ 고관여자 분석 대상은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사업 참여자로 한정함

○ 매개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참여 예술교육가,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참여 예술교육가, 예술교육센터 담당자, 기초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담당자로 함

2.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참여자 중 고관여자 분석을 중심에 놓고 정책환경과 사회적 변화, 매개자 연구를 진행하여 수요 분석뿐 아니라, 수요 충족을 위한 정책 실행 환경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고, 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2023-2027) 기간 동안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임.

[그림 1] 연구방법론



[표 1] 연구 프로세스

■ 본 연구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실과 수 차례 협의를 거쳐 연구 주제 및 목적을 선명히 하고 지속적으로 추가 자료를 확보해가면서 분석을 진행함.

■ 제2장의 문헌 연구, 제3장의 고관여자 연구, 제4장의 매개자 연구 개요는 각각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연구 범위, 연구 방법, 연구대상, 진행 상황 등은 개별 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함.

○ 문헌 연구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과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서울예술교육페스티벌 오픈포럼 발제문, 그 외 문화예술 정책 및 사회 환경 변화에 관한 선행 연구 등 문헌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정책 환경 변화와 범사회/서울시 환경 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자치구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환경 및 실태를 파악함.

-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재단의 정책 현황과 조직, 예산, 업무, 사업에 관한 자료들을 살펴봄. 특히, 최근 5년간 현황에 초점을 두고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자 함.

○ 고관여자 연구

- 고관여자 수요의 계량 분석을 위한 고관여자 정의 및 표본 추출 후 이를 바탕으로 설문 기획 및 조사 진행함.
- 저관여자-고관여자 비교 분석과 고관여자 유형을 계량적으로 분석함.
- 구체적인 연구 방법 및 연구대상은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함.

○ 매개자 연구

- 매개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인터뷰 대상의 범주를 특정하고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총 27명 대상으로 FGI 실시함.
- 4개 그룹 분류는 다음과 같음.
  ① 거점 공간 담당자(3명), ② 예술교육가(18명), ③ 기초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담당자(3명), ④ 정책 전문가 그룹(3명)
- 구체적인 연구대상 및 인터뷰 일정은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함.

제2장

문화예술교육 정책흐름 및 대·내외 환경 분석

제1절 문화예술교육정책 동향

1. 2023-2027 정책적 환경 변화

■ 지난 5년간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문화예술교육 분야 정책과 서울의 사회적 환경 및 자치구별 문화예술 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서울문화재단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함. 이와 관련해 다음 질문들이 연구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제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며 제2차 종합계획의 방향과 전략은 무엇인가?

○ 「제1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2018~2022)」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며 제2차 기본계획에 관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가?

○ '23년을 기점으로 중·단기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칠 사회적 환경 변화는 무엇인가?

○ 지방이양 이후 문화예술교육이 구체적으로 펼쳐지게 된 자치구의 정책 환경 및 실태는 어떠한 상황인가?

가.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1) 제1차 종합계획 이행 결과 분석

■ 2015년 5월 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제6조 제1항)되면서 2018년 1월 제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이 수립됨. 해당 계획은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정책 방향은 ① 양적 확대 → 질적 성숙 ② 중앙 중심 →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기반 구축 ③ 소외계층 대상 → 전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공급 ④ 정책기반 강화로 요약할 수 있음.[3)]

■ 2021년 제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이행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4)]가 진행됨. 해당 연구는 2021년 8월까지의 이행상황을 분석하였으며, 현장전문가, 행정담당자, 연구자, 상위기관 정책 수립 관계자(76명)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를 연구방법으로 삼고 있음.

○ 델파이조사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추진과제가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이며, 문화예술교육 통계와 데이터 관리와 활용이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자료라고 인식하고 있음.

---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2차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2023~2027) 수립연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토론회 자료집, 2022.11.09. 12p.

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이행현황 분석 연구」, 2021.12.

○ 1차 종합계획 중 미래에도 중요하다고 답변한 세부 추진과제를 5순위까지 살펴보면 아래 표[5]와 같음.

[표 2] 제1차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추진과제의 미래 중요도 순위

세부추진과제	중요도(2차) 순위	미래 중요도 순위
자율적 협업 관점에서의 지역 중심 추진체계 개편	1	1
문화예술교육 통계 및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2	1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정책 대응 및 전략 구축	11	3
대국민 문화예술교육 홍보 활성화	3	5
[장년·노년]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3	5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	5	4

○ 수요자 분석 및 고관여자 연구와 관련해 눈에 띄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9 학교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예술활동 확대를 원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전용 시설에 대한 요구도 큼. 이는 현행 운영 중인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음.[6]
- 이와 같은 학생들의 요구는 본 연구의 사회문화예술교육 경험자 설문결과(3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특히,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증설에 대한 요구는 문화예술교육을 프로그램 측면뿐 아니라 교육공간 전체가 풍기는 문화적 분위기와 도구/공간 활용성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림 2] 학생들이 선호하는 문화예술교육 방식
출처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이행현황 분석 연구」

〈표 Ⅲ-6〉 학생의 선호 문화예술교육 방식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선호 수업방식	실습·표현형 (51.8%)	관람·감상형 (23.5%)	제작·창작형 (20.2%)	강의형 (4.2%)
바라는 점 (학교 안)	학생이 직접 만들어가는 수업 (30.0%)	다양한 악기, 기자재 활용 (28.6%)	문화예술전용 공간 마련 (27.2%)	공연장과 악기 등 비치 (14.0%)
바라는 점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증설 (35.0%)	현장 체험 기회 제공 (33.3%)	예술가 현장 방문 경험 (17.1%)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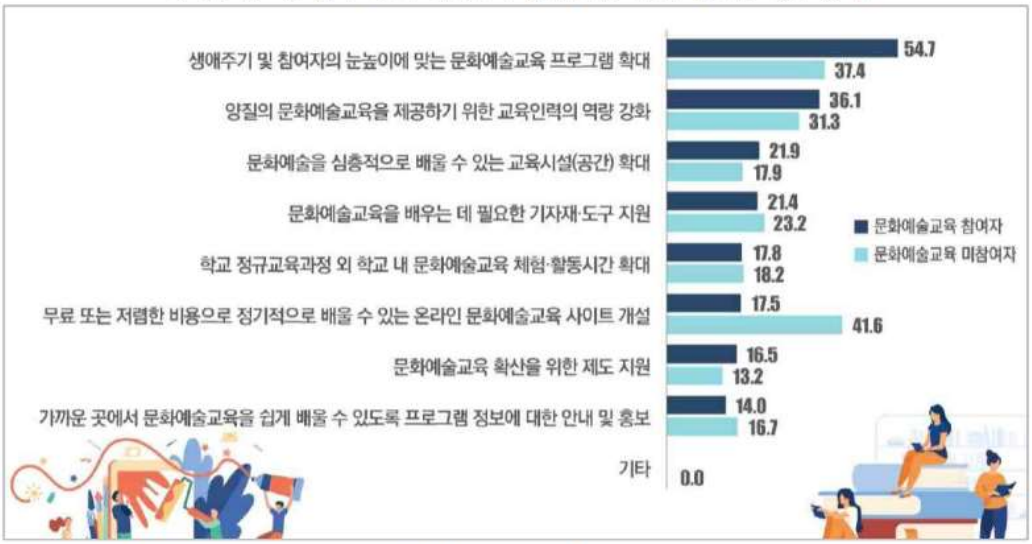
출처 :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이슈리포트(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0, p.53, [표Ⅱ-9] 재인용)

- 사회문화예술교육 수요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와 미참여자 사이에 차이가 있음. '참여자의 경우 생애주기 및 참여자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1순위(54.7%)로 꼽은 반면, 미참여자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정기적으로 배울 수 있는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사이트 개설'이 1순위로 나타남.[7]

5) 위의 보고서, 요약 xi~xii.
6) 위의 보고서, 50p.
7) 위의 보고서, 56p.

[그림 3]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참여자 - 미참여자의 정책 수요 비교
출처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이행현황 분석 연구」

〈그림 Ⅲ-4〉 향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출처 : 2020 문화예술교육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1)

- 이러한 결과는 겪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경험재'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미체험한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는 접근성을 높이고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만, 실제 교육경험을 하고 나면 본인에게 적합한 교육, 품질 높은 교육에 대한 구체적 요구가 생기는 것이라 볼 수 있음. 참여자 - 미참여자의 교육경험으로 인한 인식차는 본 연구 3장 고관여자(수요자) 분석 결과의 저관여자 - 고관여자의 인식차와도 유사함.

2) 제2차 종합계획 논의 방향

■ 2022년에는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폭넓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침[8)]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22년 2월 민관합동 협의체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추진위에서 2차 종합계획 수립 과정 전반을 기획하고 논의함.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10회의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였으며 동시에 대국민 설문조사('22.6월~8월, 1,742명 참여)를 실시함. 대국민 설문조사는 '문화예술교육 의견나눔톡' 홈페이지(arte-talk.com)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참여결과만 확인할 수 있음.

○ 수렴된 현장 의견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학생, 특수·취약계층 등 일부 대상 중심에서 일반 국민을 향한 문화예술교육으로 확장할 시기임.
-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와 다양성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역할(디지털 전환, 심리적

8)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지향점」, 『아르떼365』, 2022.09.30. https://arte365.kr/?p=9608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 2차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22.11.09. https://youtu.be/zPdJfTe5XZU

치유, 지역 문제해결 등)을 고민해야 함.

-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에 대해 실행자(교육자)는 '공감·소통 능력'을 1순위로 참여자들은 '미적감성(예술성)'을 1순위로 꼽음.
- 문화예술교육 장소로는 도서관·작은서점(52.5%), 박물관·미술관(44.2%) 등 문화기반시설의 수요가 높음.

■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1월 9일 제2차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됨.[9] 아직 제2차 종합계획이 확정 발표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11월 9일 토론회는 향후 전망을 가늠해 볼 만한 주요한 기준점이 됨.

○ 해당 토론회에서는 제2차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주요 정책 쟁점과 관련된 주제별 토론을 진행함.

○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화 기반 마련이 제1차 종합계획의 주요한 성과로 소개됨.

- 제1차 종합계획에서 지역화가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유는 계획이 수립될 당시(2017년) '지역이양'이 문화정책 전반에서 주요한 이슈 중 하나였기 때문임. 지역이양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체계나 실행을 어떻게 지역으로 중심을 옮길 것인가, 어떤 체계로 어떤 형태로 옮길 것인가가 1차의 가장 큰 이슈"(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였음.
- 제2차 계획에서도 지역이양이라는 큰 방향의 변화는 없을 것임.

○ 해당 토론회에서는 여러 정책 쟁점이 다루어졌는데, 서울문화재단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보편적으로 공감할 만한 사안이 상당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대표적인 '수요자 중심' 정책의 위상을 갖고 20여 년간 지속되면서 외연이 확대되었지만, 국민 체감도와 인지도는 여전히 낮음.
- 정책적으로 지역화 기반이 마련되긴 했지만, 실제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중앙(문체부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문화예술교육을 선도하고 지역은 이를 따라가야 한다는 인식이 있음.
- 교육대상을 넓히기 위해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정책분류, 사업분류, 우선지원 대상 등에서 여전히 처음부터 집중해왔던 대상에만 계속 집중하고 있음. 학교와 소외계층이 거의 90%로 교육대상 다양성이 취약함.
- 특정하고 좁은 대상과 교육목표, 사업운영 방식이 정해져 있는 공모 형태의 지원이 계속되면서 문화예술 기획자나 정책 사업 운영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았음. 이러한 사업 구조는 개별 예술강사 및 교육단체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게 만들며, 실수요자의 문화예술교육 접근 방식을 지원받은 예술교육단체/기관의 개별 프로그램 참가 신청으로 한정함으로써 정책 효과 확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문화예술교육단체 및 전문가들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원 정책이 없었음. 프로그램 실행 차원의 예산을 주로 지원해왔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기획 - 실행 - 환류되는 구조적 기반을 고려하지 않았음.
- 지역 중심 정책공급체계 마련의 강조와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진체계가 혼란스러움. 중앙-

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 2차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22.11.09. https://youtu.be/zPdJfTe5XZU
김혜인·차민경, 「제2차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2023~2027) 수립연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2.11.09. 7~46p.

광역-기초는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유사한 정책목표와 수단을 지닌 정책들과의 공급 관계(문화정책과, 전통문화과, 지역문화정책과, 문화기반과 등)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가 쟁점임.
- 디지털 환경의 변화, 코로나 등 새로운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지만 문화예술교육과의 구체적인 연계성은 아직 모호함.

■ 2023-2027 핵심 과제
-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제도 연계를 강화할 예정임. 문화복지서비스로 제공해오던 문화예술교육이 복지 제도 내 구체적 분류로 편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향후 문화바우처, 이용권 등 일반복지 또는 사회서비스 차원의 사업 운영 체계에 문화예술교육이 편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 단위 공모지원을 포괄형 공모지원으로 변경할 예정임. 문화예술단체 및 정책 사업 운영자들이 사업목표와 대상 등을 정하는 데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023년부터 바로 적용)
- 문화예술교육이 공간이 아닌 프로그램 차원에서 인지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공간의 거점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임. 문화기반 시설, 지역의 생활 시설들이 사실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됨에도 문화예술교육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고 있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문화예술교육 거점 인증을 하고 여러 지원 방안 모색할 예정임.
- 사회적 책임경영, ESG 등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부처 연계형 사업을 강화할 예정임.

나. 서울시 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

1) 제1차 기본계획 특징과 성과

■ 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2023-2027)이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해보기 위해 서울연구원의 「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구상(안) 추진경과」[10] 자료, 서울예술교육페스티벌 오픈포럼 발제자료, 서울시 결재문서 등을 살펴봄.

■ 서울시는 문화예술교육의 문화적·사회적 가치를 통해 서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서울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정의와는 별개로 서울시만의 문화예술교육을 정의한 바 있음. 서울시의 정의는 문화예술교육의 범위와 방법론, 역량 등에 초점을 둔 법적 정의와는 다르게 시민의 문화권 구현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11]

10) 백선혜, 「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구상(안) 추진경과」,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1차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서울연구원, 2022.12.15.
11)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2018~2022)」, 서울시 결재문서, 2018.12.20.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6821395

- 법적 정의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 문화예술, 문화사업, 문화재를 교육 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교육으로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
- 서울시 정의 :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위하여, 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하는 교육

■ 2018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서울문화예술교육의 실태를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12)]

○ 미적체험과 통합예술을 중심으로 팀티칭 교육 모델인 '서울형 예술가교사(TA)'가 학교예술강사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타 지역의 모범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음.

○ 한계로는 ① 시민의 생애단계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평생학습 체계 설계가 초기 단계이고 ② 공공·민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체계적 협력체계 없이 시설별로 정체성과 필요에 따라 개별 사업을 단발적·산발적으로 운영하는 점을 지적하였음. → 광역차원의 정책 설계와 평생학습 관점에서 생활 속 문화예술교육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던 시기

○ 이러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3대 전략과 9개 핵심 추진과제를 수립함.[13)]

[표 3] 제1차 서울시 문화예술기본계획 3대 전략 9개 핵심추진과제

비전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시민의 문화권 구현
목표	생활 속 문화예술교육 환경과 학습체계 구축

전략	핵심 추진과제	정부 추진전략과 비교
문화예술교육 일상화	생활권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체계 구축	지역기반 생태계 구축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보편적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원 발굴	
문화예술교육 다양화	창의성·다양성에 기초한 문화예술교육 혁신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수요자 중심의 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 실현	
	서울형 학교예술교육 모델 특화 및 다양화	
문화예술교육 체계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	지역기반 생태계 구축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대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 구축	

■ 본 연구와 관련해 주목하게 되는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음.

○ 자치구 문화재단을 구심점으로 지역 현황이 파악되고, 주체를 발견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기초적 토대를 쌓았고, 보편적 시민 문화권 실현을 위한 서울시민예술대학 등이 운영되었지만 여전히 전용 교육 거점 부족 등 문화예술교육을 지역화·보편화하기 위한 여건이 몹시 부족한 상태임.

12) 위와 동일한 서울시 결재문서
13) 백선혜, 「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구상(안) 추진경과」, 10~12p.

○ 유아 및 생애전환기 프로그램 등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획 확대, 잠재적 위기청년 대상 예술치유 프로젝트, 50대 독거인 대상 프로젝트, 거점형 키움센터에 예술교육 전문인력 파견 등 다양한 수요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대상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사업 단위로 분절되어 운영된 한계가 있었음. 문화예술교육의 진입-성장-지속 단계를 생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고관여자를 분석하는 본 연구가 향후 이러한 정책 방향성에 기초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체계화 전략 측면에선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 제정('20.05.19),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 거점기관 및 인프라 확충,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등 문화예술교육 실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광역-기초 간 역할이 불분명하며 자치구별 실행 기반이 미약함.

2) 제2차 기본계획 주요 이슈

■ 서울시 역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 제4항과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한 바 있으며, 계획 연한 종료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 중임.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연구 과정과 마찬가지로 폭넓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22년 9월부터 현장조사 및 인터뷰, 전문가 세미나,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임. 고관여자 연구인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 중 하나임.
- 또한, 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에게 서울예술교육의 역사와 축적된 자원을 공유하는 「2022 서울예술교육페스티벌」에서는 "미래를 향한 100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오픈포럼('22.10.17)을 개최하였음. 이 포럼에서는 1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2018-2022)을 정리하고 2차 기본계획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의 중간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음.

■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중 도출된 핵심 이슈는 ① 시민 문화예술교육 수요 다변화에 대응, ②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③ 서울형 예술교육의 미래를 선도적으로 준비, ④ 뉴노멀 사회의 예술교육 혁신, ⑤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정합성 검토의 5가지임.[14)]

① 시민 문화예술교육 수요 다변화에 대응

-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이 코로나19 이전인 '18년 대비 '21년 10.7%나 감소하면서 최저치를 기록함. →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접근성을 높이고 단발적이라도 비경험자를 유도하여 교육 경험을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함.
- 동시에 사회문화예술교육 관점에서 대상별 맞춤형 예술교육체계 강화 필요성이 언급됨.

②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 제2차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생활권 내 문화예술 자원 발굴 및 공유체계 구축' 이슈에 부응하여 생활권 내 평생학습체계로서 문화예술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서울시민예술대학 거점공간 확보와 프로그램 체계 정비, 평생교육과 복지영역과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강사를 재교육하는 방안이 제시됨.

14) 위의 발표자료, 23~31p.

- 향후 과제와 연관된 이슈로 자치구의 문화예술교육 실행 관련 제도적 기반 부재, 자치구문화재단 직원의 예술교육 역량강화 요구, 중앙-광역-기초 지원 주체별 역할 변화 등이 다루어짐.

③ 서울형 예술교육의 미래를 선도적으로 준비

-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예술교육의 동시대성을 확보하길 요청함.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문화다양성 가속화 등 사회계층 분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5개 예술교육센터(2개 운영+3개 개관 예정)를 '통합예술+미적체험+동시대성(선도성)'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서울형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산 거점으로 특화하길 제안함. 이를 통해 기술발전, 기후위기, 사회갈등과 치유 등 미래의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기대함.

④ 뉴노멀 사회의 예술교육 혁신

- 디지털화로 시민생활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제고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디지털격차로 사회불평등 구조가 심화됨. →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서울의 뚜렷한 특징은 사회자본, 교육자본 등 모든 자원이 집약된 메트로폴리스라는 점임. 예술과 예술가 역시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서울형 문화예술교육의 강점으로 살려야 한다는 이슈가 제기됨.

○ 이와 관련해 '2022 서울예술교육페스티벌' 오픈포럼에서는 서울은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예술가, 예비 예술가가 집중된 도시로, 이러한 특성에 집중해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교육이나 문화교육이 아닌 예술교육으로 좀 더 범위를 좁힌 언어를 써오고, 예술과 예술인이 중심이 되는 창작 활동으로서의 예술교육을 중심"에 두고 있다고 함.[15)]

[그림 4] 종합대 예술전공 재학생 수 (세계 도시 비교)
출처 : 2022『서울예술교육페스티벌』오픈포럼 김진환 발제문

더블린	6,881명
멜버른	19,466명
밀라노	11,196명
몬트리올	10,783명
파리	15,492명
로마	5,882명
서울	108,903명

<2018 WCCF 리포트
- 종합대학교 예술 전공 재학생 수>

15) 김진환,「서울형 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5가지 키워드」,『2022 서울예술교육페스티벌 오픈포럼 '미래를 향한 100개의 질문'』발제문, 서울문화재단, 2022.10.17. 6p.

2. 사회적 환경 변화

가. 2022-2024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10년부터 3년 간격으로 문화예술 트렌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가장 최근 연구보고서는 2021년 12월 발행된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2-2024」[16]임. 해당 보고서는 문화예술분야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칠 범사회 환경 변화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며, 시장적 관점보다는 향후 정책 수요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해당 보고서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 환경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문화예술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10대 트렌드를 선정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변화의 지표로서도 의미가 있을 것임.

■ 먼저 2018년 선정했던 '2020년 10개 문화예술트렌드'가 발현된 정도와 향후 영향력 지속성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응답 결과 및 각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및 표와 같음.[17]

[그림 5] 2020년 문화예술트렌드 발현도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응답 결과
출처 :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2-2024」

〈표 2-1〉 2020 문화예술트렌드 발현정도 및 지속·발전 가능성

(단위: 명, 점(5점 척도), 위)

	2018 문화예술 트렌드	발현정도			지속·발전가능성			합계	
		평균	순위	표준편차	평균	순위	표준편차	평균	순위
1	시간민감성의 시대, 여가를 즐기자	3.78	2	0.83	3.82	2	1.01	7.61	2
2	일상 속 생활문화, 스며들다	3.59	3	0.80	3.76	3	0.95	7.35	3
3	긱 이코노미와 예술인이 일하는 법	3.33	5	0.86	3.53	6	0.88	6.86	6
4	**1인 크리에이터, 전문가로 인정받다**	**4.27**	**1**	**0.70**	**4.35**	**1**	**0.74**	**8.63**	**1**
5	혐오가 가져온 토론문화, 우리의 다양성을 드러내다	3.52	4	1.03	3.58	5	0.99	7.10	4
6	실패자가 아니에요. 문화적 응원	2.84	9	0.88	3.02	9	1.01	5.86	9
7	예술가는 젠트리파이어? 예술가의 생존법 찾기	3.26	8	0.72	3.20	8	0.90	6.46	8
8	남북교류, 문화교류에서 남북합작으로	2.43	10	0.98	2.49	10	1.03	4.92	10
9	문화분권, 지방자치분권의 길을 열다	3.33	5	1.07	3.63	4	1.11	6.96	5
10	새 예술정책 시대로의 과도기	3.31	7	0.84	3.43	7	0.92	6.75	7

16) 차민경·김소연·김인설·연수현·유은지(2021),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2-202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12.15.
- 해당 보고서의 연구 방법은 메가 트렌드(Mega-Trend)가 아닌 마이크로 트렌드(Micro-trend)의 관점을 취하고 있음. 마이크로 트렌드는 개인주의 경향이 점점 강해지는 환경 속에서 다채로운 양상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접근법임.
- 분석 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2019년 1월 1일~2021년 11월까지임.

17) 위의 보고서, 19~35p.

[표 4] 2020년 문화예술 10대 트렌드 항목별 의미

문화예술트렌드 발현도(2019~2021) 및 향후 지속·발전가능성		
높음 (3.5점 이상)	보통(3~3.5점)	낮음(3점 미만)
1인 크리에이터 전문가로 인정받다	문화분권, 지방자치분권의 길을 열다	실패자가 아니에요. 문화적 응원
• 다양한 플랫폼 산업 폭발적 성장 • 코로나19로 혼자 보내는 시간 증가 • 자극적 콘텐츠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콘텐츠 표현 수위 등 법적 규제 및 장치 마련 요구 지속	• 지방자치분권의 추구와 강조로 지역 간 문화격차 심화 전망 • 격차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역의 노력 기대	• 실패박람회, 심기일전 스쿨 등 실패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도전을 지지하는 제도적 지원과 인식개선 • 창작에 필요한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는 지원 정책 변화
시간민감성의 여가를 즐기자	긱 이코노미와 예술인이 일하는 법	남북교류, 문화교류에서 남북합작으로
•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도 적용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확산 •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민감성도 증가	• 업무 수요에 따른 계약직, 프리랜서 증가 (전세계 추세) • 긱 이코노미는 예술인의 고용 형태와 유사 → 불안정한 위치에 대한 개선 요구 이슈	• 평창동계올림픽을 분기점으로 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분위기로 남북교류사업 추진 기대
일상 속 생활문화, 스며들다	새 예술정책 시대로의 과도기	-
• 생활예술, 생활문화 정책 흐름 • 생활SOC 3개년 계획 공공도서관(누계 1,259개) 생활문화센터(416개) 조성[18] • 민간영역의 생활문화 확대 전망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문화예술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예술 창작 지원과 관련된 공정 요구 증가	
혐오가 가져온 토론문화, 우리의 다양성을 드러내다	예술가는 젠트리파이어? 예술가의 생존법 찾기	-
• 점점 더 대상과 프레임이 세분화되는 사회취약계층 및 소수자 혐오와 갈등 • 미투 운동 이후 백래시 • 취업, 주거 등에서 세대 갈등 • 코로나19와 관련된 인종 갈등 • 다양한 갈등 해결을 위한 일상적 토론 문화 발전 기대	•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예술가 역할이 강조되면서 예술가가 피해자인 동시에 젠트리파이어로 인식되는 경향 심화	

○ 연구진들은 3.5이상 평가된 항목을 발현도와 향후 지속성이 높은 트렌드로 유형화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1인 크리에이터의 증가 현상을 압도적인 1위로 꼽고 있음.

○ 반면, 일시적 남북 관계 평화 분위기 조성으로 기대되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나 성공이 아닌 실패를 응원하고 자산화하려는 캠페인 등은 지속하기 어렵다고 평가함.

○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위 트렌드 중 개인화되는 창작 환경, 유연화되는 시간 사용, 혐오·갈등의 확산은 2022년 현재 전 세계적 양극화 및 파편화 현상, 불안정해지는 국제 정세와 관련이 깊어 매우 주의를 요하는 부분임.

■ 2022~2024 10대 문화예술트렌드는 코로나19 이후 위기가 본격화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달라진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음. 해당 내용을 요약해 정리하면 아래 표[19]와 같음.

18) 「2년의 노력, 우리동네 생활SOC 일석삼조의 효과!」,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21.12.16.
19) 차민경·김소연·김인설·연수현·유은지(2021),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2-2024」, 241~255p.

[표 5] 2022-2024 10대 문화예술트렌드

트렌드	내용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문화예술 가치사슬의 확장	•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디지털·온라인 문화예술분야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온라인 문화예술이 '하나의 분야로 자리 잡고 오프라인과 상호보완 구조로 공존할 것으로 전망 •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온라인 활동을 위한 인프라 부족 → 상당한 투자 요구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는 급격한 디지털 전환의 양면성	• 기술의 발전과 활용 속도가 현실 법과 제도, 윤리 의식의 변화속도보다 빠른 상황으로 가짜 뉴스, 혐오 댓글 등이 온라인 플랫폼과 커뮤니티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문제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딥러닝(머신러닝), NFT,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가 향후 예술가 생존과 직결될 가능성 • 문화예술계에서도 디지털 윤리를 이해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여야 할 필요성
구독경제와 경험경제의 활성화, 문화예술분야의 다양하고 합리적 소비 촉진	• 코로나19로 비대면 중심 라이프 스타일이 촉진되면서 구독경제 급속 성장 → 음악, 공연, 영화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 OTT, 그림 렌탈 및 판매 등의 O2O 서비스 등 • 구독경제는 '경험의 초개인화'로 문예창작이나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도 비즈니스 모델 개척 중 •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 큐레이션의 확증 편향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창의적 휴먼 큐레이션 기대
불안사회, 건강하고 안전한 문화예술을 위한 불편의 일상화	•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다양한 사회재난 불안 요인으로 건강과 안전을 갈구하는 추세 • 사회재난으로 가장 먼저 위축되는 분야는 문화예술 • 불편하더라도 안전한 문화예술 향유 공간 구성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요구
필(必)환경 시대의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에 대한 논의 확대	• 국제사회, 국가, 기업, 개인이 함께 움직이는 환경이슈 • 문화예술 분야의 주요 대응 유형 : 캠페인 및 교육 활동, 환경이 예술적 표현대상(업사이클링, 제로웨이스트 굿즈 등), 친환경 문화예술 활동 (공연 소품, 의상, 무대세트 등을 재활용하고 성과지표로 관리 등)
위기의 시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및 역할 증대	• 유네스코 캠페인 리즐리아트(ResiliArt)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와 예술(Art)을 합친 조어 •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긴 여정의 동반자로 예술이 언급되는 상황 • 영국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담론이 오히려 예술을 과도하게 도구화한다는 비판을 통해 예술의 공적 가치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토론회와 연구 진행
문화예술 분야의 느슨한 연대 확대	• 1인 가구 확대,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개인주의 확산 → 느슨하고 편안한 새로운 인간관계 선호 현상 • 문화예술 향유집단은 취향이 맞는 누군가와 교류하려는 욕구(문화자본을 전제한 구분짓기) vs 창작집단은 특정 목적을 위해 짧게 연대하고 흩어지는 프로젝트형 성격의 느슨한 연대 • 느슨한 연대는 운영 효율성은 높으나 대표성이 취약 → 자생적인 느슨한 연대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으며 일정한 대표성을 부여할 수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민 필요

트렌드	내용
팬덤(Fandom),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소셜 공동체로 진화	• 최근에는 연령, 성별, 국적, 지역 관계없이 다양한 팬덤이 형성되며 팬덤 경제(Fandom Economy) 창출 • 팬덤은 유투브 크리에이터, 정치인, 기업브랜드, 특정 상품 및 서비스 등 전방위적 콘텐츠를 대상으로 형성되며, 소비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생산자와 생산과정에 개입하고, 전지구적이고 사회 친화적 가치를 지향 → 글로벌 소셜 공동체 • 향후 강력한 팬덤 여부가 콘텐츠 수명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
멀티 페르소나, 탈물질주의 시대의 다양한 자아를 찾는 여정의 진행	• 코로나19, 전세계적 불황 등으로 고독한 시간의 고립을 이겨내기 위해 자아와 정체성을 고민할 수 있는 조건 마련 • 멀티 페르소나 현상은 워라밸 트렌드 및 취향공동체의 등장에 영향을 받으며, 공적 자아와 사적 자아의 구분을 강화함 • 한국은 선진국형 저성장 사회로 진입하며 탈물질주의를 지향하는 MZ 세대 등장 → 개인의 다양한 정체성 존중,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갈망
크리에이티브 에이징(Creative Aging), 문화예술의 주요 주체로 부상한 노년층	• 베이비붐 세대 퇴직을 계기로 크리에이티브 에이징 수요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 노후 보장 유무에 따른 경제적 안정성 여부에 따른 노년층 내 양극과의 위험성 내포 • 세계보건기구(WHO)는 노년의 잠재력 발현을 위한 고령 친화적(age-friendly) 공동체 계획 •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성취할 수 있는 창조적인 것들에 주목하기를 제언

■ 2022~2024 10대 문화예술트렌드는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 가속과 지속가능한 생존에 초점이 있음. 이러한 트렌드는 몇십 년 만의 거대한 사회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라 할 수 있음. 2000년대를 지배했던 세계화의 물결이 뚜렷이 퇴조하며 효율과 성장을 위한 혁신이 담론을 좌우하던 분위기에서 안전과 회복력을 토대로 한 지속가능한 생존이 중요한 분위기로 바뀌고 있음.

○ 이러한 변화 추세는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던 성과 지상주의에 균열을 내기도 하였음. 코로나19가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미친 영향을 떠올려 보면, 고립으로 인해 사색이 강제되는 환경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예술교육가들은 문화예술교육의 본령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음. 그렇지만, 동시에 안전사회에 대한 요구는 통제사회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음.

○ 코로나19를 통해 알게 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재난 사회가 중앙 정부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임. 실제로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분권화 추진이 둔화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선거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등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평가(Freedom House)도 존재함.[20] 2023년 경제불황이 예고되고,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와 고령화 등이 상수로 존재하는 현재 시점에서 지역화와 문화분권 정책에 관해 보다 섬세한 접근과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디지털 전환 역시 유사한 딜레마를 안고 있음. 지금까지는 1인 크리에이터 등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

2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이행현황 분석 연구」, 37~38p.

나는 탈중앙적 성격이 부각되어 왔지만, 코로나19는 공적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사생활 개입 범위에 대한 질문을 남김. 특히, 빅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활용 및 윤리 등에 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음.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가 정치와 정책 수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일이 필요할 것임.[21)]

- 예를 들어,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문화예술교육 통계 및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이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문제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어떤 데이터를, 무슨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고, 얼마나 오랜 기간을 보관해야 할 것인지와 같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 윤리적 의사결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임.

나. 서울의 도시경쟁력 평가 변화

■ 서울의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정책 과제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10년간 서울시 도시경쟁력 평가 추이에 따른 문화 분야 과제를 살펴봄.[22)]

○ 도시경쟁력 지수는 크게 도시의 일반 지수와 삶의 질 지수로 나뉨.

○ 일반 지수로는 모리기념재단(일본 부동산개발회사)의 '글로벌 파워도시 지수(GPCI)', AT커니(컨설팅업체)의 '글로벌 도시지수(GCI)' 등이 대표적이며, 삶의 질 지수로는 머서(컨설팅업체)의 '삶의 질 지수', EIU(영국 이코노미스트 계열사)의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지수' 등이 대표적임.

■ 최근 10년간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2015년 전후로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삶의 질과 관계된 지수는 중위권에 고착화되는 양상임.[23)]

○ 모리 재단, 글로벌 파워도시 지수 : 6위('12년) → 7위('18년) → 8위('20년)

○ AT커니, 글로벌 도시 지수 : 11위('15년) → 12위('17년) → 13위('19년) → 17위('20년)

○ EIU, 살기 좋은 도시 지수 : 58위('12년) → 59위('18년) → 57위('19년) → 53위('21년)

○ 머서, 삶의 질 지수 : 72위('15년) → 73위('16년) → 76위('17년) → 79위('18년) → 77위('19년)

■ 서울의 강점은 높은 연구 및 기술 역량으로 인적자본 및 연구는 세계 1위이며 K문화 중심으로서의 도시 매력도임. 대중교통과 도시안전 역시 강점으로 나타남. 반면, 도시경쟁력이 낮아지는 이유는 약화된 경제 경쟁력임. 글로벌 파워도시 지수의 경제 부문 순위가 8위('15년) → 20위('20년)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고급인재 활용이 9~10위('15) → 28~29위('20년)로 하락함.[24)]

○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극장콘서트홀 수, 박물관 수, 경기장 활용 부족 등 문화교류와 경제교류가 부진하였고, 최근 10여 년간 대형 행사보다는 작은 행사에 치중하면서 글로벌 상징성이 약화한 것으로 평가됨. 향후 도시 환경 구성, 문화예술 인프라, 국제 문화예술 교류 등 장기적·기초적 분야에 대한

---

21) 위와 동일

22) 류정아, 「서울시 문화관광분야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 전략 및 방안」, 『제1차 도시경쟁력 포럼』 발제자료집, 서울연구원. 2022.05.03. 40~41p.

23) 오 균, 「서울시 도시경쟁력 관리 방향」, 『제1차 도시경쟁력 포럼』 발제자료집, 서울연구원. 2022.05.03. 7p.

24) 변미리 외, 「도시경쟁력 진단에 근거한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 서울, 베이징, 상하이, 도쿄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2021.10. 요약 ⅳ.

지속적 관심이 요구됨.[25]

○ 지난 5년간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정책 효과 분석에서도 전용 교육 거점 부족 등 문화예술교육을 지역화·보편화하기 위한 여건이 몹시 부족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해 보임.

■ 특히, 삶의 질 지수가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이 높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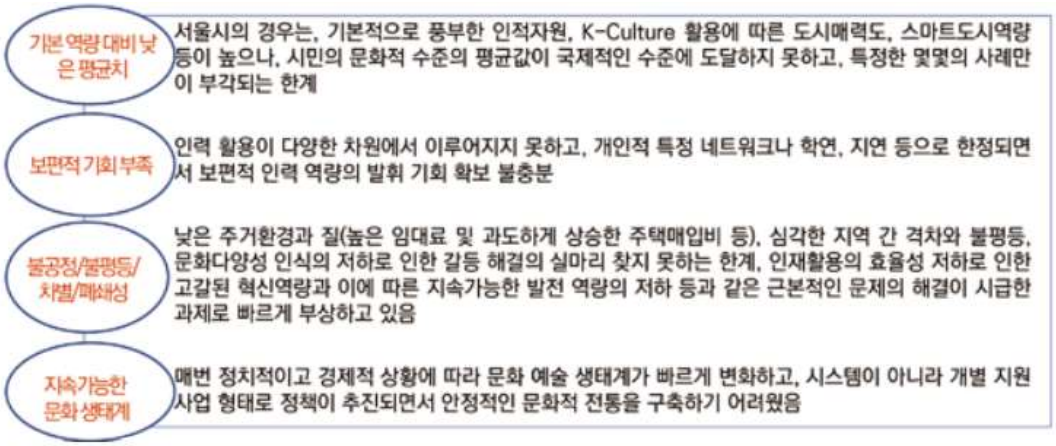
○ 도시경쟁력 평가 기준은 개별 아이템 평가에서 종합적/포괄적 평가지수로 변화하는 추세로 과거 OECD 대표 기구에서는 도시경쟁력 기준을 '세계화', '지식기반경제' 등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지속가능성, 삶의 질, 회복력 등의 항목을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개별 항목의 양적 수치보다는 다양한 콘텐츠, 인적 자원, 자원 활용 노하우, 정책효과 등의 선순환이 중요해짐.[26]

○ 일반 지수 순위는 하락했음에도 전세계 10위권에 포함되나, 삶의 질에 관한 지수는 50위권(EIU), 70위권(머서)으로 일반 지수와의 격차가 상당함. 일반 지수 평가 항목 중에서도 삶의 질과 관계된 주거의 질은 39위(글로벌 파워도시 지수)로 도시경쟁력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27]

○ '살기 좋은 도시 지수(EIU)'에서는 건강·보건과 문화·환경 및 교육 평가점수가 하락했고, '삶의 질 지수(머서)'에서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와 공기오염 수준 및 교통혼잡도와 기후·자연재해가 하위 평가를 받았는데, 머서 지표의 순위가 70위권으로 기후 및 환경 관련한 지표가 취약하다는 점이 두드러짐.[28]

○ 이에 관해, 서울 도시경쟁력 포럼에서는 "경제적 성과로 시작한 도시경쟁력은 결국 문화로 열매 맺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서울시 문화예술 분야의 도시경쟁력 취약점을 아래 그림과 같이 요약함.[29]

[그림 6] 서울시 문화예술 분야 도시경쟁력 취약점
출처 : 『제1차 도시경쟁력 포럼』 발제자료집



25) 류정아, 「서울시 문화관광분야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 전략 및 방안」, 40p.
26) 위와 동일
27) 변미리 외, 「도시경쟁력 진단에 근거한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 서울, 베이징, 상하이, 도쿄 중심으로」, 요약 ⅳ.
28) 오 균, 「서울시 도시경쟁력 관리 방향」, 8p.
29) 류정아, 「서울시 문화관광분야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 전략 및 방안」, 40~41p.

■ 이러한 도시경쟁력 평가 결과는 도시의 영향력 위상에 걸맞은 삶의 질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에도 적용되는 내용임. 서울은 문화예술교육의 균형 배분뿐 아니라 교육의 질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교육 주제를 삶의 질과 연계된 다양한 이슈와 연계하여 서울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자치구 및 기초문화재단 문화예술 정책 환경 및 실태

■ 서울의 자치구는 세계 유수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메트로폴리탄의 구성단위인 동시에, 지역주민의 생활이 매일 매일 영위되는 독자적 자치 구역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음. 도시경쟁력 평가 지수로는 서울의 자치구가 가진 이중적 성격 중 메트로폴리탄 측면은 분석할 수 있으나, 자치구별 실태 및 과제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움. 이에 자치구의 상황만 별도로 파악하고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서울시 자치구문화재단 현황 기초연구」[30], 「2021 서울시-자치구 간 문화정책 협력방안」[31] 연구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문화예술교육 사업 현황에 관해서는 서울예술교육페스티벌 오픈포럼에서 금천문화재단 오진이 대표이사가 발표한 발제문[32]을 참고함.

- 「서울시 자치구문화재단 현황 기초연구」는 자치구문화재단의 설립목적, 조직, 재정, 사업 현황 등 종합적 실태 파악을 위해 찾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인데, 통계의 근거가 클린아이시스템의 2018년 자료로 다소 최신성이 부족함. 그럼에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주요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 사료되어 참조함.

가. 자치구 기초문화재단 현황

■ 기초문화재단은 2010년 25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에만 설치되어 있었으나,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22년에는 22개에 이름.

○ 기초문화재단은 과거 지자체의 문화부서나 문예회관이 시설 관리를 중심으로 운영하던 것과 달리 문화정책 수립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까지 역할을 확대하면서 지역의 문화진흥 역량을 끌어올릴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음.[33]

○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치구 간 문화정책 역량의 차이가 매우 크며, 자치구별 문화 역량 차가 향후 줄어들기보다 유지 혹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 간 편차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됨.

- 인구 대비 사업예산 측면에서 상위자치구(중구, 강남, 종로)와 하위자치구(은평, 광진, 강북, 동대문)의 격차가 최대 200배 등 지역별 불균등 현상이 있음. 또한, 자치구 예산 규모보다는 재정자립도가 사업예산과 상관관계가 큼.[34]

---

30) 서우석 외, 「서울시 자치구문화재단 현황 기초연구」, 서울문화재단, 2020.
31) 백선혜 외, 「서울시-자치구 간 문화정책 협력방안」, 서울싱크탱크협의체, 2022.05.
32) 오진이, 「기초문화재단 예술교육 현황과 사례」, 『2022 서울예술교육페스티벌 오픈포럼 '미래를 향한 100개의 질문'』 발제문, 서울문화재단, 2022.10.17.
33) 백선혜 외, 「서울시-자치구 간 문화정책 협력방안」, 6p.
34) 서우석 외, 「서울시 자치구문화재단 현황 기초연구」, 64~66p.

- 2018년 기준, 재단의 자산규모가 최저규모인 자치구는 최대규모 자치구의 0.2% 수준으로 차이가 현저함. 3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중구, 20억 이상인 성동구와 성북구, 10억 이상인 종로구, 영등포구, 서초구와 대비되게 1억 미만인 자치구도 있음.[35)]
- 2018년 기준, 2명이 근무하는 동대문구에서 308명이 근무하는 강남구까지 기초재단의 인력규모 차이가 현저하며, 최근 설립된 재단일수록 인력규모가 작은 경향성이 있음.[36)]

○ 자치구문화재단은 공연장, 도서관, 전시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치구별로 운영 시설과 종류, 진행 사업에 차이가 있으며, 시설 규모 역시 재단별 편차가 있음.[37)]

- 주로 운영하는 시설은 도서관(17개 재단)으로 나타나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예술교육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도서관 직원 및 재단 담당자의 문화예술교육 이해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이 필요한 상태임.[38)]
- 전시공간은 주로 문예회관에 부속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자치구문화재단의 사업유형 특성은 크게 ①교육/지원, ②공연/축제/관광, ③도서관/지역의 3가지 경향으로 구분됨. 사업유형 특성을 고려해 자치구별 재단의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39)]

- 강남구와 중구는 독보적 형태임. 강남문화재단은 총 18곳의 문화센터를 운영하며, 중구문화재단은 충무아트센터를 운영하며 공연/축제/관광 중심의 사업을 펼침.
- 성동구, 금천구, 영등포구, 성북구, 도봉구, 서초구는 재단 설립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조직규모가 성장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간 사례임. 이들 재단 중 시설수가 많은 성북구, 도봉구, 서초구에서는 교육/지원과 도서관/지역 비중이 더 크다는 특징이 있음.
- 광진구, 동대문구, 강북구, 은평구는 비교적 신생이거나, 조직 규모가 작고 운영 시설수도 적음.
- 종로구, 마포구, 구로구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으나 도서관 및 지역문화 사업이 없거나 작은 규모의 재단들임.

■ 기초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예산 및 조직 현황[40)]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기초문화재단의 지역문화/생활문화의 주요 콘텐츠임에도 자치구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은 열악한 상태로 문화예술교육 예산의 91.8%가 서울시 본청 중심 예산임.

[그림 7] 서울시 권역별 문화향유 관련 예산(2020년)
출처 : 2022『서울예술교육페스티벌』 오픈포럼 오진이 발제문

□서울시 권역별 문화향유 관련 예산(2020년)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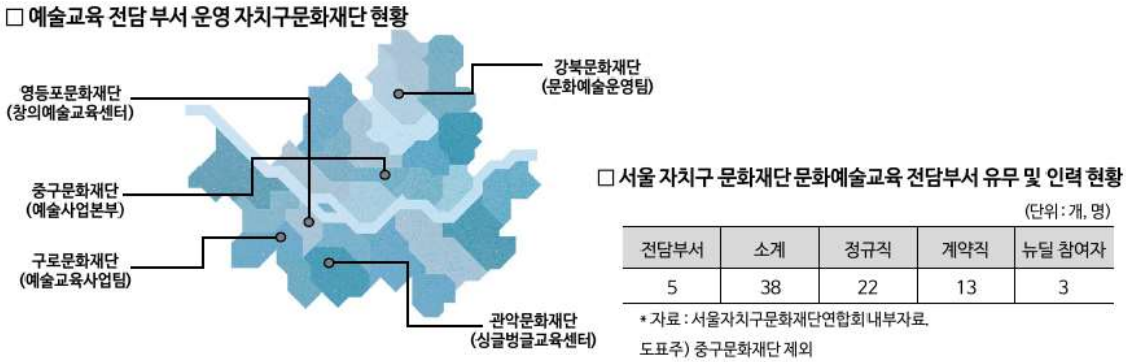
구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서울시	소계
문화예술교육	30,000	587,758	42,284	43,300	-	7,905,660	8,609,002
생활문화	9,500	7,289,998	225,160	4,938,917	1,441,510	13,800,835	27,705,920

*2020년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청 본(세출)예산자료

35) 위의 보고서, 47p.
36) 위의 보고서, 43~44p.
37) 위의 보고서, 57p.
38) 오진이,「기초문화재단 예술교육 현황과 사례」, 11p.
39) 서우석 외,「서울시 자치구문화재단 현황 기초연구」, 71~90p.
40) 오진이,「기초문화재단 예술교육 현황과 사례」, 5~6p.

- 무엇보다 자치구문화재단 중 5개만이 예술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한 상태로, 본 연구의 매개자 FGI(4장)에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주민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의 방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함. 즉,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 전담 분야가 아닌 생활문화 분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은 가지척 측면뿐 아니라 방법적 측면에서도 주민 공동체 형성의 방법론을 넘어서는 것임.

[그림 8] 예술교육 전담 부서 운영 자치구문화재단
출처 : 2022『서울예술교육페스티벌』오픈포럼 오진이 발제문



- 이러한 예산 상황 때문에 자치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공모사업에서 개별 자치구 여건에 따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재정자립도가 약한 자치구, 신생 기초문화재단 등에 있어 R&D를 포함한 공모사업의 중요성이 클 것이며, 신생 재단의 경우 자치구의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컨설팅 지원이나 고립되지 않고 지식과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자치구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임.

나. 광역-자치구와의 협력 양태

■ 문화정책에서 지역(자치구)과의 협력 양태

○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중앙이 공급하고 기초가 실행하는 계층적 형태로 발전하였으나, 시민의 문화수요가 있는 곳에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수요자 중심 관점으로 변화 중임. 이에 따라, 시민이 생활하는 '지역'과 정책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면서 지역 생활권 내 주요한 수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함께 정책을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41)]

○ 문화정책의 실행 방식이 계층적이긴 하지만, 제도에 의해 뒷받침되는 실질적인 정책 전달체계는 취약한 실태임.

- 제도적으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의사결정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책임을 나누어지게 되

41) 백선혜 외,「서울시-자치구 간 문화정책 협력방안」, 3~5p.

는지 등 협력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음.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시 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 등에서 파트너로서의 자치구의 위상이나 서울시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근거 조항 및 사업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42)]

○ 서울시-자치구 간 협력 관계 인식 조사를 위한 심층인터뷰(아래 그림[43)])를 통해 현장에서도 전달체계가 취약해 생겨나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9] 서울시-자치구 간 협력관계 인식 심층인터뷰 내용
출처 : 「서울시-자치구 간 문화정책 협력방안」

(서울시 문화부서 팀장)
"문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전달체계가 없어요. (중략) 기본적인 전달체계가 구성되어 있어야 의견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위에서 내려올 수 없다면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라인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울문화재단 직원)
"협력의 시작은 파트너 대상 주체가 있어야 하잖아요. 주체가 있으려면 사업영역이 있어야 하는데 자치구에는 예술교육 사업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영역을 만들고 그분들이 역량을 키우고 그다음에 뭔가 협력을 해보자는 차원으로 자치구와 예술교육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행정기관 관계별로 협력 현황 인식을 조사한 내용에서도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자치구, 자치구문화재단 모두가 기관 간 합의된 정책 방향이 없고(1순위), 기관 간 역할이 불분명해서(2순위) 협력이 어렵다고 답변함.[44)]

○ 또한, 자치구와 자치구문화재단이 상호 협력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양상도 보임.

- 자치구는 자치구 문화재단을 서로 필요하고 보완하는 관계로 인식하는 반면, 자치구문화재단은 자치구가 재단을 집행기관 또는 산하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여김.[45)]
- 실제로 자치구 인식과는 다르게 총 22개 문화재단 중 13개(59.1%)가 구청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음. 구청장이 이사장 겸직인 경우, 현실적 여건상 자치구 고위직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 재단에 대한 구청의 지배구조가 명시적임.[46)]
- 자치구 문화부서 역할에 관해 서울시 문화부서와 서울문화재단, 자치구 문화재단은 자치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자원 확보에 노력하는 정책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지만, 정작 자치구 문화부서는 지역 축제 사업을 주요 역할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외 사업은 시의 지원에 맞춰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47)]

○ 행정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 역시 서울시/광역 단위와 자치구 단위에서 다르게 인식되고 있음(아래 표[48)] 참조).

42) 위의 보고서, 110p.
43) 위의 보고서, 97p.
44) 위의 보고서, 96p.
45) 위의 보고서, 97~98p.
46) 서우석 외, 「서울시 자치구문화재단 현황 기초연구」, 42p.
47) 백선혜 외, 「서울시-자치구 간 문화정책 협력방안」, 105~106p.
48) 위의 보고서, 99~100p.

[표 6] 행정기관 간 협력 필요 분야

	서울시-자치구	서울시-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자치구문화재단	자치구-자치구문화재단
문화기본계획	1위	1위	3위	4위
지역문화사업	2위	2위	1위	1위
생활문화사업	3위	4위	2위	2위
축제·행사	4위	5위	5위	3위
예술진흥·예술인지원	6위	3위	6위	9위
문화예술교육	7위	7위	4위	6위
공연·전시	8위	8위	7위	5위

- 광역 단위에서는 기본계획과 같은 정책적 역할을 우선 요구하는 반면, 자치구 단위 협력은 지역문화사업, 생활문화사업을 위시해 축제·행사나 공연·전시 등 실행 사업에 좀 더 비중이 있음.
- 문화예술교육은 서울문화재단-자치구문화재단 협력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요구가 높음.
- 자치구-자치구문화재단 협력 분야에서 예술진흥·예술인지원의 중요도가 가장 낮게 나오는데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사업에서 '예술' 및 '예술가'가 '문화예술교육'과 달리 주민들의 삶과 상관없는 순수·전위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주의를 요하는 내용임.

○ 광역기관(서울시, 서울문화재단)의 역할에 관한 인식과 실태

- 광역기관의 역할에 관해서는 서울시 전체 문화정책 설계와 기본방향 제시, 서울시 지역문화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25개 자치구의 소통·협력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고도화가 주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으며[49], 사실상 이는 광역기관을 기초기관의 상위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임.
- 그러나 서울문화재단 입장에서 보면, 기초문화재단은 자치구 출연기관이고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 독립적 지위에 있는 법인임.[50]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서울문화재단이 광역기관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는 현실적 제한이 있음.
- 이러한 지방자치법과 별개로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체계가 하향식으로 되어있음. 즉, 문체부가 수립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해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어[51] 지방자치법과의 충돌하는 지점이 있음. 이에, 「서울시-자치구 간 문화정책 협력 방안」 연구에서는 자치구와의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자치구 주도 지역문화계획 수립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52]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역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종합계획을 수립[53]하고 광역단위 지자체가 종합계획을 반영해 지역문화예술계획을 수립[54]하는 하향식 구조로 되어있으며 그 밖에 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음.[55] 또한, 광역 문화예술교육

49) 위의 보고서, 103p.
50) 지방자치법 제1장제1절제3조제2항에서 자치구는 특별시의 관할 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할구역이라는 표현이 국가의 관할을 받는다는 뜻은 아님. 관할구역이라는 표현은 과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만 두드러지게 가질 때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쓴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함(김태현,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심화과정』, 법제처, 2011. 50p.).
51) 지역문화진흥법 제1장제6조제2항
52) 백선혜 외, 「서울시-자치구 간 문화정책 협력방안」, 121~122p.
53)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장제6조제1항
54)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장제6조제4항
55)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장제6조제11항제5호

지원센터는 지자체장과 협의(현실적으로는 추천)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데[56] 지역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어[57] 지역과의 협력기반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분명하지 않은 형태임.

56)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장제10조제6항
57)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장제10조제9항

제2절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현황[58)]

1. 2018-2022 문화예술교육정책 흐름 및 사업운영 현황

■ 2006년 출범한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정책은 “가르치는 예술”에서 “경험하는 예술”로의 전환을 표방하며 성장해 옴.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중요하게 여기며, 특히 학교예술교육TA를 중심으로 “미적체험” 기반의 예술교육 철학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평가를 받아왔음.[59)]

■ 일반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크게 ① 2006년 재단 출범시 학교문화예술교육 본격 추진, ② 2010년대 사회문화예술교육이 확대되던 시기, ③ 2010년대 중반부터 예술교육공간이 주목되던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시기별로 서울문화재단에서 다루던 주요 사업 역시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음.

○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사업은 ① 초기 학교예술교육TA를 중심에 두고 아카데미를 통한 인력양성을 하면서 재단만의 예술교육 철학과 방법을 정립하는 단계를 거쳐 ② 2009년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내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앙정부나 서울시 위탁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 규모를 키워나갔음. 규모의 확장과 함께 예술교육가들 간의 네트워크(예술교육 파트너스 데이), 자치구와의 네트워크 구성, 자료관 운영 등 문화예술교육 환경 기반을 마련해 나감. ③ 2016년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개관을 기점으로 2010년대 후반부터는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이슈가 부각되고 있으며, 지역화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며 자치구에 대한 서울문화재단의 영향력 및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음.

[표 7]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흐름

	탐색 및 조성기	성장기	개선 및 확대기
기간	2000년대 중·후반 ~		
	-	2010년대 초·중반 ~	
	-	-	2010년대 후반 ~
정책키워드	학교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공간, 지역화
기반 구축	재단 만의 예술교육 철학과 방법론 정립	네트워크 확대 및 자료관 운영 등 문화예술교육 기반 마련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마련, 지역 연계 강화 등 기반 심화
주요 사업	학교예술교육TA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각종 공모지원 사업	예술교육센터 2개소 공간 및 지역 기반 교육 콘텐츠
예술교육가 역량 및 네트워크	아카데미 운영	예술교육 파트너스 데이	서울예술교육랩, 예술교육가 R&D 및 역량 강화 과정 지원
네트워크	학교/교육청 네트워크	자치구 네트워크 (행정 네트워크)	현장을 포함한 지역생태계적 접근, 아난딸로 아트센터 연계

58) 김진환, 「서울형 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5가지 키워드」를 기본 토대로 삼아 재단 사업에 관한 여타 선행연구 자료 및 재단 내부 자료, 담당자 인터뷰를 참고해 작성함.
59) 임학순 외, 「서울형 예술교육 2.0」, 서울문화재단, 2019.

■ 최근 5년간(2018-2022)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사업 동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목도 높은 정책 및 사업들이 재단의 예술교육 운영의 안정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18년 최초로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지난 5년간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성의 기초가 되어줌.

○ 서울예술치유허브와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는 서울시-자치구 간의 협약을 통해 자치구 공간을 사용하였으며, 각각 ’20년과 ’21년 임대기한 만료 및 공간 반납으로 일몰됨. 이후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 이어 서울시에서 직접 조성한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이 ’20년 개관함.

- 서서울예술교육센터와 서울예술교육센터는 서울시 공간 사용으로 서울문화예술교육 정책 반영이 보다 용이하고 공간 운영에 안정성이 있음
- 서울문화재단은 기존의 지역밀착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인 서울예술치유허브와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공간을 운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권역별 예술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전문성을 가진 예술교육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음

○ ’21년부터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의 협력 하에 초등 방과 후 지역 돌봄 시설인 키움센터에서 지역예술교육TA 사업이 시작되면서 학교예술교육에서 시작한 TA가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도 확장하게 됨.

○ 복합문화공간, 예술단체공간, 청년공간, 복지센터 등 서울의 여러 지역 및 공간에서 주로 성인 대상으로 운영하던 〈서울시민예술대학〉 사업을 기획사업으로 풀어낸 ’22년 〈서울예술학교, 오늘〉은 서울형 예술교육 브랜드 강화를 위해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 및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예술청, 창작공간 등의 거점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거점특화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시하고자 함.

○ ’22년 서울예술교육페스티벌을 최초로 개최하여 지난 16년간의 예술교육사업이 쌓아온 자원과 역량을 시민과 공유하고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성원들의 학습과 교류의 장을 펼침.

■ 지난 5년간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코로나19임.

○ 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 이후 예술교육 기반 구축을 수행할 예산과 집행력이 다소 침체되어 있는 상황임.

○ 코로나19로 인해 재단은 기존 운영 기준을 완화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됨.[60]

- 면접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비대면 활동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장비나 기술 지원 등 디지털 교육 환경에 대한 이슈가 제기됨.
- 교육 회차 중 일부는 수업 연구 활동으로 전환하면서 예술교육가들 다수가 R&D 경험을 축적하게 되고, 단체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기반지원 모색이 진행됨.
-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업의 변경과 비대면 환경에서의 교육 등 기존의 사업 평가 및 성과 측정 방식으로는 정책 환류가 어려운 문제에도 직면하게 됨.

○ 포스트코로나 상황에서도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가 남아있음(「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2-2024」 분석내용 참조). 코로나19가 예외적인 재난이 아니라 기후변화 등 앞으로 다가올 재난사회의 예고편처럼 이해되면서 안전과 회복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생존이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회복과 전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있음.[61] 한편, 디지털 기술

60) 프로젝트 궁리,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현황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2018~2020 서울시민예술대학,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선정단체 중심으로」, 서울문화재단, 2020. 22p.

6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홍보국제협력팀, 「닫혔던 일상, 예술로 밝히는 안부」, arte365. 2022.05.16. https://arte365.kr/?p=93928

의 진화는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어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환경에 대한 이슈 역시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2. 재단 예술교육실의 주요 기능 및 업무

■ 조직의 기능 및 구조

○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기능은 예산 출처에 따라 크게 TA 사업, 기반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재단 출연금)과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기능(국·시비 수탁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조직개편 때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병합하거나 분리하면서 조직 구조와 명칭을 변경해왔음. 여기에 더해 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기능 단위가 별도로 존재함.

○ '22년 현재는 예술교육실 아래 학교예술교육TA 사업을 위주로 출연금 사업을 운영하는 예술교육정책팀, 작년까지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였던 예술교육지원팀과 예술교육센터를 운영하는 2개의 부서가 별도로 있음.

- 예술교육팀이 예술교육정책팀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선임부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향후 추가 조성 3개소를 포함한 5개 예술교육센터의 전략 수립까지 역할을 확대해 갈 것으로 보임.
- 예술교육지원팀은 국·시비 수탁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주로 펼쳐나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이하 "지역특성화") 등 공모지원사업 예산은 100% 지방이양 되었으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건비 등 운영비는 향후 5년간 국·시비 매칭 예산으로 위탁되기 때문에 서울시 제2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문화예술교육 주요 업무

○ 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주요 업무 유형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음.

[표 8]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실 주요 업무 유형

업무 유형	업무 내용
서울형 예술교육확산 업무	TA, 예술치유 등 서울형 예술교육의 가치를 강하게 반영하는 사업 기획·운영
예술교육 인력양성 업무	아카데미, 3년마다 심포지엄, 매년 1~2회 교육 포럼, 총서 발행 등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 업무	문화예술교육 지역 정책의 구심적 및 지원센터 역할 학교예술강사,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문체부 사업 수행
서울시 문화시설 정책 업무	창작공간, 예술교육센터 등 문화시설 정책 수립 및 운영
파트너 협력 업무	서울시교육청, 자치구문화재단, 국제교류 파트너 등과 협력 역할

■ 문화예술교육 예산의 변화 추이

○ 재단 문화예술교육 분야 전체 예산 규모는 문체부 정책 전달체계, 교육청 협력, 서울시 인프라 확충 흐름에 따라 사업과 예산이 확대되면서 '16년까지 급격한 증가 추이를 보이다 그 이후 하향 추세임.

- 2010년대 초·중반 예산의 급격한 확대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수탁('10~'16), 인건비 등의 운영비가 포함된 형태였던 관악과 치유허브 사업 수탁('09~'13)의 영향임.
- 지난 5년간(2018-2022) 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예산 평균은 대략 평균 85억이었으며, '20년 대비

’22년 총예산은 약 70% 수준, ’23년은 약 55% 수준으로 급속히 감소 중임.

- 출연예산 역시 ’20년 대비 ’22년에 58%로 대폭 감소[62] 추세임.

[그림 10]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분야 전체 예산 규모 변화 추이(2004-2022)
출처 : 2022『서울예술교육페스티벌』오픈포럼 김진환 발제문, 서울문화재단 사업 현황 보고 (내부 문서)

○ ’17년 이후 예산 편성을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분야 예산은 점차 감소하다 ’23년 사업 일몰로 예산이 사라졌으며, 사회문화예술교육 분야는 부침이 좀 있으나 증가 추세로 볼 수 있으며 예술교육시설 운영 분야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아래 표[63] 참조).

- 예술교육기반 구축 분야는 서울예술교육랩, 예술교육 아카데미 등 예술가, 매개자 등 대상의 인력 양성, 교육 철학 연구, 교류 등의 내용을 포함함. (단, 본 구분은 예산 사업 단위의 구분이며, 다른 4가지 분야의 예산 내에도 예술교육기반 구축 관련 세부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 학교문화예술교육 분야는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예술교육TA 사업 위주임.
- 사회문화예술교육 출연 사업 분야는 서울시민예술대학 사업, 자치구 지원 사업, 지역예술교육 TA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출연 예산으로 운영됨.
- 사회문화예술교육 수탁 사업 분야는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21년까지 국·시비 매칭으로 진행된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음. ’22년부터는 70~80%의 예산이 지방이양되어 서울시 예산임.
- 예술교육시설은 출연금으로 운영되며 프로그램 예산 비중은 절반 이하임.

[표 9] 예술교육 분야별 예산 편성의 비중 및 변화(2017-2023) / 출처 : 서울문화재단 사업 현황 보고 (내부 문서)

○ 2017~2023년 예술교육 분야별 예산 편성표
※ 단위 : (예산)백만원 / (연도별 예술교육 총예산 대비 구성비)%　　※ 수탁사업 : 꺽쇠 [ ] 표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9,200	8,856	8,517	9,940	8,464	6,925	5,456
예술교육기반 구축	400 (4.3%)	300 (3.4%)	320 (3.8%)	263 (2.6%)	224 (2.6%)	[118] (1.7%)	250 (4.6%)
학교문화예술교육	3,750 (40.8%)	3,585 (40.5%)	2,380 (27.9%)	2,350 (23.6%)	1,666 (19.7%)	1,666 (24.1%)	- (0%)
사회문화예술교육(출연)	500 (5.4%)	500 (5.6%)	1,350 (15.9%)	1,000 (10.1%)	720 (8.5%)	400 (5.8%)	200 (3.7%)
사회문화예술교육(수탁)	[2,598] (28.2%)	[2,408] (27.2%)	[2,577] (30.3%)	[2,577] (25.9%)	[2,635] (31.1%)	[2,513] (36.3%)	[2,431] (44.6%)
예술교육시설 운영	1,952 (21.2%)	2,063 (23.3%)	1,890 (22.2%)	3,750 (37.7%)	3,219 (38.0%)	2,228 (32.2%)	2,575 (47.1%)

* 신규 조성 예술교육센터 3개소(동북권/동남권/서북권) 2023년 요구 예산은 예산 편성 방식 및 시기 미정으로 제외함

62)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서울형 예술교육〉 사업 현황 보고」, 서울문화재단 내부 문서. 2022.09.21.
63) 위의 보고서와 동일

○ ’22년 예산 편성 비중 순위는 ① 사회문화예술교육 수탁, ② 예술교육시설 운영, ③ 학교문화예술교육 운영, ④ 사회문화예술교육 출연사업 운영, ⑤ 예술교육기반 구축사업 운영의 순이었음. ’17년부터 예산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비중이 높다가 점차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예술교육센터 공간 운영의 비중이 높아져감. 이는 총예산이 줄고 있음에도 교육의 대상이 학교로부터 서울시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함.

○ ’23년에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오던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이 급작스럽게 일몰되어 학교예술교육TA를 중심으로 서울형 예술교육 브랜드를 구축해오던 재단 예술교육 방향성에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임.

○ ’23년 예산 요구액에서는 예술교육시설 운영 비중이 1순위로 재단에서 공간 운영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은 변화는 사업의 대상을 확장하는 단계를 넘어 자원이 축적되고 네트워크가 연계될 수 있는 거점 중심으로 사업이 체계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예술교육기반 구축 예산 비중은 감소되다가 ’23년 증가했지만 총액은 여전히 감소 중이며, 학교예술교육TA 양성 사업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일몰됨으로써 휴먼웨어 등 기반 구축과 관련된 전반 상황은 취약해지고 있음. 또한 재단 자율성이 큰 사회문화예술교육 출연 예산도 ’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중임. 이와 같은 분야들은 교육의 품질 제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임.

3.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현황[64)]

가. 서울문화재단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변화 추이(2018-2022)

■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특성

○ 서울문화재단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은 학교예술교육TA 사업과 달리 서울형의 철학과 특색을 뚜렷이 강화하는 방향이 아닌 ‘지원’에 방점을 둔 방향으로 운영해 왔음. 때문에 수탁기관, 자치구의 필요와 요구, 최종 수혜자의 수요가 사업 운영의 근거로서 중요하게 작동해왔다고 볼 수 있음.

■ 2018-2022 사업의 주요 이슈

○ ’19년 유아문화예술 교육 지원이 생겨나면서 생애주기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사의 인지도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현장 역량강화 사업을 수탁하였음.

○ ’20년 서서울예술교육센터의 모두의 예술놀이 사업은 코로나19 시대 예술가 창작 지원을 위해 생겨난 사업으로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예술놀이 및 예술교육 콘텐츠 제작활동을 지원하였음. ’21년부터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해 키오스크 영상과 함께 1인 셀프형 예술체험 프로그램으로 상시 운영 중임.

○ ’21년 학교예술교육TA의 고도화된 교육과 사업, 그리고 TA의 우수한 역량을 서울 내 각 지역으로 연결해 가기 위하여 지역예술교육TA 사업을 시작함.

- 지역 돌봄 기관인 키움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예술교육TA[65)]는 ’21년 노원·도봉권, 동작 2곳

64)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실에서 제공한 내부 문서 및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내용을 파악함.
65) 지역예술교육TA는 학교예술교육TA와 함께 예술교육팀에서 운영하다가 ’23년 예술교육지원팀의 사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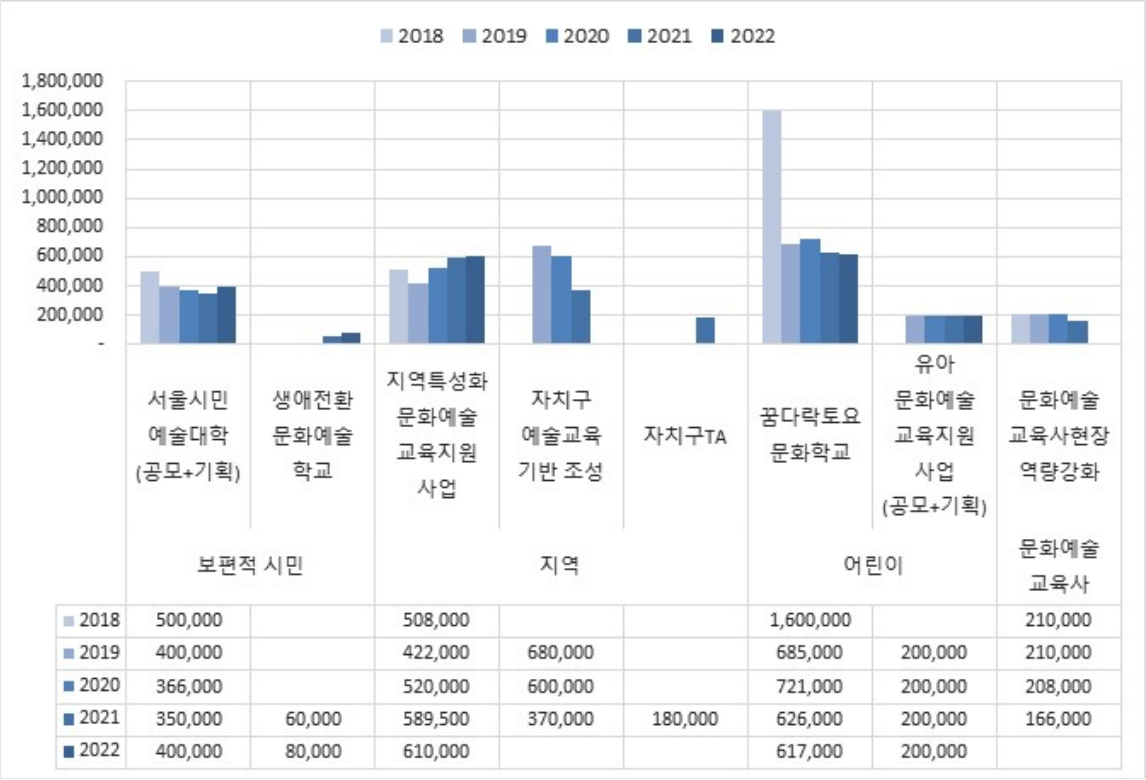
으로 시작해 ’22년에는 종로·서대문 키움센터가 추가되었고, 자치구 문화재단TA[66]는 관악, 동작, 성동, 중구 4곳의 기초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였음.

- 지역예술교육TA는 활동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전용 연구개발 공간,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으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상반기 중 리서치 및 연구개발 기간을 가지고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하반기에 진행함.[67]

○ ’22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유아문화예술교육 사업 예산이 100% 지방이양 됨. 지방이양은 예술교육지원팀 업무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근본적인 영향을 주며, 당장 ’23년 공모사업부터 사회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서울형 예술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정립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임.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유아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지난 5년 간(2018-2022) 운영비를 제외한 예술교육지원팀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주요한 정체성을 좌우하는 영향력을 가져왔음. 특히, 3개 사업 중에서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유아문화예술교육 사업이 66%의 비중을 차지하여 교육대상에서 어린이에 대한 편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11]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변화 추이(2018-2022) / 단위 : 천원
출처 :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실 내부 문서



	서울시민 예술대학 (공모+기획)	생애전환 문화예술 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	자치구 예술교육 기반 조성	자치구TA	꿈다락토요 문화학교	유아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 (공모+기획)	문화예술 교육사현장 역량강화
2018	500,000		508,000			1,600,000		210,000
2019	400,000		422,000	680,000		685,000	200,000	210,000
2020	366,000		520,000	600,000		721,000	200,000	208,000
2021	350,000	60,000	589,500	370,000	180,000	626,000	200,000	166,000
2022	400,000	80,000	610,000			617,000	200,000	

별도 예산 편성됨.

66) 자치구 문화재단TA는 수탁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21년 한 해 동안 시범 운영하였음.

67)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2022 서울문화재단 지역예술교육TA 공모」 https://www.sfac.or.kr/participation/participation/artspace_project.do?prjIdx=207&step=1

■ 자치구 예술교육 기반조성 예산 이슈

○ 문체부 종합계획,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모두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를 우선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는 반면, 서울문화재단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자치구 관련 사업과 예산은 ’22년부터 대폭 축소됨.

○ ’19년~’21년 출연금으로 운영하던 자치구 예술교육 기반조성 지원사업(구 자치구 예술교육 활성화)은 ’22년 출연금 일몰로 광역센터 기본 운영사업(수탁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서울시기초문화재단연합회(서문연)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사업명도 자치구 문화예술교육 거점지원으로 변경되었음.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공모 단체 현황 및 정책 수요

■ 서울문화재단의 최근 사회문화예술교육 공모 단체·프로그램 현황 분석 연구인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현황분석을 위한 기초연구」[68]를 토대로 재단 사업 공모 단체 및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 「2021 문화예술교육 단체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69]를 통해서 서울 활동 단체 및 기관의 코로나 대응과 정책 수요 등을 보완해 살펴봄.

○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현황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는 ’18년~’20년 서울문화재단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서울시민예술대학, 예술로 놀이터(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사업에 참여했던 단체 및 프로그램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음.

○ 「2021 문화예술교육 단체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는 ’13년~’21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17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단체, ’20년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중 문화예술/교육 사업 분야를 선택한 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이중 서울의 사례수는 336개임.

○ 2개 연구 모두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이후라고 볼 수 있는 ’22년 문화예술교육 단체·프로그램의 현황 분석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코로나 이슈 분석을 위해서는 별도의 분석 연구가 필요함.

■ 서울문화재단 사회문화예술교육 공모 단체 현황

○ ’18년~’20년 공모에 참여한 단체들은 개인사업자(40.1%), 임의단체(32.7%)가 대다수로 예술교육(94.2%)뿐 아니라 예술창작(59.6%), 예술기획(51.9%) 등 문화예술 영역 전반의 활동을 하고 있음.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받은 단체 비중이 작고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등 인/허가 제도를 활용하는 단체도 많지 않으며 91.3% 단체의 주요 재원이 공모사업으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

○ 즉,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체 경영에 관심이 적고 예술교육의 기획 및 수행에 주력하는 실천가들이 필요에 의해 설립한 경우라 볼 수 있으며, 소속을 단체에 두되 예술적 관심사에 따라 여러 프로젝트 중심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 2건 이상의 프로그램 수행 단체가 55개(37.4%), 서로 다른 지원사업에 2건 이상 참여한 단체가 16개(10.9%)로 이들이 전체 프로그램의 61.5%, 23%를 차지함.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에 집중하는 이 단체들에 대한 현황과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에서의 역할 등이 분석될 필요가 있음.

---

68) 프로젝트 궁리,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현황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2018~2020 서울시민예술대학, 지역특성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선정단체 중심으로」, 서울문화재단, 2020. 151~152p.

69) 메이븐스퀘어, 「2021 문화예술교육 단체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

■ 서울문화재단 공모 단체의 주요 교육형태 및 서울 활동 단체의 교육철학

○ 교육대상은 각 지원 사업별로 기획된 의도나 가산점 조건을 따라가기 때문에 단체의 자율적 목표를 가늠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음.

○ 서울문화재단 사업에 공모한 단체들은 하나의 장르(36.4%)보다 여러 장르를 활용한 교육(63.6%)을 더 많이 수행하였으며, 영상과 뉴미디어 활용이 많았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음. 또한, 단체 보유 공간보다는 외부 기관 협력 공간의 사용(79.9%) 비중이 컸음. 이는 자체 공간이 있어도 넓은 장소가 필요하거나 지역 협력 필요성 등으로 외부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서울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 단체가 추구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를 조사한 결과, '예술과 과학의 만남, 음악과 인문학의 만남 등 상호 융합하여 탁월한 것을 창조해 내는' 융합형 예술교육이 32.1%로 1순위로 나타나서 이목을 끔. 문화적 자립/소통, 지역사회와의 공존이 그 뒤를 잇고 있음. 가장 많은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로는 문화적 자립/소통(65.5%)이 1순위, 지역사회와의 공존(61%)이 2순위로 나타남.[70]

[표 10] 서울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사회적 가치추구 (n=336) / 단위 : %

융합형 예술교육 시도		문화적 자립/소통		지역사회와의 공존		예술을 통한 몰입[71]		구성원의 일자리 창출		장애인/취약계층 교육가 육성		예술교육가 육성	
대표가치 추구	가치추구 (복수선택)	대표가치 추구	가치추구 (복수선택)	대표가치 추구	가치추구 (복수선택)	대표가치 추구	가치추구 (복수선택)	대표가치 추구	가치추구 (복수선택)	대표가치 추구	가치추구 (복수선택)	대표가치 추구	가치추구 (복수선택)
32.1	51.2	29.5	65.5	17.3	61.0	8.0	44.0	5.1	42.9	5.1	30.7	3.0	-

■ 코로나19 이슈

○ 사업적으로는 지난 5년간 코로나19의 영향이 압도적임. 예술교육 활성화나 가치적인 목적에 집중할 수 없었고 코로나로 인한 현장 단체들의 피해 최소화 및 응급 상황 대비에 전력을 기울여야 했음.

○ 이로 인해, 코로나19 이전까지 구축되어 온 사업체계에 균열이 생기면서 '22년은 회복에 집중하는 기간이었는데, 회복하는 동안 지방이양, 포스트코로나 사회 이슈 등장, 재단 조직 내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곧바로 전환 이슈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임.

○ 서울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 단체들은 코로나19가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사업활동 위축과 사업 포기, 매출 감소를 1순위로 꼽음.[72]

[표 11] 서울 활동 단체가 코로나19로 주로 받은 영향 (n=332) / 단위 : %

매출 감소 (사업활동 위축/사업 포기 등)		문화예술 교육활동 강좌 미오픈		온라인 교육과 활동 등 비대면 사업/활동 방식 추진		오프라인 중심 사업활동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영역 다각화		원격회의, 전자결재 등 온라인 기반 회의/소통방식 활용		디지털 온라인 기술 등 새로운 인력 보강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새로운 근무방식 활용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54.8	63.3	17.5	44.6	11.7	42.8	11.4	30.4	0.9	7.2	0.9	4.8	2.7	5.7

70) 위의 보고서, 226p~227p.
71) 다양한 예술 장르를 경험하면서 교육과정에서의 몰입이 주는 즐거운 경험을 의미함
72) 위의 보고서, 32p.

○ 비대면 문화예술 사업을 운영하는 서울 활동 단체는 53.3%로 전국 평균 40%를 상회함.[73] 이중에서도 음악, 연극, 미술 장르를 비대면 교육한다는 단체는 20%가 넘는데[74] 이들 장르는 오프라인에서도 메이저한 장르임.

[표 12] 서울 활동 단체의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사업 장르/분야 (n=179) / 단위 : %

음악	연극	미술	문학	영화	공예	사진	무용	국악	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	문화재	기타
29.1	29.1	27.4	19.6	15.1	14.0	10.6	10.6	7.3	7.3	5.6	5.0	22.3

○ 서울 활동 단체의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필요성은 7점 만점 중 평균 5.1로 나타나며 전국 평균 4.7을 상회함.[75] 비대면 사업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의향도 서울 평균은 5.3, 전국 평균은 4.9로 격차가 있음.[76]

■ 정책 수요 및 애로사항

○ 서울 활동 단체는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애로사항으로 1순위 복잡하고 과중한 행정 절차, 2순위 연례 공모 선정 및 단순 지원, 3순위 지원사업의 자율성과 유연성 부족을 꼽았음. 이는 모두 예술교육 기획 및 수행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애로사항이라 볼 수 있으며 전국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음.[77]

[표 13] 서울 활동 단체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애로사항 (n=336) / 단위 : %

복잡하고 과중한 행정절차		연례공모 선정 및 단순 지원		지원사업의 자율성과 유연성 부족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비현실성		지원예산 대비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프로그램 운영공백에 따른 교육단절		신규단체 진입이 어려움		교육시설/대상에 대한 사전안내와 홍보부족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이나 단체 간 교류 부재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37.2	56.3	16.7	35.7	17.3	32.1	14.3	28.3	4.5	16.7	3.9	11.3	3.9	11.9	1.2	4.5	1.2	3.0

○ 서울 활동 단체가 원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정책/사업은 1순위 다양한 유형의 지원사업 확대, 2순위 사업화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 3순위 창작공간 및 공간임대 지원으로 나타남. 사업화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 순위가 높은 것은 단체들도 R&D 필요성을 느낀다는 뜻으로 볼 수 있으며, 투자/융자 제도 등 필요 자금 조달 지원 및 안내가 전국평균(1+2순위 합계 16.2%)과 비교해 서울(1+2순위 합계 21.7%)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주의를 요구함.[78]

73) 위의 보고서, 41p, 44p.
74) 위의 보고서, 48p
75) 위의 보고서, 53p, 56p.
76) 위의 보고서, 57p, 60p.
77) 위의 보고서, 109p.
78) 위의 보고서, 113p.

[표 14] 서울 활동 단체가 원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정책/사업 (n=336) / 단위 : %

다양한 유형의 지원사업 확대		사업화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		창작공간 및 공간임대 지원		인력지원		투자/융자 제도 등 필요자금 조달지원 및 안내		온라인 기술환경 지원		직무 역량교육 /연수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단체/ 프로그램의 홍보/판매 및 해외진출 지원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47.9	61.6	12.8	37.2	8.9	21.1	8.0	15.2	8.3	21.7	5.1	16.7	3.6	8.6	2.4	6.0	3.0	11.3

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향후 이슈

■ 이상과 같은 내용에 기반해 재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향후 이슈를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표 15] 서울문화재단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향후 이슈

영역	향후 이슈
TA사업	• 학교예술교육TA의 유산을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승계하고 지속적으로 확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등 공간을 기반으로 한 레지던시형TA, 자치구TA, 지역예술교육 TA 등 다양한 거점 및 지역 기관과의 연계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공모사업	• 지방이양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중·단기적 서울형 공모사업의 방향성 설계 필요 • 서울의 특성 및 동시대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이 선행될 필요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사업 등은 장기적으로 생애주기형, 자치구 연계 사업들로 전환하면서 자치구 및 자치구 문화재단과의 연계 강화
자체 기획사업	• 서울형 예술교육 브랜드를 강화하고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및 거점으로 연계, 시민 접근성 제고 및 가치 확산
포스트코로나 이슈	• 모두의 예술놀이 사업처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디지털 활용 격차 확대 등 미래의제에 대응하는 사업의 개발과 운영 •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과 기후변화 등 포스트코로나 미래의제에 대한 대응

4. 신규 예술교육센터의 정체성 이슈

■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정책 변화는 앞으로 총 5개의 권역별 예술교육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임. 신규 예술교육센터의 개관은 단지 시설 개관의 문제가 아니라 재단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예산과 인력, 조직구조, 사업구조 등 전반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임.

○ 현재 운영 중인 서남권의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도심권역의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 외 동북권역(강북구), 동남권역(서초구), 서북권역(은평구)에 각각 센터가 개관할 예정임.

○ 개관 일시는 '23년~'24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 기간 내에 포함됨.

○ 3개의 오픈 예정 센터 중 은평구 수색동과 서초구 반포동은 용산과 마찬가지로 기부채납 공간임.

[그림 12] 서울예술교육센터 조성 현황 개괄
출처 : 2022 서울예술교육페스티벌 오픈포럼 김진환 발제문

권역	명칭	조성·운영 책임 / 현재 운영	개관연도	규모
서남권역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특별시/서울문화재단	2016년 10월	1,190㎡
서북권역	제1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은평)	서울특별시교육청/위탁	현명칭 변경: 2018년 1월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2014년 7월)	3,349㎡
동북권역 (중부권역)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성동)	서울특별시교육청/위탁	2018년 4월	2,651㎡
서남권역 (남부권역)	제3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	서울특별시교육청/위탁	2018년 10월	1,967㎡
도심권역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	서울특별시/서울문화재단	2020년 11월	2,949㎡
동북권역	(가칭)서울예술교육센터-동북(강북)	서울특별시/미정	2023년 하반기(예정)	4,725㎡ (주차장 포함)
동남권역	(가칭)서울예술교육센터-동남(서초)	서울특별시/미정	2024년 상반기(예정)	7,819㎡ (주차장 포함)
서북권역	(가칭)서울예술교육센터-서북(은평)	서울특별시/미정	2024년 상반기(예정)	2,942㎡ (주차장 포함)

■ 5개 센터의 개관은 서울시 전지역을 고루 대응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예상되지만, 5개 센터를 종합하는 예술교육센터 정책의 방향이나 신규 조성 센터의 정체성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임.

○ 서서울예술교육센터와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은 재단 출연사업으로 처음부터 공간의 정체성을 기획하고 시작한 측면이 있음.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아동과 가족 대상, 지역 이슈, 환경·생태 주제에 초점을 둠.

○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은 청소년과 미디어에 초점을 둠.

○ 신규 조성 센터의 역할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권역별 예술교육 향유 시설로서의 특성 외에 센터별 특화 장르를 지정하여 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음.

제3절 소결

◎ 문화예술교육 정책 흐름과 서울문화재단 정책의 관계

■ 재단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국·시비 수탁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22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지역특성화 등 공모지원 사업 예산이 100% 지방이양 되면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 이에, 제2차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과 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을 살펴보고 중앙과 발맞추어야 할 주요한 방향성과 자율성을 갖고 임해야 할 지점을 확인하고자 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차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에서 4가지 주요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23년부터 단위 공모지원 사업을 포괄형 공모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은 서울문화재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임.

■ 제2차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과 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은 모두 문화예술교육 전문 공간에 대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음.

○ 종합계획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생활밀착형 시설을 대상으로 거점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함.

○ 서울시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개관할 3개의 센터를 포함한 총 5개 예술교육센터의 역할을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다루고 있음.

○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전문 공간에 대한 관심은 수요자의 교육 경험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할 것임.

■ 국가와 서울시 양쪽 모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외연이 확대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문화예술교육이 보편적인 시민의 기회이자 권리로 인식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한 고민을 표출함.

○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2차 종합계획은 사회서비스 제도를 연계하여 일반 국민 대상 사업을 추진하려는 방향성을 제안하였음. 서울시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이 크게 낮아진 상태로 단발성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접근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음.

○ 지속적인 외연 확대에 대한 고민은 수요 다양성 포괄과 연관이 있음.

-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학교 및 소외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대상의 범주를 확대해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함.
- 제2차 서울시 기본계획에서는 대상별 맞춤형 예술교육체계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민의 문화예술교육 수요 다변화에 대응해야 함을 언급함.

○ 이와 같은 국가와 서울시의 정책 방향은 국민 또는 시민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나타나는 다양성 문제와 연관이 있으며, 수요 다양성이 충족되지 못하면 외연의 확대도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음.

■ 제1차 종합계획, 서울시 기본계획의 가장 큰 성과가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기반 마련이라는 평가가 있는 한편 지역 협력 추진체계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으며, 서울시 제2차 기본계획에서도 자치구 문화예술교육 실행 기반이 미약하다는 분석이 있음. 때문에 제2차 계획에서도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기반 강화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문화예술교육정책이 포스트코로나 시점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음.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난사회 대응,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생기는 편의성 향상과 디지털격차 심화 등의 추세가 주요하게 다루어짐.

◎ 사회환경 변화와 문화예술교육 미래의제 대응의 문제

■ 포스트코로나 이후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사회변화 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2022-2024 문화예술 트렌드를 살펴봄. 그 결과 예상되는 트렌드는 주로 지속가능한 생존과 디지털 전환 가속에 초점이 있음. 특히 지속가능한 생존 문제는 세계화 추세가 뚜렷이 퇴조하면서 효율과 성장 담론이 안전과 회복력 담론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며 부각되는 이슈임.

○ 1인 가구의 급속한 확대,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심화,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환경·재난 문제의 본격화로 삶의 기초적 여건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며, 여건의 변화로 초래되는 생활양식의 전환과 새로운 문화현상의 출현 등이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특히, 예술은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삶의 동반자로서 호출되고, 삶을 회복하고 치유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음.

○ 디지털 전환 가속과 관련해서는 1인 크리에이터의 전문가 인정이 2020-2024 트렌드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고 향후에도 지속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음. 최근에는 1인 크리에이터의 주류화 뿐 아니라 chatGPT 등 상용화가 멀지 않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출현, 경험의 초개인화를 불러오는 구독경제의 급속한 성장, 글로벌 팬덤 기반 경제의 생성 등으로 예술가들 역시 디지털화되는 문화예술 생산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생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관련해 전반적인 문화예술교육과 더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는 디지털 격차 가속화로 인한 불평등 문제, 가짜뉴스·혐오 댓글·알고리즘 확증 편향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등의 문제로 이 문제들은 지속가능한 생존과도 연관이 있음.

■ 안전과 회복력, 지속가능한 생존의 문제는 서울에서도 중요한 문제임. 서울은 도시의 종합적 영향력(POWER)의 측면에서는 세계 10위권 내로 세계 유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 삶의 질 지수는 중위권(EIU ’21년 53위, 머서 ‘19년 77위)에 머무르고 있음.

○ 서울의 강점은 연구 및 기술역량과 인적자본, K문화, 대중교통과 도시안전 등임. 반면, 취약점은 주거의 질, 공기오염 수준 및 교통혼잡도, 기후·자연재해 등이었음.

○ 문화예술 분야의 서울의 도시경쟁력 취약점 분석에서 특히 주의를 끄는 내용은 풍부한 인적자원이나 K문화에 따른 도시매력도에 비해 시민의 문화적 평균 수준이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임. 또한, 불공정/불평등/차별/폐쇄성이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음.

■ 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은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를 문화예술교육 미래의제로 삼아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주도적인 대응 주체로서 5개 예술교육센터를 지목하고 서울형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산 거점으로 특화하는 방향을 제시함.

◎ 문화예술교육 지역화와 지역협력 방안

■ 예산의 지방이양을 포함해 문화예술교육 지역화는 국가와 서울시의 제2차 문화예술교육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므로 자치구 및 기초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정책 환경 및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함. 그 결과, 지방이양이라는 이상적 목표의 정책적 현실화에는 여러 구조적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정책 전달체계가 하향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시와 자치구의 관계가 서로 독립적임에도 명확한 협력 관계 및 협력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제도적 취약성이 있음.
- 협력체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자치구, 서울문화재단, 자치구문화재단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상호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음. 체계와 역할, 보상이 명확하지 않은 협력 관계에서 상호 간의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신뢰감이 훼손되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경험이 오히려 협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급속하게 증가한 자치구 문화재단 간 큰 역량 차이, 자치구 문화재단 내 예술교육 전담부서의 부재 등 자치구 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을 펼쳐나갈 만한 자치구 기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음.
- 서울시 전체 문화예술교육 정책예산 중 자치구 예산은 8.2%에 지나지 않고 자치구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상황임.
  - 서울시-자치구 협력방안 연구에 따르면 향후에도 자치구 문화재정과 인력이 획기적으로 확대편성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광역재단 등 외부로부터의 정책적 자극과 지원이 필요함.[79] 다만, 그 해결법이 일률적 정책으로 귀결되지 않고 각 자치구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성 정책으로 진화해야 함.[80]
- 이와 같은 현실에서 당장 시-지자체-광역재단-기초재단을 아우르는 행정기관 간 광범위한 협력 체계나 상향식 전달체계가 필요한 사업의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됨.

■ 장기적으로 구조적 제한 조건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방향성이 필요하겠으나 현실적으로 풀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아 성과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해관계자 모두가 지칠 가능성이 있어 보임. 때문에, 단기적이고 실효성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기초단위 지원 정책 및 구체적 사업방안의 모색이 동시에 필요해 보임. 가시적 효과가 있는 작은 성취들은 지역화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 역할을 해줄 수 있음.

79) 백선혜 외, 「서울시-자치구 간 문화정책 협력방안」, 6~9p.
80) 위의 보고서와 동일, 112p.

제3장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고관여자(수혜자) 분석

제1절 조사계획

1. 조사 목적

■ 직접 수혜자 대상 양적 조사의 필요성

○ 서울문화재단은 본 연구의 양적 조사·분석을 통해 수요자 관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및 지원 사업 체계 개선 방향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함.

○ 저관여층과 고관여층을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함.

○ 특히, 분석 과정 중 고관여층에 집중해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함. 고관여층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동기와 욕구, 교육 환경과 경험, 교육 효과, 실질 수요 등을 분석함.

■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참여 모델링 제언

○ 저관여에서 고관여로 선형적으로 발전하는 단계 모델이 아닌, 참여자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분포형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분석틀을 고안함.

○ 생애주기 등 인구통계 기반 모델링이 아닌 '교육경험'에 근거한 참여 모델링을 통해 유효한 정책 모델의 다각화를 모색함.

2. 고관여 수준의 정의

■ 문화예술교육에 시간과 비용을 얼마나 투입했는지를 기준으로 관여 수준을 정의

○ 고관여자를 정의하는 절대 시간이나 절대 비용 기준이 있기는 어려움.

- 예). 100시간 이상 참여하면 고관여자

○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응답 표본 내 상대적 저관여층과 고관여층을 비교함.

- ※참고 : 본 연구의 응답자는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서울 시민과 비교하면 상대적 고관여층임.

3. 선행연구 참조

■ 고관여자 분석을 위한 참고 연구

○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고관여자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2008년 연극·뮤지컬 관람객조사 보고서 - 마케팅 관점에서」[81]를 기초로 연구 기본 설계를 진행함.

- 해당 연구에서는 고관여자를 관람 횟수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저관여자와 고관여자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비교 분석함.
- 연극과 뮤지컬 선호에 따라 연극선호형, 뮤지컬선호형, 공연매니아형, 여가소비형으로 관람객 유형을 나누고 각각의 관람동기 및 선호내용, 중요하게 여기는 관람 속성, 관람 형태, 관람 전·후 활동을 두루 살핌으로써 티켓판매부터 공연과 관계된 부대사업까지 통찰을 줄 수 있는 시사점 제공.

○ 문화예술교육 분야 수요자에 관한 전문적 조사로는 「2019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를 참고함.
- 해당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식,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잠재 수요, 문화예술교육 정책 서비스 수요, 향후 문화예술교육 참여 및 지불의향에 관해 다루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의 과거 경험-현재 현황-미래 수요 비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등의 분석틀과 교육유형 정의 등을 본 연구에도 일부 적용함.

■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

○ 문화예술교육 참여 효과에 관해서는 「2021 문화예술교육 효과 메타분석 연구」[82]를 주로 참조함.
- 해당 연구는 지난 10년 간(2011~2021) 특정 사업이나 사업군별로 이루어진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통합해 총체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메타연구를 수행함.
- 메타 분석에 이용된 최종선정 연구 결과는 질적 분석자료 28편과 양적 분석자료 17편임.
- 분석 결과, 행복감,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 등 개인 차원에서의 효과 발현이 두드러졌으며,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에 대한 효과가 검증됨. 반면, 사회적 효과(문화 수용력, 소통능력, 친밀감, 공간능력)에 해당하는 지표는 양적분석에서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연구에서 효과가 검증된 지표 중 일부를 본 연구 설문 설계에 적용함.

○ 그 외, 문화예술교육 효과와 관련해 질적 연구 자료인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연구」[83]와 마케팅 분야 소비자 관여도에 관한 연구 자료인 「브랜드 체험이 브랜드 개성 및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84]을 참고하였음.

81) 예술경영지원센터, 「2008년 연극·뮤지컬 관람객조사 보고서 - 마케팅 관점에서」, 2008.
8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 문화예술교육 효과 메타분석 연구」, 2021.
83) 임승희 외,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연구 - 토요문화학교 사업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30호』, 2013, 225~245p.
84) 심현숙, 「브랜드 체험이 브랜드 개성 및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 - 제품군과 소비자 관여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제 23권 제1호』, 2016, 191~224p.

제2절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가. 조사 방법 및 범위

■ 조사 방법 및 기간

○ 조사 방법 : 기본적으로 온라인조사를 진행하면서 시니어를 위한 큰 글씨 서면조사 병행

○ 조사 기간 : 2022년 11월 16일~11월 28일

■ 조사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2년

- 설문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아직 참여자와의 연결고리가 남아있는 서울문화재단 당해 연도 사업과 현재 운영 중인 문화예술교육센터에 국한해 설문 배포 및 수거

○ 공간적 범위 : 서울 (응답자의 거주지 또는 활동지)

○ 대상적 범위 : 총 표본수 255개

- 서울문화재단 기획·공모 사업 참여자, 문화예술교육센터 방문자
  - 고등학생 이상, 임의의 참여자
- 설문배포 사업
  - 재단 기획사업 : <서울예술학교, 오늘>,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 공모사업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서울시민예술대학>
- 설문배포 교육센터
  - 문화예술교육센터 :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나. 고관여자 분석틀 및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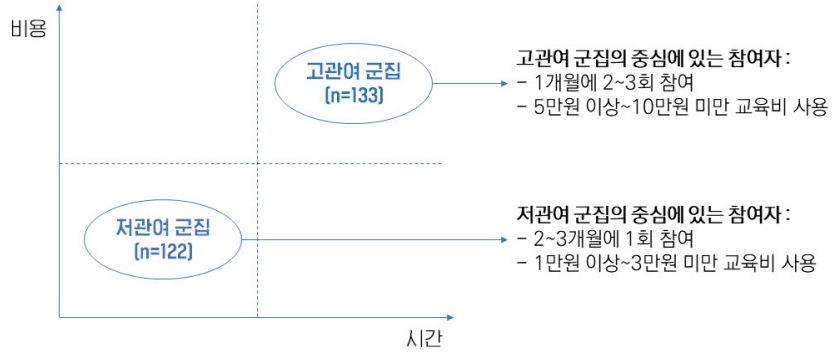
■ 저관여자와 고관여자 비교 분석 방법

○ 응답자들이 문화예술교육에 사용한 시간과 비용을 기준으로 저관여자 군집, 고관여자 군집을 생성 (1차 군집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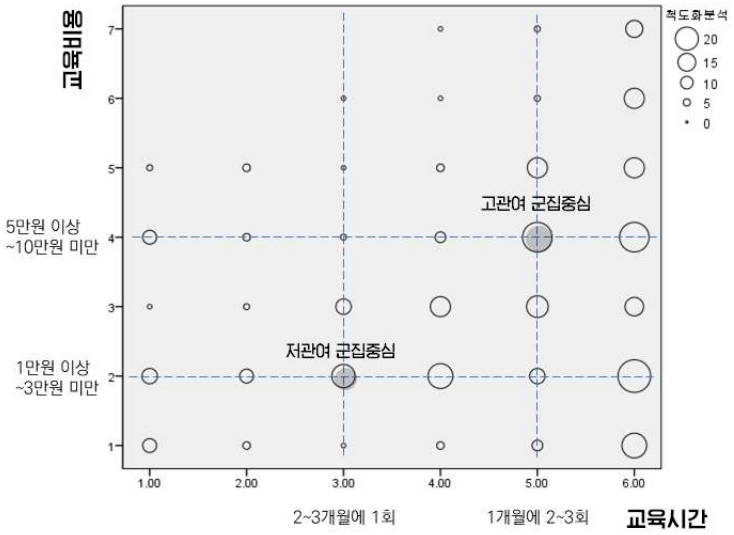
- 저관여층(n=122) : 상대적으로 적은 참여, 낮은 교육비 사용
- 고관여층(n=133) : 상대적으로 많은 참여, 높은 교육비 사용

○ 군집별로 참여하는 동기와 욕구, 교육 환경과 경험, 교육 효과, 실질 수요 등을 살펴보고 비교함

[그림 13] 고관여자 정의



[그림 14] 교육시간과 비용에 따른 응답자 점도표



■ 고관여자의 유형 분석 방법

○ 고관여자가 단일한 특징을 가진 균일 집단이 아니라, 그동안 받아 온 교육의 경로의존성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여러 그룹일 것이라 가정하고, 고관여자 유형 분석을 위한 2차 군집분석 실시

○ 고관여자 유형은 더 많이 경험했던 교육유형에 따라 군집화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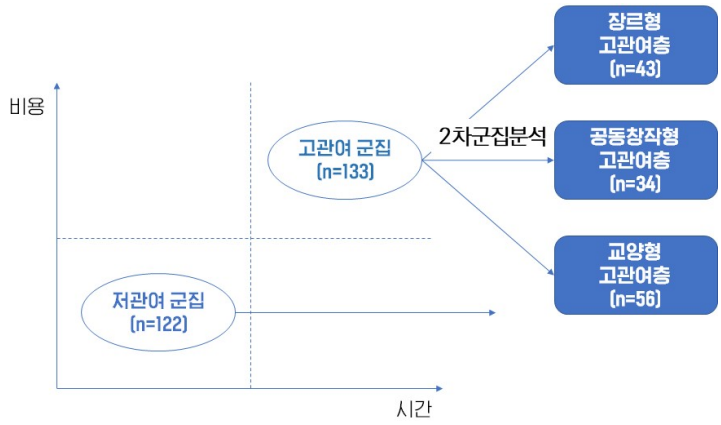
- 교육유형1 : 개인학습 ↔ 공동학습
- 교육유형2 : 단일장르 ↔ 통합(융합)
- 교육유형3 : 감상·관람·체험 ↔ 창작
- 교육유형4 : 지식전달·반복연습 ↔ 자기주도(놀이, 프로젝트 등)

○ 그 결과, ① 장르형 고관여층, ② 교양형 고관여층, ③ 공동창작형 고관여층으로 유형 구분됨

- 장르형 고관여층 (n=43) : 개인학습, 단일장르, 창작 위주
- 교양형 고관여층 (n=34) : 단일장르, 감상·관람·체험, 지식전달·반복연습 위주
- 공동창작형 고관여층 (n=56) : 공동학습, 창작 위주

○ 각 유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전 교육 경험과 향후 원하는 교육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봄.

[그림 15] 고관여자 유형 분석



2. 조사 결과

가.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징

■ 응답자 연령 및 성별

○ 저관여층은 50대 중심, 고관여층은 40대 비율이 높음.

○ 저관여층은 남성 비율이 고관여층에 비해 높음.

○ 10대는 빈도가 낮아 통계적 의미가 부족하므로 참고용 데이터로만 적시함.

[표 16] 응답자 연령 및 성별

		저관여층		고관여층		합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연령대	10대	2	1.6	5	3.8	7	2.7
	20대	12	9.8	14	10.5	26	10.2
	30대	22	18.0	19	14.3	41	16.1
	40대	18	14.8	33	24.8	51	20.0
	50대	35	28.7	25	18.8	60	23.5
	60대	22	18.0	26	19.5	48	18.8
	70대	11	9.0	11	8.3	22	8.6
	합계	122	100.0	133	100.0	255	100.0
성별	남성	25	20.5	19	14.3	44	17.3
	여성	96	78.7	112	84.2	208	81.6
	기타	1	.8	2	1.5	2	0.8
	합계	122	100.0	133	100.0	1	0.4

■ 응답자 권역별 분포

○ 전체적으로 동북, 서북, 서남권 응답자가 많음.

○ 저관여층, 고관여층에 따른 뚜렷한 지역차는 보이지 않음.

[표 17] 응답자 권역별 분포

			저관여층		고관여층		합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권역별 거주지	1	도심권	11	9.0	17	12.8	28	11.0
	2	동북권	35	28.7	32	24.1	67	26.3
	3	서북권	30	24.6	32	24.1	62	24.3
	4	서남권	24	19.7	26	19.5	50	19.6
	5	동남권	3	2.5	8	6.0	11	4.3
	6	서울 외	15	12.3	17	12.8	32	12.5
		합계	118	96.7	132	99.2	250	98.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3.3	1	0.8	5	2.0
합계			122	100.0	133	100.0	255	100.0

■ 응답자 거주지 분포

○ 은평구 > 서울 외 > 도봉구 > 용산구 > 마포구, 강서구 순으로 응답자가 많음

○ 서울 외 응답자의 경우, 활동지가 서울이라고 볼 수 있음

[표 18] 응답자 거주지 분포

			저관여층		고관여층		합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거주지	1	종로구(도심권)	2	1.6	8	6.0	10	3.9
	2	중구(도심권)	2	1.6	2	1.5	4	1.6
	3	용산구(도심권)	7	5.7	7	5.3	14	5.5
	4	성동구(동북권)	-	-	2	1.5	2	0.8
	5	광진구(동북권)	1	0.8	2	1.5	3	1.2
	6	동대문구(동북권)	5	4.1	1	0.8	6	2.4
	7	중랑구(동북권)	3	2.5	2	1.5	5	2.0
	8	성북구(동북권)	6	4.9	6	4.5	12	4.7
	9	강북구(동북권)	2	1.6	3	2.3	5	2.0
	10	도봉구(동북권)	15	12.3	9	6.8	24	9.4
	11	노원구(동북권)	3	2.5	7	5.3	10	3.9
	12	은평구(서북권)	18	14.8	22	16.5	40	15.7
	13	서대문구(서북권)	5	4.1	4	3.0	9	3.5
	14	마포구(서북권)	7	5.7	6	4.5	13	5.1
	15	양천구(서남권)	1	0.8	2	1.5	3	1.2
	16	강서구(서남권)	9	7.4	4	3.0	13	5.1
	17	구로구(서남권)	3	2.5	-	-	3	1.2
	18	금천구(서남권)	4	3.3	3	2.3	7	2.7
	19	영등포구(서남권)	-	-	7	5.3	7	2.7
	20	동작구(서남권)	2	1.6	4	3.0	6	2.4
	21	관악구(서남권)	5	4.1	6	4.5	11	4.3
	22	서초구(동남권)	2	1.6	4	3.0	6	2.4
	23	강남구(동남권)	-	-	2	1.5	2	0.8
	24	송파구(동남권)	1	0.8	2	1.5	3	1.2
	25	강동구(동남권)	3	2.5	1	.8	4	1.6
	26	서울 외	15	12.3	17	12.8	32	12.5
		합계	121	99.2	133	100.0	254	99.6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0.8	-	-	1	0.4
합계			122	100.0	133	100.0	255	100.0

■ 응답자 직업 및 근무형태

○ 저관여층, 고관여층의 직업 분포는 유사함

- 두 집단 모두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프리랜서, 전업주부)이 많음.

○ 저관여층과 고관여층 세부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음. 그러나 이 차이가 두 군집의 전반적인 직업 분포 유사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 전업주부는 저관여층에, 프리랜서는 고관여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음.
- 주5일 출근근무자는 저관여층에 많고, 재택병행근무자는 고관여층에 많음.

[표 19] 응답자의 직업 및 근무형태

		저관여층		고관여층		합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응답자 직업	학생(취업준비생포함)	10	8.2	12	9.0	22	8.6
	주5일출근근무자	26	21.3	19	14.3	45	17.6
	재택병행근무자	1	0.8	6	4.5	7	2.7
	자영업자	6	4.9	7	5.3	13	5.1
	프리랜서	28	23.0	35	26.3	63	24.7
	전업주부	37	30.3	27	20.3	64	25.1
	은퇴자	4	3.3	10	7.5	14	5.5
	휴직(또는쉬는중)	3	2.5	5	3.8	8	3.1
	기타	6	4.9	12	9.0	18	7.1
	합계	121	99.2	133	100.0	254	99.6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0.8	-	-	1	0.4
합계		122	100.0	133	100.0	255	100.0

[그림 16] 응답자의 직업 및 근무형태

나. 저관여-고관여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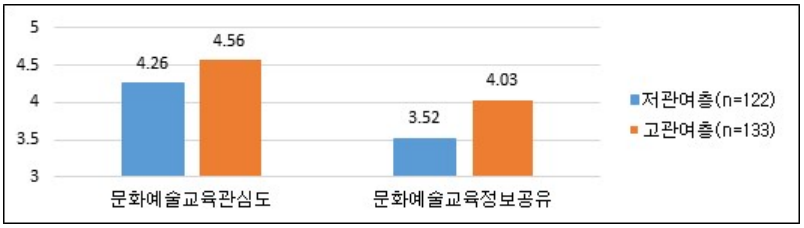
1) 문화예술교육 관심도 및 교육 환경

■ 응답자의 문화예술교육 관심도

○ 저관여층과 고관여층 모두 문화예술교육 관심도는 높음.

○ 두 집단을 가르는 차이는 문화예술교육 정보 공유 행위임.

[그림 17] 응답자의 문화예술교육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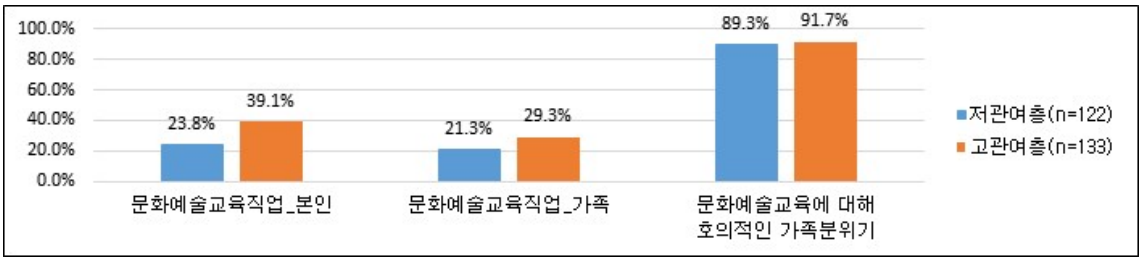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가족 환경

○ 고관여층은 본인이나 가족 중 문화예술 또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직업을 가진 경우가 더 많음.

○ 호의적인 가족 분위기가 저관여층, 고관여층 모두 약 90%로 문화예술교육 참여와 가족 분위기의 관계가 밀접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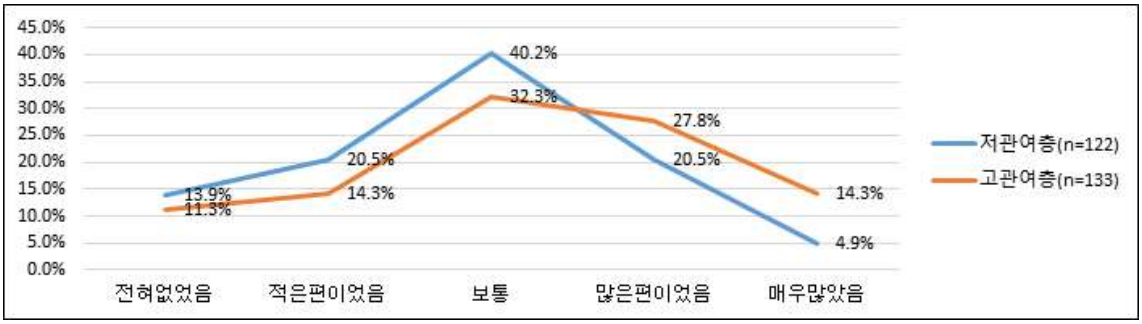
[그림 18]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가족환경



■ 어릴 때 살던 집의 문화예술 활동도구

○ 고관여층은 저관여층보다 어린 시절 문화예술 활동 도구가 집에 많은 편이었다고 기억함.

[그림 19] 어릴 때 살던 집의 문화예술 활동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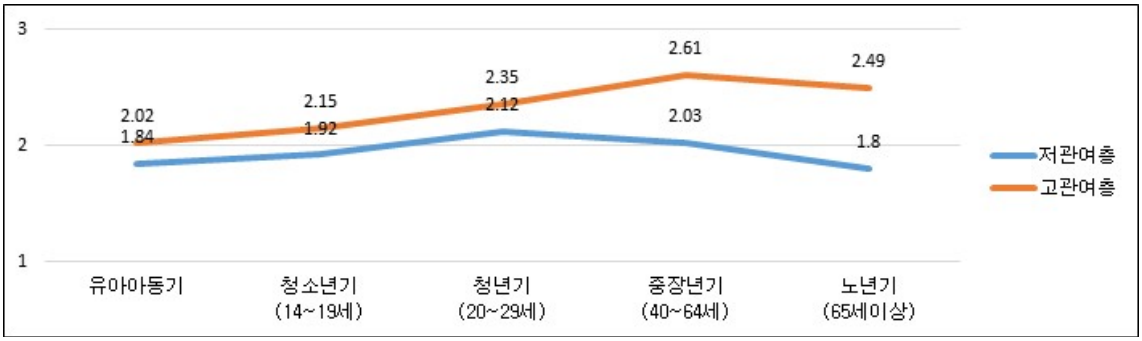
2)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경험

■ 생애주기별 교육경험 (1 경험없음, 2 보통, 3 자주 경험)

○ 고관여층은 생애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교육을 더 많이 받았다고 응답함.

○ 특히, 중장년 이후부터는 저관여층과 고관여층 사이에 교육경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

[그림 20] 생애주기별 교육경험



[표 20] 생애주기별 교육경험

	저관여층		고관여층	
	평균	N	평균	N
유아아동기교육경험	1.84	122	2.02	133
청소년기(14~19세)교육경험	1.92	122	2.15	133
청년기(20~29세)교육경험	2.12	122	2.35	127
중장년기(40~64세)교육경험	2.03	90	2.61	96
노년기(65세이상)교육경험	1.8	45	2.49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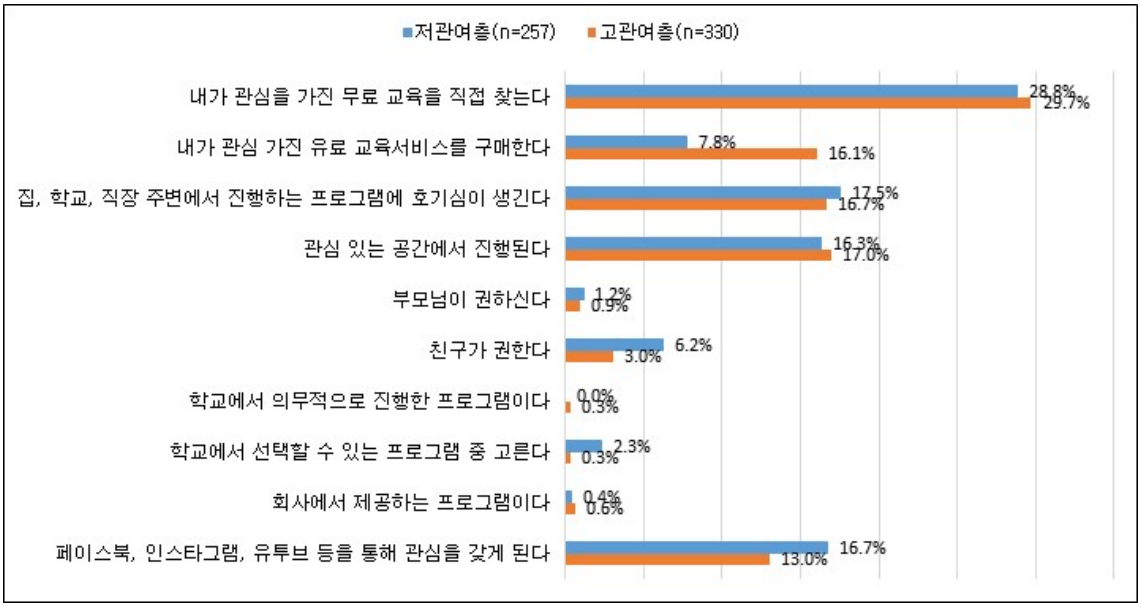
3) 문화예술교육 참여 이유 및 제약 요인

■ 교육 참여 주요 계기

○ 저관여층은 친구가 권한 프로그램, 온라인을 통한 참여 비율이 고관여층보다 높음.

○ 고관여층은 유료 서비스 구매가 상대적으로 많음.

[그림 21] 교육 참여 주요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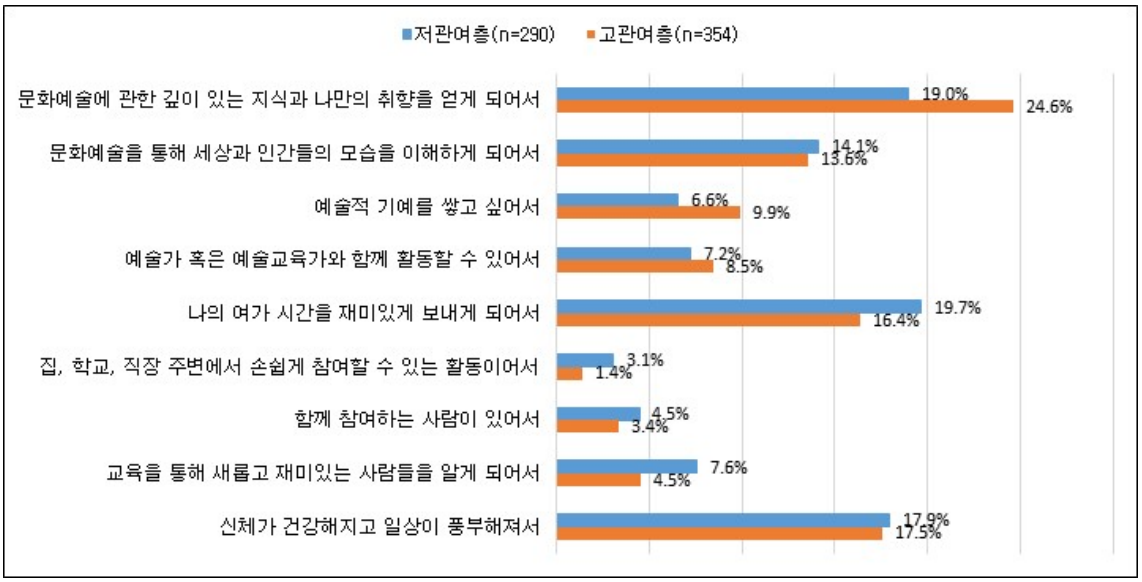
■ 교육 지속 참여 이유

○ 저관여층은 생활권 내에서 여가시간 보내기,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함께 참여, 새로운 사람 알게 됨)에 더 관심이 많음.

○ 고관여층은 지식과 취향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음. (자기실현 욕구)

○ 고관여층은 수월성에 더 관심이 많음. (예술적 기예)

[그림 22] 교육 지속 참여 이유



■ 교육 참여 제약 요인

○ 전반적으로는 시간 사용의 어려움이 가장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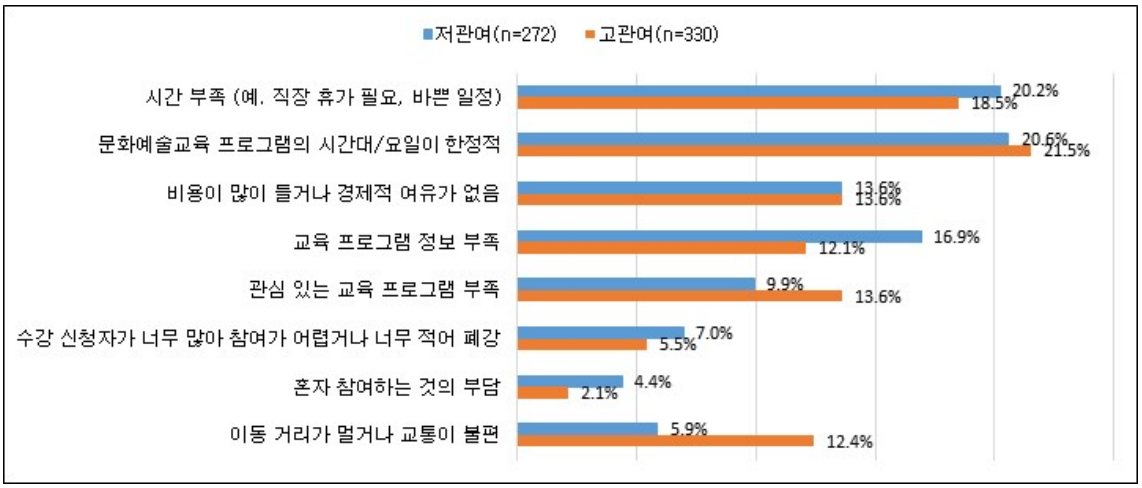
- 시간 부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간대 한정적임.

○ 저관여층에서 교육 프로그램 정보 부족, 혼자 참여하는 것의 부담이 두드러짐.

○ 고관여층에서는 이동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점이 눈에 띔.

-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 멀리 다니는 적극성이 있을 것으로 추론됨.

[그림 23] 교육 참여 제약 요인



4) 문화예술교육 공간

■ 교육 공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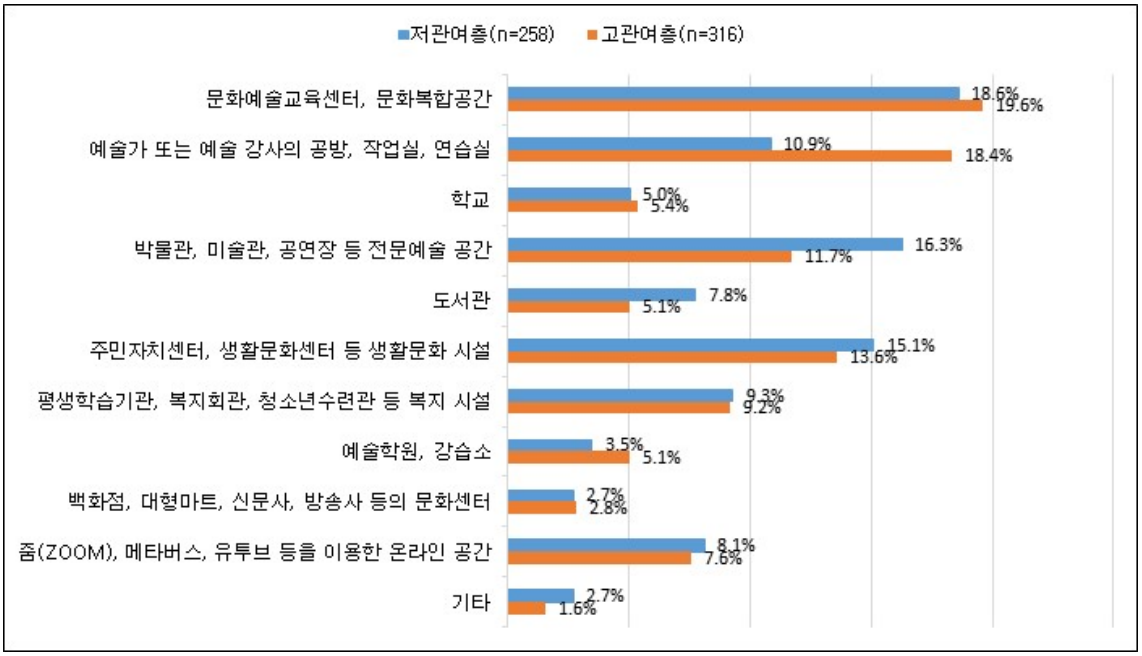
○ 고관여층은 예술가의 공간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훨씬 더 많음

- 그 외, 학교, 평생학습기관, 예술학원 등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더 많음
- 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임

○ 저관여층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전문예술 공간이나 도서관, 온라인 공간 등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더 많음

- 유명해서 찾기 쉽거나 생활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임.

[그림 24] 교육 공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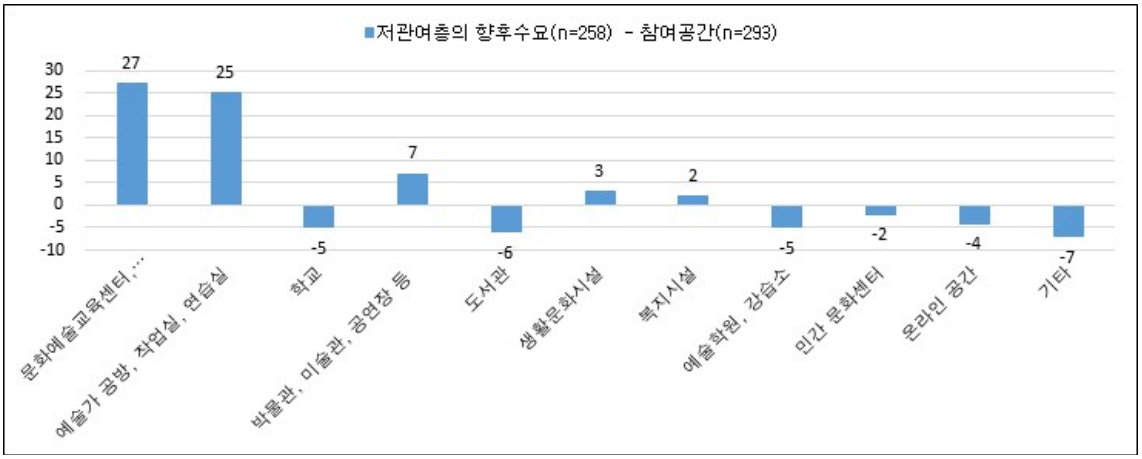
■ 교육 공간의 수요 변화량

○ 교육 공간의 수요 변화량을 알아보기 위해 향후 교육공간 수요 빈도에서 이전 교육 참여 공간 빈도를 차감해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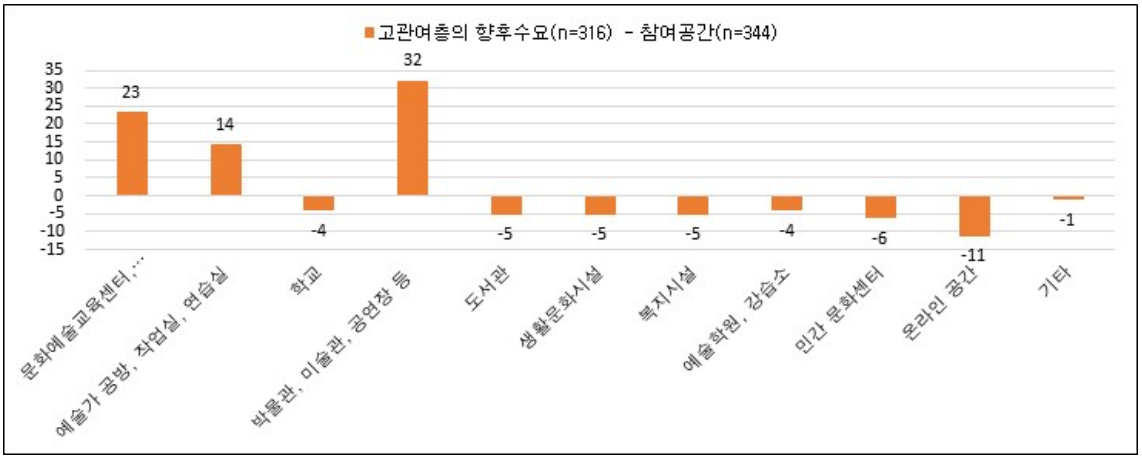
○ 그 결과, 응답자들은 저관여층, 고관여층 상관없이 향후 문화예술 전문성이 높은 공간에서의 교육이 증가하길 바람.

- 문화예술교육센터/문화복합공간
- 예술가(또는 예술강사)의 공방/작업실/연습실
-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전문 예술 공간

[그림 25] 저관여층 교육 공간 수요 변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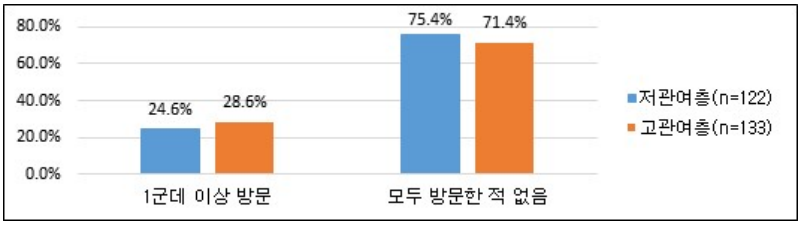
[그림 26] 고관여층 교육 공간 수요 변화량



■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공간 방문 여부

○ 응답자 10명 중 약 2~3명 비율로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공간을 방문한 경험이 있음.

[그림 27]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공간 방문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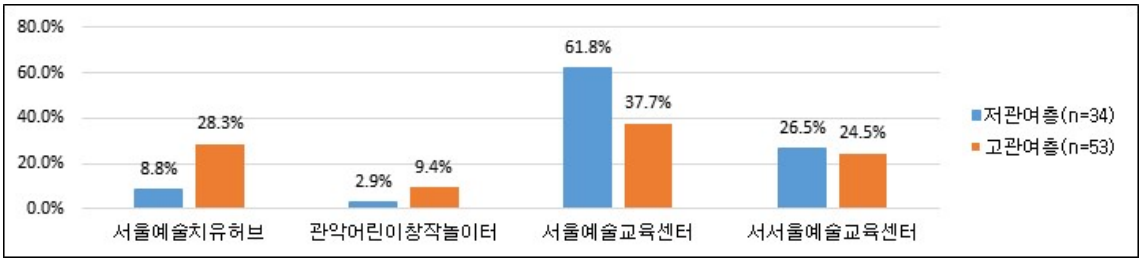
■ 방문해 본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공간

○ 전반적으로 새로 오픈한 용산 서울예술교육센터 방문 비율이 높음.

○ 저관여층은 고관여층보다 용산 서울예술교육센터 방문 비율이 훨씬 더 높음.

○ 고관여층은 서울예술치유허브,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등 운영 이력이 긴 곳을 방문한 비율이 저관여층보다 높음.

[그림 28] 방문해 본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공간



5) 문화예술교육 유형

■ 교육 유형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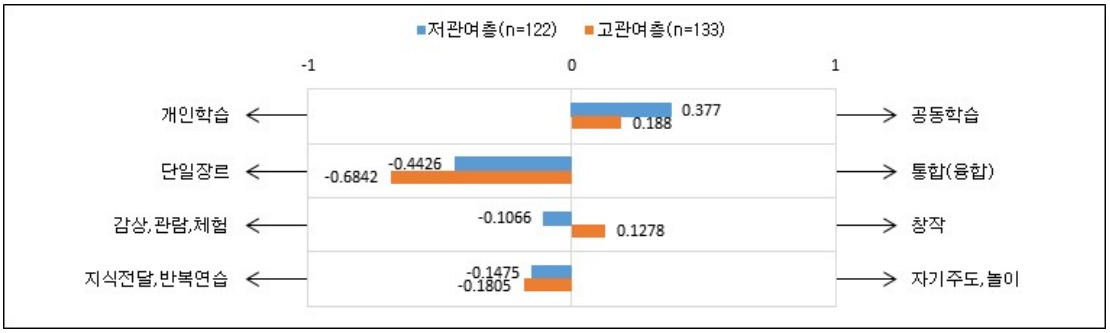
○ 교육 유형 경험을 학습단위(개인/공동), 장르(단일장르/통합(융합)), 교육방법(감상/창작), 주체적 학습(지식전달·반복연습/자기주도·놀이·프로젝트)의 4가지 차원으로 살펴봄.

○ 전반적으로 단일장르 교육 경험이 높음.

○ 저관여층과 고관여층을 나누는 경험은 '창작'인 것으로 나타남.

○ 공동학습은 저관여층에서 더 많이 경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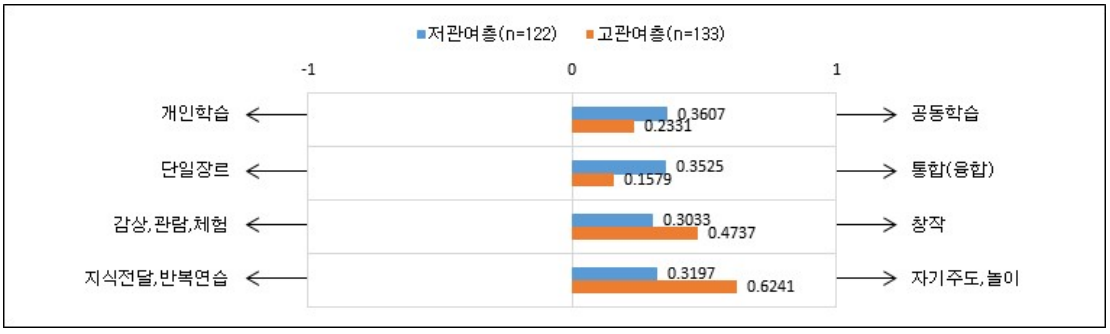
[그림 29] 교육 유형 경험



■ 향후 교육 유형 수요

○ 저관여층, 고관여층 상관없이 향후 수요는 공동학습, 통합(융합), 창작, 자기주도 교육이 더 높게 나타남.

[그림 30] 향후 교육 유형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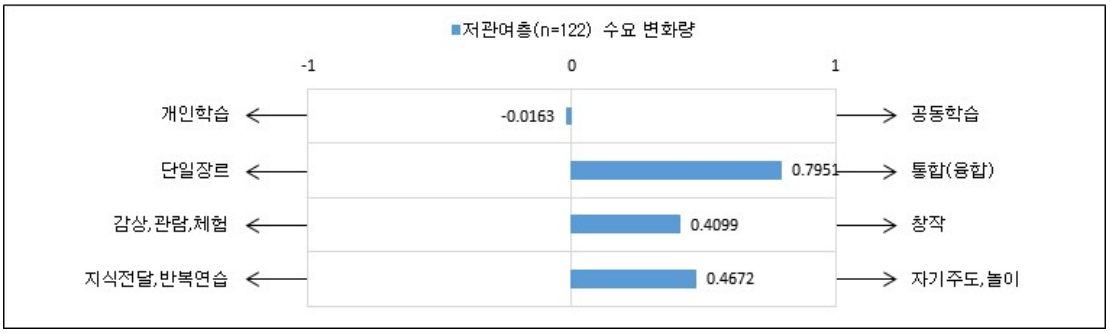
■ 교육 유형의 수요 변화량

○ 현재와 비교해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길 원하는지 변화량을 알아보기 위해 향후 교육 유형 수요 평균에서 이전에 참여한 교육 유형 평균을 차감해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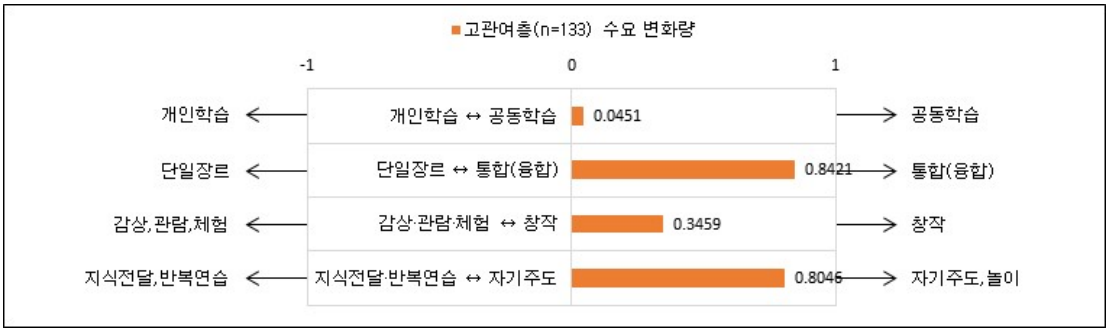
○ 저관여층에서는 통합(융합) 교육에 대한 증가량이 가장 많고, 공동학습에 대한 요구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임.

○ 고관여층은 통합(융합) 교육과 자기주도 교육에 대한 증가량이 많고, 특히 저관여층보다 자기주도 교육에 대한 욕구가 훨씬 높음.

[그림 31] 저관여층 교육 유형 수요 변화량



[그림 32] 고관여층 교육 유형 수요 변화량



■ 「2019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와의 비교[85)]

○ 해당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을 5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유형별로 과거 → 현재 → 미래 기준에서 살펴봄.

- 5가지 중 본 조사와 비교해 볼 만한 유형은 '관람·감상·강연 등 일회성 문화예술행사 참여', '체험·메이킹·발표 등 직접 참여하는 경험과정', '강좌·강습 등 수 개월간 전문적인 배움과 학습'임.

○ 조사 결과, 서울의 프로그램 유형 경험은 '관람·감상·강연 등 일회성 문화예술행사 참여'가 과거, 현재, 미래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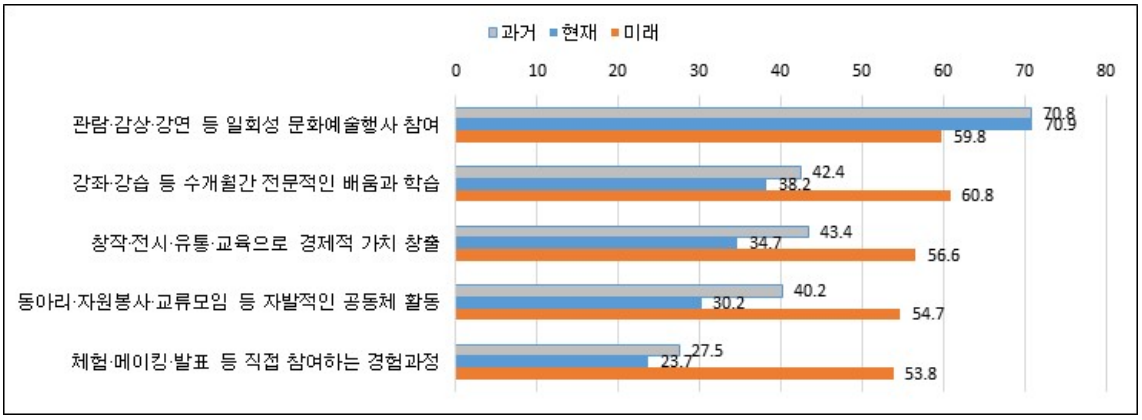
- 그러나 관람·감상·강연 등 일회성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서 미래로 가면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70.7% → 59.8%)
- 반면, 체험·메이킹·발표 등 직접 참여 교육에 대한 수요(27.5% → 53.8%)와 장기적이고 전

8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2019. 136~142p.

문적인 강좌·강습(42.4% → 60.8%)에 대한 수요는 과거에서 미래로 가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조사의 결과와 시사하는 바가 유사함.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 체험, 보급형 강의/행사로부터 장기적이고 참여적/전문적인 교육 경험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성을 보여줌.

[그림 33] 2019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교육유형 경험 (서울, n=691)



6) 문화예술교육 내용

■ 교육 내용 경험 (사회이슈, 커뮤니티 관련)

○ 지금까지 참여한 교육 프로그램이 사회이슈를 다루거나 커뮤니티 형성 과정을 포함하고 있었는지 5점 척도로 질문하였는데, 모두 3점 이하로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안에서 일상 속 사회이슈나 커뮤니티 형성 과정을 다루는 시도는 아직 적은 편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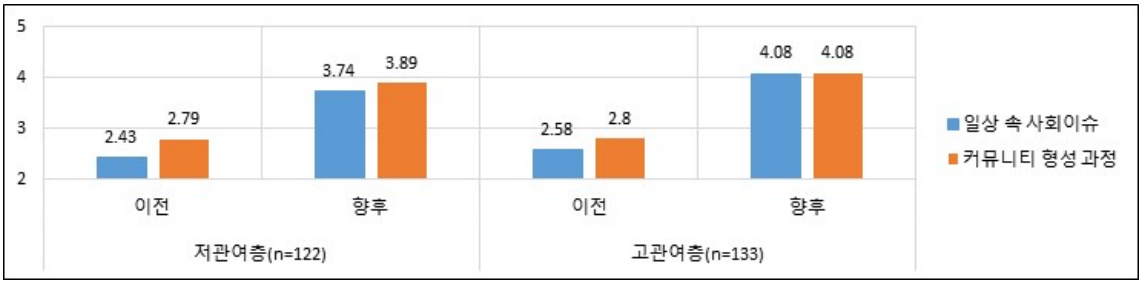
○ 고관여층은 일상 속 사회이슈를 다룬 문화예술교육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았음.

[그림 34] 교육 내용 경험(사회이슈, 커뮤니티)

■ 향후 교육 내용 수요 (사회이슈, 커뮤니티 관련)

○ 응답자들은 향후 교육에서 사회이슈를 다루거나 커뮤니티 형성 과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임.

[그림 35] 향후 교육 내용 수요(사회이슈, 커뮤니티)



7) 문화예술교육 장르

■ 장르 참여 경험

○ 응답자들의 장르 참여 경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금까지 경험한 교육 장르를 모두 선택하도록 함.

○ 그 결과, 저관여층과 고관여층의 장르 참여 경험 분포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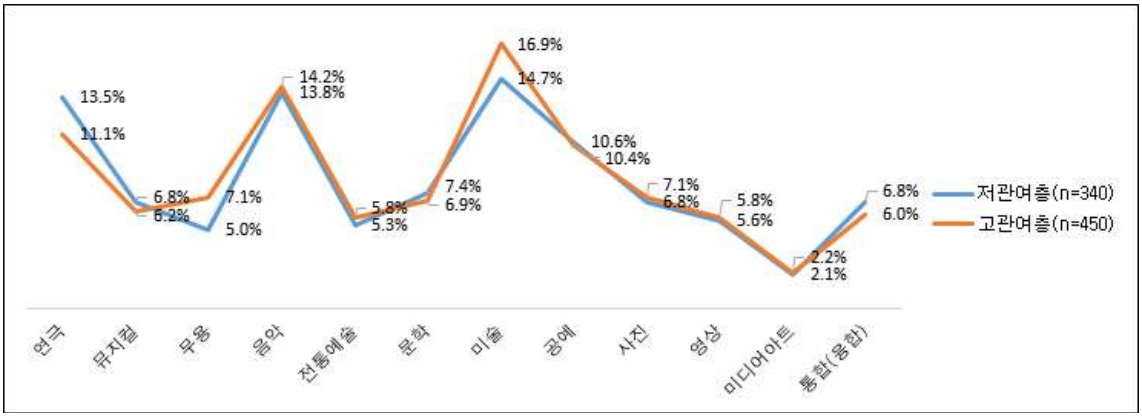
- 세부적인 부분이 다르긴 하나, 저관여층, 고관여층의 경험 분포가 매우 흡사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 보임.
- 저관여층은 연극, 통합(융합) 장르 비율이 조금 더 높음.
- 고관여층은 무용, 미술 장르 비율이 조금 더 높음.

○ 전반적으로 미술 1순위, 음악 2순위, 연극 3순위, 공예 4순위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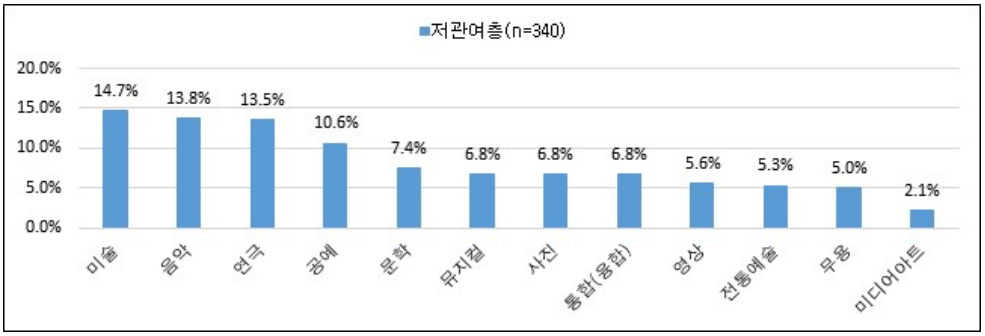
- 「2019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의 장르 참여 경험 분석 결과[86]를 살펴보면, 상위 3개 분야가 미술, 음악, 연극으로 동일함.[87]
  - 서울의 장르 참여 경험[88]은 음악 1순위, 미술 2순위, 연극 3순위로 나타나며, 음악 교육 경험(32%)이 미술 교육 경험(20.4%)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본 연구 응답과 차이를 보임.
  - 다만, 해당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참여 형태에 동호회 활동과 경제적 가치 창출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서울의 예술인 장르별 현황[89]은 음악 1순위(14,897), 연극 2순위(10,118), 미술 3순위(8,481)로 나타남.
- 종합하면, 순위의 순서가 조금씩 다르긴 하여도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 대중적인 상위 3개 장르는 음악, 연극, 미술이라고 볼 수 있음.

8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2019. 116p.
87) 「2019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와 본 연구에서 조사한 장르 중 공통적인 10개의 장르 순위를 비교함. 10개 장르는 음악, 미술, 연극, 사진, 문학, 국악(전통예술), 무용, 미디어아트, 융복합임.
8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2019. 120~122p.
8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서울 현황 (2022.12.15. 03시 기준) https://www.kawfartist.kr/kawf_dash/dash/html/p01.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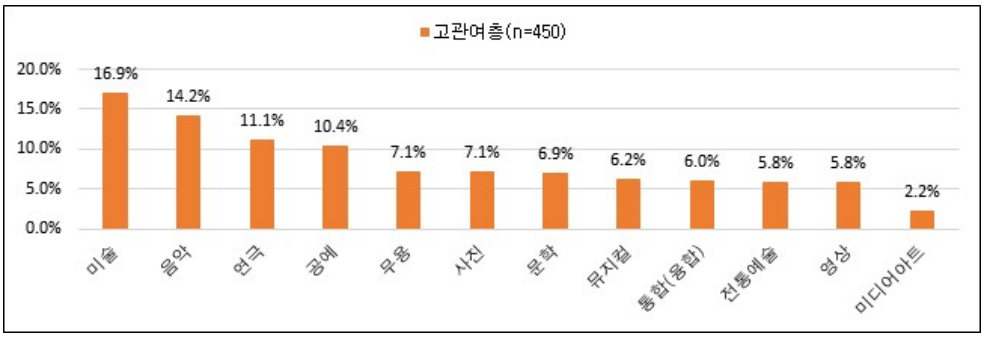
[그림 36] 장르 참여 경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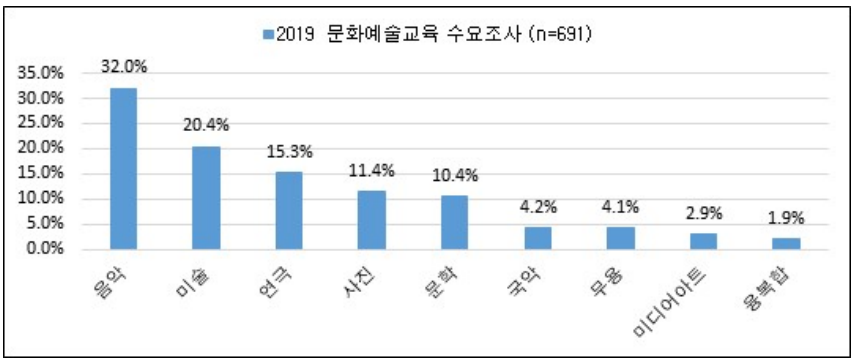
[그림 37] 저관여층 장르 참여 경험 순위



[그림 38] 고관여층 장르 참여 경험 순위



[그림 39] 2019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장르 참여 경험 순위



■ 향후 장르 수요

○ 향후 집중적인 수요가 있는 장르를 알아보기 3개 장르만 선택하도록 함.

○ 그 결과, 저관여층은 미술 > 공예 > 음악 > 연극 순으로 수요가 많았음.

- 기존 장르 참여 분포에서는 미술, 음악, 연극과 다른 장르들과의 차이가 크지만, 중요한 3개 장르를 선택하도록 한 향후 수요에서는 그 차이가 좁혀짐.
- 미디어아트는 향후 수요에서도 순위가 낮지만 기존 참여 경험과 비교해보면 다른 장르보다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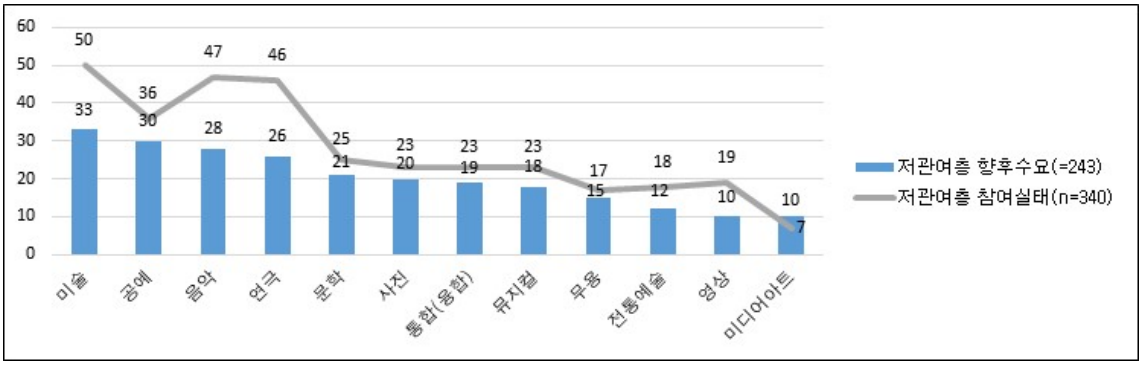
○ 고관여층은 미술 > 음악 > 연극 > 통합(융합) 순으로 수요가 많았음.

- 저관여층과 유사하게 미술, 음악, 연극, 공예와 다른 장르 간의 차이가 향후 수요에서는 좁혀지는 현상을 볼 수 있음.
- 특히, 통합(융합) 교육과 미디어아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점이 주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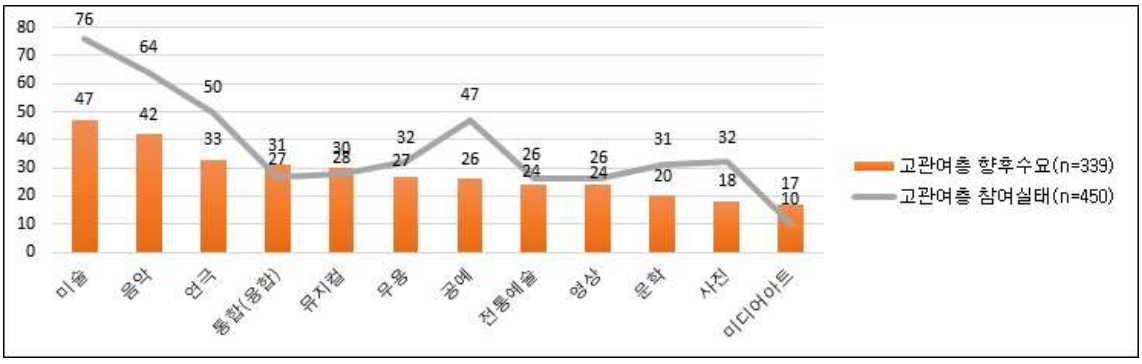
○ 「2019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서울 데이터[90]에서는 음악 > 미술 > 사진 > 연극 순으로 수요가 많음.

- 특히, 음악은 기존 참여 경험이 1순위인데 향후 수요 증가폭도 가장 큼
- 본 조사에서도 음악 수요가 3순위 내에 들어올 만큼 우선순위가 높지만 1순위는 미술 장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그림 40] 저관여층 향후 장르 수요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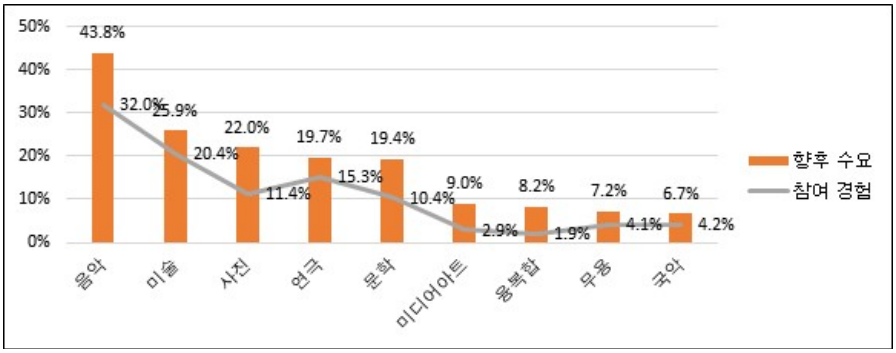


[그림 41] 고관여층 향후 장르 수요 순위



9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2019. 127~129p.

[그림 42] 2019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순위 (n=691)



8) 문화예술교육 참여 효과

■ 개인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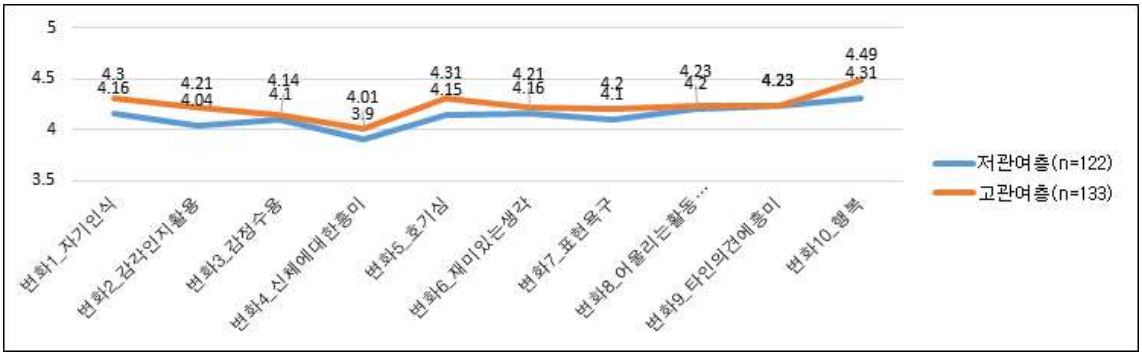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한 개인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문항들에 관해 조사함.

[표 21] 문화예술교육 참여로 인한 개인적 변화 설문문항

측정효과	설문문항
자기인식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나에 대해 생각할 계기를 갖게 되고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감각체험	나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면서 시각·후각·미각·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더 잘 느끼고 활용하게 되었다.
감정체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나의 긍정적·부정적 감정을 전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잘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행동체험	나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사용하지 않던 몸의 여러 부위에 관심이 생겼고, 신체 활동에 더 흥미를 갖게 되었다.
창의성	나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이후 궁금한 것이 더 많아졌다.
	나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이후 재미있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나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이후 나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것에 관심이 생겼다.
협동 및 사회성	나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을 듣는 일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다.
행복감	나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면서 전보다 행복해졌다.

○ 그 결과, 저관여층, 고관여층 상관없이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한 개인적 변화는 전반적으로 모두 높은 성취를 보임.

[그림 43] 문화예술교육 참여로 인한 개인적 변화



■ 예술에 대한 인식 변화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기존의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이 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 문항들에 관해 조사함.

[표 22] 문화예술교육 참여로 인한 예술에 대한 인식변화 설문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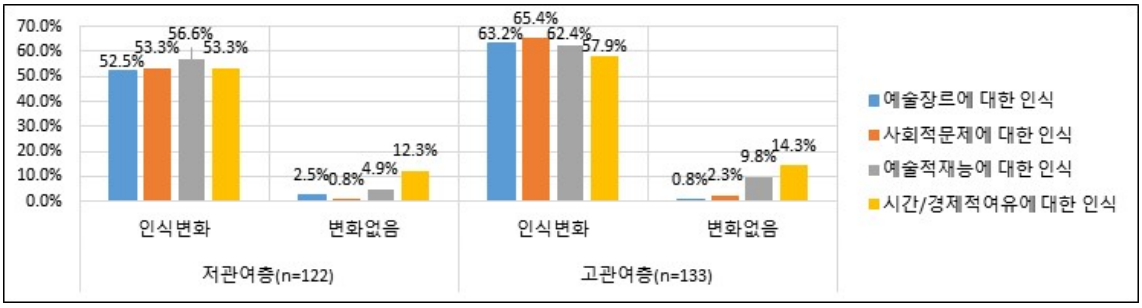
	설문문항
예술장르에 대한 인식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면서 예술이 단순히 미술, 음악, 무용 등 특정 장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면서 예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순수영역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술적 재능에 대한 인식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면서 예술은 예술적 재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 및 경제적 여유에 대한 인식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면서 문화예술은 여유(경제적, 시간적)가 있는 사람들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 그 결과, 저관여층은 50% 초중반대 비율이 예술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함.

○ 고관여층은 50% 후반~60% 중반대 비율이 예술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함.

○ 예술을 하는데 있어 예술적 재능, 시간 및 경제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변화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44] 문화예술교육 참여로 인한 예술에 대한 인식 변화



[표 23] 문화예술교육 참여로 인한 예술에 대한 인식 변화

		예술장르에 대한 인식		사회적문제에 대한 인식		예술적 재능에 대한 인식		시간 및 경제적 여유에 대한 인식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고관여 (n=133)	인식 변화	84	63.2	87	65.4	83	62.4	77	57.9
	변화없음	1	0.8	3	2.3	13	9.8	19	14.3
	교육 참여 전부터 동의	41	30.8	38	28.6	35	26.3	31	23.3
	잘 모르겠다	6	4.5	5	3.8	2	1.5	6	4.5
저관여 (n=122)	인식 변화	64	52.5	65	53.3	69	56.6	65	53.3
	변화없음	3	2.5	1	0.8	6	4.9	15	12.3
	교육 참여 전부터 동의	47	38.5	45	36.9	41	33.6	34	27.9
	잘 모르겠다	8	6.6	11	9.0	6	4.9	8	6.6

■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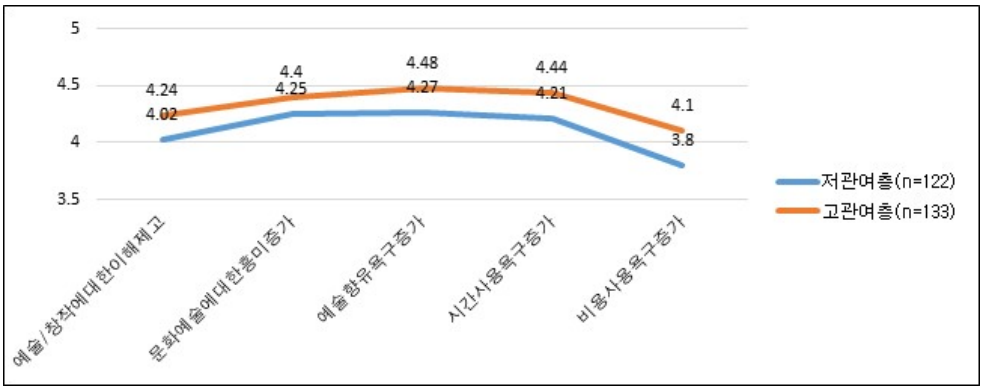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변화했는지에 관해 5개의 문항을 질문함.

- ① 예술/창작에 대한 이해, ② 문화예술에 대한 흥미, ③ 예술향유 욕구, ④ 시간 사용 욕구, ⑤ 비용 지출 욕구

○ 그 결과, 문항 전반에 걸쳐 저관여층과 고관여층 모두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응답함.

○ 비용 지출 욕구는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적음.

[그림 45] 문화예술교육 참여로 인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변화



■ 새로운 관심 주제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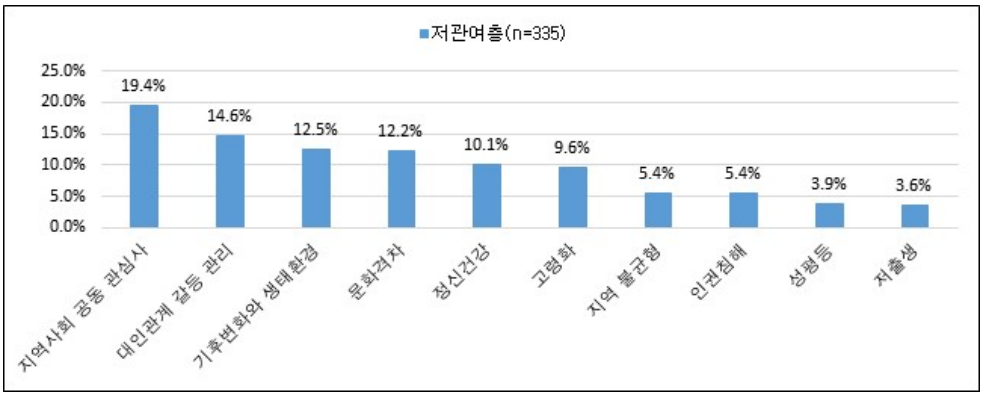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새롭게 알 게 되거나 관심을 갖게 된 사회적 주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총 10개의 주제를 제시하고 해당하는 모든 문항을 선택하도록 하였음.

- ① 우울, 자살 등 정신건강, ② 가족, 친구, 이웃 등 대인관계 갈등 관리, ③ 동네, 마을 등 지역사회 공동 관심사, ④ 기후위기와 생태환경, ⑤ 지역 불균형, ⑥ 문화격차, ⑦ 인권침해, ⑧ 성평등, ⑨ 저출생, ⑩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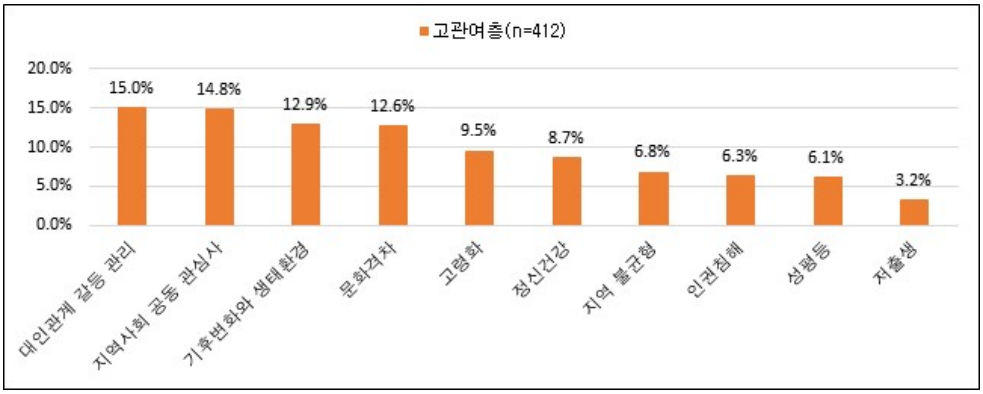
○ 그 결과, 저관여층, 고관여층 모두 대인관계 갈등관리, 지역사회 공동 관심사처럼 관계에 관한 문제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임

○ 뒤를 이어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문화격차에 관심을 많이 보임

[그림 46] 저관여층 새로운 관심 주제



[그림 47] 고관여층 새로운 관심 주제



다. 고관여자 유형별 분석

1) 고관여자 유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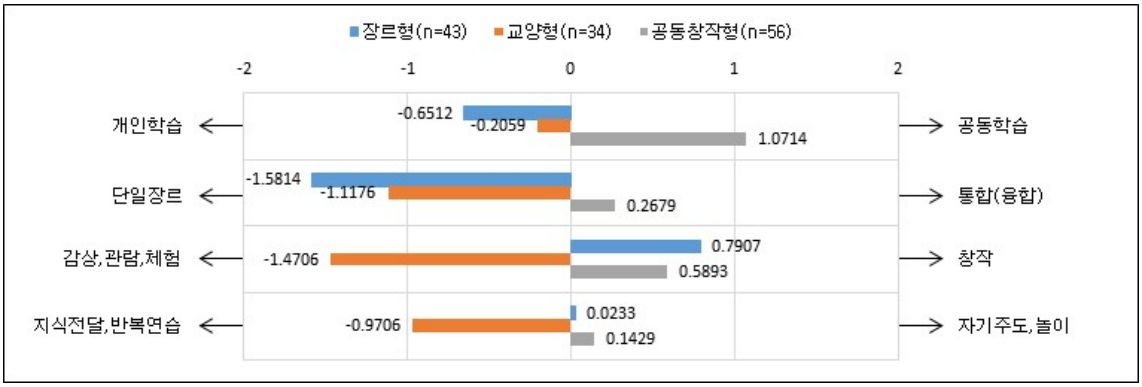
■ 고관여층을 교육 유형 경험에 따라 장르형, 교양형, 공동창작형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함.

○ 군집1 : 장르형 고관여층(n=43)은 개인학습, 단일장르, 창작 교육을 많이 경험한 군집임.

○ 군집2 : 교양형 고관여층(n=34)은 단일장르, 감상·관람·체험, 지식전달·반복연습 교육을 많이 경험한 군집임.

○ 군집3 : 공동창작형 고관여층(n=56)은 공동협업, 창작 교육을 많이 경험한 군집임.

[그림 48] 교육 유형 경험에 따른 고관여층 유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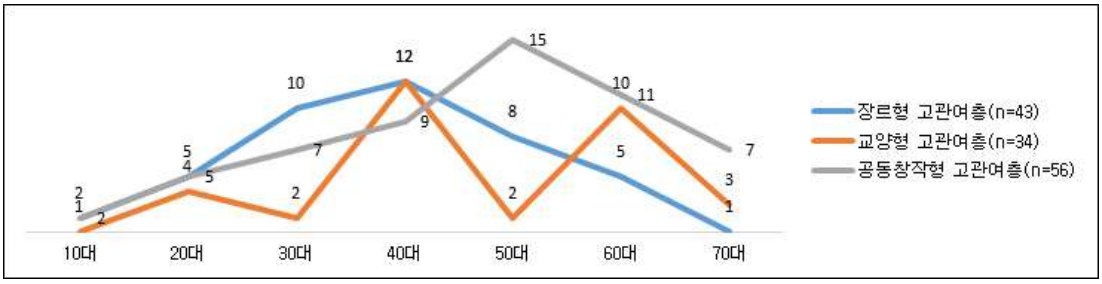
2) 인구통계 특성

■ 고관여층 유형별 연령대 분포

○ 장르형은 40대 중심, 교양형은 50대 중심으로 종모양 분포

○ 교양형은 30대와 50대가 적은 군집임

[그림 49] 고관여층 유형별 연령대 분포



■ 고관여층 유형별 권역 분포

○ 장르형은 서북권, 서남권에 많이 거주

○ 교양형은 동북권, 서북권에 많이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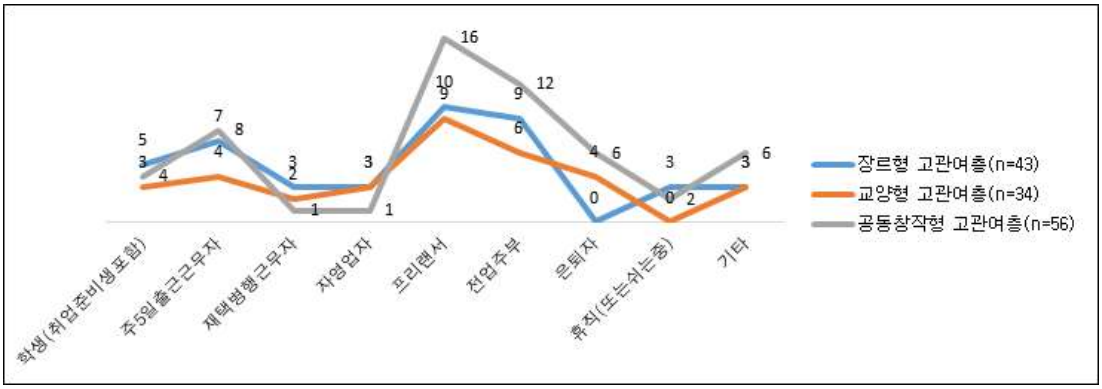
○ 공동창작형은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에 두루 분포

[그림 50] 고관여층 유형별 권역 분포

■ 고관여층 유형별 직업/근무형태

◦ 공동창작형에서 프리랜서가 두드러지긴 하지만, 전반적 경향을 보았을 때 모든 유형의 직업/근무형태의 분포는 비교적 유사함

[그림 51] 고관여층 유형별 직업/근무형태



3) 교육 공간 수요

■ 고관여층 유형별 교육 공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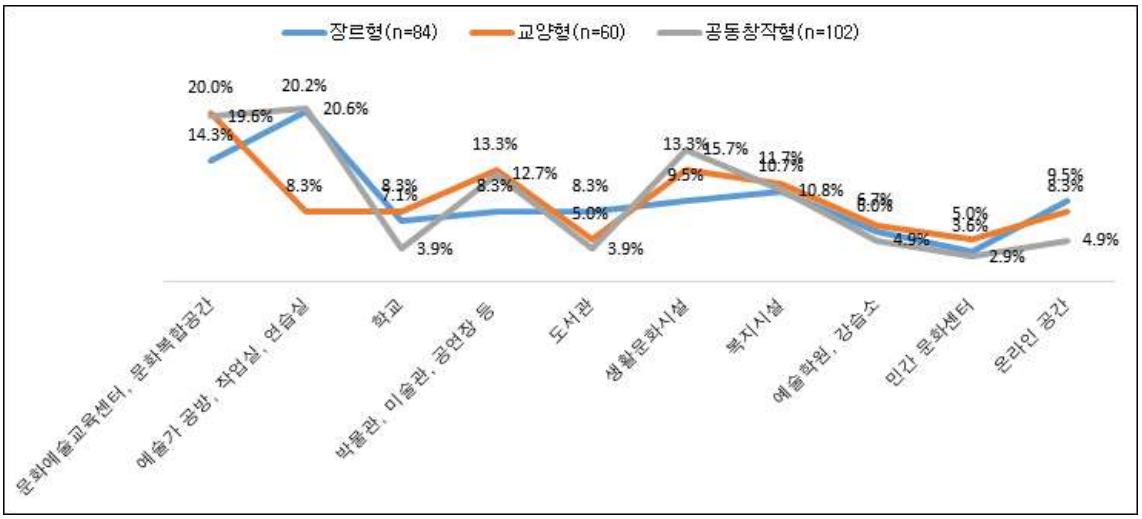
○ 고관여층 유형에 따라 경험한 교육 공간이 다르게 나타남.

○ 장르형은 예술가 공간(공방, 작업실, 연습실)에서 진행한 교육 참여율이 높음.

○ 교양형은 문화예술교육센터 및 문화복합공간에서의 교육 경험이 많음.

○ 공동창작형은 예술가 공간과 문화예술교육센터 및 문화복합공간에서의 교육 경험이 비등하게 많음.

[그림 52] 고관여층 유형별 교육 공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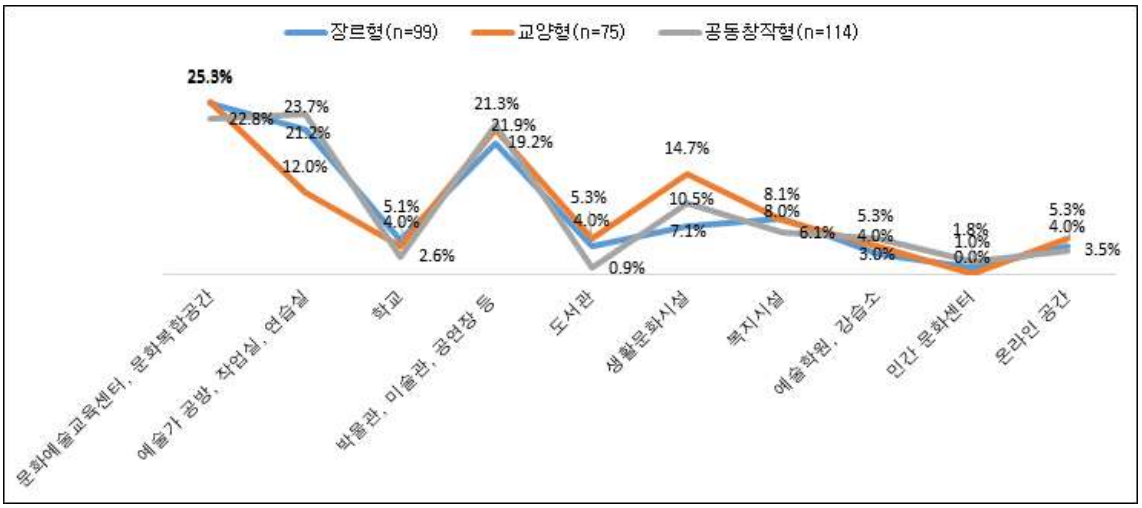


■ 고관여층 유형별 향후 교육 공간 수요

○ 문화예술교육센터·문화복합공간과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전문예술 공간에 대한 수요는 세 유형이 모두 높음.

○ 세 유형 중 교양형만 예술가 공간에 대한 수요가 다소 낮게 나타남. 예술가 공간에 대한 수요보다는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음.

[그림 53] 고관여층 유형별 향후 교육 공간 수요



4) 교육 유형 수요

■ 고관여층의 향후 교육 유형 수요

○ 고관여층 유형별로 선호하는 교육 유형의 분포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남.

○ 장르형 선호 교육 유형

- 개인학습, 단일장르를 공동학습, 통합(융합) 교육보다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임.
- 감상·관람·체험보다는 창작을 훨씬 더 선호하며, 자기주도형 교육을 받길 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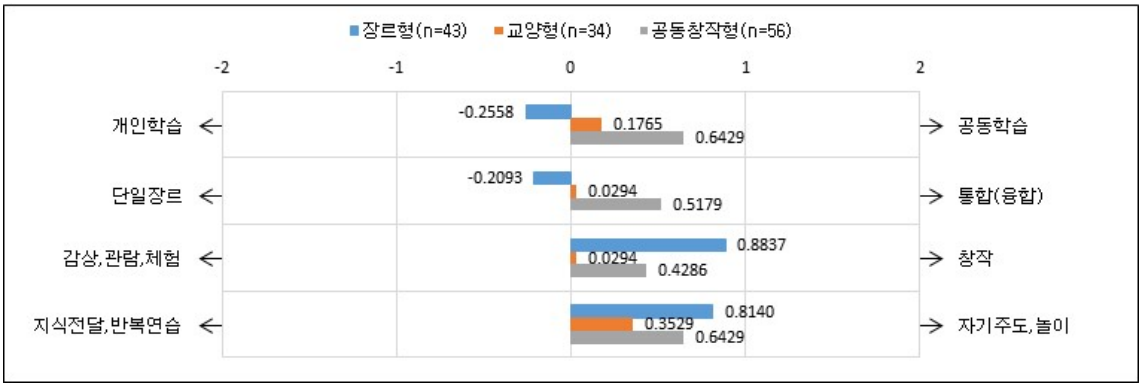
○ 교양형 선호 교육 유형

- 개인학습보다는 공동학습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며, 자기주도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음.

○ 공동창작형 선호 교육 유형

- 공동학습, 통합(융합), 창작, 자기주도형 교육을 더 선호하는 동시에 이 4가지 유형이 균형을 이루기를 바람.

[그림 54] 고관여층 유형별 향후 교육 유형 수요



■ 교육 유형 수요 변화량

○ 기존에 경험했던 교육 유형과 비교해서 향후 수요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전 교육 유형 경험 평균에서 향후 수요 평균을 차감하고 살펴봄.

○ 그 결과, 교양형 고관여층의 변화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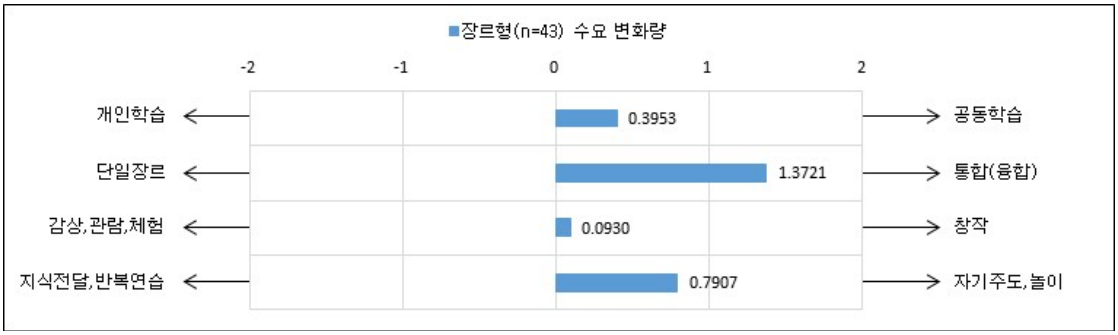
- 교양형 고관여층은 단일장르, 감상·관람·체험, 지식전달 위주의 프로그램을 수강해왔으나, 향후에는 공동학습, 통합(융합)형, 창작형, 자기주도형의 교육 비중이 커지길 원함.
- 특히, 창작교육에 대한 수요 변화량이 많음.
- 이러한 결과는 분과별 장르, 지식과 기예 습득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인 예술 교육을 계속 받는 것이 실질 수요와 부합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시사점을 던져줌.

○ 장르형 고관여층은 개인학습, 단일장르를 여전히 더 선호하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공동학습, 통합(융합) 교육의 비중이 증가하길 바람. 특히, 통합(융합) 교육에 관한 수요량 변화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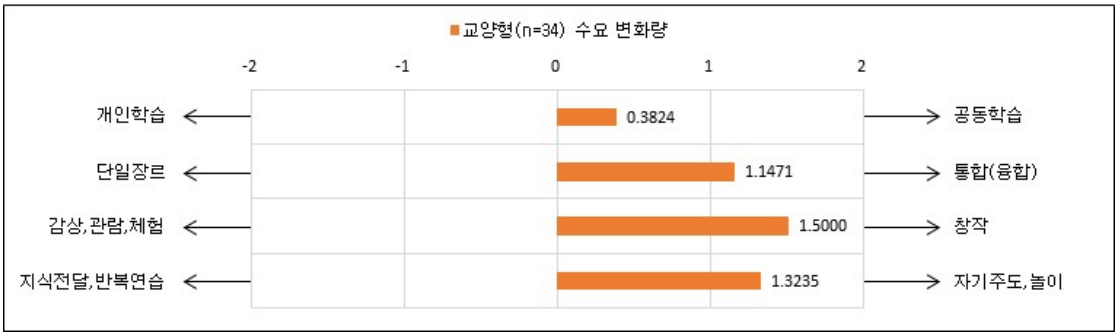
○ 공동창작형 고관여층은 기존에 공동학습 경험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향후에는 그 비중이 줄어들길 바라고 있음.

- 기존 창작 경험도 높은 편이었는데 향후에는 감상·관람·체험 교육이 늘기를 희망함.
- 통합(융합) 교육과 자기주도 교육은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비중이 커지길 희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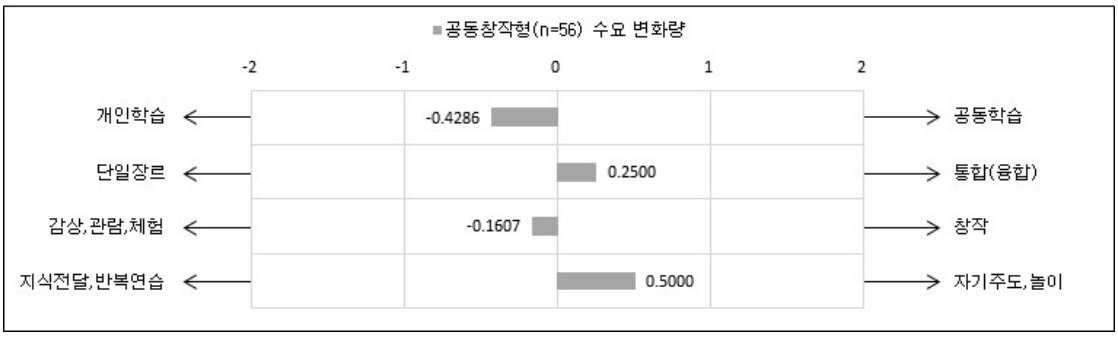
[그림 55] 장르형 교육 유형 수요 변화량



[그림 56] 교양형 교육 유형 수요 변화량



[그림 57] 공동창작형 교육 유형 수요 변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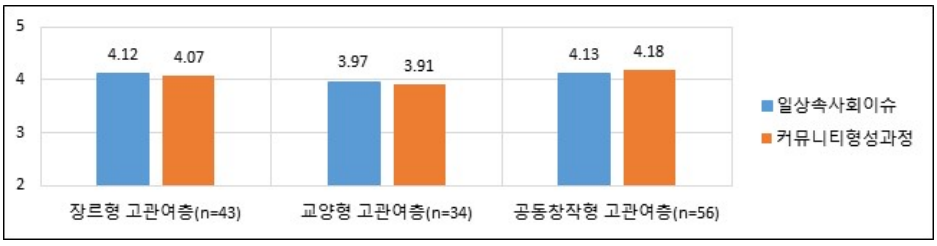


5) 교육 내용 수요

■ 고관여층 향후 교육 내용 수요 (사회이슈, 커뮤니티 관련)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사회이슈를 다루거나 커뮤니티 형성 과정을 포함하기를 바라는지 질문한 결과, 3개 유형의 고관여층은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였음.

[그림 58] 고관여층 유형별 향후 교육 내용 수요



6) 교육 장르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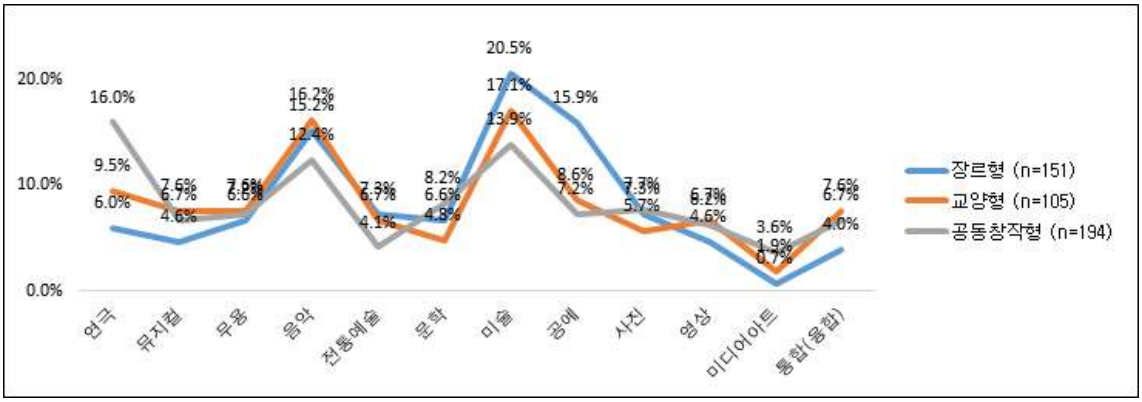
■ 고관여층 유형별 장르 참여 경험

○ 장르형은 미술, 공예 등 시각작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연극, 뮤지컬 등 공연 비중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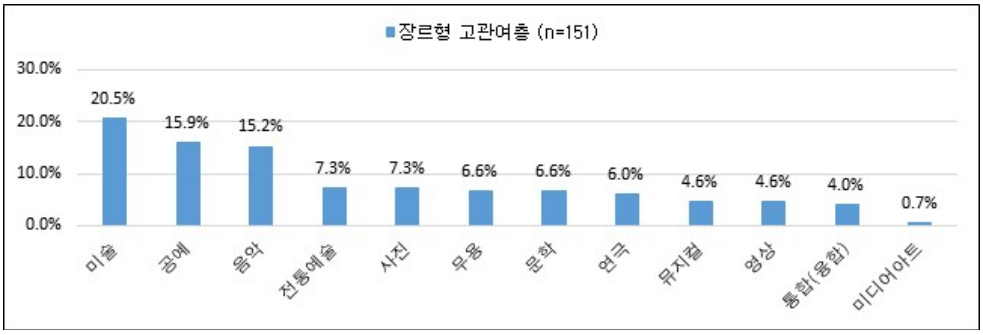
○ 교양형은 미술과 음악 비중이 유사하게 높음.

○ 공동창작형은 연극 비중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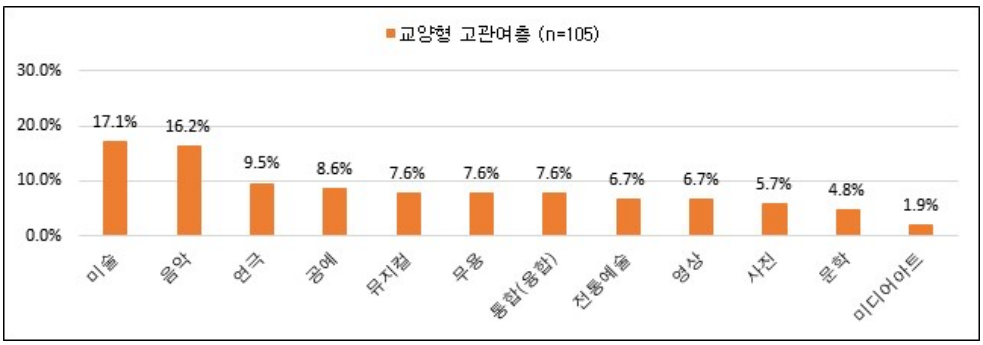
[그림 59] 고관여층 유형별 장르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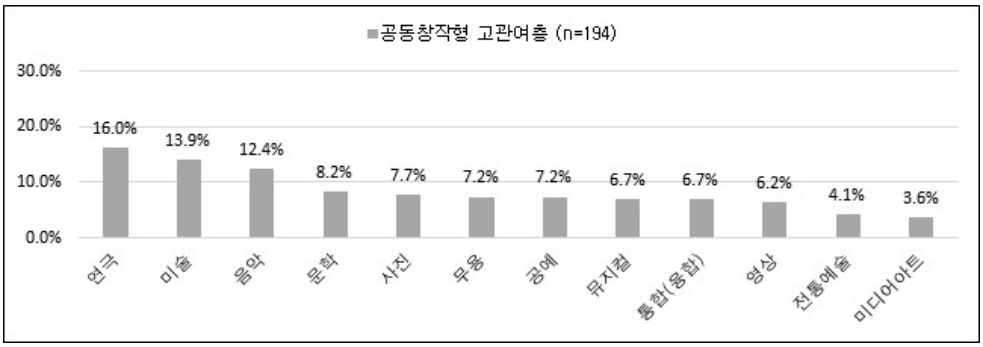
[그림 60] 장르형 장르 참여 경험 순위



[그림 61] 교양형 장르 참여 경험 순위



[그림 62] 공동창작형 장르 참여 경험 순위



■ 고관여층 유형별 향후 장르 수요

○ 3개의 고관여층 유형의 향후 장르 수요 분포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장르형은 미술 > 음악 > 공예 = 통합(융합) 순으로 수요가 많음.

- 기존 참여 장르 분포에서는 미술, 음악, 공예 장르와 다른 장르의 격차가 크지만, 향후 수요에서는 그 차이가 좁혀짐.
- 무용, 연극 등 공동협업이 필요한 장르에는 관심이 적음.
- 통합(융합), 미디어아트에 대한 수요 증가가 두드러짐.

○ 교양형은 음악 > 미술 > 연극 = 무용 순으로 공연형 교육을 많이 원함.

- 시각 장르(미술, 공예, 영상)는 기존에 참여했던 것에 비해 향후 관심도는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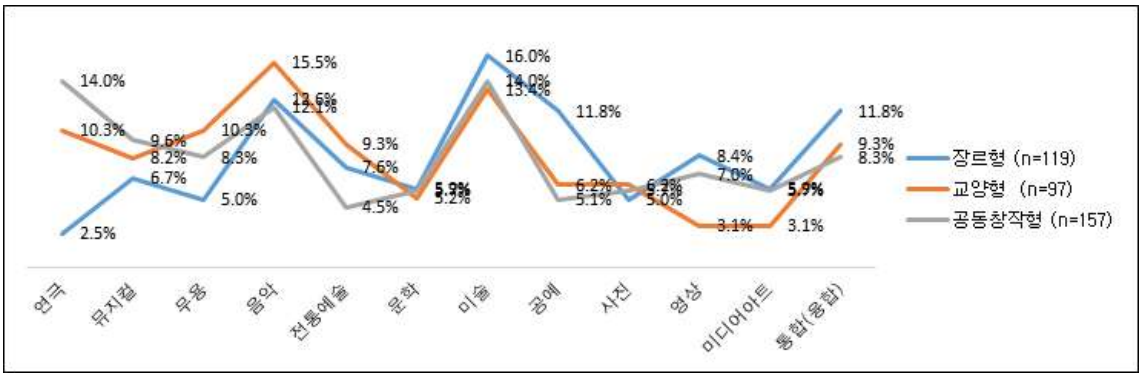
○ 공동창작형은 연극 = 미술 > 음악 > 뮤지컬 순으로 교양형과 마찬가지로 공연형 교육을 많이 원함.

교양형과의 차이는 연극 수요가 높고 현대적인 장르를 더 선호한다는 것임. (뮤지컬 ↑ 전통예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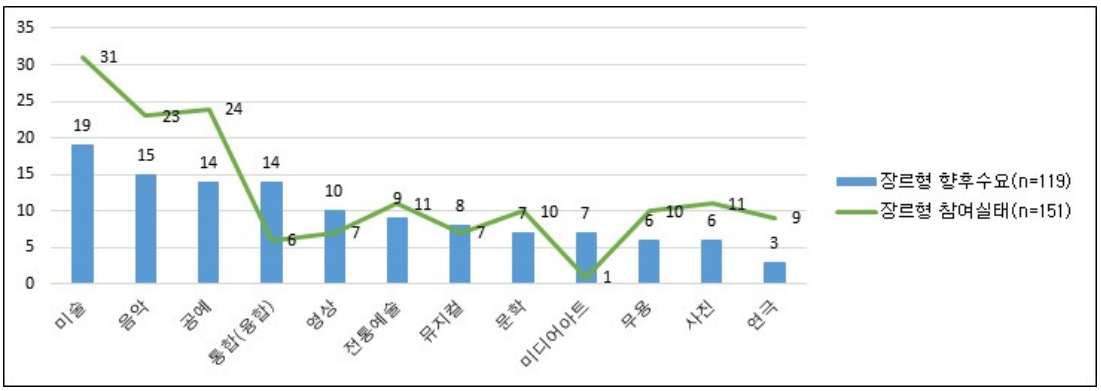
- 기존 참여 장르 분포에서 보였던 연극 장르와 다른 장르 사이의 격차가 향후 수요에서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임.
- 미술, 음악, 문학, 사진, 공예는 기존에 참여했던 것에 비해 향후 관심도가 떨어짐.

○ 전반적으로 기존에 순위가 높고 많이 경험했던 장르가 여전히 순위는 높지만 관심은 줄어드는 경향이 보임.

[그림 63] 고관여층 유형별 향후 장르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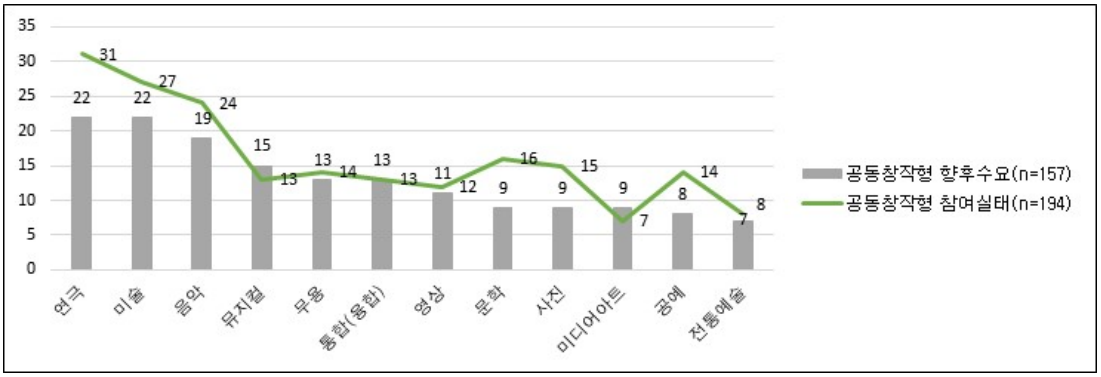


[그림 64] 장르형 향후 장르 수요 순위



[그림 65] 교양형 향후 장르 수요 순위

[그림 66] 공동창작형 향후 장르 수요 순위



7) 새로운 관심주제 생성

■ 고관여층 유형별 새로운 관심 주제

○ 전반적으로는 세 유형이 유사한 관심사 분포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교양형이 지역사회 공동 관심사와 문화격차에서 좀 더 높은 관심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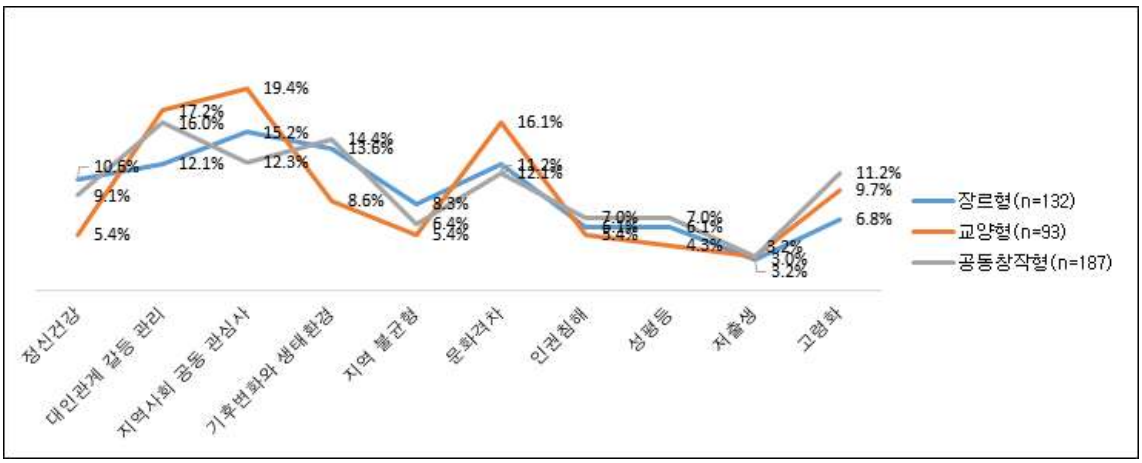
○ 장르형과 공동창작형은 상위 3순위에 동일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 장르형은 지역사회 공동 관심사 >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 대인관계 갈등 관리 순
- 공동창작형은 대인관계 갈등 관리 >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 지역사회 공동 관심사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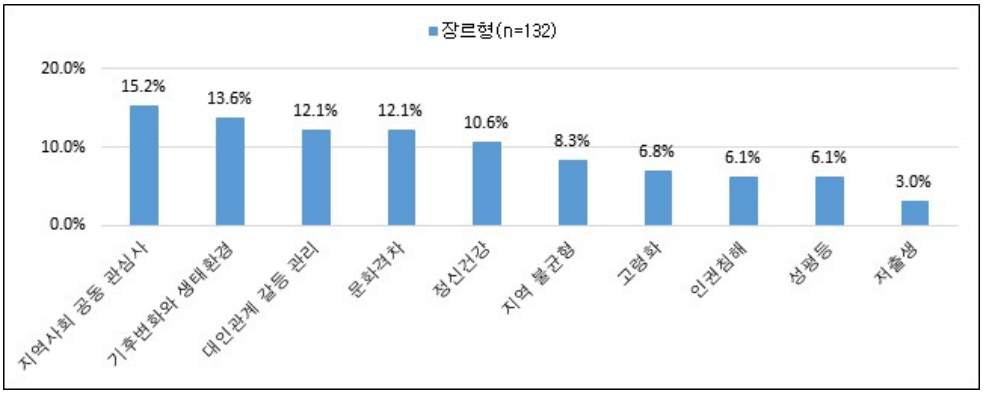
○ 교양형은 문화격차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순위가 낮음

- 교양형은 지역사회 공동 관심사 > 대인관계 갈등 관리 순 > 문화격차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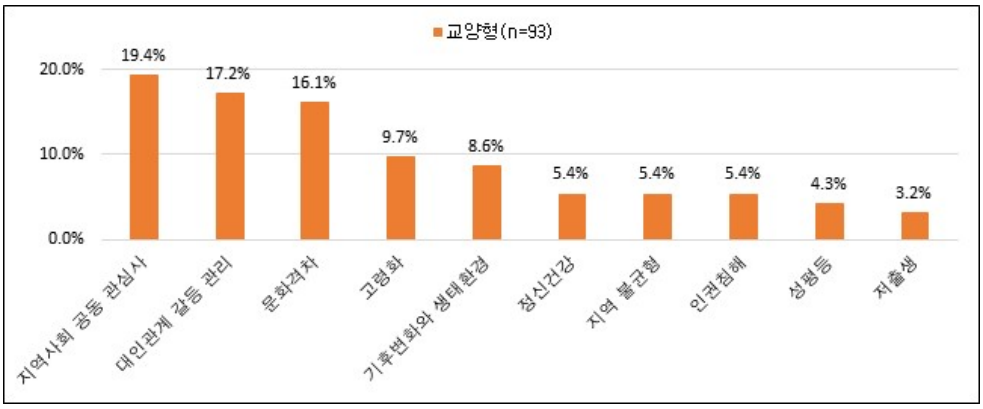
[그림 67] 고관여층 유형별 새로운 관심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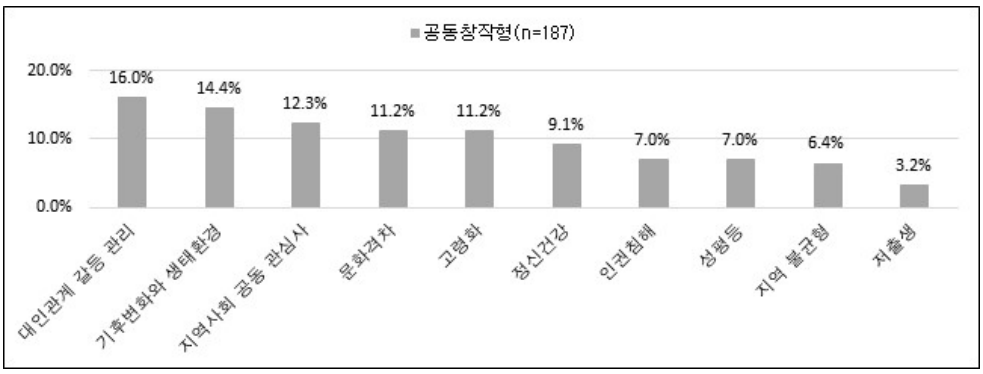
[그림 68] 장르형 새로운 관심 주제



[그림 69] 교양형 새로운 관심 주제



[그림 70] 공동창작형 새로운 관심 주제



라. 연령대별 교육 수요

1) 교육 유형 수요

■ 연령대별 교육 수요의 전반적 경향

○ 높은 연령대에서 공동학습, 통합(융합), 창작 교육 요구가 더 높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존 경험을 통합하고 관계를 다루는 역량이

향상하는 경향성과 관계가 있어 보임.

○ 20대는 통합(융합) 교육 수요가 다른 연령대보다 낮고, 자기주도 교육 수요는 매우 높아서 연령 간 관심사에 차이가 나타남.

■ 개인학습 ↔ 공동학습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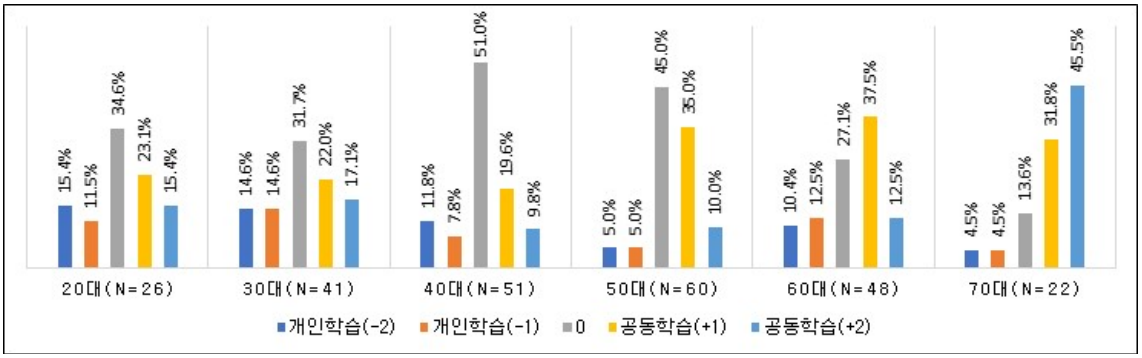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공동학습을 원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70대에서 공동학습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음.

- 70대의 경우 경제 능력 상실, 배우자 사별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 전반이 취약해지는 생애주기의 문제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 40대는 특정 유형에 치우치는 비율이 낮음.

[그림 71] 연령대별 개인학습 - 공동학습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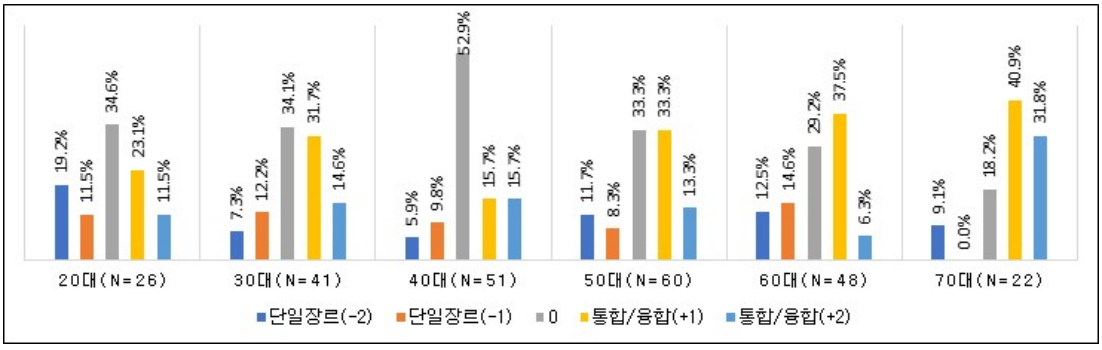
■ 단일장르 ↔ 통합(융합) 교육 수요

○ 20대는 단일장르와 통합(융합) 교육에 대한 요구 비중이 거의 비슷하고, 30대 이후부터는 통합(융합) 교육에 관한 요구가 더 높음.

○ 특히, 70대에서 통합(융합) 교육 요구가 매우 높음.

○ 40대는 특정 유형에 치우치는 비율이 낮음.

[그림 72] 연령대별 단일장르 - 통합(융합) 교육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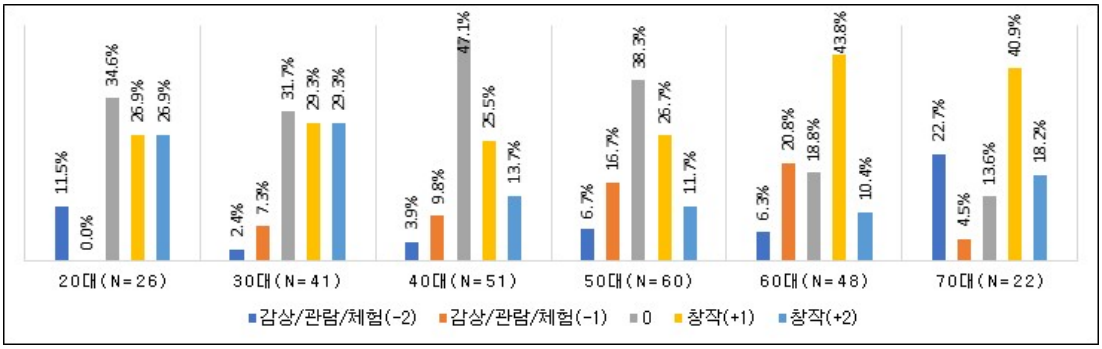


■ 감상·관람·체험 ↔ 창작 교육 수요

○ 모든 연령대에서 창작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감상·관람·체험 교육보다 더 높음.

○ 특히, 60대 이상에서 창작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음.

[그림 73] 연령대별 감상·관람·체험 - 창작 교육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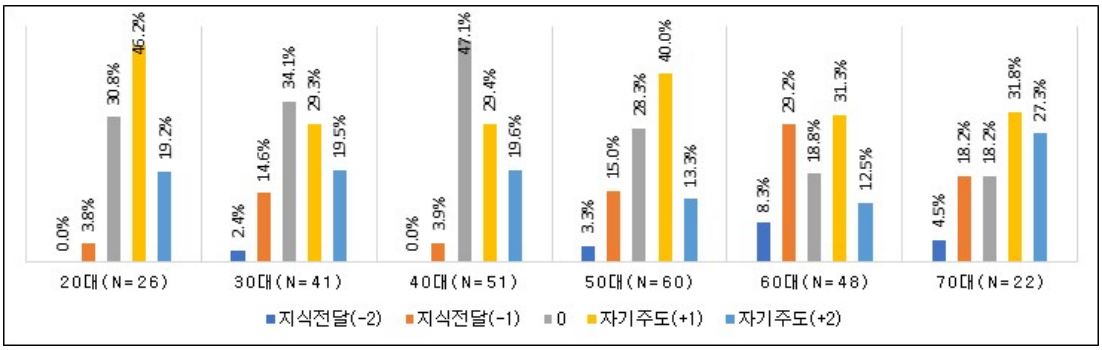


■ 지식전달·반복연습 ↔ 자기주도·놀이·프로젝트 교육 수요

○ 모든 연령대에서 자기주도 교육에 대한 요구가 지식전달 교육보다 더 높음

○ 특히, 20대는 자기주도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음

[그림 74] 연령대별 지식전달 - 자기주도 교육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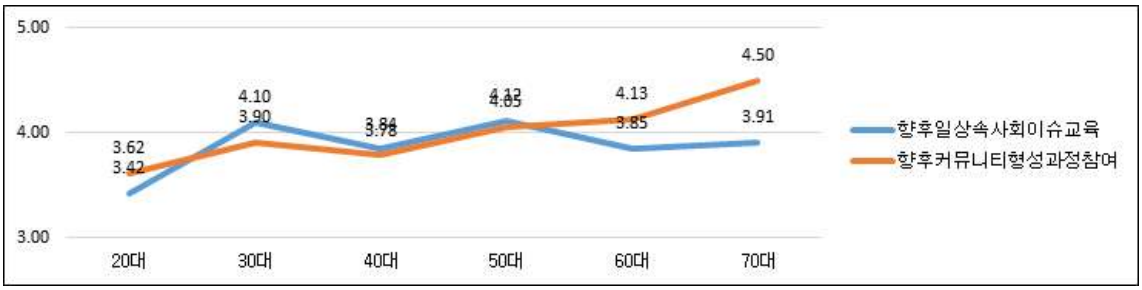
2) 교육 내용 수요

■ 연령대별 향후 교육 내용 수요 (사회이슈, 커뮤니티 관련)

○ 일상 속 사회이슈 교육에 관한 수요는 통계적으로 연령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커뮤니티 형성 과정 참여에 관한 수요는 20대와 70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70대의 수요가 20대에 비해 상당히 큼. (*일원배치분산분석, 사후분석 Scheffe 결과)

[그림 75] 연령대별 향후 교육 내용 수요



3) 교육 장르 수요

■ 연령대별 향후 장르 수요

○ 저연령층에서는 공연형 활동이 강세임.

- 20대는 공예, 미디어아트 등 craft, making에 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10대 : 음악 > 뮤지컬 > 연극
- 20대 : 음악 > 연극 = 공예 = 미디어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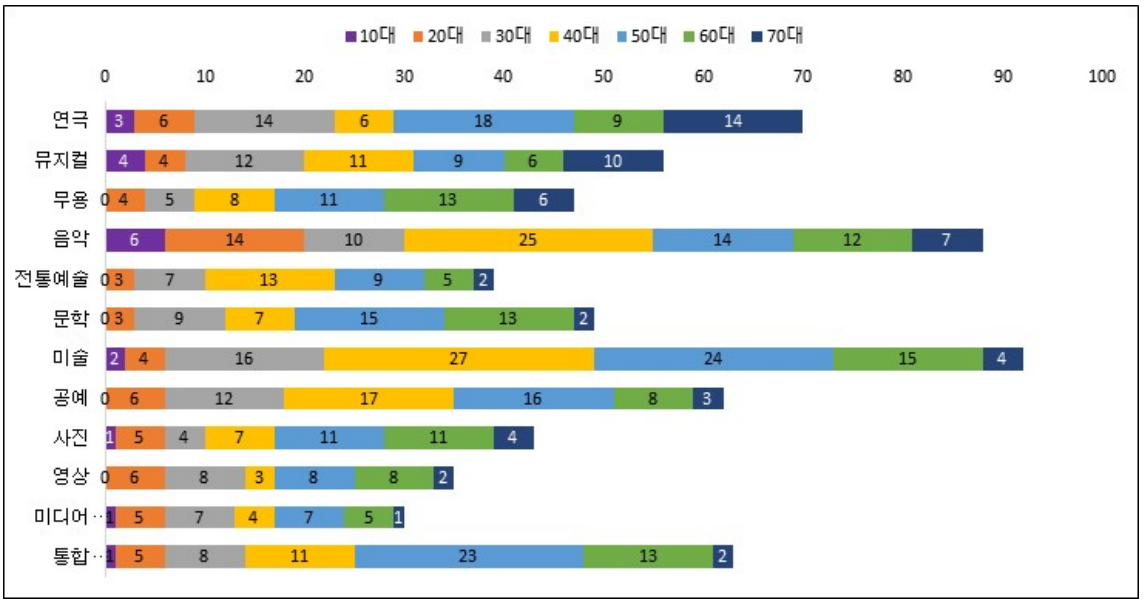
○ 중·고연령층에서는 미술이 가장 우세함.

- 30대 : 미술 > 연극 > 뮤지컬 = 공예
- 40대 : 미술 > 음악 > 공예
- 50대 : 미술 > 통합(융합) > 연극
- 60대 : 미술 > 무용 = 문학 = 통합(융합)
- 50~60대에서 통합(융합) 장르에 관한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음.

○ 최고연령층은 저연령층과 마찬가지로 공연형 활동이 강세임.

- 70대 : 뮤지컬 > 연극 > 음악
- 음악보다 평균적으로 공동협업을 더 많이 하고, 다양한 장르를 통합적으로 다뤄야 하는 뮤지컬이 1순위로 나타남.

[그림 76] 연령대별 향후 장르 수요



[표 24] 연령대별 향후 장르 수요

		연령대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연극	총계	3	6	14	6	18	9	14	70
	age 중 %	42.9%	24.0%	34.1%	11.8%	30.0%	19.1%	63.6%	
뮤지컬	총계	4	4	12	11	9	6	10	56
	age 중 %	57.1%	16.0%	29.3%	21.6%	15.0%	12.8%	45.5%	

무용	총계	0	4	5	8	11	13	6	47
	age 중 %	0.0%	16.0%	12.2%	15.7%	18.3%	27.7%	27.3%	
음악	총계	6	14	10	25	14	12	7	88
	age 중 %	85.7%	56.0%	24.4%	49.0%	23.3%	25.5%	31.8%	
전통예술	총계	0	3	7	13	9	5	2	39
	age 중 %	0.0%	12.0%	17.1%	25.5%	15.0%	10.6%	9.1%	
문학	총계	0	3	9	7	15	13	2	49
	age 중 %	0.0%	12.0%	22.0%	13.7%	25.0%	27.7%	9.1%	
미술	총계	2	4	16	27	24	15	4	92
	age 중 %	28.6%	16.0%	39.0%	52.9%	40.0%	31.9%	18.2%	
공예	총계	0	6	12	17	16	8	3	62
	age 중 %	0.0%	24.0%	29.3%	33.3%	26.7%	17.0%	13.6%	
사진	총계	1	5	4	7	11	11	4	43
	age 중 %	14.3%	20.0%	9.8%	13.7%	18.3%	23.4%	18.2%	
영상	총계	0	6	8	3	8	8	2	35
	age 중 %	0.0%	24.0%	19.5%	5.9%	13.3%	17.0%	9.1%	
미디어아트	총계	1	5	7	4	7	5	1	30
	age 중 %	14.3%	20.0%	17.1%	7.8%	11.7%	10.6%	4.5%	
통합(융합)	총계	1	5	8	11	23	13	2	63
	age 중 %	14.3%	20.0%	19.5%	21.6%	38.3%	27.7%	9.1%	
기타	총계	0	1	1	1	0	1	0	4
	age 중 %	0.0%	4.0%	2.4%	2.0%	0.0%	2.1%	0.0%	
합계	총계	7	25	41	51	60	47	22	253

4) 새로운 관심 주제 생성

■ 연령대별 새로운 관심 주제

○ 대인관계 갈등 관리, 지역사회 공동 관심사, 문화격차는 전 연령대에서 고루 관심 있는 사안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와 생태환경은 30~50대에서 관심 비율이 높음.

○ 개인의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도 30~50대에서 비교적 비율이 높음.

○ 20대는 문화격차, 지역 불균형 이슈에 관심이 많음.

○ 인권침해는 50~6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관심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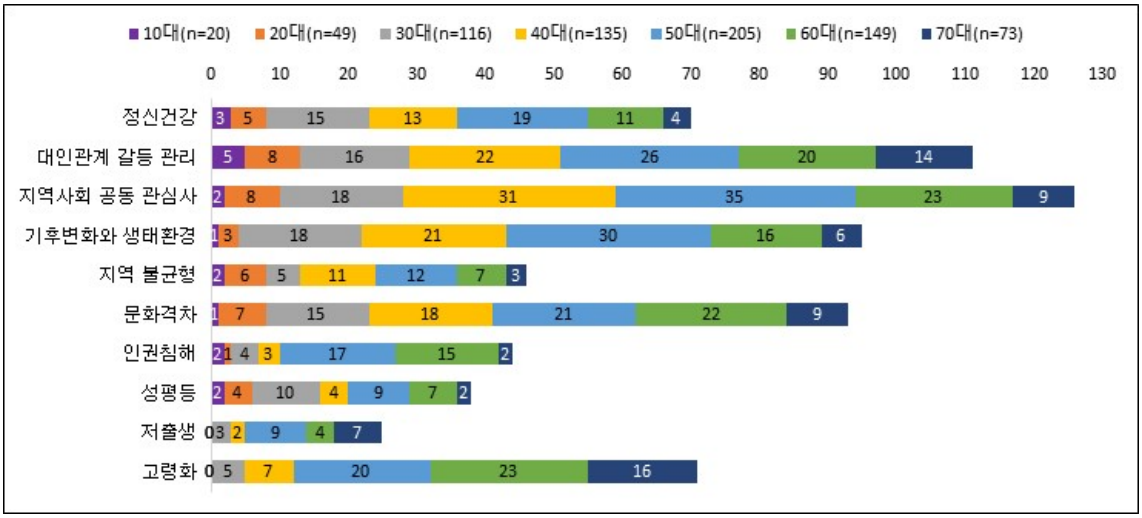
○ 성평등 이슈에 대한 관심 비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20~30대가 높음.

○ 4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지역사회 공동 관심사에 대한 관심 비율이 높고, 인권침해, 성평등, 저출생에 대한 관심 비율은 낮음 .

○ 저출생 이슈는 50대 이상 고연령에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70대는 관심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임. 10~20대는 전혀 관심이 없음.

○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령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

[그림 77] 연령대별 새로운 관심 주제



[표 25] 연령대별 새로운 관심 주제

		연령대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정신건강	총계	3	5	15	13	19	11	4	70
	age 중 %	15.0%	10.2%	12.9%	9.6%	9.3%	7.4%	5.5%	
대인관계 갈등관리	총계	5	8	16	22	26	20	14	111
	age 중 %	25.0%	16.3%	13.8%	16.3%	12.7%	13.4%	19.2%	
지역사회 공동관심사	총계	2	8	18	31	35	23	9	126
	age 중 %	10.0%	16.3%	15.5%	23.0%	17.1%	15.4%	12.3%	
기후변화 생태환경	총계	1	3	18	21	30	16	6	95
	age 중 %	5.0%	6.1%	15.5%	15.6%	14.6%	10.7%	8.2%	
지역불균형	총계	2	6	5	11	12	7	3	46
	age 중 %	10.0%	12.2%	4.3%	8.1%	5.9%	4.7%	4.1%	
문화격차	총계	1	7	15	18	21	22	9	93
	age 중 %	5.0%	14.3%	12.9%	13.3%	10.2%	14.8%	12.3%	
인권침해	총계	2	1	4	3	17	15	2	44
	age 중 %	10.0%	2.0%	3.4%	2.2%	8.3%	10.1%	2.7%	
성평등	총계	2	4	10	4	9	7	2	38
	age 중 %	10.0%	8.2%	8.6%	3.0%	4.4%	4.7%	2.7%	
저출생	총계	0	0	3	2	9	4	7	25
	age 중 %	0.0%	0.0%	2.6%	1.5%	4.4%	2.7%	9.6%	
고령화	총계	0	0	5	7	20	23	16	71
	age 중 %	0.0%	0.0%	4.3%	5.2%	9.8%	15.4%	21.9%	
기타	총계	2	7	4	3	6	0	1	23
	age 중 %	10.0%	14.3%	3.4%	2.2%	2.9%	0.0%	1.4%	
합계	총계	0	0	3	0	1	1	0	5

제3절 소결

◎ 저관여-고관여 비교 결과

■ 저관여층과 고관여층을 가르는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저관여층은 문화예술교육을 여가의 한 방편으로 인식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을 원함.
- 고관여층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자기실현 욕구가 높고 예술에 대한 수월성을 추구함.
- 저관여층은 정보 접근성이나 문화예술활동 도구 접근성 등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측면에서 취약함.
- 고관여층은 저관여층보다 창작 경험이 더 많음에도 앞으로 창작 교육이 훨씬 더 강화되기를 원하며, 특히 지식전달·반복연습 기반의 창작이 아닌 자기주도적 성격의 창작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

■ 이와 같은 요약 내용을 비교 분석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26] 저관여층-고관여층 비교 분석 요약

	저관여층	고관여층
차이점	• 생애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교육 경험 상대적으로 적음 • 정보 접근성이 낮고 친구가 권한 프로그램 참여 • 생활권 내에서 여가시간 보내기, 사람들 만나기 • 단일장르 기반의 공동학습, 지식전달 및 반복연습 교육경험이 많은 편	• 생애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교육 경험 더 많음 • 정보공유 활동 활발하고 유료 프로그램 구매 더 많음 • 자기실현 욕구와 예술에 대한 수월성 추구 • 저관여층보다 창작 교육 경험이 많은 편
공통점	• 향후 문화예술 전문성이 높은 공간에서의 교육이 증가하길 바람 •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 체험, 보급형 강의 및 행사로부터 장기적이고 참여적/전문적 교육 경험으로 이동하는 경향성이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에서 사회이슈와 커뮤니티 형성 과정을 다루는 것에 대해 긍정적임 • 미술, 음악, 연극은 과거 경험과 미래 수요를 통틀어 수요가 가장 많은 장르임. • 그러나 미술, 음악, 연극 장르와 타 장르 간 관심 격차는 줄어들고 있으며 통합(융합), 미디어아트처럼 최신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통념적으로 갖고 있던 예술에 관한 고정관념이 변하게 된 비율이 과반이 넘음.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대인관계 갈등관리, 지역사회 공동 관심사,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문화격차에 대한 관심이 많음.	

■ 저관여층과 고관여층 비교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두 군집 간 기존 교육 경험에는 차이가 있으나, 향후 수요는 동일하다는 점임.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들 전반에서 단기적 체험, 보급형 강의 및 행사로부터 장기적이고 참여적·주도적 교육 경험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경향성이 나타남. 이러한 경향성은 본 조사뿐 아니라 2019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실시한 수요조사 연구에서도 확인됨.

■ 장르 측면에서도 저관여층, 고관여층 상관없이 미술, 음악, 연극 장르가 주요함. 가장 많이 경험했고, 향후에도 가장 많은 수요를 보임. 또한 이 세 장르는 예술인복지재단의 등록예술인 중에서 비중이 가장 많은 예술인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프로그램 공급이 용이하다는 뜻으로 향후에도 3개 장르의 우세를 예측할 수 있음. 다만, 이 3개 장르에 대한 관심과 타 장르에 대한 관심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이며, 통합(융합) 장르와 미디어아트 등 미래지향적 장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므로 향후 잠재 수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 보임.

◎ 고관여층 유형 분석 결과

■ 고관여층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교육 유형 경험을 기반으로 고관여층 유형 분류를 시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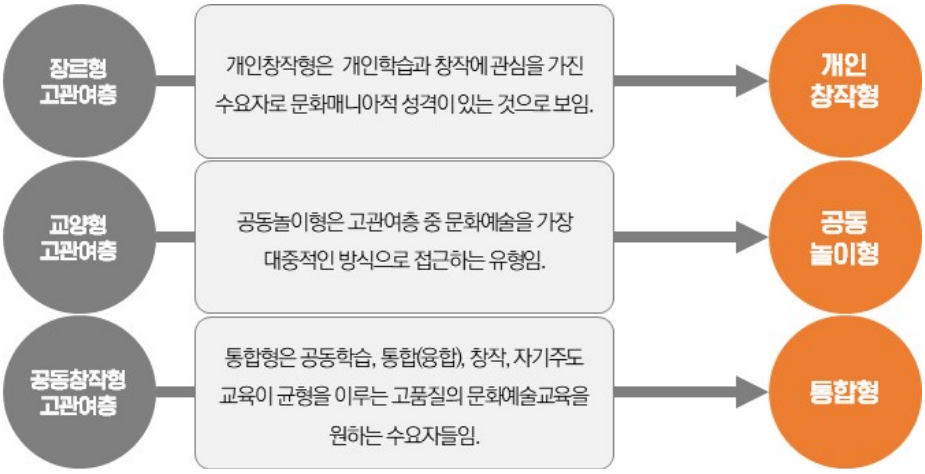
■ 그 결과, 장르형, 교양형, 공동창작형으로 군집이 나뉘었으며 각각의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7] 고관여층 유형별 특징 비교

유형	특징
장르형	• 단일장르의 개인창작 교육을 많이 경험한 군집으로 시각 장르 비중이 높은 점이 특징임. • 향후에도 무용, 연극 등 공동협업이 필요한 장르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음. • 서울 서북권-서남권에 많이 거주하고 40대 비중이 높음. • 예술가 공간(공방, 작업실, 연습실) 수요가 가장 높으며, 문화예술교육센터 및 문화복합공간과 전문 예술공간(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수요가 그 뒤를 잇고 있음.
교양형	• 지금까지 감상·관람·체험위주의 전형적인 보급형 교육을 받아 왔으나 향후에는 자기주도가 가능한 공동학습을 원하며, 특히 창작 경험은 현재보다 많이 강화되길 원함. • 서울 동북권-서북권에 많이 거주하고, 30대와 50대의 비중이 매우 낮음. • 문화예술교육센터 및 문화복합공간 수요가 가장 높으며, 다른 고관여층과 달리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시각 장르(미술, 공예, 영상)에 관한 관심이 줄고 있으며, 공연형 교육(음악, 무용, 전통예술, 뮤지컬)의 향후 수요가 증가함.
공동창작형	• 공동협업하는 창작 교육을 많이 받은 군집으로 공동학습과 창작 교육 비중은 좀 줄고, 통합(융합) 및 자기주도형 교육 비중은 늘어서 최종적으로는 4가지 차원이 균형을 이루길 바람. • 다른 고관여층보다 연극 교육 경험이 많고, 뮤지컬, 무용 등 향후 공연형 프로그램 수요 증가. • 동일하게 공연형 프로그램을 원하는 교양형에 비해 현대적 장르를 선호함. (뮤지컬↑ 전통예술↓) • 50대 비중이 높고, 서울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에 거주자가 고루 분포함. • 문화예술교육센터 및 문화복합공간, 예술가 공간(공방, 작업실, 연습실)에 대한 수요가 비등하게 가장 높고, 그 뒤를 전문 예술공간(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이 잇고 있음.

■ 경험했던 교육 유형에 근거한 분류는 지금까지의 교육으로 누적된 영향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수요자의 의지를 반영하는 교육적 지향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때문에 정책적 방향성을 드러내는 군집 이름으로 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아래 그림처럼 고관여층 유형 명칭을 변경함.

[그림 78] 고관여층 유형 명칭 변경 및 설명



◎ 연령대별 수요 분석 결과

■ 생애주기별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연령대별로도 교육 수요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 분석을 진행함.

■ 연령대별 분석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동학습, 통합(융합)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임. 반면, 20대는 통합(융합) 교육 수요가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편이고, 자기주도 교육 수요는 매우 높음. 이러한 결과는 20대의 생애주기 문제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고, 고연령대로 올라갈수록 사회적이며 통합적인 삶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데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임.

■ 향후 교육 내용에서도 일상 속 사회이슈와 문화예술교육을 결합하는 것에 관해서는 연령 간 차이가 없으나, 커뮤니티 형성 과정을 포함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수요는 고연령대일수록 높고, 특히 70대의 수요는 20대와 큰 격차를 보임.

■ 장르적으로는 저연령대(10~20대)와 70대 이상은 공연형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고, 30대~60대까지는 미술 장르가 1순위임. 통합(융합) 장르는 50~60대 수요가 높음. 20대에서 공예, 미디어아트에 관한 수요가 높은 편이라는 점도 특징적인데, 이는 뉴미디어, 카페형 공방 등 시장 트렌드에 젊은 층이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점과 상관이 있어 보임.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주제는 연령별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줌. 대인관계 갈등관리, 지역사회 공동 관심사, 문화격차는 전 연령대에서 고루 관심 있는 반면, 20대는 문화격차와 지역 불균형, 20~30대는 성평등, 30~50대는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50~60대는 인권침해, 40대는

지역사회 공동 관심사, 50대 이상에서 저출생, 연령이 높을수록 고령화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보임.

- 20대는 진취적으로 성장하고 자원이 집중된 곳에서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격차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임.
- 본 설문의 응답자가 주로 여성인 것을 감안했을 때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 20~30대 여성이 성평등 문제에 관심을 보였을 것이라 추정함.
- 50~60대는 민주화 세대로 인권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코호트 효과로 해석 가능함.
- 저출생 문제가 저연령대보다 고연령대에서 더 관심이 많은 점도 눈에 띔. 저출생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70대임.
- 고령화에 대한 관심은 30대부터 시작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관심 비율이 증가함. 60대부터는 생애주기의 과제로 필히 고연령화 문제를 문화예술교육과 접목해 풀어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4장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분석

제1절 매개자 분석 개요

1. 매개자 분석의 목적

■ 본 연구는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정책/사업의 고관여자에 관한 분석을 기초로 현장의 수요와 상황에 부합하는 예술교육 정책/사업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 3장에서 분석한 고관여자(수요자)와 직접 관계를 형성하는 예술교육가, 공간 거점이나 지원사업/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관여자가 예술교육과 만나는 환경을 만드는 예술교육센터 담당자 및 기초문화재단 담당자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였음.

■ 이는 정책 방향과 현장 수요 사이에 있는 실행체계에서 실태를 확인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 이들 매개자 그룹에 관한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분석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고관여자의 현재 수요 및 미래 수요와 매개자의 예술교육 활동은 서로 부합하는가?

○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정책/사업의 지향에 관한 매개자의 입장은 어떠한가?

○ 변화하는, 혹은 변화할 예술교육 정책 방향에 관한 매개자의 입장은 어떠한가?

○ 예술교육 사업 수행을 위한 매개자의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 요소는 무엇인가?

2. 매개자 조사 범위와 방법

가. 매개자의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매개자를 다음 범주의 대상으로 제한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함.

○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TA 참여자 및 공모형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기획자, 주강사 등 현장 예술교육가

○ 서울 내 기초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및 유관 사업 담당자

- 단, 이 경우 기초문화재단 담당자는 기초 자치구 내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는 조직/기관으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간주함.

○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거점 공간 운영 담당자

- 단, 이 경우 거점 공간 운영 담당자는 거점 기반 예술교육을 실행하는 조직/기관으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간주함.

나. 매개자 조사 범위와 방법

■ 매개자 조사 범위는 전술한 본 연구의 매개자 조작적 정의와 일치하도록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법은 아래 표와 같음.

- 매개자 FGI를 통한 분석 시사점의 정책 전문가 검토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정책 전문가 그룹의 자문형 FGI를 추가로 진행
- 정책 전문가 그룹 포함 총 13회, 27명을 대상으로 FGI 진행

[표 28] 매개자 조사 범위

범주	세부 범주	조사 규모	조사 방법
[A그룹] 거점 공간 담당자	• 해당 없음	2회 3명	FGI (온라인으로 진행)
[B그룹] 예술교육가	• 학교예술교육TA(PL)[91], 지역예술교육TA(PL) 참여자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및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 참여자 (다년간 연속 참여한 기획공모 선정 단체 사례)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및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 참여자 (단년 사업 또는 2022년 신규 진입 단체 사례) • 서울시민예술대학 심화과정, 일반과정, 단년과정 참여자	9회 18명	FGI (온라인으로 진행)
[C그룹] 기초문화재단 담당자	• 해당 없음	1회 3명	FGI (온라인으로 진행)
[D그룹] 정책 전문가 그룹	• 해당 없음	1회 3명	FGI (온라인으로 진행)

91) TA: Teaching Artist / PL: TA사업에서 다년간의 TA 경험을 바탕으로 TA그룹을 이끄는 Project Leader

제2절 인터뷰 및 FGI 주요 분석 결과

1.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센터 방문 및 인터뷰 분석 결과

가. 예술교육센터 분석 개요

1) 예술교육센터 분석의 배경 및 목적

■ 예술교육센터(공간)의 비중 확대 전망

○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실은 현재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 서서울예술교육센터(양천) 두 곳의 예술교육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까지 3곳의 예술교육센터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임.

○ 각 예술교육센터는 중대규모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인력, 예산, 공간 운영,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에서 1개 팀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자원 투입이 필요하며, 현재 조성 중인 예술교육센터까지만 고려하더라도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실의 사업 및 정책 중 예술교육센터가 차지는 비중은 제2차 기본계획 기간('23~'27년) 중 상당한 정도로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음.

○ 2장에서 진행한 서울문화재단 사업 분석에서도 거점 공간 운영 예산은 전체 예산 구조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예술교육센터의 매개 기능 검토 및 고관여자 분석 맥락에서 예술교육센터의 역할 제언

○ 이처럼 예술교육센터의 위상이 커지는 상황에서, 각 예술교육센터는 공간별로 광역 단위 수준의 상징성을 가지는 대표 프로그램 중심의 예술교육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 접근성 높은 일상 예술교육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 연구개발 및 연수 기능 등 R&D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함.

○ 특히 이러한 방향 설정은 제2차 기본계획 기간에 영향을 미칠 정책 환경, 재단 내외부 상황, 고관여자 분석 결과와의 연관 속에서 설정될 필요가 있음.

2) 예술교육센터 분석 주안점

○ 예술교육센터의 기능에 관한 선행연구 제언의 적절성 검토

○ 「서울형 예술교육 2.0」[92] 연구는 권역별 예술교육센터가 서울의 예술교육 생태계에서 가지는 의미를 다음 세 가지로 제안함.

① 생활권 예술교육의 보편화

92) 예술교육공간 확대에 따른 「서울형 예술교육 2.0」 연구 (서울문화재단, 2019)

② 예술적 경험에의 참여 확대

③ 장기적 예술교육 인프라 마련

○ 이와 함께 예술교육센터의 역할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함.

① 예술교육 Labs 운영 ▸ 예술교육 연구개발(R&D)센터의 기능

② 예술교육 주체의 협업 플랫폼 구축 ▸ 정책적으로는 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을 담당하는 기능

③ 공간 연계 예술교육 서비스 ▸ 고정 공간 특성에 기반한 예술교육 접근성 상시 제공 기능

④ 예술교육 협력망 구축 ▸ 예술교육 거버넌스 기능

○ 위 내용을 요약하면 예술교육센터는 (1)연구개발 기능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양성을 담당하고, (2)자치구 예술교육 생태계 및 타 예술교육센터, 예술교육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거버넌스가 되고, (3)소재 지역의 생활권 예술교육 공간 기능도 겸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런데, 선행연구에서 제안하는 생활권 예술교육 접근성 제고 공간으로서의 예술교육센터 기능/역할은 사실상 자치구별로 센터가 고르게 분포할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2차 기본계획 기간 중 운영될 5개 권역별 예술교육센터는 그 숫자와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소재 지역의 생활권 예술교육 공간 기능을 일부 담당할 수는 있겠지만, 주 기능으로 제안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 이러한 예상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예술교육센터의 실질적 역할과 기능을 전망해보기 위해 현장 방문 조사와 담당자 인터뷰 등을 진행하였음.
- 이를 통해 운영실태 및 공간 조건, 입지적 조건 등을 다각도로 확인하고 예술교육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 구체적으로 도출하고자 함.

○ 또, 본 연구는 선행연구 시점에서 약 3년이 경과한 현재를 기준으로 예술교육센터의 조성 규모, 실제 운영 현황을 분석하는바, 정책 연구의 현행화 작업의 의미도 가짐.

■ 정책 환경, 재단 내외부 환경, 고관여자 분석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한 예술교육센터 분석

○ 예술교육센터 분석은 선행 연구의 예측 및 제안의 적절성 검토뿐 아니라,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전환, 문화예술교육 1기 종합/기본계획 기간에 대한 평가와 정책 환경 변화, 본격적인 수요자 분석인 고관여자 분석 결과(본 연구 3장) 등의 복합적 맥락 안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음.

나. 예술교육센터 분석 결과

1) 신규 조성 공간으로서의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 분석

■ 방문자의 양적 확대를 넘어, 방문자(예술교육 수혜자/참여자) 수요 분석 체계 구축 필요

○ 본격 운영 기간 2년을 거치면서 일정 수준의 방문객 규모 유지

- 서울예술교육센터는 코로나가 심각하던 2020년 11월 온라인으로 개관식을 진행하였고, 본격적인 공간 운영은 2021년이 원년이라 할 수 있음.
- 센터의 공간은 분리된 2개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까페/라운지/전시공간 및 교육공간(작업실)의 분위기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서가>와 편의보다는 작업실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청소년 공간 <아츠포틴즈>로 이루어져 있음.
- 감정서가의 경우 개관 초기 일일 방문자가 10명도 안 되었지만, 현재는 일일 약 1백 명 이상 꾸준히 방문하는 정도에 이름. (입출입 자동 계수기로 계수)

○ 방문객 분석을 위한 체계 마련 및 중장기적 보완 필요

- 감정서가 방문자 정보는 출입 인원수만 기록하는 계수기 숫자만 있으며, 프로그램 예약을 위한 네이버 예약 시스템은 민간기업인 네이버의 정책에 따라 수집하려는 정보 범위를 지정/변경할 수 없고 네이버 플랫폼에 수집된 예약자 개인정보를 센터의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분석할 수 없음.
- 아츠포틴즈의 경우 프로그램 예약을 구글독스로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정보 수집의 범위가 넓긴 하지만 절대적인 방문자 숫자 자체가 적은 편이라 유의한 수준의 데이터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봐야함.
- 이는 실질적인 개관 2년 차를 막 넘어가는 2022년 현시점에서 중대한 우려는 아닐 수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가 본격화되고 5개 예술교육센터의 조성이 완료되면서 예술교육센터별 정체성 및 기능을 분명히 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할 때에는 센터 운영의 방향 설정을 위한 근거 데이터 부족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음.

■ 핵심 기능과 정체성 설정을 위한 과도기 단계, 협력체계 개발이 필요한 시점

○ 초기 운영 방식으로서의 공간별 감독제

- 현재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은 감정서가와 아츠포틴즈에 각각 프로그램 기획 및 공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감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각 공간에 나름의 레거시가 쌓이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적절한 운영 방식이라 볼 수 있음.

○ 재단 내 타 사업 및 관련 사업 참여 주체와의 협력체계를 고려할 시점

- 초기 운영 체계 개발이라는 현재의 과도기가 지난 후 제2차 기본계획 기간 중에는 어느 정도 센터의 정체성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가정할 때, 그렇게 형성된 정체성을 기초로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이 서울문화재단 내 타 예술교육사업 및 주체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짐작하기 어려움. 현재 운영 상태만 보면 연계성이 높지 않은 독립적 공간의 성격에 가까움.
- 하지만 2022년 재단 예술교육실 전체가 참여하는 서울예술교육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팀 간, 사업 간 칸막이를 넘어서려는 재단의 시도를 고려하면 재단 내 타 사업과의 연결과 통합을 일구

는 매개 공간, 허브 공간이 되는 가능성도 예상해볼 수 있음.

■ 생활권 예술교육 거점 기능보다 전문화된 시설로서의 정체성 제언

○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의 입지적 특징

-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은 용산센트럴파크 업무동 1층(감정서가)과 공공시설동 5~6층에 위치하는데, 건물 외부 보행자의 시선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입지가 아니며, 해당 건물에 들어서더라도 예술교육 공간의 특성이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은 아님.
- 이는 조성 단계에서 기부채납으로 배정된 공간의 입지적 요건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센터 운영의 소프트웨어적 측면만으로 생활권의 일상성이나 접근성 개념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공간 및 시설 특성 차원에서도 생활권 공간보다는 전문화된 공간의 성격을 가짐

- 현 단계에서 감정서가 운영은 아무나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공공 편의공간이 아닌, 자기표현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방문해서 예술적 경험을 하는 곳이라는 지향이 있음. 이러한 지향에 따라 초기에는 무료 공공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조처(예. 무료 와이파이 설치 등)를 의도적으로 지양했고, 임의의 참여자 접근을 다소 제한하는 허들을 두었음.
- 현재 일일 1백 명 이상의 방문객이 있고, 출판 워크숍 등 공간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센터 내 감정서가는 생활권 예술교육 거점보다는 전문화된 예술교육 활동 공간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방향이 공간의 인테리어 특성, 입지적 특성 등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아츠포틴즈의 경우 담당자는 청소년 생활권 공간이 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는 평일 주간시간대(청소년 교과시간)의 방문자 자체가 적은 상황임. 실제로 아츠포틴즈의 입지, 작업(장)실에 가까운 분위기, 사교육 등 다수의 활동으로 스케쥴에 따라 생활하는 서울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아츠포틴즈 역시 오가며 들리는 생활권 내 청소년 '편의' 시설의 성격보다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전문' 시설의 성격을 지향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함.
- 이는 본 연구 2장 정책환경 분석 내용 중 청소년의 학내외 문화예술교육 수요 조사에서 도출된 전용 시설 요구와도 부합하는 부분임.

2) 상주형 예술가 창작기반의 예술교육 전문 공간,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 서남권역별 공간 성격 외, 예술교육 내용적 전문성과 환경적 정체성 공간으로 포지셔닝 강화 필요

○ 외견상 생활권 공간, 실질적으로 권역형 공간

-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과 연접한 곳에 위치하며, 과거 김포가압장(1970~2003)이던 시설을 리모델링한 특성이 공간 내/외부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남.
- 보행자에게도 문화예술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타 건물들 사이에 가려진 사각지대도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보행자 자체가 별로 없고 역세권 등 대중교통 주요 거점과 거리가 있는 곳에 있어 목적을 가지고 자차로 방문하지 않는 경우 센터의 존재를 알기 어려운 입지라고 할 수 있음.
- 즉, 생활권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통 및 입지 여건 고려시 앞으로도 생활권

공간을 주요 기능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음.

○ 방문객 특성에서 나타나는 권역형 공간의 특징

- 센터 자체적으로 2020년 운영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확인해본 방문객의 거주지는 약 60% 정도가 양천, 강서 지역이며, 간접 이용권으로 보고 있는 영등포, 구로 거주자를 포함하면 방문객의 70% 정도가 됨.
- 코로나 시기 키트형 배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소지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의 지리적 분포를 대략적으로 파악함.
- 이렇게 파악한 센터 방문자 특징은 서서울예술교육센터가 지리적으로는 서울 서남권을 큰 폭으로 아우르는 거점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말해줌.

○ 지리적 입지 관점의 권역형 공간보다 예술교육 전문 공간 정체성에 주목

-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예술놀이라는 내용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시설 내 상주형 TA가 있어서 '예술가와 함께'라는 성격도 명확히 표방하고 있음.
- 예술놀이 유사 프로그램이 백화점 및 문화센터 등에도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방문자는 단순히 아동/청소년의 돌봄 위탁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편의/문화시설로서의 상업시설 문화센터 이용자가 아닌, '예술가와 함께'하거나 양산형 프로그램보다 양질의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방문객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공간 반납 후 예술놀이 사업이 서서울예술교육센터로 이관되었고, 이에 상대적으로 먼 거리라 할 수 있는 관악구 등 서울 남부지역 방문객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지리적 입지보다는 내용적 정체성이 센터의 주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는 서서울예술교육센터를 비롯해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논의인데, 2차 기본계획 기간 중 예술교육센터가 서울 내 5곳에서 운영될 때, 해당 센터가 접근성을 주요 메리트로 하는 지리적 거점이 되기보다는 내용적 정체성을 핵심으로 양질의 예술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전문 공간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상할 수 있음.

○ 고관여자 수요와의 접점 형성을 위한 재단 내 타 사업과의 연계 효과 제고 필요

- 그런데 3장의 고관여자 분석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고관여자도 예술교육센터를 방문해본 경험이나 센터에 대한 인지 정도가 저관여자와 큰 차이가 없는데[93], 이는 현재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상당 부분 공모사업 등 프로그램 기반으로 형성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렇게 볼 때, 전용/전문 공간에 대한 수요와 예술교육센터의 접점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각 예술교육센터의 내용 정체성을 중심으로 재단 내 타 사업과의 정보 공유 및 연계/교류 효과 제고를 위한 시도가 필요함.
- 고관여 수요 충족뿐 아니라, 연수 기능, R&D 기능 등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향후 예술교육센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제2차 기본계획 기간 중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토대로서의 사업 간 연계 허브가 되는 시도를 하는 것이 필요함.

93) 설문배포 대상에는 서울예술교육센터와 서서울예술교육센터가 모두 포함되었음

2. 예술교육가 FGI 진행 개요

가. 예술교육가 FGI 진행 개요

1) FGI 그룹 구성 방식

■ 분석 초점은 사회문화예술교육 중심이며, 비교 분석 대상으로 예술교육TA 포함

○ 본 연구에서 매개자로서 예술교육가 분석의 주 대상은 서울문화재단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예술가/예술교육가임.

○ 다만,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 정책과 사업의 역사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고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을 실현하는 대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학교예술교육TA도 FGI 대상에 포함하였음.

- 학교예술교육TA FGI는 학교예술교육 사업에 관한 분석을 위한 것은 아니며,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이라는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철학/지향이 어떤 방식으로 현장에서 이해되고 구현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음.
-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 참여 예술교육가 FGI에서도 동일하게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 및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업의 지향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음.

■ 위 내용에 관한 확인을 포함하여, 지역화 기조에 관한 현장의 인식, 재단 예술교육 사업에 관한 인식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FGI 대상을 구분하였음.

○ TA사업 참여 예술교육가: 학교예술교육TA, 지역예술교육TA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서울시민예술대학 참여 예술교육가/단체 중 아래 사항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단체

- 해당 사업 중 서울시민예술대학 사업에 참여하고 지역특성화/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도 참여한 단체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서울시민예술대학 기획공모(다년 지원) 선정/운영 경험이 있는 단체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서울시민예술대학 단년 지원 선정 또는 2022년 신규 진입 단체

2) FGI 참여자 현황

[표 29] 문화예술교육자 FGI 대상자 명단 및 특성

진행 회차	참여자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사업 참여 경험	주 활동 장르
1회 11월 17일	참여자A	○ 서울시민예술대학 17~19년 심화과정(연속형) / 20년 창작과정(일반) / 21, 22년 단년과정(일반)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1, 22년 일반공모	연극
2회 11월 18일	참여자B	○ 학교(청소년)예술교육TA/PL 17~18년, 21~22년	시각
	참여자C	○ 지역예술교육TA(키움) 21, 22년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9, 20, 21, 22년 일반공모	연극
3회 11월 21일 1차	참여자D	○ 학교예술교육TA 2010년~	시각
	참여자E	○ 학교예술교육TA 2011년~	연극
4회 11월 21일 2차	참여자F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0~22년 기획공모 (現 3년차)	사진
	참여자G	○ 지역특성화 16~18년 기획공모(스튜디오153) / 19~21년 기획공모, 22년 일반공모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8, 22년 일반공모	사진
	참여자H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1~22년 기획공모(現 2년차)	음악
5회 11월 22일 1차	참여자I	○ 지역특성화 17~18년 기획공모 / 20~22년 기획공모(現 3년차) ○ 서울시민예술대학 18, 19 일반과정(연속형) / 21년 단년과정(일반)	연극
	참여자J	○ 서울시민예술대학 20년 일반과정 / 21년 단년과정(일반) ○ 지역특성화 22년 일반공모	음악
6회 11월 22일 2차	참여자K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8년 B형 콘텐츠연구형 / 19~20년 기획공모 ○ 지역특성화 20년 일반공모 / 21~22년 기획공모(現 2년차)	다장르
	참여자L	○ 지역특성화 20년 일반공모 / 21~22년 기획공모(現 2년차)	공연예술
7회 11월 23일 1차	참여자M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9년 일반공모 ○ 지역특성화 21, 22년 일반공모	연극,예술심리치료
	참여자N	○ 지역특성화 22년 일반공모	음악
8회 11월 23일 2차	참여자O	○ 지역특성화 21, 22년 일반공모	다장르
	참여자P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6, 19, 20, 21, 22년 일반공모	시각
	참여자Q	○ 서울시민예술대학 22년 단년과정(일반)	무용
9회 12월 18일	참여자R	○ 서울시민예술대학 21, 22년 단년과정(일반)	연극

3) FGI 반구조화 질문의 주안점

■ 예술교육 경험 및 사업 실행 전반에 관한 질문에서 핵심 이슈 중심으로 질문 범위 정리

○ FGI 진행 초반에는 예술교육 분야 진입 계기, 그간의 경험, 공모사업 등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단계, 운영 단계, 후속 단계 전반의 경험, 고관여자 양상 및 예술교육 지속가능성 이슈, 지역화, 예술교육 주제와 동시대 아젠다의 관계 등 매우 포괄적인 범위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두세 차례 FGI 진행 이후 유의미한 질적 정보가 확인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질문을 가지치기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리한 주요 질문은 아래와 같음.

○ 단, 반구조화된 인터뷰의 특성상 모든 FGI에서의 질문이 완전히 같지는 않으며, 인터뷰 진행 흐름에 따라 질문의 순서와 내용을 유연하게 적용하였음.

○ 세부 질문지는 별첨 참고

■ [주안점 1]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지향과 철학에 관한 이해, 인식, 실현 양상

○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 관련 인식, 실천 방안이나 경험 등을 확인

○ 이 철학을 포함해 '서울형' 예술교육이라고 인식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한 조사

○ 혹은 서울형이 아닌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정책 및 사업의 특징으로 인식되는 내용 확인

■ [주안점 2] 매개자 입장에서 바라본/경험한 고관여자, 예술교육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

○ 예술교육을 실천하면서 마주한 고관여자에 관한 인식

○ 고관여자와 관련하여 예술교육 지속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여건 및 요구 분석

■ [주안점 3] 지역화라는 정책 방향에 관한 인식과 의견

○ 서울(광역)문화재단에서 기초문화재단으로 다수 예술교육 사업이 이관되거나, 문화예술교육 정책 중심이 자치구가 될 때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미치게 될 영향에 관한 의견 조사

○ 자치구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진행 경험 및 성과와 한계, 지원 필요 영역에 관한 조사

4). FGI 진행 방식

■ 온라인 진행

○ 본 연구는 예술교육가의 교육공간이나 현장 분석 연구가 아닌 점, FGI 섭외 및 진행을 위한 가용 시간의 부족, 기록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음.

■ 보완 현장 방문

○ FGI 외 특정 예술교육 수혜자 그룹의 지속적 활동 결과물에 대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FGI 진행 중 확인하였고, 매개자가 아닌 고관여자 당사자에 대한 질적 조사/관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혁신파크에서 진행 중인 전시회를 1회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음.

나. 예술교육가 FGI 주요 결과

1) 예술교육사업의 지역화에 대한 우려

■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현장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

○ 현시점에서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 사업이 기초 자치구 및 기초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것은 아님.

○ 하지만 제2차 기본계획 기간부터는 서울문화재단이 독립적인 정책 및 사업 기획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게 되면서 사업 실무 실행 기관의 역할과 함께 정책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또, 제2차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기조에서 지역화 지향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상당 수준 서울문화재단에서 기초문화재단으로 이관되거나, 혹은 서울문화재단이 지원하고 기초문화재단이 현장 맥락에 따라 실행하는 협력 사업 형태가 되는 등 지역화를 위한 시도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음.

○ 이에 예술교육가 FGI에서 중장기적으로 전망되는 가설적 상황임을 전제하고, “예술교육사업에서 서울문화재단의 직접 사업 비중이 줄고, 기초문화재단 중심으로 실행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게 된다면,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나 영향이 있을 것 같은지”를 질문하였음.

■ 지역화의 지향과 가치에는 동의함

○ 서울 내 기초문화재단, 기초 자치구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실행되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고, 광역재단의 사업 공급 가이드에 따른 일괄적 유형화가 아닌 지역적 특성화를 통한 프로그램 다양성 및 적합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향과 가치 수준에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경향을 보임.

■ 지역사회 업무 추진 체계의 투명성 우려와 기초 단위 기관의 역량에 관한 우려

○ 다만, 대다수 FGI에서 크게 두 가지 우려가 공통으로 발견되었는데, 우선 지역 내 카르텔화된 관계 및 정무적/정치적 개입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임.

- 본 연구 4장 4절 ‘기초문화재단 담당자와의 FGI’에서 현장(민간) 예술교육가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확인해보았으며, 행정적 절차적 공정성을 명시적으로 위배하는 카르텔화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지만 작은 지역사회라 할 수 있는 자치구 특성으로 인한 몇 가지 오해 우려가 있는 것을 확인함.
- 예를 들어 기초문화재단에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기획사업을 진행한다고 할 때, (해당 사업이 문화예술교육 사업일 수도 있고, 문화도시, 또는 지역문화사업일 수도 있음) 해당 기획의 방향성에 부합하면서 협력이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단체가 자치구 내에 몇 개 없을 수 있으며, 이런 작은 협력망이 외부에서는 카르텔로 비칠 소지는 있음.
- 또, 중요한 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장점을 살린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기본 가이드나 조례 등의 근거가 자치구마다 다른데, 여러 자치구를 활동 무대로 삼으면서 이동하는 현장 예술교육가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자치구에 따라 임의적인 사업 진행이라는 인상으로 남을 수

도 있음.

- 이러한 카르텔화에 대한 우려나 의혹의 시선 때문에 기초문화재단 기획사업에 해당 자치구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단체가 협력 파트너가 되는 것을 조심하게 되는 아이러니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고 하였음.

○ 지역화에 관한 두 번째 우려는 기초문화재단 또는 자치구(구청) 소속 문화예술교육 사업 담당자의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협력적 파트너십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음.

- 이는 2022년 말 현재 기준 서울 내 22개 기초문화재단 중 문화예술교육 담당자가 있는 경우가 한 손에 꼽히며, 해당 담당자도 대부분 문화예술교육팀으로 전문화된 부서 소속이 아닌 지역문화팀, 문화도시본부, 협력사업팀 등에서 과업 중 하나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열악한 현실과 연결되는 우려임.
- 즉, 기초문화재단 및 기초 자치구의 인력, 예산 등의 여건 자체가 문화예술교육 사업 및 현장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원 기능을 수행하기에 녹록지 않다는 것임.
- 이에 대한 대응은 우선순위에 따라 다각도로 모색해야 하는데, 2장의 분석과 비교해볼 때 근본적으로는 행정 체계 및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및 부서의 역량 강화 지원, 관련 사업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적으로 (예술교육사업의 지역화를)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은 무엇인가로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서울문화재단이라는 큰 기관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거기에 맞는 예술교육을 진정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역에 새로운 사람들이 영입될 확률은 높아 보이지 않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끼리만 운영한다는 문제점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런 것을 더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을 때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으면 용두사미가 될 것 같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좋은 사례나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관리자의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참여자 B)*
>
> *"예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환영하는 변화이다. 아마 조금 더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할 것이고, 지역으로 분권화됐을 때 민간단체가 성장할 기회나 지지 기반이 만들어질 것 같다. 또 공모와 사업, 프로젝트의 형식이 조금 더 다채로워질 수 있고 지역의 스토리나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채롭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참여자 C)*
>
> *"(기초문화재단으로 역할 이양은) 담당자의 니즈나 입맛에 맞는 단체들만 소수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참여자 G)*
>
> *"(역할 이양 시) 예산과 인력,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참여자 K)*

“ (편파 지원 논란이 될까 싶어) 기존에 지역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가 자치구 지원사업에 못 넣는 상황도 발생한다.” (참여자 M)

“지역은 정치적인 것과 맞물려 있어서 재단에서 지역으로 분권해서 운영한다면 중도를 유지해서 정말 예술교육과 예술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예술 활동과 예술교육의) 순수한 색깔은 퇴색되고 이용당하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문화재단이 이 작업에서 손 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참여자 O)

“(예술교육사업의 지역화에는) 개인적으로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OO문화재단에서 OO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OO문화재단은 서울문화재단에서 허용하는 것보다도 훨씬 경직되어있다. 예산의 사용도 그렇고,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서도 그렇다. 훨씬 경직되어있어서 서울문화재단에서는 허용되는데, OO문화재단에서는 허용이 안 돼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익명 요구)

2)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인식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상징성, 선도성이 있으며,
현장 및 예술가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전문성이 가장 두드러진 정체성

■ 예술교육 분야에서 선도적 기관으로서의 서울문화재단 및 서울형 예술교육이 현장에서 인식되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

○ 서울문화재단은 중앙정부(문체부)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TF가 시작되던 시점에 이미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맹아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이후에도 학교예술교육TA 사업 등으로 전국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서 선도적 조직으로 자리매김해왔음.

○ 다만 이와 같은 선도성이 정책 단위, 행정 단위에서 서술되고 공유되는 것 외에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특히 TA사업 참여자와 사회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참여 예술가가 인식하는 내용의 차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함.

■ 내용과 철학으로서의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은 TA 유경험자를 제외하면 거의 인식이 안 됨.

○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의 브랜드라고도 할 수 있는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의 개념과 의미는 TA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예술교육가 FGI에서는 공통으로 확인되었음.

○ 다만 그 확인이 “미적체험 교육, 통합예술은 무엇이다”와 같은 구체적인 형태의 진술은 아니었으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술교육에 관한 생각이 바뀌었다”, “미적체험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과정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등과 같이 고전적, 전형적 예술교육과의 ‘차이’로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음.

○ 이에 반해 TA 경험이 없는 예술교육가의 경우에는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을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의 정체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 또, TA 경험과 사회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모두 있는 예술교육가 중에서는 통합예술교육이 깊이 있는 미적체험에 걸림돌이 되는 피상적 방법론/형식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통합'의 의미, '미적체험'의 의미가 예술교육 현장에서 잠정적 합의 개념, 또는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못하더라도 작동은 하는 암묵지로 자리잡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예술교육 전문성, 현장과의 파트너십 태도가 가장 두드러진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의 정체성
○ 미적체험과 통합예술교육이 모호하고 개인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는 것과 달리, 예술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재단 직원의 현장 이해도, 전문성, 파트너로서의 태도 등에 대해서는 대다수 FGI 참여자가 분명한 인상과 인식이 있었음.
○ 이는 서울문화재단 사업 참여 경험과 비교하여 앞서 논의한 기초 자치구로의 무게 중심 이동에 관한 우려를 두드러지게 하는 요인이기도 함.

■ 대외적으로 '신뢰도' 보증으로 작동하는 브랜드로서의 기능
○ FGI 참여자 응답을 통해 발견한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일종의 품질보증 인증과 같은 방식으로 서울문화재단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었음.
○ 예를 들어 서울 내 기초 자치구에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할 때, 혹은 타 광역 시도의 문화재단과 협업할 때, "서울문화재단 선정 사업" 혹은 "서울문화재단에서 허용하는 방식"은 사업 실행을 원활하게 만드는 기반이나 근거로 작동한다는 얘기가 많았음.
○ 이런 맥락에서 서울문화재단이 서울 내 기초문화재단 및 전국의 타 문화재단의 전범이 되며 현장 친화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곳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그와 같은 상징성의 가치와 예시를 더 크게 알리고 확산해주기를 바라는 의견도 다수 있었음.

■ 실험성, 선도성, 그리고 경쟁적 분위기
○ 이와 함께 서울문화재단이 항상 새로운 것을 좋아하며, 자연스럽게 경쟁을 부추긴다고 인식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음.
○ 이런 상황은 한국의 문화예술 자원이 서울에 과밀화된 상황과 직결되는 것으로 제한된 자원을 운용하는 서울문화재단이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이라 볼 수는 없지만, 예술교육가 입장에서는 참신성, 실험성 등의 기획력을 어필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으로는 서울문화재단 사업에는 선정이 어렵다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음.
○ 특히 고전적, 전형적 예술교육이 '기본기'로서의 가치와 경험의 밀도를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예술교육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 고전적 예술교육 접근이 홀대받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음.
○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다르게 보면 고전적, 전형적 예술교육을 예술의 동시대성과 의제 맥락에서 재구조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의견이기도 함.

"(서울형 예술교육은) 영역의 융합을 강조하고, 창작에 조금 더 개방적이라고 생각한다. (서울형은) 조금 더 열린 것을 지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참여자 A)
"개인적으로 서울문화재단과 일을 할 때는 제한을 많이 두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재단이) 지향하는 부분, 목표하는 바에 있어서 지지하는 입장으로 방향을 같이 모색하려는 열려있는 자세로 같이 접근해주는 모습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다. 또한 두드러지게 느낀 것은 상대적으로 일 처리가 굉장히 깔끔하다는 것이다." (참여자 B)

"개인적으로 사업을 몇 차례 경험하면서 느꼈던 바는, 담당자들의 태도나 대화의 방식이 다른 곳과 다르게 친예술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조금 더 열려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과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업 할 수 있게 열어주는 부분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서울문화재단의 공모사업을 일차적으로 지원한다. (참여자 C)

"서울에서 만들어졌다, 서울에서 시작했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다. 공연을 가거나 (교육)프로그램을 가거나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혹은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서울이 앞서 나간다는 것이 분명히 있다." (참여자 I)

"(재단의 사업에 참여하려고 할 때) 예술가 입장에서 보면 너무 튀는 거 아니야 할 정도의 프로그램만 선정이 될 것 같고, 기본기를 다져오고 정도(正道)를 걸어온 사람들은 (선정되기가) 어려운 느낌이 있다." (참여자 O)

"계속 무엇인가 다른,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하도록 제도가 부추기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을 부추기고 더 열림을 지향한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서울형 예술교육은) 조금 빠르게 경쟁하는 느낌이 강한 것 같다." (참여자 Q)

3) 학교예술교육TA와 사회문화예술 공모사업 비교

학교예술교육TA사업과 사회문화예술 공모사업의 뚜렷한 성격차,
우열이 아닌 장단점 영역의 차이

■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사업의 상징인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과 비교하여,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등의 공모사업 프로그램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

○ 제2차 종합계획에서 광역단위 자율 기획의 핵심은 중앙정부(문체부) 차원에서 가이드가 배포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등의 사업을 지역의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문화재단은 수탁 사업으로 진행한 영역을 재단의 고유 브랜드로 인식되어온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 성격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음.

○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 사업인 학교예술교육TA 참여 경험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로 대표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에서의 예술교육가 경험을 비교해보고, 각 사업/영역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두 분야 사업의 경험이 모두 있는 FGI 참여자에게는 두 분야 사업의 경험과 장단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였음.

■ 공교육의 제도적 특징과의 결합이 핵심 특징인 학교예술교육TA
○ FGI 참여자들은 TA사업의 두드러진 장점이자 특징을 통합성, 체계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통합성에 관한 인식은 학교예술교육TA 사업을 통해 타 장르 예술교육가와 협업, 과학/수학 등 예술 분야에서 접점을 만들기 어려운 교과 교사와의 협업 등 기존의 활동 장르 범주를 넘어선 관계 형성 및 통합 프로그램 개발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고 볼 수 있음.
○ 체계성에 관한 인식은 미적체험을 경유하여 각 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과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목표의 명확성, 과정의 구체성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임. 이는 수행 목표 중심으로 교과연구 및 교안 개발 활동이 어느 정도 일상화된 공교육에서 나타나는 (경직성인 동시에) 체계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반면 학교예술교육TA 사업의 단점도 장점을 만드는 토대에 함께 뿌리를 두고 있음. 즉, 공교육이 가진 경직성이 체계성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예술교육의 기획과 운영의 한계가 되기도 함. 예를 들어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단체가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 규모에 따르게 된다거나, 교실 공간으로의 공간적 제약, 학기 중 진행으로의 시간적 제약 등이 이러한 요소임.
○ 즉, 교육장소, 대상 인원 규모, 참여자 모집 방식, 진행 회차, 수업 목표 등 많은 부분이 공교육 체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있는 상황에서 TA는 최대한 수업 내용 개발 및 실행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것이 장점인 동시에 제약이 된다고 볼 수 있음.

■ 사업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책임 부담과 기획의 자율성이 있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 학교예술교육TA 사업과 비교할 때 사회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의 경우 기획 및 운영의 자유도는 높으나 참여자 모집/관리, 장소 협조, 우발적 상황에 대한 대응,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등 사업 운영 관련 모든 책임과 부담이 단체에 부과된다는 점이 특징이었음.
○ 다만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교과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 내용/주제의 자율 선정 가능성, 장소 및 운영 시기 선정의 자율성, 상대적으로 큰 예산 등의 여건을 활용해 실험성 있는 기획을 시도하기 더 용이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음.
○ 이렇게 볼 때, 학교예술교육TA 사업은 파트너로서의 교육청/공교육이 가진 제도적 특성(경직성인 동시에 안정성)이 영향을 크게 준다고 볼 수 있고, 부처 간 협력형 사업과 비교해 예술 전문 기관으로서의 재단(문체부) 단독 사업이 예술의 실험성과 창의성을 실현하기에는 더 용이한 조건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모사업의 경우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공교육TA의 경우 예산과 재료 준비에 있어서 다소 제한적이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풍족해지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공간의 영향도 많이 받았는데, ‘모두의 학교(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산하 시설)’에서 예술교육을 했을 때 같은 콘텐츠지만 그냥 학교 교실에서 했을 때와 아이들의 자율성과 표현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난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서는 어떤 사업안을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원하는 분야를 융합하고 하나의 수업으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연구 시간이 충분했었고, 실현 가능성 유무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었다. TA에서는 다양한 장르와 분야의 전문가와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참여자 B)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참여자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거나, 참여자들과 소통하며 속도를 조율하고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교보재 사용도 자유롭고 예산의 사용도 한도 안에서 자유롭다.” (참여자 C)

“(TA활동에서는) 통합 예술교육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장르 간의 공통적인 요소나 주제를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주제를 다룰 수 있고, 노하우가 체계화되어 있다. 공유하는 과정에서는 창작의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요소를 중심으로 공유하고 단계별로 어떻게 질문을 넣어서 주제의 의미를 심화시키고 발전시킬지 고민하여 체계화시키는 연구체계가 존재한다.” (참여자 D)

“(TA의) 교과 연계 수업에서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공모사업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발견하는 지점들도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만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참여자 D)

“재단(TA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미적체험이라는 철학과, 다른 장르 선생님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장르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것이 개인적으로 창작의 소재가 될 수도 있으며, 함께 연구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다른 곳에서는 얻지 못하는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자 E)

“공모사업의 경우 교과가 빠지다 보니 조금 더 자율적이고 프로그램 개발에도 조금 더 자유롭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분야의 환경에서 다양하게 수업을 시도할 수 있다. (중략) 공모사업은 굉장히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참여자들이 지속적 참여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프로그램의 개발 단계에서 인원에 대한 파악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사전에 조사하고 나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E)

4)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통합예술교육 구현 위한 R&D 필요성

■ (앞서 “다.” 내용에 이어) TA 경험이 없는 공모사업 참여 예술교육가의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에 관한 인식도 추가로 조사

○ TA사업 참여자를 제외한 다수의 인터뷰이가 통합예술교육 실행이 피상적 수준에서의 통합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함. 이런 답변은 다원, 커뮤니티 아트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연극, 무용 등 장르적 속성이 강한 단체에서 좀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었음.

○ TA사업 참여자들의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과 비교하면, 다양한 배경의 예술교육자 및 교과 교사와 프로그램 R&D 과정을 필수로 거치는 학교예술교육TA 사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통합 장르적 접근을 위한 R&D의 기회를 공모사업에서 수행할 여건이 (최근 제외) 충분하지 않았던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상황이 반영된 인식이라고 볼 수 있음.

○ FGI 참여자 중에서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기획자나 주강사에게 익숙하지 않은 타장르와의 협업은 다루기도 쉽지 않고, 타장르에 대한 낯설음, 미숙함 등의 문제로 인해 예술교육 활동 경험을 완성도 있게 디자인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받는 것 같다는 인식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음.

○ 이런 상황에서 연극, 무용 등 장르의 성격과 방법이 잘 확립된 '전형성'의 토대 위에 있는 예술교육가의 경우에는 어설픈 통합이 아닌 '잘 다룰 수 있는 방법론'으로 예술교육 경험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 더 나은 접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 즉, 재단의 예술교육 정책 철학이자 지향인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이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에서도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 내 제한된 수준의 R&D 허용을 넘어선 본격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 R&D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우리 단체는 다(多)회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조건 30회 이상으로 진행하는데, 30회를 10회씩 잘라서 장르 별로 진행하기에는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수혜자들에게도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 단체의) 철학과 맞닿는 부분에서 이야기하자면 문화예술교육을 하러 온 친구들에게 장르적 교육을 하고 싶지 않다." (참여자 M)*
>
> *"타 매체 사람들을 만나서 협업할 때 얼마만큼 시너지가 날 것인가 생각해보면, 깊이 있게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Q)*

5) 예술교육과 예술창작의 구분 또는 관계 이슈

■ 예술교육 전업이 아닌 '교육하는 예술가'라는 개념에 관한 예술교육가의 인식 확인을 위한 질문

○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예술교육이 교육의 소재로서의 예술이 아닌 예술 경험(미적체험)을 통한 교육의 성격을 더 강하게 드러내기를 지향하는데, 이는 예술(창작)의 경험과 노하우가 예술교육 영역으로 전이/확장하는 것에 대한 기대이기도 함.

○ 이러한 재단의 지향이 예술교육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식되고 실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예술교육과 예술(창작)작업은 구분되는 일이라고 보는지"를 질문함.

■ 교육(자)의 책임성 인식이 강할수록 예술 활동과 교육을 강하게 구분하는 경향

○ 응답자의 활동 장르나 단체 특성에 따라 입장이 나뉘는 특별한 경계를 발견하기는 어려움.
○ 다만 예술교육과 예술창작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주로 예술이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에 대한) 무책임한 방기나 예술가적 시선/사고방식의 도제적 강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한 것이었으며, 타인(교육 참여자)에 초점을 두느냐, 작업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교육과 창작이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음

■ 공동창작 방식이 낯설지 않은 장르인 경우, 혹은 예술작업 자체가 탈장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예술과 교육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기도 함.
○ 연극처럼 극단에서의 창작 프로세스와 예술교육에서의 회차별 진행 프로세스 자체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장르의 응답자 중에서는 예술교육과 예술창작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변한 경우가 있음.
○ 그 외 커뮤니티 아트와 같이 예술(창작)작업의 경계 자체가 장르 전형성의 범주 밖에 있는 경우에도 교육과 창작(작업)의 구분이 불명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이런 경우에는 교육 참여자를 일종의 공동 창작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의 공동 창작자는 프로 예술가 파트너로서의 공동 창작자가 아닌 '함께'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수평적 파트너로서의 개념에 가까움.
○ 또, 예술교육가가 교육 참여자와 '협업'하는 가운데, 예술에 대한 열정이나 활동의 내용에서 자극과 영감을 받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예술교육 활동이 예술창작 활동과 내용적으로 직접 연관이 없는 경우라도 두 활동에서 상호 시너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교육 참여자들을) 공동 창작자라고 생각한다. 아이들과 같이 찾고 같이 만들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같이 만든다고 생각한다. 기본의 큰 틀은 가져가되 거기서 채우는 것은 아이들이다." (참여자 A)

"예술교육을 예술작품으로 접근한다면, 학생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교육에 있어서 미흡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도 그렇게 접근해서 교육하는 선생님들을 모니터링하면 일종의 주입식 예술교육이 되어버리는 것을 목격했다. 청소년기에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학생들에게 예술가의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예술교육의 형식을 파괴하면서 수업한다거나 레크레이션이나 놀이식으로 수업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도 분명히 예술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육자의 입장에서 마무리에 조금 정리함으로써 교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술과 예술교육은 서로 상호적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둘을 병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더 긍정적인 예술교육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B)

"(예술교육과 예술창작은) 개인적으로 같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예술교육을 준비하는 작업의 형태와 과정을 보면 예술 창작 작업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여자들을 (예술)작업자라고 말을 많이 한다. 그들을 예술가의 동료로서 같이 만나서 작업한다는 시선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

에 평등하다는 시선을 가지고 함께 작업을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C)

"교육활동을 할수록 창작에 대한 욕구가 자극된다. 교육활동이 교육활동으로만 끝나지 않고 개인적인 이야기의 콘텐츠로 발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시너지 작업 때문에 TA 활동을 병행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아마 이것(TA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만으로는 만족감을 못 느낄 수 있다." (참여자 D)

"예술창작자는 자신의 작업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예술교육자는 교육 대상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 (참여자 E)

6) 예술교육 참여자의 활동 지속과 그림자 노동의 딜레마

■ 예술교육가가 인식하는 고관여자의 특성과 관여도 지속을 위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

○ 본 질문의 응답에서는 고관여자의 특징에 대한 전형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경향이 있었음. 예를 들어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결국 고관여자가 되는 것 같다는 등의 응답이 그러함.

○ 다만 본 질문에서는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열의를 보이는 고관여자가 있을 때, 이들의 열망을 다음 단계로 혹은 지속 활동으로 이어가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한 질문의 의도였음.

■ 향유하는 서비스로서의 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좋지만, 지속 활동을 위한 자발적 헌신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그림자 노동에 대한 거부감

○ 대다수 인터뷰이가 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지속적 활동을 위해서는 공모사업 등의 프로그램 참여 이후 시민예술동아리, 향유 커뮤니티 등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하지만 그런 커뮤니티의 유지를 위한 조직화 활동, 기획 활동, 공간 대관 및 예산의 확보 등의 그림자 노동과 자원 수급의 문제를 참여자의 자발성에만 기대어 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참여자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고 활동에 대한 열의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 예술교육가는 그런 열의와 관계가 유실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공모사업 이어붙이기를 하는 방식으로 활동의 지속성을 만들고 있었음.

○ 자발적인 커뮤니티 형성이나 공모사업 연속 지원 외, 타 프로그램이나 기관으로 연계 작업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음.

■ 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가 형성되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커뮤니티의 안정성과 예술을 향한 열망 위에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얹히는 것에 가까움

○ 꽤 오랜 시간 유지되고 있는 사진 커뮤니티를 직접 만나본 결과, 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커뮤니티 위에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올려진 경우였는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커뮤니티 경계 밖 타자를 만나는 계기는 가질 수 있었지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다시 기존 커뮤니티 경계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음.

○ 다만 이는 단일 단체/프로그램에서의 사례이며, 특히 해당 사례가 협업 작업보다는 개별 작업이 중심이 되는 사진 장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연극 등 공동창작을 장기적으로 경험하는 예술교육 활동은 커뮤니티의 형성과 관련하여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

>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참여자들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생활문화예술 동아리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느꼈다. 또 작년부터 참여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료를 공유하면서 관계를 이어오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대표를 하기는 싫어하는 편이다." (참여자 J)*
>
> *"(활동 지속을 위해서는) 공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유지가 되는 것 같다. 공공성을 계속 부여하고 친밀감을 형성하고 나면 화기애애하게 모임을 지속한다. 그런데 단체가 그 부분에서 슬쩍 발을 빼기 시작하면 모임이 다시 정체되는 느낌을 받고 있다." (참여자 J)*
>
> *"(단체의 입장에서) 관계 맺은 사람들(참여자들)과 계속 프로그램은 하고 싶은데, 재단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수혜를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할 것 같다." (참여자 L)*

3. 기초문화재단 담당자 FGI 결과

가. 기초문화재단 예술교육 현황 분석의 배경 및 주안점

1) 분석 배경

■ 서울문화재단의 책임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실행체계의 광역 단위 지역 분권화 상황에서 서울문화재단-기초문화재단 관계 설정 방향 모색 필요

○ 중앙정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전달체계 기능을 상당 정도 수행하던 광역문화재단이 지역분권화 기조 아래 광역 문화예술교육 체계의 자체적인 기획 및 실행 주체가 됨에 따라, 서울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에서 서울문화재단의 책임성이 더 커지게 되었음.

○ 같은 맥락에서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의 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 실행 기능 이상으로, 혹은 상당한 정도로 정책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기초문화재단은 서울문화재단의 정책 기능을 서울 각 지역에서 실행하는 주요 파트너이자 매개자가 됨.

○ 이런 맥락에서 서울문화재단이 지향하는 예술교육 정책 방향이 자치구 현장, 더 구체적으로는 자치구 문화예술교육 생태계/관계망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확인하고자 기초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담당자 FGI를 진행함.

2) 분석 주안점

■ 문화예술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문화재단의 여건 파악

○ 기초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실행하는 여건, 목적과 목표, 애로 사항,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요구 등을 확인

■ 생활권

○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 정책의 지향이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에서 실제로 이해되고 실행되는 양상을 분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특히 아래 두 가지 측면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음.

- (기초문화재단, 도서관, 복지관 등) 예술교육 실행체계이자 지역 공급망/생태계로서 자치구 내 주체 간 협력 양상은 어떠한가?
-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이 기초 단위 예술교육 생태계에서 수용되는 양상은 어떠한가?

나. 기초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현황 분석 결과

1) 보조금 사업 중심의 불안정한 문화예술교육 실행 환경

■ 전담 부서 및 실행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불안정한 대안으로서의 보조사업

○ 기초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독립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기보다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의 지역사업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소재, 계기 등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실제 사업 실행체계에서도 기초문화재단 자체 출연금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곳도 있었지만, 대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등 외부 기관의 공모/보조사업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임.

○ 본 연구 2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참고하면,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은 법적 근거를 가진 상하향 전달체계가 아니며, 서울문화재단이 능동적으로 기초문화재단과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 단위로서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기초문화재단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음.

○ 이렇게 예술교육 정책의 전달체계는 사실상 없고, 예술교육 사업으로 명명해서 협력사업을 기획/개발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기초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실행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게 활용 가능한 보조사업을 매개로 하는 것 외에 마땅한 직접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임.

■ 불안정한 여건의 영향으로 자치구 문화예술교육 토대 구축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 기획 및 시도는 쉽지 않음.

○ 조례 등 법적 근거나 행정 전달체계의 확립이 없는 상태에서 해마다 바뀔 여지가 있는 공모사업에 자원을 의지하는 상황은 자치구 문화예술교육 토대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의 어려움을 초래함.

○ 사실상 당해연도, 길면 2~3년 정도의 호흡으로 지역의 상황과 외부 자원을 연결하면서 담당자의 상황 판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상황임.

○ 또, 이러한 상황이 만드는 곤란한 상황 중에는 지자체 내 예술교육단체와 기초문화재단이 지역특성화 사업이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에서 선정 경쟁자로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2) 자치구 내 유관기관 및 단체의 연계 효과

제한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호혜성이 인접성을 토대로 작동

■ 인접성 기반 빠른 소통과 협력의 관계망

○ 생활권으로서 각 자치구 경계 안에는 문화예술교육 실행 협력 기관으로서의 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문화원, 구립/공립 도서관, 작은도서관 등)과 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평생교육시설 등), 민간 문화예술 단체 및 문화예술교육 단체, 마을거점 공간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이 인접해있음.

○ 이들 각 사회적 기능/시설은 기본적으로는 고유 기능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동의 지역 현안 및 의제를 두고 협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지역적 인접성, 지역사회 이슈의 공

유는 빠른 소통과 공감, 실무 추진의 관계망으로 작동함.

○ 예를 들어 한 자치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예술교육 수요가 있었는데, 해당 이슈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관이 기초문화재단과 협력 관계를 맺고, 한 기관에서 자원 충당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상대 기관에서 이어받는 등의 호혜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었음.

○ 이는 지역 이슈와 수요에 대한 공감대, 정보 공유의 신속성, 같은 자치구 내 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잦은 소통이 가능한 인접성 등을 토대로 물리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생활권 단위의 강점과 가능성으로 볼 수 있음.

3) 지역의 실행 기반으로서의 자치구 거버넌스의 중요성

■ 지역 내의 작은 공간들을 연결하는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의 필요성

○ 서울문화재단의 권역별 예술교육센터와 달리 기초 지자체 및 기초문화재단 상황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독립적인 물적,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구 내 상징성 있는 문화예술 전용 거점 공간의 조성은 쉽지 않다고 예상할 수 있음.

○ 하지만 자치구 내에는 문화예술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적 공간들이 다수 있으며, 신규 조성 또는 중대 규모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이런 작은 공간들을 연결하는 매개 작용과 운영 거버넌스가 더 필요하다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음.

○ 작은 문화적 공간들을 연결하는 거버넌스는 공간뿐 아니라 협력 주체의 문제도 중요함. 행정가뿐 아니라 현장에서 문화예술 공간을 운영하거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예술교육가들과의 협의체 등 매개를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함.

4) 광역-기초 간 역할에 대한 인식

빠른 실행과 변경 등 현장 맞춤 실행 역할은 기초문화재단이 담당,
서울문화재단은 중장기 정책 기능, 방향설정, 시민 인식 개선 활동을 수행하기를 기대

■ 행정체계 및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현장에서의 사업 수행을 위한 공통 인식 기반 마련을 서울문화재단이 수행하기를 기대

○ 전술한 바와 같이 기초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구청 또는 기초문화재단 담당자 개인의 해석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상황임.

○ 때문에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라는 성격을 분명하게 표방하는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조례 등의 법적 근거, 행정체계 등의 구축이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공통의 인식 기반을 형성해 개인의 자의적 해석이 너무 휘둘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이 부분은 현장 실행력 중심의 강점을 가진 기초문화재단이 아닌 정책 기능 역할을 맡고 있는 서울문화재단이 담당해주기를 기대함.

○ 특히 이러한 인식 형성 작업이 자치구 공무원이나 기초문화재단 내 집행부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함.

5) 자치구 문화재단의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 실행 조건

자치구 기초문화재단이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통합예술교육 R&D가 필요

■ 생활문화사업과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성격 구분이 모호한 생활/지역의 맥락에서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을 기초문화재단 주도로 실행하기 어려운 여건

○ 전술한 바와 같이 자치구 내 협력망 안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생태계가 별도로 자립적 순환을 하기 쉽지 않고,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주민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의 방법론적 측면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음.

○ 이런 맥락에서는 생활문화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업의 뚜렷한 성격 구분이 어려우며, 구분의 필요성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게 됨.

○ 이와 같은 상황은 참여자/향유자로서의 지역 주민의 경험과 관점을 중심으로 사업이 배치되고 실행되는 측면을 보여주며, 이 맥락에서 미적 경험을 다루는 전문가로서의 예술가의 위치와 역할은 약해지기 쉬움.

○ 실제로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이라는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지향이 기초문화재단 담당자에게 피부에 와닿는 개념이나 지향으로 이해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FGI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

■ 자치구 내 협력망에서 문화예술교육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기초문화재단 R&D 지원의 필요성

○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내 여타 기관/시설이 문화예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기초문화재단이 유력한 파트너로서 문화예술 전문성을 매개하고 컨설팅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매개와 연결이 인적, 내용적 자원의 단순한 연결에 그치지 않고, 기초문화재단 주도로 자치구 내 현안과 수요를 통합예술 교육 맥락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별도의 R&D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R&D 사업은 자치구 내 문화예술교육 공급망(supply chain)으로서의 지역 생태계와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 정책이 만나는 과정을 기초문화재단이 매개자로서 주도하기 위해 요구되는 바임.

4. 문화예술교육 정책 전문가 FGI 결과

가. 문화예술교육 정책 전문가 FGI 주안점

■ 타 그룹 FGI의 주안점을 재검토하는 질문으로 구성

○ 문화예술교육 정책 전문가 그룹 FGI에서는 타 그룹에서 진행한 FGI의 주요 질문에 대한 정책적 시각의 해석 및 재검토를 주안점으로 하였음.

○ 이를 위해 FGI 진행 및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이슈에 주목함.

-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철학인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의 유효성 및 의견
- 예술교육과 예술창작의 구분 또는 연결에 관한 의견
- 지역화를 포함한 현재의 정책환경에서 서울문화재단의 역할

○ 특히 다양한 연구와 심사, 모니터링 등을 통해 다수 문화예술단체와 현장을 만나는 경험치를 바탕으로 현장의 인식에 대한 관찰자로서의 의견도 주문함.

나. FGI 주요 결과

■ 여전히 유효한 가치이지만 슬로건에 가깝게 기능하는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

○ 미적체험, 통합예술교육은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을 상징하는 개념이며, 익숙하게 언급되는 것에 비해 실질적으로 좋은 수행 사례가 풍부해지거나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 일종의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의 표제라는 인상을 주며, 예술교육 단체들도 이 개념에 관해 크게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예술교육과 예술창작의 성격 구분 이전에 두 영역 사이의 횡단을 촉진하는 제도적 토대 마련 필요

○ 문화예술교육 맥락에서 예술교육과 예술창작이 구분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에서도 관점에 따라 의견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음.

○ 다만 그것이 구분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실질적으로 창작 활동 중심의 예술가가 교육 활동으로 넘나들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제언함.

- 예를 들어 대다수의 현장 예술가가 생업의 필요 등 다양한 이유로 교육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 유형에 예술교육은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라, 제도적으로 예술교육이 예술 활동이 될 수 있는 토대가 없다고 볼 수 있음.

○ 공모사업 영역에서도 외적으로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수업 시수 등의 형식보다는 프로젝트 중심 접근 등을 예술교육 공모사업에서 수용하는 등의 유연성 발휘가 필요함을 제언함.

■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의 문화예술교육에서 정책 기능 담당 필요

○ 타 FGI 그룹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정책 전문가 그룹에서도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의 문화예술교육

에서 정책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함.

○ 구체적으로는 전용시설 사업 등 공간 거점 조성 및 운영, 기초 자치구의 예술교육 협력망 구축, 문화예술교육 인식 및 인지도 제고 활동, 관련 인력 재교육 등 연수/교육 기능 등이 있음.

제3절 소결

◎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센터의 역할

사업 간, 주체 간 연결 등 다양한 연결의 허브로서의 기능 및 전문/전용 예술교육 시설로서의 거점 센터

■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센터는 무엇을 매개하는가, 혹은 매개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언

○ 설문을 통한 고관여자 분석, 현장의 예술교육가 FGI 분석, 예술교육센터 현장 방문 분석 등을 통해 볼 때, 제2차 기본계획 기간 중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센터는 전문화된 문화예술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내용적 정체성 기반의 연결/매개 플랫폼이 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초함.

- 선행연구인 <서울형 예술교육 2.0>에서는 자치구에서 조성 중인 지역 센터 외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센터 역시 물리적, 지리적 접근성 기반의 생활권 시설의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으나, 현재 조성된 시설 숫자 및 향후 조성될 시설의 숫자를 볼 때, 생활권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94)]
- 2장의 정책분석에서 확인한 수요, 3장의 고관여자 분석에서 확인한 수요를 보면 저관여자, 고관여자 구분 없이 모두 문화예술 전용/전문 시설에서의 경험을 희망하고 있으며, 고관여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요구가 더 분명하게 확인됨. 예술교육센터가 이와 같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공간적, 환경적 여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봄.
- 예술교육가 입장에서도 문화예술활동 경험을 지속하고자 하는 참여자의 열망을 연결하기 위한 단체 외부 자원을 찾기 어려운데, (비록 모든 수요에 대응하지는 못하더라도) 예술교육센터가 정체성이 분명한 프로그램을 상설 기획/운영하고 있으면 후속 활동으로의 연결이 용이해질 수 있음.

■ 서울문화재단 내 사업 간 횡적 협력체계 개발의 필요성

○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실 산하 각 팀은 올해 서울예술교육페스티벌을 함께 개최하는 등 팀 간 횡적 협력을 위한 노력을 재단 종사자 단위에서 실천하고 있음.

○ 다만, 현장의 문화예술교육자 FGI 분석에서 나타난 바로는 본인이 참여하는 공모사업 외 재단의 팀 단위 사업 경계를 넘어서는 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였음.

○ 현재 예술교육센터의 성격과 기능 명료화, 부족한 자원과 고도화되는 수요에 대한 대응은 개별 사업 단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사업간 연계 효과를 통해 일정 정도 해소하는 것이 적합함.

○ 이를 위해서는 재단 내 여러 사업 부서가 함께하는 통합사업, 부서 범주를 뛰어넘는 연계 사업 등 정보 공유와 협력에 기반한 사업 운영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94) 제2차 기본계획 기간 중 서울문화재단이 예술교육센터 5곳을 위탁 운영한다고 했을 때, 국토연구원이 사용하는 개념을 기준으로 대생활권 범위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지리적 영역을 각 센터가 거점이 되어 포괄한다고 봐야 하며, 이런 상황에서 접근성 기반 생활권 개념은 적용에 무리가 있음.

◎ 생활권 공급망 생태계/매개 기능으로서의 기초문화재단

■ 예술교육가(단체)에게 '지역' 및 지역화의 의미

○ FGI에 참여한 다수의 예술교육가는 프로그램 자체의 성격이 커뮤니티 아트 성격을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지역(생활권 지역, 자치구 범위 등)'이 활동 및 단체의 지속가능성의 토대가 되지는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음.[95)]

○ 이러한 인식은 창작 중심의 전문예술단체 성격이 강할수록 작품의 유통망이 지역 단위, 생활권 단위가 아니라 전국 단위 예술 시장을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생기는 인식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문화예술교육 정책 맥락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예술교육가(단체)가 지역 생태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점 형성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 2장의 분석과 4장의 기초문화재단 담당자 FGI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치구 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 실행체계는 법적 토대나 행정체계가 매우 빈약한 상황에서 담당자의 열의 또는 판단에 기대는 임의적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정 지역에 터해 오랜 시간 지역사회 관계망의 일원으로 활동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사회와 '관계' 자체가 어려운데, 이러한 상황이 예술교육가(단체)에게 지역에 대한 친밀감이나 파트너 관계 인식 등을 가지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 공급망으로서의 지역 생태계

○ 지역 생태계에 관한 인식과 입장의 차이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교육 공급망으로서의 지역 생태계와 접속이 전혀 없다면 프로그램의 운영, 참여자의 모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즉, 자치구 또는 생활권으로 부르는 지역 생태계에는 그 나름 작동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급망이 있음.

○ 다만 이러한 공급망이 돌아가는 체계는 전문화된 예술 작품 시장과 같은 상품 유통망과 다른 방식이며, 외부자에게 그 형태와 작동 방식이 잘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앞서 예술교육가(단체)에게 지역이 잘 인식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이에 해당함.

○ 이렇게 볼 때, 자치구 기초문화재단은 생활권에서의 문화예술교육 공급망을 두텁게 하고, 가시화하고, 공유 정보화하는 매개 작업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코로나 기간 중 서울 내 자체 공간을 두고 예술작업을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 예술가/단체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공급망의 가시화는 서울 내 소재지나 활동 거점을 두지 않은 다수의 예술교육가(단체)가 지역(서울 내 자치구)과 연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이런 관점에서 "자치구 예술교육 기반 구축 지원사업"과 같은 사업이 관련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했다고 할 수 있음.

---

95) 반면, 선행연구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분석을 위한 기초연구(서울문화재단, 2020)」에서 다수의 FGI 응답자가 지역이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지속성과 운영의 자생력 확장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러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형 예술교육 가치 확산을 위한 R&D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의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의 확산을 위한 R&D 기능 강화

■ 고관여자 분석을 통해 확인한 통합예술교육에 대한 수요

○ 고관여자 분석을 통해 확인한 고관여 유형에는 단일 장르 창작 지향의 성향으로 나타나는 그룹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통합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서울문화재단이 그간 추구해온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이라는 철학과 지향이 현재와 근미래에도 유효하다는 것의 의미함.

■ '통합'이 상대적으로 모호하게 인식되는 문화예술교육 현장

○ 위와 같은 수요 확인에도 불구하고, 학교예술교육TA 경험자를 제외한 다수의 예술교육가는 통합을 원론적으로는 긍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호한 개념으로 이해하거나, 때때로 피상적, 물리적 결합에 대한 압박으로 느끼기도 하였음.

○ 학교예술교육TA의 경우에도 통합예술교육을 교과연구 과정에서의 타 분야와의 통합 경험을 통해 진술하고 있었는데, 이는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결과물로서의 통합에 관한 모델보다 통합을 만드는 과정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유경험자에게서 무경험자에게로 쉽게 전이되지 않는 특성이 있음[96)]

■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R&D 기능, 정책, 사업의 강화

○ 이렇게 볼 때, 서울문화재단의 통합예술교육 철학 및 지향은 상대적으로 학교예술 범위에 국한되어서 구현되고 발달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철학과 역량이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으로 확산, 전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통합예술교육에 대한 고관여자·저관여자의 공통된 수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의 주체가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FGI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던 개별 장르 전문성/전형성으로의 회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교육가에게 안정적 도구로서의 방법론을 확장하기 위한 지원이 없을 때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며, 때문에 통합예술교육 철학의 선도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서울문화재단 주도의 역량 확산을 위한 R&D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됨

○ 또, 제2차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유아 및 소외계층, 학교 중심으로 편중된 문화예술교육을 국민/시민의 보편적 경험으로 확대하는 것인데, 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확대를 시사하는 것임. 그런데 문화예술교육 경험 범위를 보편적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과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과제가 통합예술교육의 방법론 및 성과, 지향과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지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의 통합예술교육 개발을 위한 R&D 지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96) 암묵지(暗默知)의 일반적 속성이라 할 수 있음

제5장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안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1. 연구 진행 과정과 결과의 범주화

■ 본 연구는 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기간(2023~2027) 중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및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수혜자/수요자의 현황과 요구를 분석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고, 이와 관련해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및 매개 기능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보완적 측면에서 조사분석하였음.

■ 연구 초기에 수요자, 수혜자, 관여자 개념에 기초한 문화예술교육 분야 선행 연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통해 연구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데이터 체계의 부재와 구축 필요라는 과제를 즉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었음.

■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 변화, 서울이라는 도시 환경 및 사회변화,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사업 변화 양상에 대한 문헌분석을 진행하는 동시에, 문화예술교육 고관여자 분석, 매개자 분석을 병렬적으로 진행하고, 각 분석의 결과를 상호 비교하면서 결과의 해석 및 시사점 도출을 진행하였음.

■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의 핵심이 수요 기반 정책 실효성 제고가 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으로 지역화, 광역화와 재단 본부 차원의 정책 기능 강화를 확인하였음.

○ 위 3가지 방향은 과제의 이해관계자 맥락으로도 해석 가능한데, 지역화는 자치구 단위 과제로, 광역화는 거점센터 단위 과제로, 정책 기능 강화는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실 단위 과제로 유목화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의 결론을 다음과 같은 체제로 서술하였음.

○ 우선 수요 기반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거 모델로 제안하는 고관여 유형 기반 모델의 내용 및 정책 시사점을 종합하였음.

○ 다음으로 제2차 기본계획 기간 중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요 기반 정책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을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고 구조화한 과제 체계를 제안함.

○ 다음으로 구조화하여 제시한 과제 체계의 세부 내용인 자치구 단위 과제, 예술교육센터 단위 과제,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실 단위 과제의 세부 내용을 기술함.

○ 다음으로 제2차 기본계획 기간 중 재단 차원에서 실행해야 하는 공모 지원사업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을 제안함.

○ 마지막으로 제2차 기본계획 기간을 넘어서는 이슈이지만, 연구 초반부터 식별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제언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마무리하였음.

2. 수요자 기반 정책 실효성 제고 필요성

가. 수요자 기반 정책 실효성 제고 필요성

■ 본 연구 3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중 수요자의 현황 및 특징, 미래 수요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2019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진행된 사례임.

■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본격적인 보급 및 실행을 시작한 것이 이미 2천 년대 중반부터이며, 그간 상당한 규모의 수요자가 공공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거쳐갔음. 그럼에도 주로 공급자 중심의 정책 분석 및 설계에 머물러 있어 약 15년 정도 수요자 분석 작업의 공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의 최종 수요자 단위에서 정책 목적이 구현되는 양상에 관한 종단 데이터 수집, 분석, 검토가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그 결과가 정책으로 환류되는 것이 필요함. 즉, 정책 수혜자를 중심축으로 하여 정책 실행과 검토, 조정 및 재실행을 하는 것이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접근임.

나. 정책 개발 근거로서의 고관여 참여유형 기반 모델

1). 수요자 분포 모델에 따른 관여자 유형 분석

■ 고관여층에 관한 계량 연구는 정책 모델링에 있어 '이행단계 모델'이 아닌 '수요분포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는데 핵심적 가치를 두고 조사·분석을 수행함.

○ 이행단계 모델은 시민들을 저레벨에서 고레벨로 이행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는 모델로 주로 단계별 성장 모델로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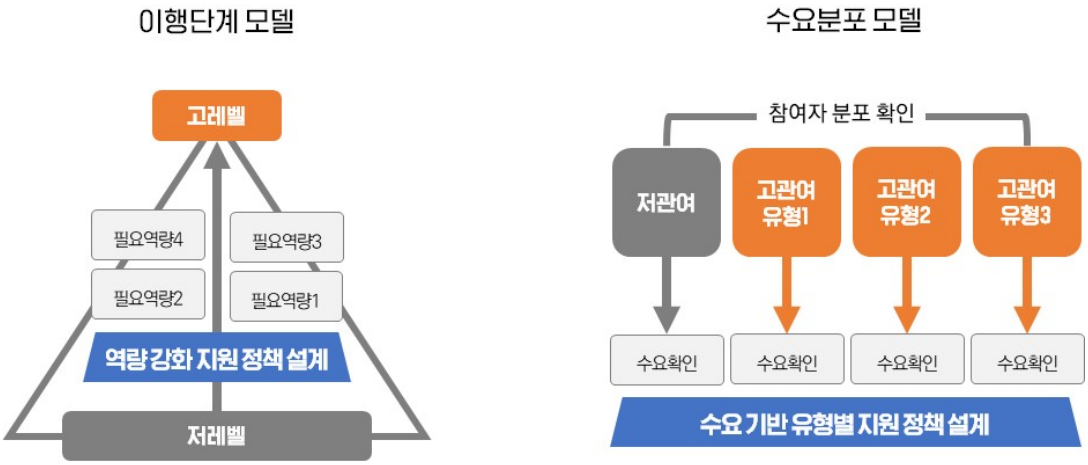
○ 교육 또는 인력양성 정책에서 이행단계 모델은 대부분 수월성 기반의 접근 방식을 택하며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의 분석·설계가 주요 연구 내용이 됨.

○ 그러나 수월성 기반의 접근은 꼭 전문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없는 다양한 시민들의 수요와 충돌하며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공공적 목표를 수립하는데 혼란을 발생시킴.

○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현재 처한 상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정책 수혜자 스스로 느끼는 정책 개선 목표를 반영하기 위해 수요자 분포에 따라 몇 개의 주요한 관여 유형을 정의함.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모델'도 본 연구와 유사한 접근을 하는 정책모델임. 시민이 현재 거쳐 가고 있는 생애주기를 파악 후, 각자 처한 생애주기의 주요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함.

[그림 79] 이행단계 모델과 수요분포 모델 비교



■ 이행이 아닌 분포 모델 중심의 방향성을 지향하면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교육 유형 경험을 토대로 저관여층과 3개의 고관여층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이 4개 유형이 요구하는 향후 수요를 반영해 각 유형의 명칭을 '저관여층', '개인창작형 고관여층', '공동놀이형 고관여층', '통합형 고관여층'이라 정함. 이후, 각 유형의 현재 상태에서 필요한 정책 지원 방향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2). 저-고관여층에 따른 수요 및 정책 방향 제언

■ 저관여층 수요 및 지원 정책 방향 제언

○ 여가 시간 활용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급 확대를 원하지만, 일회적인 보급형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 참여자들 간 관계에 중심을 둔 통합(융합)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프로그램을 요구함.

○ 저관여층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예술 활동 도구 접근성을 높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시야 확장을 목표로 하는 방향을 권함.

○ 정보 접근성은 물리적 접근성뿐 아니라 심리적 접근성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해석할 때, 집과 물리적으로 가깝지만 알려져 있지 않은 공간보다 유명하게 알려진 번화가 공간에 접근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음.

■ 고관여층 수요 및 지원 정책 방향 제언

○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일정 정도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쌓인 고관여층은 저관여층과 달리 정보공유 활동이 활발한데, 이들의 정보공유 활동을 촉진하고 저관여층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을 권함.

○ 고관여층은 저관여층에 비해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자신의 견해와 취향이 단단한 편이라고 추론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고관여층은 예술의 수월성을 갈고 닦는 데 관심이 있고 자기실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원함. 또한, 유료 프로그램에 대한 저항도 낮음. 때문에, 소수만 관심 있고 재료비 부담이 커서 공공영역에서 개설이 쉽지 않은 고급 프로그램의 비용 일부를 참여자가 유료 부담하는 프로그램

지원 방향도 검토할 만함.

○ 고관여층 중 개인창작형은 문화매니아적인 성격이 있음. 함께 어울리는 작업보다는 자기주도적인 창작에 집중하려는 욕구가 큰데 단일장르 기반이 아닌 통합(융합) 장르 기반 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율이 높음. 때문에 예술가들의 R&D 지원과 마찬가지로 참여자 스스로 실험적인 창작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면 좋을 것으로 보임.

○ 개인창작형은 문화예술 활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규모 있는 허브 공간(문화예술교육센터 및 문화복합공간)을 선호함. 개인창작형을 위한 프로그램은 (예술교육센터 등) 허브 공간을 중심으로 보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공동놀이형은 고관여층 중 가장 대중적인 문화예술 활동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음. 일회적인 보급형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다른 고관여층보다 생활문화시설을 선호하고 예술가 공간(예술가 공방, 작업실, 연습실)에 대한 선호는 떨어짐. 원하는 교육 내용도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형 프로그램이 많음.

○ 공동놀이형은 저관여층과 마찬가지로 기존 보급형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통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통합(융합) 장르 기반의 놀이형 창작 프로그램 제공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통합형은 가장 수준 높은 교육을 원하는 그룹임. 공동학습, 통합(융합) 장르, 창작, 자기주도성이 고루 높아 종합적으로 고품질의 교육을 원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전문공간(문화예술교육센터와 같은 허브, 예술가 공간,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예술 전문공간)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높음. 또, 현대적인 예술 활동을 원하는 편임.

○ 통합형은 기존에 연극 장르 교육 및 공동창작 경험이 많은데, 향후에는 개인학습의 비중, 감상·관람·체험의 비중도 늘길 바라고 있음. 공동창작 프로그램이 공동 활동에만 너무 초점을 두지 말고 개인적인 예술적 성취 역시 이룰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발전 방향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 전문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들을 취합해 큐레이션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도움이 될 그룹임.

■ 공통 수요 및 지원 정책 방향 제언

○ 본 연구가 고관여층 분석에 집중하기는 했으나, 가장 의미 있는 시사점은 오히려 공통 지원 정책 방향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교육 프로그램에 일단 참여한 경험이 있는 본 연구 설문의 응답자들은 저관여층과 고관여층에 관계없이 교육 유형 및 내용과 교육 공간에서 수요가 일치하는 모습이 나타남.

○ 교육 유형에서는 단기적 체험과 보급형 강의 및 행사에 대한 수요가 참여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경험 수요로 이동하는 현상이 뚜렷이 감지됨. 과거에 비해 일회성 문화체험 행사가 흔해지면서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원하는 시대 흐름을 느낄 수 있었음. 또한, 예술과 사회적 문제, 예술과 공동체 활동을 구분해 인식하던 과거와 달리 예술을 통해 사회이슈를 다루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 긍정적 반응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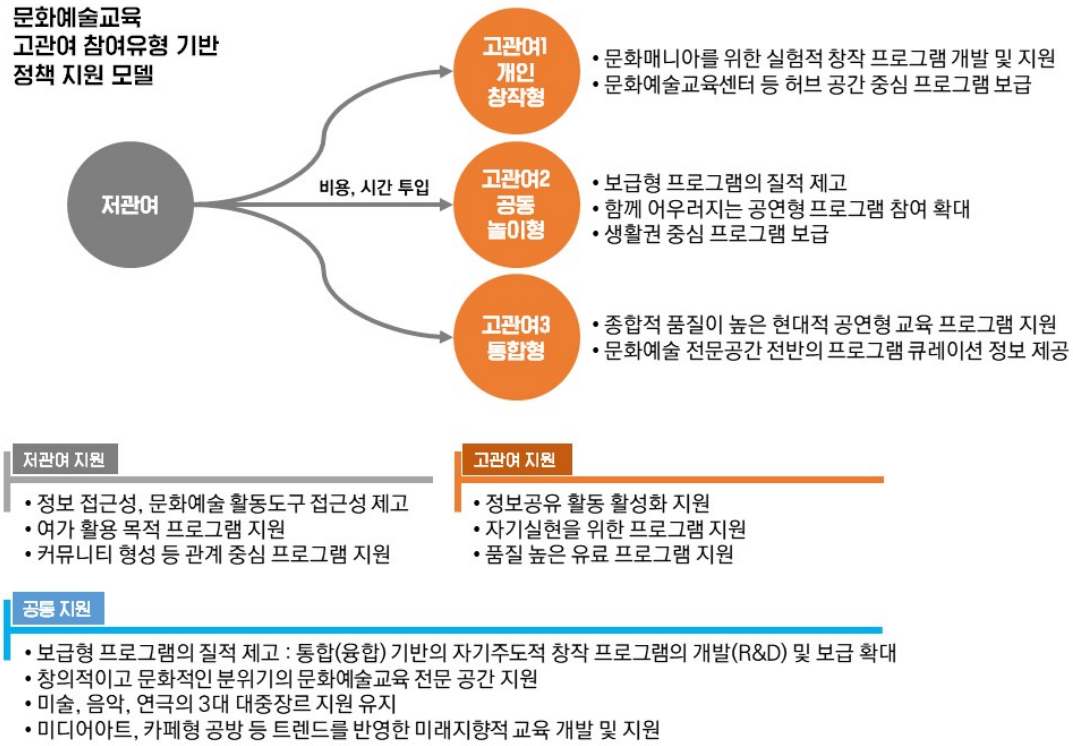
○ 교육 장소 측면으로 보면, 문화예술 전문성이 높은 공간에서의 교육이 증가하길 바라는 수요가 분명하게 포착됨. 일반적인 생활권 영역에서 문화예술교육에 이용되는 공간들은 대체로 책상과 의자, 칠판 등이 배치된 다목적 공간인데, 최근 문화예술 전문성이 높은 공간들은 공간의 설계부터 각종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한 도구 마련까지 경험의 풍부함에 초점을 맞추며 진화하고 있음. 이러한 격차 때문에 문화예술 전문성이 높은 공간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생활권 영역의 문화예술교육 공간 만족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임.

3). 저-고관여 참여유형 기반 정책 지원 모델

■ 이상과 같은 정책 방향 제언을 요약해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처럼 표현할 수 있음.

[그림 80] 문화예술교육 저-고관여 참여유형 기반 정책 지원 모델



3. 정책 실행 여건 분석 요약 및 실행 과제 도출

가. 정책 실행의 종합적 여건 검토

■ 앞서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분석 및 판단의 근거로 수요자(고관여자) 분석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았음. 하지만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 정책 방향은 수요자 분석에만 의거하여 수립될 수 없으며, 예산 상황, 정책환경, 인력 및 조직 상황, 이해관계자의 상황, 하드웨어 등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함.

- 본 연구는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정책의 전반적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요자 기반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 실행의 종합적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이런 이유로 본 연구의 2장의 정책환경 분석과 재단의 사업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한 정책 실행의 종합적 여건을 간단히 검토, 요약하는 것으로 정책 실행 여건을 확인하고자 함.

1) [전반적 차원] 중앙정부 주도에서 광역 단위로의 지방 이양

■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업 실행의 주도권이 중앙정부에서 광역 단위로 지방 이양되는 것은 현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음.

■ 서울문화재단 전체 예술교육 사업 예산은 전반적으로 축소 중이며,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질 고도화를 위해 사용되던 출연 예산이 지속적 감소 추세임. 가용할 수 있는 총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기존 수탁 사업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지금 상황은 재단 입장에서 위기이자 곧 기회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문화재단은 정책 우선 순위와 파급효과를 고려해 명확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정책적 책임성을 부여받고 있다 볼 수 있음.

2) [서울문화재단 차원] 예술교육센터 추가에 따른 상황 변화

■ 서울문화재단 차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 실행 여건의 변화는 광역 거점인 예술교육센터의 비중 확대임. 2천 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약 16~7년 동안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 브랜드를 대표한 사업은 학교예술교육TA였으나, ’23년을 기점으로 해당 사업은 종료됨. 이와 동시에 전문화된 예술교육 시설인 예술교육센터는 제2차 기본계획 기간 중 5곳으로 늘어날 예정임.

■ 즉, 향후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정책에서 예술교육센터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학교예술교육TA가 그러했던 것처럼 재단의 예술교육의 새로운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큼.

3) [자치구 차원] 법적 기반 등 행정체계 부재 상황에서 정책 실효성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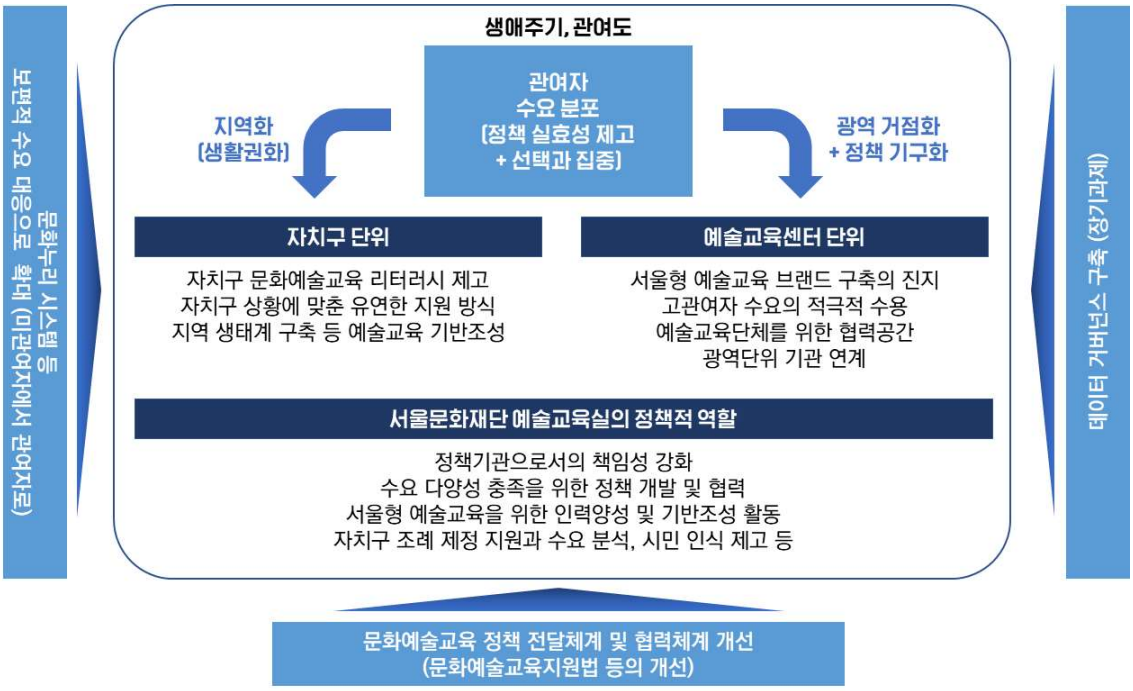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지역화라는 방향은 중앙정부에서 광역으로의 이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 다수의 선행연구 및 정책자료에서 자치구 단위로의 지역화라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역-자치구 간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전달체계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며,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의 수립 및 적용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즉, 서울 내 문화예술교육의 자치구 단위 활성화를 제도 개선 필요성이라는 본질적 해법으로만 귀속시킬 수 없으며 ’23년을 포함한 당면 상황에서의 사업 수행 여건을 고려한 제안이 필요함.

나. 실행 과제 선별 및 구조화

■ 고관여자 분석의 시사점과 실질적인 정책 실행 여건 분석을 종합하고, 우선순위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실행 과제를 선별하고 구체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그림 81]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정책 실행 과제 구조화



■ 실행 과제는 크게 (1)서울 내 지역화에 해당하는 자치구,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2)예술교육센터를 통한 서울형 예술교육 정책의 새로운 브랜드화를 위한 과제 (3)서울형 예술교육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재단의 과제로 구조화하였음.

■ 그 외 선별한 실행 과제를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 맥락으로 (1)문화복지 시스템과 예술교육의 결합 (2)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3)문화예술교육 정책 전달체계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있으나, 이 부분은 제2차 기본계획 기간을 넘어서는 장기 과제이거나 서울문화재단 단독의 과제를 넘어서는 영역에 해당하는 것임.

제2절 정책방향 제안

1. 정책 과제 제안

가. 문화예술교육의 자치구 단위 지역화/생활권화를 위한 과제

1) 자치구 문화예술교육 리터러시 제고

■ 예술적 가치와 일상의 삶이 별개의 것으로 분리되어 갈등할 수 있는 상황의 완화 및 해소

○ 일상 또는 삶의 개념에서 예술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 예술이 중산층의 교양으로 구분되던 시대를 지나, 현재는 문화기본법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삶 안에 필수적인 요소의 하나로 자리 잡는(Art in humanity[97]) 시대로 전환하고 있음.

[그림 82]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출처 : 2022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교육TA 공모안내 책자

○ 그런데 예술교육가 FGI에서는 자치구 및 자치구 문화재단이 동시대 예술, 예술 현장,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전형적 교육' 이미지를 탈피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이 행정적으로 막히거나 오해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예를 들어, 젠더 이슈, 사회적 참사 등 동시대의 사회적 아젠다가 문화예술교육의 주제가 될 때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거나, 전형적인 교사-학생 구도가 아닌 공동창작 방식, 연속 워크숍

97) 해당 개념은 학술적인 논의를 거쳤거나, 서울문화재단의 공식적인 문화예술교육 가치, 철학, 지향으로 확립된 것은 아님. 다만, 문화예술교육개념의 시대적 변화 및 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적 분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위 그림은 그러한 논의 선상에서 제시되는 모델 중 하나임.

같은 문화예술교육 방법론은 교육이 아닌 것, 혹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교육으로 오해받는 경우 등이 있음.

○ 이는 자치구 문화예술교육 이해관계자의 동시대 예술 및 예술교육에 관한 리터러시 제고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임.

■ 자치구 이해관계자의 문화예술교육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지원 1 - 지식정보 접근성 지원 (온/오프)

○ 2천 년대 초반, 중앙정부보다 빠르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인 사례와 정보가 서울문화재단에 상당한 정도로 축적되어 있음. 이는 각종 발간물, 책자, 사례연구, 국제교류, 연구-컨퍼런스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음.

○ 그런데 이렇게 축적된 지식정보와 문화예술교육 방법론 등의 노하우가 있음에도 이것이 자치구 문화재단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자치구 현장에서는 인식하고 있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축적한 지식정보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필요함. 현재 홈페이지에는 자료가 산발적으로 아카이브되어있고 검색 기능이나 카테고리 등 UX가 사용자 중심적이지 않아 활용이 어려운 면이 있음. 관련해 완성도 높은 국내 사례로는 아르떼라이브러리[98]가 있음. 또한, 아카이브의 운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서울예술교육 페스티벌처럼 집적된 지식을 전달하고 함께 토의하는 오프라인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수 있음.

○ 구체적 실행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음

실행방안 예시
①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자료실 구축 - 현재는 “서울문화재단” + “예술교육” 검색을 통해 즉각적으로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웹 공간이 재단 메인 홈페이지 내 예술교육 분야 하위 메뉴와 <서울예술교육 홈페이지[99]>가 있음. - 두 군데 웹 모두에서 예술교육 관련하여 예술교육가 및 기초문화재단 담당자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정리된’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의 현행화도 필요한 상황임. - 즉, 서울+예술교육을 주제로 하는 별도의 웹 자료실(아카이브)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청됨. - 관련 예시로는 앞서 언급한 아르떼라이브러리가 있음. ② 웹 자료실에서 필요한 기본 기능 - 웹 자료실 구축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구독/접속 대상 및 자료 성격에 따른 자료 분류체계 개발과 검색 기능 탑재임. -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미 구축된 <서울예술교육> 웹이 있고, 해당 웹에 서울예술교육아카데미 페이지가 있는 만큼 그 부분을 개편하여 웹 아카이브 구축하는 것을 권고함. (재단 메인페이지는 구조의 복잡성 등에서 서울예술교육 아카이브 공간으로 추천하지 않음.)

98) https://lib.arte.or.kr/index.do
99) 서울예술교육 https://artseduta.sfac.or.kr/html/main/index.asp

③ 2023년 실행해야 하는 작업

- 웹 아카이브 구축 작업은 전문적인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인 만큼 한시적인 전문가TF 운영을 권고함.
- 해당 전문가TF는 최소한 두 가지 기능에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선 기초문화재단 실무자(및 현장 예술교육가)에게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고 분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성이 한 부분이고, 사용자 접근성을 시스템 개발 단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전문성이 다른 한 부분임.

④ 기타 필요한 작업

- 웹 자료실 구축 논의에 포함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현장의 우선순위에 따라 수요도가 높으나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콘텐츠는 새로 개발해야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 개념과 사례 등을 숏폼 온라인 강의로 만드는 작업이 있을 수 있음.
- 그 외 기존 서울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자료 중에 기초재단 실무자에게 유용한 내용을 묶음 콘텐츠로 만들고 웹 자료실에서 접근할 수 있게 경로 연계를 하는 등의 작업도 필요한 작업임.

○ 이 외에 서울문화재단의 축적된 지식정보 및 노하우에 대한 학습이 추가적인 업무 가중으로 여겨지지 않게 고유 업무 체계에 포함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텍스트 정보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현장성 및 노하우(암묵지) 전달을 위한 계기/자리를 기획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아젠다 포럼을 기획하는 것이 가능함.

실행방안 예시

① 문화예술교육 미래 아젠다 기획포럼 시리즈 개최

- 현장 예술교육가 FGI에서는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의 실험적 예술교육 프로젝트를 기초 자치구 단위에서 실현하는데 있어서 예술교육가와 기초문화재단 담당자의 이해도 차이가 크다는 언급이 있었고, 기초문화재단 담당자 FGI에서는 재단별 실무자가 사실상 1인이 최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실무 진행만으로도 버거워서 최신 사례 조사나 사회변화 아젠다 확인 등의 여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이를 보완하면서 실질적으로 서울형 예술교육의 선도성, 실험성의 방향, 가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오프라인 기획포럼을 정기 개최하는 것이 필요함.

② 포럼의 주제, 대상, 규모 등

- 주제: 연구를 통해 확인한 현재의 사회적 관심이자 미래의 문화예술교육 아젠다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사회갈등, 문화 양극화 등이 있으며, 기후위기 등의 주제는 이미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예술교육의 주제화 작업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사례 공유 등의 포럼이 필요함.
- 대상: 예술교육가, 서울 기초문화재단 담당자, 기초지자체 문화예술행정 담당자, 연구자

및 정책가 등.

- 규모: 포럼 자체가 이해관계자 교류의 자리가 되는 만큼 소규모 다회 진행의 전략이 필요할 수 있으나, 최소 수준에서 연 2회 정도의 정례적 포럼을 추천함.

③ 예시

- [예시 1] 고민빨래방[100]: 코로나 초기 경기 지역 예술교육단체의 혼란을 완화하고, 현장 예술교육 기획 및 실행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된 집중 포럼
  -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신청을 받아 희망 단체 중심으로 진행
  - 신청단체와의 1:1 컨설팅을 통해 이슈 정교화 작업을 진행하고, 이후 주제별 연속 포럼 방식으로 총 5주간 진행
- [예시 2] 개똥포럼[101]: 문화예술교육의 전환적 고민을 촉진하고, 현장 예술교육가의 네트워크 촉진을 위해 개최한 오프라인 집중 포럼
  - 거주지와 무관하게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등 씬 내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한 포럼으로, 다수의 프로그램이 예술교육의 경계 이슈를 질문하는 방식인 동시에 체험형 워크숍 또는 자유 대담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자치구 이해관계자의 문화예술교육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지원 2 - 자치구 방문 교육 지원

○ 앞서 지식정보 접근성 지원과 함께 자치구 수요에 따라 자치구 문화예술교육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 교육 지원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문화예술교육 리터러시가 문서와 자료 등의 명시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과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하는 관련 아카데미에 기초문화재단 담당자가 참석하여 노하우와 정보를 얻더라도 이를 다시 자치구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고 공감대를 구축하는 일을 담당자 1인이 수행하기에는 힘겨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보완책임.

○ 실제 관련 예시로 미투 사태 이후 법원을 위시한 법조계는 젠더 이슈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판사 및 법조인의 이해도 제고 작업을 진행한 바 있음[102]

○ 앞서 제시한 리터러시 지원책 중 <문화예술교육 미래 아젠다 기획포럼>을 기초문화재단과 협의하여, 기초 자치구 순회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를 자치구 문화예술교육 이해관계자 교육 지원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 역시 대안이 될 수 있음.

100) 고민빨래방 https://ggc.ggcf.kr/p/5eeca862dcc57d6f65dfec94
101) 개똥포럼 https://garrulous-baboon-c75.notion.site/2021-017e6a9cbcd64ec2a0f571135201ea6a
102) 「'디지털 성범죄란...' 시민에게 배운 판사들」, 경향신문. 2020.05.11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05111912001

2) 자치구 상황 맞춤 예술교육 공모와 기반 조성 지원

■ 명확한 광역-기초 전달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행을 위한 자원의 외부 수급이 불가피한 자치구 문화재단에 특정 목적과 특정 방법이 미리 정해져 있는 공모사업은 적합하지 않음. 그 때문에 기초문화재단이 해당 자치구의 상황에 맞게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유연성 높은 지원사업을 서울문화재단 차원에서 운영하여 제도적 공백을 간접적으로 보완하는 접근이 필요함.

■ 자치구 문화재단이 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은 대체로 예술교육 기반조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지역 주민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 지역 예술가를 발굴하고 협력 관계를 맺어 지역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 자치구 내 문화예술교육 공간을 발굴·거점화하고 연계함으로써 생활권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확장해 나가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함.

■ 또한, 자치구 예술교육 기반조성 사업들은 수요 기반 정책 관점에서도 모두 중요한 사업들임.

■ 때문에, 재단의 자치구 예술교육 기반조성 지원 사업은 자치구 입장에서 매우 절실한 사업이었음. 그럼에도 해당 사업은 N개의 서울 사업과의 중복 이슈로 일몰되었고 이후 예산 규모가 축소된 상태로 (사)서울시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와 협력해 사업 내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 향후 관련 사업의 안정성과 충분한 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재단 출연금의 재확보를 제안하는 바임.

■ 예산 확보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및 노하우가 부족한 자치구 단위에서 정책 구현 및 제도 구축을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본 연구 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자치구 문화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은 행정적 전달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모호한 관계에 놓여있음. 이로 인해 자치구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영역과 문화예술교육 제도/정책 혹은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 정책을 매개하는 영역은 사실상 비어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실행방안 예시
① 자치구 단위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지원 - 현재 자치구 문화재단에서는 자치구 내 협력 예술단체, 공간 등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 실행 등 자치구 맥락에 적합한 콘텐츠를 만들고 실행하는 작업을 진행 중임. - 이러한 작업은 지역 맥락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내용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관련된 상위 정책의 흐름이나 상황과 유리된 상태로 콘텐츠 개발 및 실행 중심으로 활동이 국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예를 들어 상위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에서 문화예술 대상 다변화, 동시대적 혹은 미래적 아젠다의 출현 및 변화 양상, 콘텐츠 중심에서 거점 등 공간 기반 중심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와 정책 실행이 자치구 단위와 연결되는 고리가 사실상 부재함.

- 또, 서울문화재단-자치구문화재단 행정전달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자치구 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등의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전달/실행 체계 측면에서의 연결 고리도 부재하다고 볼 수 있음.
- 전문가 지원은 바로 이러한 공백 영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정책 및 기관의 방향이 자치구 차원에서 가용한 자원과 토대가 될 수 있는 작업을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는 전문성 지원의 목적이라 할 수 있음.

② 지원의 내용과 방식

-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 제정 지원 전문인력
  - 자치구 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큰 이슈는 안정성이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조건에서는 상위/광역 정책/제도와의 연결 자체가 어려움. 그 때문에 사업 및 조직, 자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작업으로서의 조례 제정을 위한 지원은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고, 타 제도/정책과의 관계도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 과정 자체가 기초문화재단 관계자 및 자치구 이해관계자가 상위 제도/정책 및 환경을 이해하고 고민하는 학습 과정이 될 수 있음.
  - 다만 조례 제정 실무 작업은 담론을 다루는 것이 아닌 다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하고, 구체화된 결과물로 전환하는 실행 프로젝트 성격이 강한 만큼, 관련 전문가를 이론가 또는 담론 전문가보다는 실행 역량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을 권고함.
- 기반조성사업에 포함된 전문가 지원
  - 기초문화재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실행 환경의 차이가 매우 크며, 기초적 기반조성이 필요한 곳이 상당수임.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 단위 기반조성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지원사업에서 전문가 고용 또는 전문가 장기 활용을 위한 예산과 권한을 간접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으로는 관련 전문가 pool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서울문화재단 차원에서 영역별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기초문화재단이 선택/요청할 수 있도록 제반 작업을 하는 것을 권고함. 다만 자치구에 따라서는 해당 지역의 이해도와 필요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협력 관계가 이미 있으나 이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유지할 자원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문화재단 자체적으로 협력 전문가를 섭외할 수 있는 옵션도 열어둘 필요가 있음.

③ 지원의 성격

- 본 실행방안 예시에서 제안하는 전문가 지원은 기존 전문 컨설팅 지원과는 성격이 다름.
-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현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모니터링 형식의 1~2회

컨설팅 지원, 혹은 좀 더 명확한 주제를 가진 3회~5회 수준의 전문 컨설팅 지원의 시도는 많이 있었음.

- 이러한 방식은 많은 경우 현장의 맥락과 동떨어진 전문가의 일방적 교육이 되었는데, 본 실행방안 예시는 이러한 경험과 우려를 고려해, '외부자'로서 '조언'을 하는 위치에 있는 컨설턴트 지원이 아닌, 실제로 기초문화재단 - 제도를 매개하는 작업에 함께 투입되어 활동하는 전문가 인력지원으로 내용을 제안하는 것임.
- 또, 중요한 것은 해당 전문가가 자치구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기초문화재단을 매개하는 사업 단위 실무 인력이 아니라, 기초문화재단과 상위 정책 및 제도를 연결하는 목적으로 지원되는 전문인력이어야 한다는 것임.

3) 미-저관여자를 위한 자치구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통상 정책의 수요를 확대하고 생활권 단위가 중심이 된다고 하면 단기 체험형 프로그램의 보급 확산 방식으로 접근하기 쉬움.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확인한 수요자 분석에 따르면 고관여자 뿐 아니라 저관여자도 모두 통합형 예술교육을 희망하며, 자기주도적 예술활동으로서의 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음. 그뿐만 아니라 2장에서 확인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들 역시 융합형 예술교육을 1순위 가치로 이해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확인한 수요자 분석에 따르면 생활문화 사업과 구별되는 전문화된 문화예술교육 수요가 분명히 확인됨. 이러한 수요에 따라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성을 가진 생활밀착형 시설 대상의 거점인증제를 제안하고 있음.

■ 즉, 자치구에서는 생활권 내에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접하고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미관여자 및 저관여자를 주요한 사업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성격은 통합예술, 자기주도형 활동 등 높아진 미적 감수성, 취향, 주체성 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함.

■ 특히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문화복지 체계와의 연계가 시행되면, 문화예술교육 미경험자의 최초 경험 지원을 복지체계가 일정 부분 담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문화예술 전문 기관으로서의 자치구 문화재단이 담당해야 할 문화예술교육의 내용과 성격은 생활문화 영역보다 전문화된 것일 필요가 있음.

나. 광역 거점으로서의 예술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과제

1) 서울형 예술교육 브랜드 구축의 진지

■ 예술교육센터의 규모 증가, 전문화된 문화예술교육 공간에 대한 수요를 보면 예술교육센터가 위수탁 운영 공간의 위상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서울형 예술교육 브랜드 구축의 핵심적 진지가 되어야 할 것임.

■ 브랜드 구축의 진지가 된다는 것은 예술교육센터를 통해 사회적 의제와 예술교육의 만나고, 창작 활동 기반 예술교육을 경험하고, 음악, 연극, 미술 등의 고전적 장르 외 미디어아트 등 새로운 장르 및 통합장르 프로그램이 개발/구현되는 등 동시대 예술교육을 선도하는 사례와 방법론이 예술교육센터에서 만들어지고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함.

■ 때문에 향후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센터 예산 편성에서도 하드웨어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외 거점의 위상을 반영하기 위한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운영 예산의 적극적 확보가 필요함. 또한, 서울시민예술대학 기획사업 서울예술학교 오늘처럼 재단의 다양한 역량을 총합해 활용한 기획 사업 등 대표 사업의 개발과 홍보 등이 중요해 보임.

2) 아젠다 기반의 전문 문화예술교육 공간 정체성

■ 제2차 기본계획 기간 중 서울에 5개소로 확장되는 예술교육센터는 여전히 서울 전역을 기준으로 할 때는 생활권 시설이라 할 수 없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원거리의 전문 시설이라 할 수 있음.

○ 생활권 시설로 기획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공간과 프로그램 부족 문제로 필히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음. 실제로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의 1층 공용공간 감정서가는 무작위로 공개된 생활문화공간으로 운영하지 않고 감정에 관해 사유하고 탐색하는 주제형 공간으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수강 경쟁률이 평균 5:1~6:1이고 인기가 많은 경우 7.6:1에 이르기도 함. 또한, 서서울예술교육센터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소양이 높은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는 전문 공간임.

■ 통상 지자체 위탁 공간에는 전문 기능 외 주민 복지 기능을 비롯한 다목적 기능의 수행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예술교육센터를 생활권 시설로 포지셔닝하는 전략이 현실성이 낮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예술교육 전용/전문 시설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함.

■ 다만, 예술교육 전용/전문 시설의 정체성이 장르 예술 기반이어야 할지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추가 개관 예정인 3개 센터는 장르 기반으로 운영한다는 논의가 있는 상태인데, 본 연구의 수요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일 장르 기반의 정체성은 시대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예술교육센터는 기본적으로 장르 간 경계를 횡단하면서 다양하고 주체적인 경험이 가능한 복합적 문화작업장의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신규 조성 중인 예술교육센터의 정체성을 장르로 접근하겠다는 기획은 미래 아젠다에 초점을 맞춘 서

서울예술교육센터와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의 접근 방식과도 큰 차이가 있음.

○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입지 및 시설 특성(취수시설 리모델링)을 고려하여 생태·환경이라는 미래 아젠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용산은 청소년과 미디어라는 미래 아젠다에 중심을 두고 있음.

■ 5개 예술교육센터의 정체성을 서울형 예술교육 브랜드로 전략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기조성된 2개 예술교육센터와 마찬가지로 신규 조성될 3개 예술교육센터의 정체성 역시 미래 아젠다 측면에서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수요자 분석에 근거한 예술교육센터 미래 아젠다 예시

① 수요자 분석 결과 1~3위 아젠다

- 본 연구의 수요자 분석 결과에서 저관여자와 고관여자는 공통적으로 지역사회 공동 관심사, 대인관계 갈등 관리, 기후변화와 생태환경을 관심 갖게 된 주제 1~3위로 꼽았는데, 이 중에 기후변화와 생태환경은 서서울예술교육센터가 이미 다루고 있음.

② 지역사회 공동 관심사

- 지역사회 공동 관심사를 예술교육센터의 아젠다로 삼는다면, '로컬', '공동체' 등의 주제와 문화예술교육의 교차영역에 집중하는 예술교육가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이를테면 예술교육 기반의 지역리서치 프로그램, 예술교육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과 리서치 결과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개발을 지원하고 그 사례들을 아카이빙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존의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에서 지역의 실질적 필요를 어떻게 찾아내고 이를 문화예술교육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관한 교육 방법론 차원이 취약하다는 것임. 이러한 취약성은 프로그램의 직접 연구개발뿐 아니라, 예술적 지역리서치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접목한 문화예술교육 방법론 및 사례를 수집 및 유형 분석하는 메타적 작업을 통해 해소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임.

③ 대인관계 갈등 관리

- 대인관계 갈등 관리 아젠다는 단순히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라는 좁은 범위가 아닌, 다양성이 증가하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격차 문제에 민감해지는 경향성과 연관 지어 볼 필요가 있음.
- 격차 문제에 특히 관심이 높은 수요자는 청년층으로 문화격차뿐 아니라 지역 불균형 이슈에도 관심이 높음.
- 다양성이 증가하는 사회에서는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대화와 협력하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러한 사회변화는 서로 다른 정체성을 억압하며 '하나의 공동체 되기'를 강조했던 과거 사회통합 정책이 변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 문화예술교육 역시 '다 함께 모여 사이좋게'에 초점을 두는 프로그램이 아닌, 다양한 대상들과 건강한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상호 존중 및 공존하며 사회 공동의 문제를 타협에 기반해 풀어나가는 교

육 프로그램 연구가 필요함.

- 대인관계와 관련해 1인 가구의 증가, 소셜 미디어의 발달 등으로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는 현상까지 아젠다를 넓혀 생각해볼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문화적 경험과 접촉을 바탕으로 자기성찰과 지역 사회 연계를 통한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연결사회 지역거점 프로그램 운영 사업」[103]을 추진하기로 함. 해당 사업은 연결사회 지역거점을 선정 후 인문·문화예술·체육·관광 등 여가 활동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외로움을 측정하거나 포럼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 외, 2022-2024 10대 문화예술트렌드에서 주목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기술사회 대응, 고령화 이슈도 예술교육센터의 미래 아젠다로 검토해 볼 수 있음.

문화예술트렌드에 근거한 예술교육센터 미래 아젠다 예시

①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이제 디지털 세계는 유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지혜롭게 디지털 세계에서 살아나가기 위한 리터러시 교육은 턱없이 부족한 실태임.
- 예를 들어, 유튜브의 개인 채널을 검증된 미디어로 받아들이거나, SNS 및 카톡방에서 아는 사람이 퍼오는 소식을 무조건 진실로 받아들이는 등의 일이 빈번함. 극단적인 혐오 댓글 등을 여론으로 이해하거나 놀이로 삼는 현상도 심각함. 최근에는 chatGPT 등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에도 거짓이 있다는 논란이 생기고 있음.
- 이러한 '포스트트루스' 현상은 전 세계적인 것으로 디지털 시민 교육 콘텐츠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BBC는 전 연령대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목표로 삼고 BBC Teach를 통해 초중등 학생에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온라인 게임, 정확성과 편향성, 사실과 의견, 가짜뉴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104]
  -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105]는 사이버 공간 연구에 중점을 둔 하버드대학교 연구 센터로 디지털 문화와 윤리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 및 도구, 간행물 및 교육을 공개함. 특히, 청소년과 미디어(Youth & Media)[106] 분야에서는 디지털 시민권,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력, 디지털 문해력, 정체성 탐색 및 형성, 디지털 윤리 등의 주제를 다루는 12-18세 대상 교육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관련된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보다 예술교육가들이 먼저 디지털 세계의 삶에 필요한 문해력과 윤리를 습득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예술교육가의 학습은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를 중심으로 전개해나갈 수 있

103) 연결사회 지역거점 프로그램 개발·운영 주관기관 공모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7086

을 것임.

② 고령화 이슈

- 본 연구 분석에 따르면 고령화에 대한 관심은 30대부터 이미 시작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관심 비율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임.
- 30~40대의 경우 본인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있겠으나, 부모의 노령화에 대한 관심도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됨.
- 고령화 이슈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5개 센터 중 1개 정도는 노년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적 연구 및 시범 프로그램 개발, 복지기관 등의 교육 프로그램 쇄신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음.
- 노년문화예술교육의 핵심은 노년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활동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며, 노년을 준비하고 있는 신중년, 70~80대보다 주도성이 높은 신노년의 문제로까지 확장해 볼 수 있음. 또한, 부모 세대의 고민을 함께 하려는 30~40대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노년이 된 부모를 모시고 참여할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 등도 다루어 볼 수 있음.
- 노년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는 아르떼 전문가 좌담 「세대가 만나는 문화예술, 고령화 사회의 대안적 길을 찾다」를 참고해 볼 수 있음.[107)]

3) 예술교육센터와 지역 기관 간 연계

■ 지역 협력의 주 무대는 주민의 생활이 펼쳐지는 자치구 단위이지만, 예술교육센터에서도 지역 연계 이슈가 발생함. 학교처럼 예술교육센터에 먼저 접근하여 프로그램 협력 운영 혹은 단체 수강을 제안하는 지역 기관들이 존재하는데, 광역 범위에서 접촉해오는 지역기관들과의 협력 활동은 센터의 존재를 알리고 다양하고 폭넓은 시민을 대상으로 질 높은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임.

■ 즉, 예술교육센터는 지역기반 공간들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전문 문화예술교육 파트너로서 학교뿐 아니라 권역 내 복지시설과 자치구문화재단 도서관 등을 위한 공간 견학 프로그램, 선도적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보급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4) 예술교육단체를 위한 실험적·전문적 협력 공간

104) 「시민 교육 차원에서 전 연령별 교육 강조」, 한국언론진흥재단 웹진<미디어리터러시>. 2022.08.03. https://dadoc.or.kr/3138
105) https://cyber.harvard.edu/
106) http://youthandmedia.org/
107) 「세대가 만나는 문화예술, 고령화 사회의 대안적 길을 찾다」, arte365. 2018.02.05. https://arte365.kr/?p=64230

■ 예술교육가의 공간 상황을 보면 서울에 자체 보유 공간이 없거나, 전용 공간이 있더라도 다양하게 전문화되어 있는 예술교육 상황에 모두 대응하기 어려워 외부 공간과 협력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및 단체가 서울에서의 공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경기권 등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등 협력 가능한 전용/전문 예술교육 공간의 수요는 더 커진 상황임.

■ 공공극장이 기획대관 등으로 양질의 작품 큐레이션을 구성하고 창작 단체를 지원하는 것처럼 예술교육센터도 완성도와 실험성이 높은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는 예술교육단체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예술교육생태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편성의 내실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5) 고관여자 수요의 적극적 수용

■ 예술교육센터의 입지적 조건은 비용과 시간을 감수하더라도 수준 높은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고관여자 수요와 매칭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예술교육센터가 예술교육 전용/전문 시설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면 이 역시 고관여자 수요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 일례로,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약 7년간의 운영을 통해 창작기반의 예술교육 전문 공간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예술놀이 콘텐츠를 개발 확산하고 있음. 때문에 일몰된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이용자 등 사실상 서남권 권역 범위를 넘어서는 거리에서도 센터를 방문하는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음.

■ 고관여자 중 특히 문화예술교육에 깊이 관여하면서 자신만의 관점으로 창작에도 관심을 두는 '개인' 수혜자의 존재는 쉽게 간과되는 편인데, 이들의 활동을 프로그램 수강으로 한계 짓지 않고, 예술교육센터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교육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제안함. 이는 예술교육센터를 '프로그램'이 아닌 '공간' 측면에서 상시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음.

고관여자 활동 지원 실행방안 예시

① 예술교육센터 공간견학 시민 도슨트 기회 제공
- 예술교육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공간을 기획·조성하고 싶은 다양한 지역 기관의 롤모델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견학 프로그램 수요가 존재할 수 있음.
- 이때, 예술교육센터에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고관여자 그룹 또는 개인이 도슨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주체적인 공간 참여자로서의 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 참여 기회 제공
- 예술교육가들의 R&D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이나 평가 과정에 고관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고관여자들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예술교육가들도 수혜자 입장에서 시범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임.

③ 문화예술교육 자율 모임 기획 및 실행 지원
- 멤버십 기반의 동아리 활동이 아닌, 프로젝트 기반의 수요자 주도 자율 모임 생성을 지원할 수도 있음. 주제와 기간이 정해진 활동을 함께 할 크루들을 모집하고 필요한 경우 예술교육가의 멘토링을 매칭할 수도 있음.
- 최근 대학혁신 사업에서는 교수나 대학당국이 아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서비스러닝[108]을 비교과 과정으로 도입하기도 하는데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고관여자들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음.

6) 서울형 예술교육센터의 공통 기능 모듈 및 아젠다 확산 프로세스

■ 전술한 예술교육센터의 여러 가능성들을 종합하여 서울형 예술교육 아젠다 확산을 위한 프로세스(안)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와 같음. 5개 예술교육센터가 각기 다른 미래 아젠다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수립하더라도 아젠다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검증하며 배포하는 기능 모듈은 공통적으로 설계 가능함.

[표 30] 서울형 예술교육센터 공통 기능 모듈 및 아젠다 확산 프로세스

기능	R&D		프로그램 테스트베드		지역 협력 거점 / 프로그램 보급
사업 (내용)	• 프로그램 LAB (예술교육가들의 연구 공간, 선도성 의제) • 지역예술교육TA	⇒	• R&D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 시범 운영 및 평가에 예술교육센터 이용자 공개 모집 • 시그니쳐 프로그램(=서울형 예술교육) 선정 및 아카이빙	⇒	• 권역별 학교, 복지기관 등에 시그니쳐 프로그램 안내 및 지원 • 공모사업 참여 단체에 시그니쳐 프로그램을 매년 일괄 배포하는 절차

다.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실의 조직체계 및 정책적 역할

1) 강화된 독립적 정책기관으로서 책임성을 담당할 조직체계 구축

■ 광역 단위 지역 분권화 과정에서 책임, 권한 모두 강화되는 서울문화재단

○ 문화예술교육 제2차 종합계획 기간의 가장 큰 변화는 중앙정부 주도 정책전달에서 광역별 분권화된

108) 서비스러닝은 대학생들이 교과목에서 학습한 전공역량을 활용해 지역현장에 봉사하는 활동으로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책 설계 및 실행으로의 정책환경 변화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변화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의 예산의 출처, 정책 설계 및 실행, 광역 단위 이해관계자 및 기관 간 조율 기능 수행 등에서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실의 권한과 책임이 더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함. 통상 이와 같은 정책환경 변화, 기관의 위상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이 “정책 기능 수행”임.

■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개발

○ 하지만 정책 기능 수행이 ‘직접 사업 비중 축소’, ‘정책 컨트롤 타워’와 같은 피상적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을 넘어서기 위해 구체적 실행 과제를 특정할 필요가 있음.

○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기능을 이끄는 조직체계 개발임. 즉, 5개 센터를 비롯해 메타적인 정책 설계를 책임지는 팀이 예술교육실 내에 지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아래 제시하는 과제 전체에 선행하는 과제라 할 수 있음.

2) 수요 다양성 충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협력

■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와 다양한 수요 반영의 관계

○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기본계획에는 문화예술교육 대상을 그간의 아동, 청소년 중심에서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보편적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음.

○ 그런데 대상의 확대는 문화적 경험의 보편화를 통해 높아진 시민의 취향과 다양해진 수요라는 측면과 함께 고려되어야 함. 즉, 대상의 확대를 위해서도 문화예술교육은 주제와 내용, 실행 방식, 대상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임.

■ 다양한 사회 기능 및 주체와의 협력 기반 강화

○ 전술한 문화예술교육 다양화를 위해 향후에는 환경, 기술 등 다양한 아젠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기관, 여성·장애인·노인 등 정책 대상별 사회 기관을 비롯해 시민의 일상 문화와 접촉해있는 여러 기관/주체와 MOU 및 정책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정책 수준의 협력 관계는 기초문화재단이나 개별 예술교육센터가 수행하기는 어려우며, 서울형 예술교육의 대표성을 가진 재단의 예술교육실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3) 서울형 예술교육을 위한 인력양성 및 기반조성 활동

■ 더 중요해진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철학과 이를 확산/공유하기 위한 기반조성 활동의 필요성

○ 과거에는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 정책이 현장과 수요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여겨진 측면도 있지만, 서울 활동 단체가 대표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분석 결과나 문화예술교육 저-고관여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제 현장에서도 장르 중심이나 전형적 예술교육을 넘어서는 교육 경험에 대한 수요가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서울문화재단이 그간 학교예술교육TA 사업을 필두로 추구해온 문화예술교육의 철학과 지향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재단의 예술교육 철학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워크숍, 컨퍼런스 등의 기반구축

활동이 위축되면서 신규 단체들은 서울형 예술교육 또는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 철학을 접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큼. 또, 기존에 활동을 해왔던 문화예술교육단체 및 자치구의 관계자도 미적체험을 일종의 슬로건 정도로 인식하는 사례가 있었음. 이런 상황에서 재단의 예술교육 철학을 상징하는 학교예술교육TA 사업이 종료되었음.

○ 때문에 학교예술교육TA의 성과와 유산을 지역예술교육TA 등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 이어가고 확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기반조성 활동이 필요함.

■ 전공예술교육 영역에서의 변화와 예술교육 현장 종사자의 재교육 필요성

○ 현재 예술대학 내 교육의 변화는 재단의 예술교육 인력양성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회변화 양상 중 하나임. 여전히 예술대학에서 가장 큰 교육 영역은 음악, 미술, 공연예술 등으로 분류되는 장르 기반 전공 교육이지만, 다수 대학에서 융합예술교육을 별도의 전공으로 개설하거나 기존의 장르 전공 학생들에게 교차전공 및 탈장르적 활동을 권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이는 예술의 개념과 장르의 경계에 대한 질문을 기반으로 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대학교육의 변화로 이미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예술교육가는 상대적으로 고전적인 장르 기반 예술교육의 경험이 주 학습 경험일 가능성이 큼.

○ 때문에 현재 현장에서 활동 중인 예술교육가와 미래 예술교육 인력의 협업 기반을 닦고 동시대 예술의 변화를 반영하는 예술교육의 현행화를 위해서라도 현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교육가를 대상으로 일종의 '보수교육' 성격의 교육 및 연수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4) 자치구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과 시민 인식 제고 등

■ 자치구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지원

○ 기초문화재단 및 자치구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차원에서는 행정 조직이라는 특성상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데, 이를 기초문화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앞서 자치구 단위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지원 예시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대표적인 제도적 근거는 자치구 조례임. 때문에 서울문화재단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 제정 혹은 기존 문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지원 외에도 조례 제정 프로세스 지원, 문화예술교육 필요성에 대한 여론화 작업 등을 지역화 정책 범주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본 내용은 앞서 제시한 자치구 전문가 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고함.

■ 주기적인 최종 수요자 및 중간 매개자 분석

○ 서울문화재단 차원의 과제로 제시한 내용 및 본 연구의 결론에서 제시한 과제들은 모두 고관여자 분석 및 매개자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요자 분포 모델은 생애주기 모델과 함께 중요한 근거가 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수요자 및 예술교육가 등의 매개자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와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데이터의 통일성, 주기성, 정책 환류를 위한 전문적 분석 등이 필요한 분야로 자치구 문화재단 또는 개별 예술교육센터 단위로 수행될 수 없고,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실이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타 제언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서 풀어서 설명하겠음.

■ 국제교류 및 시민 대상 캠페인 등 사회적 지지 조성 활동

○ 서울형 예술교육은 시민의 일상적 삶에서의 예술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측면이 일차적 목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글로벌 도시 서울이 만드는 동시대 예술교육의 최전선의 과제도 부여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선도성의 과제를 수행하고 국제적 위상 제고 작업을 위해서 국제교류 등의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또, 자치구 조례 제정, 예술교육 정책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근간으로서의 시민 공감대 형성 캠페인 작업도 서울문화재단이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임.

라. 장기적 전망 차원에서의 데이터 거버넌스

1) 데이터 거버넌스의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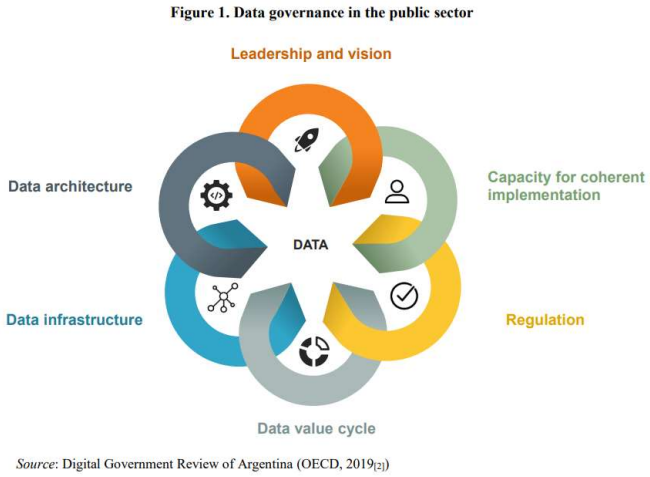
■ 공공 문화예술교육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설문이나 만족도 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여 자료를 모은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며, 문화예술교육을 근거기반정책[109] 체계 위에 올리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실천의 의미도 있음.

○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거점 예술교육센터의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센터의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개선을 위해서는 방문자 및 수요자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를 수집하기 위한 공식적 체계가 없다 보니 담당자 개인의 노력에 기댄 통일성 없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음.

109) "증거(근거)기반정책(證據基盤政策, Evidence-based policy, EBP)은 정책학을 포함한 여러 공공정책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엄격하게 검증된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적인 결정을 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증거기반정책 수립은 공공정책이 실증적 자료나 증거보다는 직관, 경험, 가치 등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왔다는 점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였다." (위키피디아에서 인용, https://ko.wikipedia.org/wiki/%EC%A6%9D%EA%B1%B0%EA%B8%B0%EB%B0%98%EC%A0%95%EC%B1%85)

[그림 83] 공공 영역의 데이터 거버넌스(OECD)



■ OECD에서 2019년에 발간한 공공분야 데이터 거버넌스 리포트에 위와 같은 체계가 제시된 바 있음.

○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이 이뤄지려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물리적 체계로서의 인프라, 그 인프라와 대응하는 데이터 구조, 거기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의미가 공공영역에서 가지는 가치 선순환 체계, 규칙과 역량 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리더십과 비전이 필요함.

○ 위 도식을 서울문화재단 차원에서 재해석하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나 지역특성화 사업처럼 1년에 50여 단체를 모집하는 단일 사업, 단일팀 사업을 위한 데이터 체계를 구축할 수는 없음. 이는 재단 내부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서울 내 자치구 문화재단 차원에서도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임.

○ 현재와 같이 부서별로, 예산 출처별로, 사업대상별로 예산을 분배하고, 일부 예산으로 행정관리 비용을 쓰는 방식에서는 정책과 사업을 관통하는 '중심'으로서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구축하기 어려움.

○ 단순히 자료 수집 정도의 접근이 아니라, 재단의 부서 체계, 사업기획, 각종 정보 수집 UI(user interface) 전체가 함께 바뀌어야 함. 즉 데이터 기반의 정책과 사업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이 먼저 있고 데이터가 그에 따라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사업을 기획 및 구축하고 개선해 나가는 근거 기반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 서울문화재단의 리더십 차원, 서울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리더십 차원에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시작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종단적 연구와 근거 기반 정책 설계 및 실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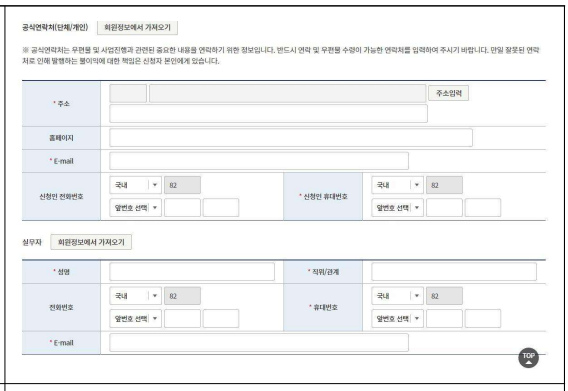
2) 2023-2027 공모사업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제안

○ 전술한 바와 같이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것은 근거 기반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뜻이며 자료들이 검색되고 분석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를 위한 인프라와 노하우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의 경험치를 축적하는 사업은 매우 장기적인 전망으로 실행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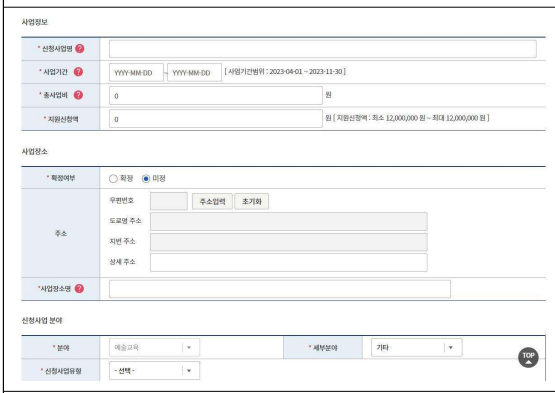
○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2차 기본계획 기간(2023~2027) 중에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하는 과제로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함.

○ 현행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 지원체계는 아래와 같이 웹+한글파일 혼용 방식임.

<필드1> 웹 신청 화면 (상단)



<필드2> 웹 신청 화면 - 지원자 정보 필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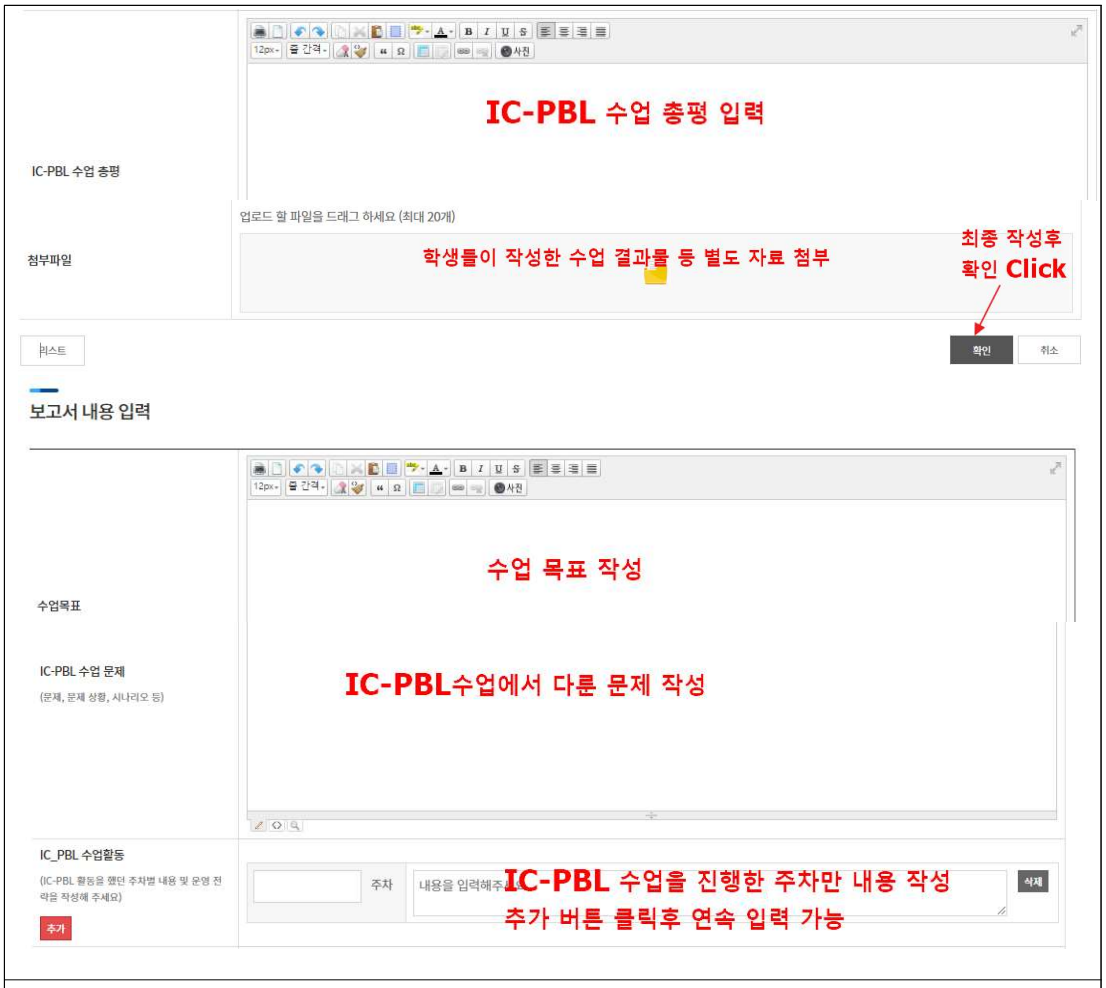
<필드3> 웹 신청 화면 - 사업 정보 필드

<필드4> 웹 신청 화면 - 첨부 파일 필드

○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신청시스템(SCAS) 화면의 필드별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시스템은 크게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① 우선 지원자 정보, 사업 정보 중 카테고리화 가능한 메타 정보는 웹 입력으로, 긴 서술과 단체별 다양성 등으로 인해 카테고리화가 어려운 사업 내용 영역은 한글파일 첨부 방식으로 병행하고 있음. ② 다음으로 사업 신청단계의 정보 중 일부는 웹 기반 수집을 하고 있으나, 사업 진행 단계와 종료 단계의 정보는 회계 정산 외 웹 기반 수집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

○ 이렇게 볼 때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제는 ① 사업 내용 영역의 웹 기반 입력 및 자료 관리 체계 구축 ② 사업 진행 및 성과 정보의 웹 기반 입력 체계 구축이라고 볼 수 있음.

○ 관련 예시로 한양대학교 IC-PBL센터에서는 교내 과목 중 IC-PBL으로 지정된 모든 과목에 대해 학기 종료 후 지정된 웹 양식에 맞춰서 수업 정보를 입력하게 하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와 성적관리 시스템 등의 연동을 통해 교수학습 효과성을 자료 기반으로 분석하고, 우수 사례를 선별하여 공유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질 관리를 하고 있음.



한양대학교 IC-PBL 결과보고 웹 입력 화면

○ 문화예술교육 영역은 대학 수업보다 질적 데이터가 많을 수 있는바, 위의 예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현행 한글 파일 기반 서술 보고서는 작성 후 성과 분석을 위해 데이터화 과정이라는 부가 작업을 요구하는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음.

○ 또, 실행 과정에서의 유의할 지점은 아래와 같음.

실행과정 유의점

① 거버넌스 방식 진행

- 위와 같은 방식으로의 전환은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음.
- 실질적으로 웹 기반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반복적 정보의 불러오기 기능, 사업단체 스스로의 사업 히스토리 관리, 안정된 공적 스토리지에서의 자료의 안전한 장기 보관 등 장점이 있으나, 전환 초기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움.
-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울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예술교육단체 및 개인 예술가 등의 이해관계자가 함께 개발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로 진행되어야 함. 즉, 개발 후 사용성 테스트를 위해 현장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임.

② 목적 기반 데이터 구조 설계

- 웹 기반 체계로의 전환은 현재의 한글 양식을 온라인에 그대로 옮긴다는 것이 아니며, 온라인 UI로서의 홈페이지 개발의 의미가 아님.
- 웹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거기반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 만들기에 있으며, 데이터 수집을 통해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는지, 이를 위해 어떤 데이터를 웹 기반으로 수집해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함.

③ 예술교육센터와의 시스템 공유 검토

- 향후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 정책에서 예술교육센터의 비중은 매우 중요해질 전망임.
- 때문에 재단의 예술교육 영역 성과 분석에서 공모사업 파트만 분리하여 데이터 기반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현장의 예술교육단체/예술교육가를 지원하는 공모사업과 재단이 직영하는 예술교육센터의 운영 체계는 같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데이터 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공통 지표/데이터가 될 부분을 확인하고, 이후에 이들 공통 지표/데이터를 통해 재단의 예술교육 영역 전반의 성과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2. 2023-2027 공모사업 방향성 제언

가. 공모사업 개편 방향성

■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제2차 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 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공모 지원사업의 주요 방향 및 사업 제안을 도출하고자 함.

■ 미래 아젠다에 기반한 공모 지원사업 체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2020년대 한국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음. 지난 2년간 코로나가 휩쓸고 간 후유증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각종 사회격차가 본격적으로 심화되고, 2020년을 기점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본격적인 인구 자연감소 추세에 진입하였으며,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발달과 기후변화로 근본적 사회변화가 예고되는 등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급격한 전환을 맞이하고 있음. 때문에, 2023-2027 공모 지원사업은 장기적인 사회변화에 대비해 포석을 놓는다는 의미가 있음.

○ 특히 서울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삶의 형태나 관심사가 다른 세계적 수준의 도시들과 동기화되어 있는 상황이나 상대적으로 삶의 질 수준은 낮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공모 지원사업은 예술교육가 등 예술교육 현장 구성원들의 가장 중요한 동인(動因, motivation)으로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생태계가 미래를 위한 변화의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중요한 시기임.

○ 서울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가치와 철학을 학교예술교육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이전·확대하면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동시대 의제와 접목하겠다는 비전은 상당히 실험적인 도전을 통해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임. 국가 수탁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이 일어나는 지금이 미래 아젠다에 대비하는 서울형 사회문화예술교육 R&D 지원을 강화하기에 적기임.

○ 다만, 미래 아젠다를 사업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점진적 이행이 필요할 것인데, 변화가 급격할수록 문화예술교육생태계 내 격차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보다 포괄적인 생태계 구성원들이 진취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전환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 방안들이 공모 지원사업과 결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자치구, 예술교육가와 교육 수요자 등 현장이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문제를 탐색하면서 변화에 대응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임.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의 틀은 매우 경직된 형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과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에서 사업의 포용성과 유연성을 높이자고 이미 방향을 정한 상태임. 서울문화재단도 이러한 시대적 필요에 따라 지원사업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예술교육가나 자치구, 더 급진적으로는 교육 수요자들이 자율기획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상당한 정도로 신설 혹은 강화하여 운영하길 제안함.

■ 지원사업의 유연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슈들이 있음.

○ 저관여-고관여를 아울러 나타나는 통합형 자기주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보급형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 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세부적 규칙들을 완화하고 예술교육가들이 현장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기획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회차 구조, 참여자 모집 방식 및 규모, 진행 장소, 주제 등에서의 개방성이 요구되며, 이를 수용하기 위한 지원사업 트랙의 개발이 필요함.

○ 특히 자치구 지원사업의 경우, 자치구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예산 대부분을 공모사업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특정 목적의 공모사업 지원보다는 자치구 문화재단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중요함.

○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 중에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의 소프트웨어 지원보다 공간 지원, 기자재 지원 등 하드웨어 지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이를 위한 현실적인 행정지원 방법을 모색하길 권유함.

■ 자율기획 공모의 경우, 공모사업 참여주체의 프로젝트/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여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한 지점임. 대다수의 미래 아젠다는 예술교육가 역시 새롭게 학습해야 하는 영역으로 공모 지원사업 수행 과정 중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만남, 예술교육가 상호 간 연구·학습 및 교육 과정이 공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서울형 예술교육이 예술가의 창작 기반을 지향하고 있긴 하지만 창작지원 사업이 아닌 만큼, 실험적인 R&D 내용이 연구 및 창작 결과물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모색하는 것 역시 도전적 과제임.

○ 미래 아젠다의 학습 과정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의 공모 지원사업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음.

자율기획 공모 지원사업의 유형 예시

① 현장 자율형 연구 공모 지원사업

- 서울연구원의 작은연구 지원사업, 서울문화재단 예술인연구모임지원 사업처럼 연구 주체가 본인이 몸담고 있는 현장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연구주제 선정 및 연구방법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지원 방법이 있음.
- 이러한 종류의 지원 사업은 비교적 소액인 지원 금액에 비해 현장 수요가 매우 높은 편이며 관행적인 행정 지원 분야 카테고리를 넘어서는 다양한 연구 주제가 가시화되는 장점이 있음.

② 공동학습 모임(세미나형) 기반 교육 프로그램 실행 공모 지원사업

- R&D 과정과 교육 프로그램 실행 과정을 통합한 형태의 공모사업이라 볼 수 있으며, 미래 아젠다 공동 학습과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형태
- 예술교육가들도 학습이 필요한 미래 아젠다를 다룰 경우, 교육 기획과 수행에 앞서 교육 주제에 관한 참여자들 간 공동 학습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제안했던 교육 프로그램을 현실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음.
- 교육 수행 중에도 학습 모임을 정기화하여 교육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현상과 해

결 방안을 공유하고, 교육 결과 환류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한다면 동시대의 새로운 아젠다를 다루어보고 싶은 예술교육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

- 이렇게 연구와 교육 수행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들을 위해 학습모임의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할 수 있으며, 기록 공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 및 기록물 배포 방안이 공모사업 공시 전에 기획되면 훨씬 효과적일 것임.

③ 자율 연구 기반 교육 프로그램 실행 공모 지원사업

- 지속적인 공동학습은 생업에 종사하는 기초문화재단 직원뿐 아니라 예술교육가 및 예술교육단체에게 시간적 부담이 큰 활동일 수 있음.
- 잦은 공동학습의 부담은 줄이되, 미래 아젠다에 관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사업 제안서에 제안 주체의 자율 연구 계획을 포함하도록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R&D에 익숙하지 않은 자치구 및 예술교육가들은 자율 연구 계획이 어려울 수 있음. 제출한 교육 사업 제안을 검증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적합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관해서 컨설팅이 제공되어야 할 수 있음. 연구방법론은 예술적 리서치, 현장견학, 포럼과 세미나, 초청강의, 학습모임, 설문 설계 및 계량 분석 등으로 매우 다양함.
- 교육 프로그램 아젠다 발굴 → 연구와 교육 사업 기획 → 시범 프로그램 운영 → 결과 환류까지의 긴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2년 연차별 지원도 고려할 만함. 예를 들어, 아젠다 발굴 과정에서 폭넓은 개인 및 단체가 아이디어를 펼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 및 교육 사업 기획 심의를 통해 2년 차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음.

■ 교육대상의 확대뿐 아니라 교육대상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 제공이 중요함.

○ 미래 아젠다와 관련해 특히 중요한 사안은 사회의 다양성 증진에 따른 교육대상 다변화라 할 수 있음. 다변화된 수요자 욕구 대응을 위해 생애주기 모델이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유아, 신중년 등 세대 기반 정책이 펼쳐지고 있음.

○ 그러나 세대별 코호트로 교육대상을 범주화하는 것만으로는 교육대상 다양성을 충분히 포함하기 어려움. 동일한 연령대 안에서도 성별·인종 등의 정체성 차이, 경제적 차이, 종교의 차이, 장애 여부,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차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요구와 활동 양상을 보일 수 있음. 때문에, 생애주기 모델을 유일한 교육 정책 모델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세대 혼합 교육 모델, 문화예술교육 관여 깊이에 따른 교육 모델,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교육 모델 등 수요자에게 다각도로 접근하는 정책 모델들을 개발하고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대상별 교육 모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술교육가가 실제 다변화된 교육 대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관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예술교육가 개인 역량만으로는 급격하게 증대하는 다양성에 대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여러 교육대상을 탐구하고 겪어보는 과정을 지원하는 일이 필요해 보임. 예를 들어, 서울문화재단과 예술교육가가 함께 새로운 교육대상을 발굴하고 리서치하는 과정 지원을 설계하거나, 교육대상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높은 강사[110]

를 초빙해 공모사업 참여자들에게 사전 특강을 제공하거나, 예술교육가와 고관여 수혜자가 대화를 나누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예술교육가의 지원을 통한 성장이 서울형 예술교육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임.

○ 세계 유수 도시보다 예술가가 특히 많은 서울의 특징을 고려할 때, 예술가의 적절한 기용과 성장은 서울형 예술교육의 든든한 토대가 되어줄 수 있음.

○ 예술가 지원과 관련해 학교예술교육TA로 브랜드 가치를 쌓아온 재단 입장에서는 학교예술교육TA에서 이미 검증된 예술교육가 대상 지원 방식을 유지 및 확대하는 일이 중요함.

○ 학교예술교육TA가 일몰된 상황을 위기이자 기회로 삼아 향후 5년간 다양한 사회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여러 유형의 TA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용해보고 효과적인 분야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나가길 권유함.

■ 자치구 공모 지원사업은 미래 아젠다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미관여자와 고관여자 등 종합적 요소를 고려해야 함.

○ 자치구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자치구 문화재단과 예술교육가들이 함께 지역의 맥락 및 주민 수요를 충분히 리서치하고 변화한 사회환경에 발맞추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이때, R&D 방향성은 ①지역 생활권에서 보다 많은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발생할 수 있도록 미관여자가 쉽게 접근/입문할 수 있는 단발적 프로그램 개발과 ②이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관여자들의 통합예술교육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투트랙이 모두 필요함.

나. 2023-2027 공모 지원사업(안)

■ 제언한 개편 방향성을 반영해 향후 5년간 공모 지원사업의 주요 목표와 사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표 31] 2023-2027 주요 공모지원 사업 제안

목적	사업 영역	참여 대상	주요 내용
아젠다 기반 서울형 예술교육 탐색	자율기획형1 (세미나+실행 통합형 공모)	예술교육가 (개인), 기초문화재단 담당자 등	• 연구와 실행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미래 아젠다를 학습하고 교육 방법론을 개발하는 사업 • 공모 참여자들로 구성된 주기적 세미나 참가 필수 • 세미나를 통해 교육 기획 및 실행 과정을 주기적으로 peer 리뷰 • 교육 프로그램 실행 중에도 주기적으로 peer 리뷰를 진행하여 교육 현장 관찰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즉각 환류 • 세미나 구성원들이 보완하길 원하는 교육 내용에 관해 특강 등 지원

110) 노인복지 전문가 및 노인 문화예술 활동가, 청년 활동가, 여성 분야 전문가, 문화예술 팬덤 전문가 등

목적	사업 영역	참여 대상	주요 내용
아젠다 기반 서울형 예술교육 탐색	자율기획형2 (R&D→실행 단계별 지원)	예술교육단체	• 예술교육단체의 자율 연구 기반 미래 아젠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사업 • 전형적인 장르 기반 등 기존 문화예술교육의 형식과 틀을 뛰어넘는 프로젝트 제안형 • 기후변화 등 동시대 의제에 가산점 부여 • 교육사업 제안을 심사하여 단체를 선정하되, 제출한 교육사업 제안의 현실성을 검증하는 연구 과정을 일정기간 진행 • 프로젝트 리서치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장기간이 필요함. 연차별 연속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 있음. • 1차 심사 후 2차 심사까지 적합한 연구방법의 설계와 연구진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
수요 다양화	교육대상 이해를 위한 아카이빙 프로젝트 공모	TA, 예술교육가 (개인), 예술교육단체	• 다변화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대상에 관해 발굴-리서치-아카이빙하는 프로젝트 공모 • 다양한 교육 대상에 관한 선행 연구자료의 분석 및 인터뷰 내용, 선행 교육 프로그램 사례의 수집 및 분석 내용을 아카이빙하고 배포하는 프로젝트
	생애주기 교육 프로그램 지원	예술교육단체	• 세대별 수요 충족을 위한 교육 실행 프로그램 공모 • 유아,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전연령층 대상의 자유 공모 • 세대별 분리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가, 세대에 따른 생애 과업을 적절하게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섞여 생애 과업 해결이 더 원활해진다면 세대 혼합 교육 역시 가능함
	교육대상 다변화 프로그램 지원	예술교육가 (개인), 예술교육단체	• 생애주기 프로그램에 포함되기 어려운 다변화된 수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공모 • 직장인, 청년, 여성, 이주민, 장애인 등 정체성 기반의 교육 대상 • 1인가구 등 달라지는 사회환경으로 부각되고 있는 교육대상 • 포스트코로나 및 메트로폴리탄 서울의 생활양식 포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예술교육센터 위상 안정화 및 지역 협력 연계	예술교육센터 공간활용 지원 공모	예술교육단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과 유사하게 실험적인 사회문화예술교육 개발의 의지를 가진 단체를 상주하게 하는 방안 • 예술교육단체 수요 충족과 동시에 협력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함. • 개인 지원인 상주형 TA와는 다르게 단체와 연계함
	기관 대상 서울형 예술교육 개발·운영 공모	예술교육단체	• 광역 범위에서 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기관이 서울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공모 개발 및 운영 • 시민 개개인이 아닌 기관 단위 방문을 유도해 예술교육센터 활용률 및 위상 제고 • 장기적으로는 예술교육센터와 기관과의 협력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목적	사업 영역	참여 대상	주요 내용
서울형 예술교육의 지역화	자치구 예술교육 기반조성 공모	자치구	• 거점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등 예술교육 기반강화 • 자치구 문화재단의 사업 편성 자율권 보장 • 예술교육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접근성 높은 교육 수단 제공 • 미-저관여자를 위한 일상권 통합예술교육 개발 및 운영은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성
	사회문화 예술교육TA 공모	예술교육가 (개인)	• 새로운 파트너십 발굴과 연계로 지역예술교육TA 외 다양한 사회문화예술교육TA 유형 개발 및 효과성 검증 • 학교예술교육TA 지원과 마찬가지로 예술교육가가 교육 기획과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연구 활동비, 프로그램 운영비, 전용 연구개발 공간,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 미관여자 대상 서울형 예술교육 경험 기회 확대는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성
기술사회 대응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혁신 프로젝트 공모	예술교육가 (개인), 예술교육단체	• 시민과 예술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 연구·개발 및 시범 운영 • 디지털 윤리의 이해,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목표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R&D 사업 • 기술과 생태 등의 문제를 다루는 아트앤테크 예술가들과의 연계 • 개발된 프로그램은 학교 등 기관 수요와 연계 가능

참고문헌

1. 김진환, 「서울형 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5가지 키워드」, 『2022 서울예술교육페스티벌 오픈포럼 '미래를 향한 100개의 질문'』 발제문, 서울문화재단, 2022.10.17.
2. 김태현,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심화과정』, 법제처, 2011.
3. 김혜인·차민경, 「제2차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2023~2027) 수립연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2.11.09.
4. 류정아, 「서울시 문화관광분야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 전략 및 방안」, 『제1차 도시경쟁력 포럼』 발제자료집, 서울연구원. 2022.05.03.
5. 메이븐스퀘어, 「2021 문화예술교육 단체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
6. 백선혜 외, 「서울시-자치구 간 문화정책 협력방안」, 서울싱크탱크협의체, 2022.05.
7. 백선혜, 「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구상(안) 추진경과」,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1차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서울연구원, 2022.12.15.
8. 변미리 외, 「도시경쟁력 진단에 근거한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 서울, 베이징, 상하이, 도쿄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2021.10.
9. 서우석 외, 「서울시 자치구문화재단 현황 기초연구」, 서울문화재단, 2020.
10.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서울형 예술교육〉 사업 현황 보고」, 서울문화재단 내부 문서. 2022.09.21.
11.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2018~2022)」, 서울시 결재문서, 2018.12.20.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6821395
12. 심현숙, 「브랜드 체험이 브랜드 개성 및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 - 제품군과 소비자 관여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제 23권 제1호』, 2016.
13. 예술경영지원센터, 「2008년 연극·뮤지컬 관람객조사 보고서 - 마케팅 관점에서」, 2008.
14. 오 균, 「서울시 도시경쟁력 관리 방향」, 『제1차 도시경쟁력 포럼』 발제자료집, 서울연구원. 2022.05.03.
15. 오진이, 「기초문화재단 예술교육 현황과 사례」, 『2022 서울예술교육페스티벌 오픈포럼 '미래를 향한 100개의 질문'』 발제문, 서울문화재단, 2022.10.17.
16. 임승희 외,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연구 - 토요문화학교 사업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30호』, 2013.
17. 임학순 외, 「서울형 예술교육 2.0」, 서울문화재단, 2019.
18. 차민경·김소연·김인설·연수현·유은지(2021),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2-202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12.15.
19. 프로젝트 궁리,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현황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2018~2020 서울시민예술대학, 지역특성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선정단체 중심으로」, 서울문화재단, 2020.

2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2차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2023~2027) 수립연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토론회 자료집, 2022.11.09.
2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2019.
2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 문화예술교육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2.
2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 문화예술교육 효과 메타분석 연구」, 2021.
2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이행현황 분석 연구」, 2021.12.

<부록 1> 시니어용 서면 설문지

서울 문화예술교육 참여시민 실태·수요 조사 (큰 글씨용)

ID : | | | | | | |

안녕하십니까? 서울문화재단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과 다양한 장르, 분야를 연계한 통합예술교육을 지향하며 예술(교육)가의 창작활동에서 확장된 예술교육을 통해 예술가와 시민들의 교류, 시민들의 미적체험과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에 참여하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답에는 약 15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조사 결과는 통계법 33조에 의거 연구에 참고만 할 뿐 다른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전체 통계 결과만을 인용하고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11월

☎ 조사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조사업체 ㈜알프스 운영이사 설동준	02-3141-5196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지원팀 라하령 주임	02-758-2128

먼저 응답자의 기본정보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1. 귀하의 연령대를 선택해 주세요.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1-2. 귀하의 성별을 선택해 주세요.

☐ 남성 ☐ 여성 ☐ 밝히지 않음 ☐ 직접 쓰기 _____

1-3.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해 주세요.

도심권	① 종로구 □	② 중구 □	③ 용산구 □	
동북권	④ 성동구 □	⑤ 광진구 □	⑥ 동대문구 □	⑦ 중랑구 □
	⑧ 성북구 □	⑨ 강북구 □	⑩ 도봉구 □	⑪ 노원구 □
서북권	⑫ 은평구 □	⑬ 서대문구 □	⑭ 마포구 □	
서남권	⑮ 양천구 □	⑯ 강서구 □	⑰ 구로구 □	⑱ 금천구 □
	⑲ 영등포구 □	⑳ 동작구 □	㉑ 관악구 □	
동남권	㉒ 서초구 □	㉓ 강남구 □	㉔ 송파구 □	㉕ 강동구 □
서울 외	㉖ 서울 외 □			

1-4.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인가요?

① 학생(취업준비생 포함) ② 주 5일 출근 근무자 ③ 재택병행 근무자
④ 자영업자 ⑤ 프리랜서 ⑥ 전업주부 ⑦ 은퇴자
⑧ 휴직 또는 쉬는 중 ⑨ 기타_____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관심도 및 교육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현재 귀하는 문화예술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지금까지 살면서 접해왔던 문화예술교육을 떠올려보시고 대략 답변해 주세요.

**본 설문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뜻 - 예술가, 예술교육 실천가, 예술강사, 예술교사 등과 함께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전혀 관심 없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관심 있다

※ 다음은 귀하와 귀하 가족이 문화예술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렇다	아니다
2-2. 귀하는 문화예술 또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직업을 갖고 있나요?	①	②
2-3. 귀하의 가족 중 문화예술 또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직업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①	②
2-4. 귀하의 가족 분위기는 문화예술 또는 문화예술교육에 호의적인가요?	①	②

2-5. 귀하가 어릴 때 살던 집에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도구들이 얼마나 있었나요? ** 책, 음반, 그림 재료, 악기, 목공 도구, 재봉 도구 등*

전혀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많았다

2-6. 귀하는 생활하면서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정보를 얻거나 본인이 정보를 공유하시나요? ** 친구, 이웃, 직장동료, 인터넷카페, SNS 등*

거의 안 한다	①	②	③	④	⑤	자주 한다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간 및 활동 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화예술교육을 얼마나 경험하셨는지 아래 단계별로 체크해 주세요. ** 공교육·사교육·평생교육 등 모두 포함*

	경험 없음	보통	자주 경험	나이가 안 됨
3-1. 유아·아동기 (5세~13세)	①	②	③	
3-2. 중·고등/청소년 시기 (14~19세)	①	②	③	
3-3. 청년기 (20~39세)	①	②	③	④
3-4. 중장년기 (40세~64세)	①	②	③	④
3-5. 노년기 (65세 이상)	①	②	③	④

3-6. 지난 1년 간 문화예술교육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셨나요?

① 일주일에 1~2회 이상 ② 한 달에 2~3회 정도
③ 한 달에 1회 정도 ④ 2~3개월에 1회 정도
⑤ 4~5개월에 1회 정도 ⑥ 6개월에 1회 이하

3-7. 한 달에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 보통 얼마나 되시나요? *※수강료, 교통비, 식비 등 활동 전반에 걸친 비용 모두 포함*

① 1만원 미만 ② 1만원 이상~3만원 미만
③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④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⑤ 10만원 이상~20만원 이하 ⑥ 20만원 이상~30만원 이하
⑦ 30만원 이상

다음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했던 장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4-1. 지금까지 참여했던 문화예술교육은 주로 어디서 진행되었나요? (최대 3개 선택)

① 문화예술교육센터, 문화복합공간
② 예술가 또는 예술 강사의 공방, 작업실, 연습실
③ 학교
④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전문예술 공간
⑤ 도서관
⑥ 주민자치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문화 시설
⑦ 평생학습기관, 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복지 시설
⑧ 예술학원, 강습소
⑨ 백화점, 대형마트, 신문사, 방송사 등의 문화센터
⑩ 줌(ZOOM), 메타버스, 유투브 등을 이용한 온라인 공간
** 메타버스: 제페토, 게더타운, 로블럭스 등*
⑪ 기타_____

4-2. 다음 중 방문해보신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공간이 있다면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서울예술치유허브
②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③ 서울예술교육센터 (용산구 위치, 감정서가/아츠포틴즈)
④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서울호수공원 근처)
⑤ 없음

다음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이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5-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주요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최대 3개 선택)

① 내가 관심을 가진 무료 교육을 직접 찾는다
② 내가 관심 가진 유료 교육서비스를 구매한다
③ 집, 학교, 직장 주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호기심이 생긴다
④ 관심 있는 공간에서 진행된다 (예. 교육센터, 복합문화공간)
⑤ 부모님이 권하신다

⑥ 친구가 권한다
⑦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⑧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 고른다
⑨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⑩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투브 등을 통해 관심을 갖게 된다
⑪ 잘 모르겠다
⑫ 기타 _____

5-2. 귀하가 문화예술교육에 계속 참여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대 3개 선택)

① 문화예술에 관한 깊이 있는 지식과 나만의 취향을 얻게 되어서
② 문화예술을 통해 세상과 인간들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어서
③ 예술적 기예를 쌓고 싶어서
④ 예술가 혹은 예술교육가와 함께 활동할 수 있어서
⑤ 나의 여가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게 되어서
⑥ 집, 학교, 직장 주변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어서
⑦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서
⑧ 교육을 통해 새롭고 재미있는 사람들을 알게 되어서
⑨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신체가 건강해지고 일상이 풍부해져서
⑩ 기타_____

5-3.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데 주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최대 3개 선택)

① 시간 부족 (예. 직장 휴가 필요, 바쁜 일정으로 시간 여유 없음)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시간대/요일이 한정적
③ 비용이 많이 들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음
④ 교육 프로그램 정보 부족
⑤ 관심 있는 교육 프로그램 부족
⑥ 프로그램 수강 신청자가 너무 많아 참여가 어렵거나 너무 적어 폐강
⑦ 혼자 참여하는 것의 부담
⑧ 이동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
⑨ 기타_____

다음은 참여했던 문화예술교육 유형 및 주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 지금까지 어떤 유형의 문화예술교육을 더 많이 경험하셨나요?
왼쪽과 오른쪽 유형을 비교해보고 더 가까운 쪽의 번호를 체크해 주세요.

6-1.	모여서 수업하지만 개인 학습·활동	← ① - ② - ③ - ④ - ⑤ →	공동대화, 공동협업 교육
6-2.	단일장르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통합(융합) 교육
	**단일장르 교육: 음악, 미술, 문학 등 하나의 장르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통합(융합) 교육: 하나의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 교육요소, 예술과 인문 등을 통합한 예술교육활동 (ex. 연극과 공기 채집, 음악과 수학 등)*		
6-3.	감상, 관람, 체험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창작 교육
6-4.	지식 전달, 반복연습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자기주도 교육 (자유놀이, 활동, 프로젝트 등)

6-5. 지금까지 참여했던 문화예술교육에서 일상 속 사회 이슈를 다룬 적이 있나요? * 환경과 기후, SNS, 지역, 계급이나 세대, 다양성, 차별과 혐오 등

대부분의 교육에서 다루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거의 모든 교육에서 다루었다

6-6. 지금까지 참여했던 문화예술교육에서 다른 참여자들, 친구, 동네나 마을 이웃과 관계를 맺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대부분의 교육에 포함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거의 모든 교육에 포함되어 있었다

6-7. 지금까지 참여했던 문화예술교육 장르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연극 □	② 뮤지컬 □	③ 무용 □	④ 음악 □
⑤ 전통예술 □	⑥ 문학 □	⑦ 미술 □	⑧ 공예 □
⑨ 사진 □	⑩ 영상 □	⑪ 미디어아트 □	⑫ 통합(융합) □
⑬ 기타 (_____)			

**통합(융합)장르 : 하나의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 교육요소, 예술과 인문 등을 통합한 예술교육활동 (ex. 연극과 공기 채집, 음악과 수학 등)*

다음은 앞으로 배우고 싶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7-1. 앞으로 교육받고 싶은 문화예술교육 공간은 어떤 곳인가요?
(최대 3개 선택)

① 문화예술교육센터, 문화복합공간
② 예술가 또는 예술 강사의 공방, 작업실, 연습실
③ 학교
④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전문예술 공간
⑤ 도서관
⑥ 주민자치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문화 시설
⑦ 평생학습기관, 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복지 시설
⑧ 예술학원, 강습소
⑨ 백화점, 대형마트, 신문사, 방송사 등의 문화센터
⑩ 줌(ZOOM), 메타버스, 유투브 등을 이용한 온라인 공간
** 메타버스: 제페토, 게더타운, 로블럭스 등*
⑪ 기타_____

※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유형에 가까운가요?

7-2.	모여서 수업하지만 개인 학습·활동	← ① - ② - ③ - ④ - ⑤ →	공동대화, 공동협업 교육
7-3.	단일장르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통합(융합) 교육
	**단일장르 교육: 음악, 미술, 문학 등 하나의 장르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통합(융합) 교육: 하나의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 교육요소, 예술과 인문 등을 통합한 예술교육활동 (ex. 연극과 공기 채집, 음악과 수학 등)*		
7-4.	감상, 관람, 체험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창작 교육
7-5.	지식 전달, 반복연습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자기주도 교육 (자유놀이, 활동, 프로젝트)

7-6. 앞으로 일상 속 사회 이슈를 다루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나요? * 환경과 기후, SNS, 지역, 계급이나 세대, 다양성, 차별과 혐오 등

전혀 참여의사 없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참여하고 싶다

7-7. 앞으로 교육 참여자, 이웃, 친구 등과 관계를 맺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나요?

전혀 참여의사 없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참여하고 싶다

7-8.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교육 장르를 선택해 주세요.
(최대 3개 선택)

① 연극 □	② 뮤지컬 □	③ 무용 □	④ 음악 □
⑤ 전통예술 □	⑥ 문학 □	⑦ 미술 □	⑧ 공예 □
⑨ 사진 □	⑩ 영상 □	⑪ 미디어아트 □	⑫ 통합(융합) □
⑬ 기타 (_____)			

**통합(융합)형: 하나의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 교육요소, 예술과 인문 등을 통합한 예술교육활동 (ex. 연극과 공기 채집, 음악과 수학 등)*

다음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해서 나에게 생긴 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나에게 생긴 변화가 있나요?
각 문항별로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는지 점수를 매겨주세요.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8-1.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나에 대해 생각할 계기를 갖게 되고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2. 나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면서 시각, 후각, 미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더 잘 느끼고 활용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3.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나의 긍정적·부정적 감정을 전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잘 다룰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8-4. 나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사용하지 않던 몸의 여러 부위에 관심이 생겼고, 신체 활동에 더 흥미를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5. 나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이후 궁금한 것이 더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8-6. 나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이후 재미있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7. 나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이후 나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것에 관심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8-8. 나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다.	①	②	③	④	⑤
8-9. 나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을 듣는 일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다.	①	②	③	④	⑤
8-10. 나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면서 전보다 행복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변화한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예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아래 항목별로 응답해 주세요.

	그렇다	아니다	참여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다	잘 모르겠다
9-1.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면서 예술이 단순히 미술, 음악, 무용 등 특정 장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9-2.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면서 예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순수영역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9-3.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면서 예술은 예술적 재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그렇다	아니다	참여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다	잘 모르겠다
9-4.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면서 문화예술은 여유(경제적, 시간적)가 있는 사람들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 문화예술교육 참여 후 문화예술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아래 항목별로 응답해 주세요.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9-5. 예술, 예술가, 창작 활동에 대해 예전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9-6. 문화예술에 대한 흥미가 더 커졌다.	①	②	③	④	⑤
9-7. 예술 감상 등 예술을 향유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났다.	①	②	③	④	⑤
9-8. 문화예술교육에 시간을 더 쓰고 싶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9-9. 문화예술교육에 비용을 더 쓰고 싶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9-10.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새롭게 알게 되거나 관심을 갖게 된 분야가 있다면 아래 보기 중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우울, 자살 등 정신건강 □	② 가족, 친구, 이웃 등 대인관계 갈등 관리 □
③ 동네, 마을 등 지역사회 공동 관심사 □	④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
⑤ 지역불균형 □	⑥ 문화격차 □
⑦ 인권침해 □	⑧ 성평등 □
⑨ 저출생 □	⑩ 고령화 □
⑪ 없음	⑫ 기타 (_____)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FGI 대상별 질문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서울시민예술대학 사업 매개자(문화예술교육자) 그룹 FGI 질문지

■ 예술교육 시작, 지향점, 가치

○ 예술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간의 경험에서 결정적 장면/사건은 무엇인지?

○ 행복감 증진, 창의성 촉진, 소통 능력 향상, 미래 예술 소비자 개발 등의 '효과성'에 기여한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예술교육에서 "사회적 효과성", 혹은 "효과성"을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성장

○ 주로 함께 한 교육 참여자는 어떤 그룹인지? 왜 그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했는지? 대상자 변화, 확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지?

○ 서울 외 지역에서 예술교육 경험이 있는가? 있다면 지역별로 참여자의 특성이 다르다고 느끼는가?

○ 교육 대상자/참여자의 니즈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은 어떻게 하는지?

○ 교육 참여자 파악, 모집, 관리, 관계 형성, 관계 유지 등의 측면에서 현행 지원사업 체계가 가지고 있는 유효성과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그간의 예술교육 경험에 비추어볼 때, 교육 참여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지? (예. 정말로 예술교육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 비중이 높은 것 같다 등)

○ 본인(단체)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포지셔닝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 심화 성격, 지역 내 타 프로그램과 연계형 등. 혹은 본인(단체)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권유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 진행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장르 성격은 어떤지?

○ 장르 융복합 작업을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왜인지? (의향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예술교육자로서의 역량 강화, 성장의 측면에서 현행 지원사업 체계가 가지고 있는 유효성과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서울문화재단과의 소통, 협의 등은 원활하다고 생각하는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는가?

■ 서울형, 그리고 지역화, 의제화

○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 광역 단위(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이 축소되고, 기초문화재단(OO구 문화재단) 사업 비중이 확대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역 커뮤니티와의 관계 형성의 필요를 느끼는지? (느낀다면) 어떤 이유인지?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의제 중심, 기술발전과 문화예술, 문화다양성,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 뉴노멀시대의사회회복력(예술치유), 사회갈등과 포용사회 등의 (사회이슈와 관련이 있는) 지정 주제 예술교육 공모사업이 추진된다면 어떨 것 같은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서울시민예술대학 사업 매개자(문화예술교육자) 그룹 '추가' FGI 질문지

■ 예술교육 시작, 지향, 개념

○ 예술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 경력, 그간의 경험에서 결정적 장면/사건은 무엇인지?

○ 주로 진행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주제, 방식(창작 지향-교양적 학습 지향, 개인학습 지향-그룹학습 지향, 단일장르 지향-다장르 통합 지향 등)은 어떠한가?

○ 서울문화재단의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이라는 개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적체험, 통합예술교육을 구체적으로 구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을 현장의 예술교육자/단체가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예술교육자인 동시에 창작/실연 예술가인 입장에서, 예술 창작/실연과 예술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나?

○ 개인을 넘어선 직업적 예술단체 측면에서 예술 창작/실연과 예술교육 활동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나?

■ 예술교육과 로컬/커뮤니티, 지속가능성

○ 단체 혹은 인터뷰이 개인의 소재지, 주활동지의 지역 커뮤니티와 관계망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예술교육 활동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 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실행 주체가 광역 문화재단에서 기초 자치구 문화재단으로 서서히 전환된다면 예술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가? 광역 재단과 기초 재단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예술교육 참여자들이 공식적 교육 프로그램 과정 후에도 활동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가? 그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당 수요에 대응하는가?

○ 예술교육자와 예술교육 참여자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예술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서울형, 서울문화재단

○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정책/사업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 예술교육 현장의 개선/발전을 위해 서울문화재단에 제언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학교예술교육TA, 지역예술교육TA 매개자(문화예술교육자) 그룹 FGI 질문지

■ 예술교육 시작, 지향점, 가치

○ 예술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간의 경험에서 결정적 장면/사건은 무엇인지?

○ 예술교육이 행복감 증진, 창의성 촉진, 소통 능력 향상, 미래 예술 소비자 개발 등의 '효과성'에 도움이된다는 (정책적)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예술창작과 예술교육은 다른 것인지? 예술교육자와 교육참여자의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예술교육 TA 경험과 의미

○ 예술교육 TA, PL 활동에 대해 지인들(주변 아티스트, 관계자, 혹은 그냥 내가 하는 일을 궁금해하는 지인)에게 어떻게 소개/설명하는지?

○ 서울예술교육 (학교/지역) TA 활동을 통해 예술교육, 예술에 관한 본인의 관점, 태도 등이 변한 것이 있는지?

○ 지금 본인의 예술교육 활동, 예술적 실천이 서울예술교육 (학교/지역) TA 활동 이전과 달라졌다고 생각하는가?

○ 서울예술교육 (학교/지역) TA과 비교해볼 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등의 공모사업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느껴지나?

■ 서울예술교육 참여자 및 고관여자

○ 서울의 어떤 지역에서 예술교육 수업을 진행했는지? 서울의 권역별, 지역별 예술교육 참여자들의 특징, 예술교육 환경의 차이점이 있다고 느꼈는지?

○ 그간의 예술교육 경험에 비추어볼 때, 예술교육 고관여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 ※ 본 연구에서 고관여자 정의(안)
> : 통계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시간, 비용을 많이 투입하는 사람

■ 서울형, 그리고 지역화, 의제화

○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서울시민예술대학 등의 공모 프로그램의 고유한 성격과 목적과 취지가 잘 이해되는지? 실제 예술교육 현장은 공모사업의 취지와 일치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지?

○ 광역 단위(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이 축소되고, 기초문화재단(OO구 문화재단) 사업 비중이 확대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 형성의 필요를 느끼는지? (느낀다면) 어떤 이유인지?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의제 중심, 기술발전과 문화예술, 문화다양성,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 뉴노멀시대의사회회복력(예술치유), 사회갈등과 포용사회 등의 (사회이슈와 관련이 있는) 지정 주제 예술교육 공모사업이 추진된다면 어떨 것 같은지?

기초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사업 담당자 그룹 FGI 질문지

○ 재단 내 문화예술사업/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자원의 상황은 어떠한가?

○ 재단/자치구 내 문화예술교육사업/정책의 중단기(5년 내) 목표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 생활문화센터, 문화원, 구립/공립 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평생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 단체, 마을거점 시설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진행하는 민관의 다양한 조직체와의 협력망/관계망이 있는가? 이런 관계망 안에서 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가?

○ 자치구 내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이 있는가? 있다면 그 형태는 무엇인가? 공간? 단체? 사업? 기관?

○ 재단의 문화예술교육사업과 생활문화사업의 변별은 있는가? 여기에서 예술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상정되는가?

○ 문화예술교육 고관여자(열성 참여자)은 누구인가? 혹은 (자치구 내 상황을 볼 때) 누구라고 추정하는가?

○ 광역 단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기초 단위로 (장기적으로) 이관된다고 했을 때, 긍정적 전망과 우려 지점은 각각 무엇인가?

○ 문화예술교육사업/정책 추진에서 서울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관계 및 역할 설정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문화예술교육 정책전문가 그룹 FGI 질문지

■ 서울문화재단의 미적체험교육에 관해

○ (이상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 모두에서) 서울문화재단이 지향하는 미적체험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미적체험 교육과 예술교육의 일반적 행정 체계는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가?

■ 예술교육, 문화교육의 개념적 모호함에 관해

○ 삶의 문해력, 문화시민력 등 1차 정책 기간의 지향점은 변화하는 예술의 개념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일종의 시민교육 또는 문화교육적 지향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동시대 예술지원 정책에서 예술과 사회의 만남은 계속해서 권고되는 방향이기도 한데, 예술교육 정책 측면에서 이러한 흐름의 의미와 우려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 예술교육과 예술창작(작업)의 경계 이슈

○ 예술교육과 예술창작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혹은 어떤 관계 설정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교육 중심 예술교육자보다 창작 중심 예술가가 예술교육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의 의미와 가치,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예술교육 정책 및 사업에서 전제되는 '교육'의 개념/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예술창작 지원사업과 유사한 체계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는가? 예를 들어 창작 지원은 (창작)결과물 지원이기 때문에 결과물을 보고(report)하고, 교육은 과정 지원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아닌 과정을 보고하는 방식이다. 또, 교육은 과정지원이기 때문에 과정에 관한 계획(회차별 교육계획안 등)을 제출하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예술교육과 예술창작(작업)은 지원하는 대상(결과물

vs. 과정)이 다른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가?

■ 거점 중심 운영, 기초 단위 점진적 이양 이슈

○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에서 용산, 서서울예술교육센터를 비롯해, 거점 운영의 비중이 상당하고 앞으로도 커질 전망이다. 거대 도시로서의 서울이라는 관점에서 예술교육 거점 센터의 기능, 역할, 타 사업과의 관계는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광역문화재단인 서울문화재단의 직접 사업 비중을 줄이고, 기초 문화재단으로 개별 사업 운영의 권한과 자원을 점차적으로 이양하는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광역이 주도권을 가질 영역과 기초로 이양해야 할 영역의 기준을 잡는다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 예술교육 고관여자

○ 예술교육 고관여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예술교육 정책과 사업이 예술교육 고관여자의 형성, 유지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가?

○ 예술교육 정책과 생활문화정책의 관계는 무엇이어야 한다고 보는가?

■ 서울형 예술교육

○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의 고유한 정체성, 일종의 '서울형 예술교육'의 상(狀)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 서울형 예술교육의 고유성 측면에서 서울문화재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뒷 표지 (별도 양식 없음)